

2023년 한국실학학회·실학박물관  
공동학술대회

# 낙하생 이학규, 학문과 문학의 재조명

2023.4.8.(토)  
13: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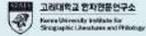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132호

2023년 한국실학학회·실학박물관 공동학술대회

낙하생 이학규, 학문과 문학의 재조명

한국실학학회·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실학박물관·경기문화재단

韓國實學學會



韓國實學學會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실학박물관



경기문화재단

■ 2023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 2023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낙하생 이학규, 학문과 문학의 재조명”

일시 ■ 2023년 4월 8일(토) 13:00-18:00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132호

유튜브 채널 (고려대학교 한문학과TV [www.youtube.com/channel/UCLLNe7w6nNoQWM9UTxjYxw](http://www.youtube.com/channel/UCLLNe7w6nNoQWM9UTxjYxw))

주최 ■ 한국실학학회, (재)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주관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 ■ 일정

<b>등록 및 개회</b>		사회: 이송희(고려대)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정성희 (실학박물관 관장)
<b>기획발표 1부</b>		
13:30-14:00	정우봉(고려대)	<기조강연> 낙하생 이학규의 학문과 문학의 지향 및 앞으로의 과제
14:00-14:20	정용건(강원대)	이학규의 지역 학풍을 향한 시선과 그 진작(振作) 의지
14:20-14:40	이국진(강원대)	이학규의 <감사삼십사장(感事三十四章)>에 담긴 내용과 문학적 의미
14:40-14:50	휴식	
<b>기획발표 2부</b>		
14:50-15:10	정은주(영남대)	근기남인 실학파의 지식 계보와 이학규의 유서(類書) 창작
15:10-15:30	김하라(연세대)	이학규의 <동사일지(東事日知)>와 유배지의 공부
15:30-15:50	김보경(인제대)	이학규 작품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여성
15:50-16:10	휴식	
<b>종합토론</b>		좌장: 신익철(한국학중앙연구원)
16:10-17:30	김종민(성균관대), 김효정(단국대) 오보라(퇴계학연구원), 이현일(성균관대), 손혜리(한국학중앙연구원)	
<b>폐회</b>		
17:30-17:40	연구윤리교육	
17:40-17:50	폐회사	윤재민 (한국실학학회 회장)
<b>정기총회</b>		
17:50-18:00	정기총회	

2023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낙하생 이학규, 학문과 문학의 재조명”

기획발표 1부

- 정우봉(고려대)  
<기조강연> 낙하생 이학규의 학문과 문학의 지향 및 앞으로의 과제…………… 1
- 정용건(강원대)  
이학규의 지역 학풍을 향한 시선과 그 진작(振作) 의지…………… 24
- 이국진(강원대)  
이학규의 <감사삼십사장(感事三十四章)>에 담긴 내용과 문학적 의미…………… 43

기획발표 2부

- 정은주(영남대)  
근기남인 실학파의 지식 계보와 이학규의 유서(類書) 창작…………… 60
- 김하라(연세대)  
이학규의 <동사일지(東事日知)>와 유배지의 공부…………… 71
- 김보경(인제대)  
이학규 작품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여성…………… 98

토론문

- 토론문…………… 115



## 낙하생 이학규의 학문과 문학의 지향 및 앞으로의 과제

정우봉(고려대)

1. 들어가며
2. 신발굴 시문자료
3. 洛下生 李學逵의 학문 지향
4. 洛下生 李學逵 시문의 지향
5. 앞으로의 과제

### 1. 들어가며

이번 발표에서는 洛下生 李學逵(1770-1835) 관련 신자료를 중심으로 그의 학문과 문학의 지향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다루도록 한다. 이가원 선생이 일찍이 『한국한문학사』(1961년 초판)에서 낙하생 이학규를 조선후기 사실주의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李學逵는 李用休의 外孫이었으며, 丁若鏞과의 莫逆이었다. 그의 詩文은 諸體가 具備하여 李系의 集大成으로 追崇하지 않을 수 없겠다”<sup>1)</sup>라고 언급하였다. 星湖 이후 이용휴와 이가환을 계승한 대표적인 문인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학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81년에 이학규의 문학을 다룬 심경호와 백원철의 논문이 제출되었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이학규의 시문을 정리하여 1985년에 영인본 『낙하생전집』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이학규의 학문과 문학에 관해 활발하게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학규의 시문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는 성과가 제출되었으며, 다수의 석박사학위논문과 여러 권의 단행본, 번역서 등을 비롯하여 그의 시와 산문, 학문 등에 관한 연구 성과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해외 소재 한국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정은주와 이국진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국내외의 대학과 기관에 소장되어 있던 이학규 시문집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성과 또한 꾸준히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학규의 시문 자료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소개하는 한편 낙하생 이학규의 학문과 문학의 지향이 무엇

1)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민중서관, 1961.

인지,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2. 신발굴 시문자료

일본 천리대학, 동양문고, 후손가, 규장각 등에 소장된 이학규 시문 자료를 수합하여 1985년 영인본 『낙하생전집』이 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이학규 연구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국내외 대학과 기관에 소장되어 있던 이학규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는 성과가 계속 제출되어 왔다. 새로 발굴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판종	책수	소장처	비고
洛下生藁	필사본	3책	서울대도서관 일사문고	
洛下生集草	필사본	1책	계명대도서관	
因樹屋集	필사본	1책	한국국학진흥원	
西洛詩集	필사본	1책	한국국학진흥원	
嶺南樂府	필사본	1책	종로도서관	
菰亭紀事詩	필사본	1책	일본 關西大學 도서관	
李學達親筆字本	필사본	1帖	규장각	

서울대 중앙도서관 일사문고본 『洛下生藁』(필사본 3책)는 규장각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같은 제목의 『洛下生藁』(필사본 1책)와는 다른 책이다. 일사문고본 3책 가운데 1책과 3책은 기존에 알려진 낙하생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에는 『文漪堂集』 소개 산문 작품인 「書古文眞寶後」, 「書翦燈新話後」, 「書彙語後」, 「答權處一」 네 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3책에는 『秋樹根齋集』 소개 「海東樂府」를 수록하였다. 이본으로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은 제2책이다. 제2책은 우리나라 역사, 문물, 제도, 생활에 대해 항목별로 고증을 한 『東事日知』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58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기존의 항목 또한 서술을 대폭 보완하였다. 권수제면에 ‘洛下生藁’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 행에 ‘菊半齋集’이라고 표기하였다. ‘菊半齋集’은 1833년에 지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학규가 충주로 이거하여 살고 있었던 때에 쓴 작품들로 추정된다. 이학규 생애에서 만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기왕에 알려진 『東事日知』 이본들과 일사문고본 『洛下生藁』 2책을 비교해 보면, 『동사일지』의 내용을 보완 확충하는 동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서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동사일지』를 정리한 이후 만년에 이를 새롭게 보완하고 추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이들 이본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兩班」 항목이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2) 『동사일지』의 저술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학계에서는 1819년에 지은 것으로 이해해 왔다. 이학규가 쓴 「感事三十四章」에 스스로 ‘東事日知’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동사일지』는 적어도 1824년 이전에 저술을 정리되었을 것이다. 일사문고본의 기록에 근거해 볼 때 『동사일지』의 저술은 이학규 만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학진흥원본 : 我國謂仕宦世族曰兩班, 其說始見五代. 時唐主以石敬瑭爲天平軍節度使, 制書出, 兩班相顧失色. 按高麗史裴仲孫傳, 元宗十一年, 三別抄反. 別抄禁人出入, 巡江大呼曰, “凡兩班在舟, 不下者悉斬之”, 是也. 蓋朝士綴行, 有東西兩班, 東班爲文, 西班爲武.

천리대학본 : 我國謂仕宦世族曰兩班, 其說始見五代. 時唐主以石敬瑭爲天平軍節度使, 制書出, 兩班相顧失色. 然此只謂在班諸臣, 非謂仕宦世族也. 按高麗史裴仲孫傳, 元宗十一年, 三別抄反. 別抄禁人出入, 巡江大呼曰, “凡兩班在舟, 不下者悉斬之”, 是也. 蓋朝士綴行, 有東西兩班, 東班爲文, 西班爲武.

일사문고본 : 我國仕宦世族, 曰兩班. 蓋朝士序行, 有東西兩班, 東班爲文, 西班爲武, 其說始見五代. 時唐主以石敬瑭爲天平軍節度使, 制書出, 兩班相顧失色. 然此只謂搢紳在班者, 非謂仕宦世族也. 按高麗史李自成傳, 初, 忠州副使于宗柱, 每簿書間, 與判官庾洪翼有隙, 聞蒙古兵將至, 議城守, 有異同. 宗柱領兩班別抄, 洪翼領奴軍·雜類別抄, 相猜忌, 及蒙古兵至, 宗柱·洪翼與兩班等, 皆棄城走, 唯奴軍·雜類, 合力擊逐之. 意者, 兩班別抄, 如今之兩班禁軍, 奴軍雜類, 如今之私奴東伍軍也. 高宗四十六年, 遣太子供奉表, 如蒙古. 參知政事李世材, 樞密院副使金寶鼎等四十人從之, 百官餞于郊. 文武四品以上出銀各一斤, 五品以下出布有差, 以充其費, 國驢馱馬三百餘匹, 以馬不足, 抑買路人馬, 以故, 兩班乘馬者少. 裴仲孫傳, 元宗十一年, 三別抄反. 別抄禁人出入, 巡江大呼曰, “凡兩班·鄉吏·百姓, 冒受金印檢校職, 結銜避役, 甚爲淆濫. 司憲府·各道存撫提察使, 并皆收職, 各從本役.” 據此則兩班之稱, 實始於勝國, 而冒稱兩班之弊, 自勝國已不勝淆濫矣. (괄호 안은 새롭게 보충 추가한 부분임)

현재 알려진 『동사일지』의 이본은 천리대학본, 규장각본, 한국국학진흥원본, 계명대학본 등이다. 이들 4종은 총 12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 순서가 모두 동일하다. 이들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천리대학본, 규장각본, 국학진흥본, 계명대본은 동일한 계열의 이본에 속한다.<sup>3)</sup> 이에 비해 일사문고본은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서술의 순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사문고본에서는 『고려사』의 世家와 「이자성전」 등 여러 곳에서 인용을 추가적으로 하였으며, 「배중손전」을 인용할 때에는 다른 곳에 있는 문장과 합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반의 호칭이 고려 때에 시작되었고, 양반을 모칭하는 폐단 또한 고려 때에 성행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일사문고에 전하는 『낙하생고』 3책은 전체 중에서 일부만 남아있는 낙질본으로 추정된다. 그 단서의 하나로 제2책의 표지 ‘洛下生藁’ 아래에 ‘十三’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일사문고본 『낙하생고』가 전체가 13책인 전질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낙하생고』 13책본과 관련해 다음 자료가 주목을 끈다.

洛下生藁 李學達 五冊 大同出版社·金台俊

본고는 원래 13책으로 『春星堂集』, 『因樹屋集』, 『瓠花屋集』, 『文漪堂集』, 『秋樹根齋集(海東樂府를 포함)』, 『觚不觚集』, 『卻是齋集』, 『菊半齋集』 등이 있으나, 여기에는 『瓠花屋集』, 『文漪堂集』과 『因樹屋集』 중의 「菰亭紀事詩」, 「海東樂府」類만을 진열하였다.<sup>4)</sup>

3) 천리대학본이 규장각본, 국학진흥본, 계명대본에 비해 내용상 좀더 풍부하다. 규장각본, 국학진흥본, 계명대본은 천리대학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9년 10월에 개최된 朝鮮語學文學 古書展覽會에 실린 내용이다. 『낙하생고』 13책본 중에서 5책이 출판되었는데, 출판자를 大同出版社·金台俊로 표기한 것은 원래 일본 大同出版社가 소장하고 있던 13책본 『洛下生藁』를 김태준이 轉寫하였기 때문이다.<sup>5)</sup> 김태준이 轉寫한 『낙하생고』의 일부는 현재 서강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6)</sup> 현재 서울대중앙도서관 일사문고에 전하는 3책은 대동출판사가 소장하고 있던 13책본 중의 일부이거나 이를 전사한 이본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선어학문학 고서전람회에 소개되었던 13책본 『洛下生藁』는 今西龍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 今西春秋에 의해 천리대학에 이관된 10책본 『洛下生藁』와는 다른 계열로 추정된다. 천리대학 10책본의 1책과 8책에는 附紙가 붙어 있는데, 책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朴駿和의 이름도 보인다. 朴駿和는 일제 강점기 때에 고서 및 서화고동 수집가로 알려진 인물로, 총독부 미술관에 미술품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李王職 圖書室에서 작성한 도서 목록인 『圖書假目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천리대학 10책본은 貰冊家 등을 통해 유통되다가 今西龍에 의해 입수되어 현재 천리대학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계명대도서관에 소장된 『洛下生集草』(필사본, 1책)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권수제면 아래에 적어놓은 기록이다.<sup>8)</sup> ‘李學奎, 字惺叟, 號菊半齋, 又曰洛下. 晚旅藁十餘卷’이라고 적혀 있는데, ‘晚旅藁十餘卷’라고 해서 이학규의 문집 『晚旅藁』 10여 권으로 밝혀 놓았다. 이 필사본에는 오탈자가 눈에 띄며, 제목을 줄여서 표기하는 곳도 많이 보인다. 기존 이본들에 수록하지 않은 일부 작품들이 있어 참고가 된다. 그 가운데 紫霞 申緯와 교분이 두터웠던 篠齋 徐淇修와 관련된 작품 - 「徐篠齋使君和余瓶梅三絕句, 輒又步其韻」, 「次韻徐篠齋使君寄示效金三淵葛驛雜吟二十首」 등 - 이 주목된다. 徐淇修가 1822년 경상남도 固城 현령으로 부임하였을 때에 서기수의 작품에 화운, 차운한 작품들이다. 대구 사람 秋鳳來를 통해 서기수의 작품을 전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화병에 꽃는 매화를 둘러싸고 이학규와 서기수 사이에 오고 간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작품은 서기수와 이학규의 교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되어야 한다.

徐淇修가 고성 현령으로 재직하던 1822년 겨울날 養梅方에 적혀 있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병에다가 매화를 피게 하였다. 이학규는 이 소식을 秋鳳來를 통해 듣게 되었고 서기수가 지은 「瓶梅」 7언절구 4수를 전해받았다. 이학규는 서기수가 지은 「瓶梅」 시에 화운한 작품을 다시 서기수에게 보냈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학규가 지은 「瓶梅四絕句」의 小序에 나와 있다. 문집중간본에는 ‘嶺外某守宰’라고만 되어 있는데, 고

4) 京城帝國大學 朝鮮語學文學會 편, 『朝鮮語學文學 古書展覽目錄』, 京城帝國大學 朝鮮語學文學會, 1939.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 용범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한학자 김태준에 대하여」, 『동방학지』 18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9 참조.

5) 大同出版社는 1930년대 후반에 ‘金鑛王’이란 별명을 얻은 李鍾萬이 금광 자본을 바탕으로 설립한 5개 기관(대동광업(주), 대동광산조합, 대동농촌사, 대동출판사, 대동학원)의 연합인 대동사업체의 일부이다. 대동출판사와 관련해서는 방기중, 「일제말기 대동사업체의 경제자립운동과 이념」,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 경제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참조.

6) 필사본 『文漪堂集』에는 “庚辰(1940)壹月 金台俊 謄寫于苑西山房(苑西町七七之一二)”라는 필사기가 적혀 있다.

7) 참고로 『한국고서종합목록』(윤병태 편)에는 『洛下生集』의 소장처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국립중앙(1책), 大東出版社(5책), 今西龍(10책), 金台俊(5책), 大阪市립도서관(1책), 한글학회(1책), 육당문고(1책) 이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1책, 今西龍 10책(현재 일본 천리대 소장), 대판시립도서관 1책은 확인이 되며, 김태준 5책 중 일부는 서강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大東出版社(5책), 한글학회(1책), 육당문고(1책)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추후 확인해야 할 것이다.

8) 자료 열람에 도움을 준 계명대 정하정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성 현령으로 내려와 있던 徐淇修를 지칭한다. 이후 서기수는 이학규의 詩稿를 읽다가 자신이 지은 「瓶梅」시에 화운한 이학규의 작품을 보고 다시 이학규의 작품에 차운한 작품을 보내었다. 그 때 지은 서기수의 작품 제목을 보면, “洛下生詩稿를 우연히 열람하다가 그 詩稿 안에 내가 지은 「瓶梅」 네 絕句에 차운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매화 피우는 방법에 따라 꽃을 피웠고, 이를 절구 세 수로 기록하였다. 이에 그 운자를 밝히 지었는데, 실로 얼굴을 알지 못한다.”<sup>9)</sup>고 하였다. 이학규와 서기수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서기수가 이학규의 시고를 열람하였고, 사대부의 취미 생활의 하나인 ‘瓶梅’를 계기로 교류를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학규는 서기수가 행했던 방법에 따라 화병 속에 매화를 꽃 피게 하고 절구 세 작품을 지었는데, 이 작품은 현재 문집총간본에는 보이지 않으며, 계명대 소장본 『洛下生集草』에 이학규의 절구 작품 세 수가 「徐篠齋使君和余瓶梅三絕句, 輒又步其韻」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次韻徐篠齋使君寄示效金三淵葛驛雜吟二十首」은 徐淇修가 지은 「效三淵翁葛驛雜詠體, 賦絕句二十首, 時庚辰五月二十七日流夏新建候雨中也」에 차운한 작품이다. 서기수의 이 작품은 갑산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복직하기 이전 野人으로 지냈을 때인 1820년에 지은 시이다. 이 작품은 서기수의 진솔한 생활과 학문, 문학 등에 관한 견해를 볼 수 있어 중요한 시의 하나로 평가된다.<sup>10)</sup> 이 시에 차운한 이학규의 작품은 이학규의 유배 후반기의 생활과 의식 지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집총간본에는 보이지 않으며, 계명대본 『낙하생집초』에 세 수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이학규의 시문집 2종이 소장되어 있다.<sup>11)</sup> 『因樹屋集』(필사본, 1책)과 『西洛詩集』(필사본, 1책)인데, 이 가운데 『인수옥집』은 앞부분에 이학규의 한시를 선별해 놓았고, 뒷부분에는 김삿갓으로 알려진 蘭皐 金炳淵의 시를 수록해 놓았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因樹屋集』은 이학규의 한시 중에서 7언 絕句와 7언 律詩만을 뽑아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문집총간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도 상당수에 이르는데, 「暮秋」, 「烏茶一枝秋色渥然可玩」, 「鴨津」 등이 그 예들이다. 그리고 필사본 『인수옥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필사자가 이학규의 한시를 필사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시는 唐詩를 바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漢나라와 明清 시의 풍격을 언급하고 나서 이학규의 시가 당나라 사람의 口氣를 띠고 있다고 평하였다.<sup>12)</sup> 그리고 책을 읽는 여가에 大游라는 친구가 빌려준 이학규의 시를 보게 되었다고 밝혀 놓았다. 필사자, 소장자가 누구인지는 불확실하다. 이 책이 眞城李氏 溫溪派 石然門中에서 기증한 서적이어서, 진성이씨 온계파 가문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영남 지방에서 이학규의 시를 필사하고 향유하였던 정황을 알려주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또 다른 이본인 『西洛詩集』은 丁學淵과 李學達의 합동 시집이다. 『西洛詩集』와 앞서 소개한 『인수옥집』과 유사한 점이 많다. 7언율시와 7언절구만을 선별했으며, 선별한 작품 가운데 중복되는 작품이 많고 작품 배열도 유사하다. 『西洛詩集』은 앞부분에 丁學淵과 이학규의 7언율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뒷부분에는 이학규의 7언절구 30題가 실려 있다.<sup>13)</sup> 이학규와 정학연 두 사람의 시를 함께 수

9) 徐淇修, 「借閱洛下生詩稿, 卷中有次余瓶梅四絕, 又按法養花, 以三絕紀之, 仍步其韻, 實不知面也」, 『篠齋集』(규장각 소장본) 2책.

10) 이 점에 대해서는 이현일, 「소재 서기수 시 연구」, 『동양학』 5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4 참조.

11) 자료 열람에 도움을 준 한국국학진흥원 최은주 선생에게 감사를 표한다.

12) 『因樹屋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詩以唐爲正, 漢魏淳而樸, 明清華而浮. 洛下翁可謂唐人口氣者也. 香山社主.

록한 시집 이본은 이 외에도 고려대 도서관 소장 『近體詩選』, 개인 소장본 『西洛詩抄』 등 몇 종이 더 알려져 있다.<sup>14)</sup> 이학규의 시집 이본들간의 교감 대조, 이학규와 정학연의 교류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1808년 다산 정약용의 『탐진악부』의 영향을 받아 지은 『嶺南樂府』는 영남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 사건, 풍속, 전설 등을 폭넓게 다룬 악부시로서 높이 평가된다. 현재 규장각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알려져 왔는데, 轉寫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탈자가 존재한다.<sup>15)</sup> 이번에 소개할 종로도서관 소장본 『嶺南樂府』는 오탈자를 바로잡고 교감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규장각본과 종로도서관본은 내용이 동일하고 수록 순서도 같다. 앞으로 교감 대조 작업이 더 필요할 터인데, 종로도서관본의 경우 규장각본에 비해 오탈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산유화」에서 ‘江中歌女所與，憑龍鱗懼危苦’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규장각본에는 ‘苦’가 아니라 ‘若’으로 필사되어 있는 데에 반해 종로도서관에는 ‘苦’로 적혀 있다. 문맥상 ‘危苦’가 맞으며 실시학사 번역본 또한 ‘苦’로 바로잡았다.

일본 關西대학 内藤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菰亭紀事詩』(필사본, 1책) 또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신자료이다. 관서대학에서 제공하는 서지목록은 다음과 같다.

菰亭紀事詩<sup>16)</sup>  
 (朝鮮) 李學達著  
 [書写地不明] : [写本], 嘉慶13年序[1808]  
 1冊; 匡郭 15.4×11.4cm  
 鈔本  
 關西大 内藤文庫

關西大學 内藤文庫은 内藤湖南(1866-1934)와 그의 아들 内藤伯健(1899-1979)의 舊藏書로 구성되어 있다. 内藤湖南은 교토대학 교수를 역임한 동양사학자이다. 동경제대의 白鳥庫吉과 함께 ‘동쪽의 白鳥庫吉, 서쪽의 内藤湖南’, ‘實證學派 内藤湖南, 文獻學派 白鳥庫吉’로 명칭되었다. 이 문고에는 조선본 서적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菰亭紀事詩」는 김해 지역의 역사, 자연, 생활, 풍속 등을 다룬 52수의 연작시이다. 「고정기사시」가 단행본 형태로 필사, 유통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서대학본 『고정기사시』의 존재는 이학규의 문학 작품이 필사를 통해 유통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현지 조사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규장각 소장 『洛下生李學達親筆字本』은 이학규와 신위의 시를 함께 수록해 놓은 詩帖이다. 먼저 자하 신

13) 필사자는 마지막에 수록한 「和洌水田園雜興」의 작자를 ‘西山’, 즉 정학연의 작품으로 기록해 두었지만 이는 오류이다. 이학규의 「奉和洌上夏日田園雜興」이다.

14) 고려대 도서관 소장 『近體詩選』, 개인 소장본 『西洛詩抄』에 대해서는 김영진, 「유산 정학연 시집 이본고(2)」, 『한국시가연구』 52, 한국시가학회, 2021 참조

15) 실시학사에서 『영남악부』를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수록 순서를 시대순으로 바꾸고 오탈자를 바로잡고 교감하였다.

16) 관서대학 서지목록에는 ‘瓜亭紀事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菰亭紀事詩로 바로잡았다.

위의 한시 작품 - 「閒居四詠」, 「過宿崧下韓霽園進士梨井親儔, 感舊悼逝, 情見于辭」 - 이 실려 있고, 이어서 이학규의 작품 - 「有全姓童子賃舟至斗陵, 瓊呈一扇 ---」이 나온다. 그리고 이학규가 해배된 것을 소재로 쓴 신위의 작품 「李醒叟賜環北歸」와 거기에 차운한 이학규의 작품 「次韻申紫霞侍郎見寄」이 실려 있다. 시첩의 이름을 ‘이학규 친필자본’이라고 표시했지만, 이학규 친필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sup>17)</sup> 신위와 이학규의 시를 함께 모아놓은 詩帖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의 하나이다.

### 3. 洛下生 李學逵의 학문 지향

경남 하동 출신의 학자였던 河達弘(1809-1877)은 일찍이 이학규의 글을 읽고 자기 나름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그의 문집 『月村集』에 「書李學逵文抄後」와 「題李學逵答徐生書後」 두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전자의 글이 이학규의 학문, 문학의 성향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풍부하도다, 李公의 글이여. 兵仗, 潮汐, 春秋, 星官, 卜筮, 量田, 書畫, 佛老, 魚蝦, 土產 등을 모두 수록하지 않음이 없으니, 文苑 중의 무기 창고라고 할만하며, 그 귀결처가 바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얻어 본 것은 겨우 십여 편이다. 만약 전집을 얻었다면 너넉하고 풍성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풍부하도다, 공의 글이여. 만약 이공이 세상에 쓰임을 받아 告命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조정의 高文大策이 필시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애석하도다, 궁벽한 지역의 한 유배객에 그쳤을 뿐이다.<sup>18)</sup>

이학규의 글을 ‘文苑 중의 무기 창고’에 견주면서 博學風의 면모를 높이 평가하였다. 일찍이 張志淵이 『逸士遺事』에서 “公이 博學多識하여 山川, 道理, 風土, 地理, 天文, 星曆, 律呂, 山水, 醫藥, 草木, 禽獸 等 名物 度數를 無不博究通曉”라고 언급한 것과 유사한 발언이다. 앞선 연구들에서 지적하였듯이, 이학규는 역사·지리·정치제도는 물론 과학·수학·농학·음운학 등 다방면의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가 남긴 저술 속에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하달홍은 관료로 등용되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유배객으로 전락한 이학규의 처지를 안타까워 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글인 「題李學逵答徐生書後」은 이학규가 茂川 사람 徐漢源에게 써 준 「答徐漢源」을 읽고 쓴 글로, 독서와 문장 학습의 방법과 관련해 이학규와는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혀 놓았다.

이학규의 학문적 지향과 관련해 앞서 소개한 서울대 일사문고 소장본 『洛下生藁』 제2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일사문고본에 수록된 총 91항목을 예시해 본다.

17) 이학규의 친필 서간 1통이 성균관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林隱書簡帖』에 전한다. 金海許氏 林隱門中에 家傳되던 서간집이다. 주로 不孤軒 許暎, 太初堂 許恁, 舫山 許薰 세 사람과 관련된 간찰이 중심으로 이룬다. 許恁은 항일 의병장이었던 舫山 許薰과 旺山 許蔭의 조부이다. 그는 진사에 합격하였고 문장과 학행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채제공의 문인들과 교유를 하였다. 이학규의 친필 간찰은 許恁에게 보낸 것이다.

18) 河達弘, 「書李學逵文抄後」, 『月村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7. 多乎哉! 李公之文. 其於兵仗潮汐春秋星官卜筮量田書畫佛老魚蝦土產, 無不畢載, 可謂文苑中武庫, 而其歸要不離於正. 余之所得見, 纔十數篇. 若得全集, 則其富贍何可量也? 多乎哉! 公之文. 噫嘻! 若使李公爲世所需用, 處於掌誥之列, 則朝廷上高文大策, 未必出於他人之手, 而惜哉, 爲嶺海間一遷客而止耳. 誦其詩, 讀其文, 不覺令人太息.

我東姓氏, 我東僻姓, 兩班, 生員幼學, 庶孽防限(附李判書表疏略), 閑散, 品官, 貢生, 上舍, 衙前, 公兄, 吏胥六房, 戶長, 該色, 鄉所京所, 風憲, 通引, 妓生着氈笠軍服, 大房, 南行, 守令七事講, 守令薦, 大監, 長者, 上典, 奴婢, 驅從, 楊水尺, 廣大, 花郎, 香徒, 巫堂, 巫房, 火宅僧, 火居道士(附丁籙翁雅言覺非), 摠攝, 司鑰, 照羅赤, 螺匠, 喝道, 所由, 文簿末印字, 我國創造俗字, 數用多畫字, 合同分支, 重字二點, 書行擡頭, 魚鱗圖冊, 作石法, 克食, 水田, 火田, 田一日耕一晌耕, 墟市, 市塵, 簷樓, 瓦屋, 煙房(附朴楚亭論炕制), 公廨門太極圖, 邑宰食後漱口刺齒, 破日, 接煞, 左絞索禁鬼, 筍青, 引光奴, 簡紙, 鳳仙花染指, 生菜葉裹飯, 南瓜, 煙(附星湖僮說, 附惠寰先生答人問南草, 附朴燕菴太學留館錄), 玫瑰花, 番椒, 錦荔枝, 蕪草, 縣花, 家蔘, 水仙花, 鬱陵島, 燠室冬花(附陳繼儒眉公秘笈), 寶豆(附加空弄經驗方, 又經驗方), 吸毒石, 緬鈴, 漫畫, 鷓鴣, 鷓, 鷓鴣, 秧雞, 魚狗, 天鷲, 麻雀黃雀鴉鷂, 王母鳥(붉은 글씨는 일사문고본에만 수록된 것을 표시함)

『東事日知』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문물 등을 대상으로 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체계적인 분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않지만, 비슷한 소재와 주제들을 묶어서 서술하고 있는 등 나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類書이다. 네 종의 이본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이 모두 58항목에 이른다. 새로운 항목이 대폭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항목일지라도 내용을 상당 부분 새롭게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예컨대 ‘火居道士’는 머리를 깎지 않은 승려를 다루고 있는데, 『동사일지』 이본들에는 제목이 ‘有髮僧’으로 되어 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동사일지』 이본들은 내용이 소략한 데에 반해 일사문고본의 경우에는 많은 문헌들을 활용하여 내용이 훨씬 풍부하다. ‘縣花’ 항목의 경우에는 분량이 4배 이상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항목의 배열 방식에서는 유사한 소재들을 한 곳에 배치하여 나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sup>19)</sup>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덧붙이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庶孽防限(附李判書表疏略), 火居道士(附丁籙翁雅言覺非), 煙房(附朴楚亭論炕制) 등이 그 예이다.

다양한 문헌들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데, 일사문고본에서 활용한 문헌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 『三國史記』,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尊彞錄』(金宗直), 『東史纂要』(吳澐), 『眉巖日記』(柳希春), 『荷潭破寂錄』(金時讓), 『松窩雜錄』(李璽), 『東人須知』(李阜庵), 『星湖僮說』(李瀾), 『百諺解』(李瀾), 『熱河日記』(朴趾源), 『北學議』(朴齊家), 『錦帶館雜記』(李家煥), 『熱河紀行詩注』(柳得恭), 『雅言覺非』(丁若鏞)

중국 : 『爾雅』, 『禮記』, 『左傳』, 『新序』, 『漢書』, 『後漢書』, 『水經注』(酈道元), 『南史』, 『北史』, 『魏志』, 『舊唐書』, 『唐書』, 『元史』, 『天祿識餘』(高士奇), 『宋名臣言行錄』, 『因樹屋書影』(周亮工), 『宛委餘編』(王世貞), 『水滸傳』(羅貫中), 『言鯖』(呂種玉), 『清異錄』(陶穀), 『陔餘叢考』(趙翼), 『蚓菴瑣語』(王逋), 『同話錄』(曾三異), 『簪雲樓雜記』(陳尚古), 『幽閨記』(施惠), 『粵述』(閔敘), 『閩小記』(周亮工), 『天香樓偶得』(虞兆澐), 『日知錄』(顧炎武), 『帝京景物略』(劉侗), 『分甘餘話』(王士禎), 『西湖竹枝詞』(張希賢), 『隧園詩話』(袁枚), 『花鏡』(陳淏子), 『盛京通志』, 『唐詩畫譜』, 『星槎勝覽』(費信), 『本草綱目』(李時珍), 『滇黔記遊』(陳鼎), 『隴蜀餘聞』(王士禎), 『嶺南雜記』(吳震方), 『三才圖會』(王思義), 『筆記』(周密), 『筠廊偶筆』(宋榮), 『菽園雜記』(陸容), 『小畜集』(王禹稱), 『朝鮮賦』(董越), 『夷堅志』(洪景廬), 『傳燈錄』, 『西陽雜俎』(段成式),

19) 이를 통해 볼 때 이학규는 만년에 이르러 이전에 정리해두었던 『동사일지』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전체 서술 순서를 조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저술로 완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遺事』(韓莊敏), 『癸辛雜識』(周密), 『國朝畫徵錄』(張庚國), 『安南雜記』(李仙根), 『盛京通志』(阿桂), 『虞初新志』(張潮), 『花譜』, 『漁洋詩集』(王士禎), 『眉公秘笈』(陳繼儒), 『本草拾遺』(陳藏器), 『談苑』(楊億), 『墨莊漫錄』(張邦基)

우리나라 문헌의 경우에는 실학가의 저술을 실학가의 저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星湖僊說』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가환의 『雜記』, 정약용의 『雅言覺非』, 박제가의 『北學議』, 박지원의 『熱河日記』, 유득공의 『熱河紀行詩注』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중국 문헌 가운데에는 특히 명청 시대의 서적을 많이 활용하였다. 『眉公秘笈』, 『說鈴』, 『說郭』 등의 총서류를 비롯하여 필기잡록, 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풍부하게 인용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서적도 눈에 띄는데, 예컨대 청나라 사람 閔敍가 쓴 『粵述』은 廣西 지역의 산천과 물산에 대해 기록한 필기서이다. 閔敍는 進士에 합격한 후 벼슬이 監察御使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가 廣西 지역의 교육 행정 등을 관할하던 벼슬에 있었을 때 저술한 것이 바로 『粵述』이다. 이학규는 총서 『說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문헌들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집총간을 검색한 결과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인용된 것이 유일하다. 인용 문헌 가운데, 희곡 문헌도 눈에 띄는데 『幽閨記』는 중국의 10대 古典喜劇 중의 하나로 알려진 희곡 작품이다. 『幽閨記』의 작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주로 施惠 또는 關漢卿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일명 『拜月亭記』라고도 하는데, 『荊釵記』, 『白兔記』, 『殺狗記』 등과 함께 ‘四大南戲’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의 제도, 신분, 문물, 언어문자, 풍속, 동식물, 의약 등 다방면에 걸쳐 박학풍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신분제 사회에서 천시되었던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관심이다. ‘奴婢, 驅從, 楊水尺, 廣大, 花郎, 香徒, 巫堂, 巫房, 火宅僧, 火居道士(附丁籛翁雅言覺非)’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하였는데, 이들 계층은 공통적으로 조선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대우받았던 계층들이다. 천대받는 특수한 집단, 계층에 대한 관심은 「乞士行」, 『海東樂府』의 「楊水尺」 등의 시작품을 통해서도 노래되었다. 일사문고 본에는 驅從, 巫堂, 火宅僧을 새로 추가하였고, 다른 항목들은 내용을 보강하였다.

승려이면서 부인을 두고 고기를 먹는 이들을 火宅僧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평안도에 머리를 깎지 않고 부인을 거느리고 아이를 두는 사람이 많은데, 在家僧이라고 한다. (중략) 생각건대, 지금의 이른바 居士, 社堂의 부류일 것이다. 이에 근거해 본다면 승려가 부인을 두고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sup>20)</sup>

우리나라에 머리를 깎지 않고 葷菜를 입에 대지 않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어린 여자를 데리고 복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속에서는 이들을 居士라고 하며, 어린 여자를 社堂이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처자를 거느리는 道士를 중국에서는 火居道士라고 부르는데, 본래 『禮記』에 나오는 ‘居士는 비단 띠를 한다’는 글에서 나왔다. 지금 시속에서 말하는 거사는 부인을 거느리고 고기를 먹지만 머리를 깎지도 않고 매번 노래를 부르면서 반드시 염불을 외운다. (중략) 이에 근거해본다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居士는 곧 중국의 火居道士와 같은 부류이며, 어린 여자를 거느린 것은 또한 和尚教坊와 같은 부류이다.<sup>21)</sup>

20) 李學達, 「火宅僧」, 『洛下生藁』 2책(서울대도서관 소장본) 僧而妻肉, 曰火宅僧. 我國平安道, 多有不祝髮, 擁妻哺兒, 曰在家僧. --- 意者, 如今所謂居士社堂之類也. 據此則僧之妻肉, 其來已久矣.

위의 두 인용문은 조선시대 특수집단의 하나인 거사와 사당에 관한 기록이다. 중략된 부분에는 다양한 문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火宅僧 항목에서는 『高麗史』, 『唐書』, 『元史』 이외에 『言鯖』(呂種玉), 『清異錄』(陶穀), 『陔餘叢考』(趙翼) 등을 인용하였고, 火居道士 항목에서는 『蚓菴瑣語』(王逋), 『同話錄』(曾三異)을 활용하였다. 여러 문헌들을 인용함으로써 승려 계층에서 분화된 이들 특수 집단의 유래, 그리고 유랑예인으로서의 성격 변화, 중국 사례와의 유사성 등을 논증하였다. 이와 함께 이학규는 乞士와 居士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던 丁若鏞의 『雅言覺非』를 덧붙임으로써 독자들에게 자신의 글과 비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학규의 이같은 설명 방식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釋教梵書佛經辨證說」에 수록된 「僧尼」 항목으로 이어진다.

本朝에서는 서열의 청현직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세조 때에 유자광이 처음으로 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열의 벼슬길을 막는 문제의 경우 조정에 있는 관료에게 뿐만 아니라 집안의 부형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진사님, 생원님이라고 하고,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서방님, 도령님이라고 불러서 노복 같은 친한 부류에 빗대어 骨肉同氣의 대열에 끼지도 못하게 하였다. 上帝는 지극히 존귀한데, 높고 낮은 신분들이 모두 상제라고 부른다. 君王 또한 지극히 존귀하지만 높고 낮은 신분들이 모두 군왕이라고 부른다. 상제를 부르되 상제라 하지 않고, 군왕을 부르되 군왕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비천함 때문에 칭호를 바꾼다는 것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sup>22)</sup>

서열에 대한 차별 대우를 다룬 위의 항목 또한 앞서 언급한 비천한 계층, 집단에 관심과 연결된다. 위의 글에서 중략된 부분에는 『성호사설』을 길게 인용하였다. 이학규는 서열에 관한 문제를 天倫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지극히 존재한 존재인 상제와 군왕을 부를 때에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상제와 군왕이라고 호칭을 한다. 이에 반해 서열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복 같은 친한 부류에 빗대어 骨肉同氣의 대열에 끼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天倫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이 서열에 관한 차별 대우가 가진 큰 문제점임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다른 관심사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醫藥 및 花草에 대한 관심이다.

寶豆는 본래 呂宋國 섬에서 나왔는데, 40년 전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근래 판서 金魯敬이 사신으로 연경에 들어가 가장 많이 얻어와 서울 약방에서 매매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기유년(1789)에 내가 학질에 걸려 몇 달을 앓았는데 여러 가지 약을 써 보았는데 효험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보두 한 개를 주어서 그것을

21) 李學達, 「火居道士」, 『洛下生藁』 2책(서울대도서관 소장본) 我國有一種不祝髮不戒葷, 挈小艾, 擊鼓歌唱, 以規食. 俗謂之居士, 小艾曰社堂. 按道士之有妻子者, 中國謂之火居道士之稱, 本出禮記居士錦帶之文. 今俗所謂居士, 雖妻肉, 不祝髮, 每歌唱, 必念佛號. --- 據此, 則今之所謂居士, 即中國火居道士之類. 其所挈小艾, 亦所謂和尚教坊之類也.

22) 李學達, 「庶孽防限」, 『洛下生藁』 2책(서울대도서관 소장본) 本朝不許庶孽清顯之職. 或曰, 光廟之世, 柳子光實始立法. 按星湖僊說云, --- 余曰, 庶孽防限, 非但在朝之官爵, 其於在家之父兄, 已不許呼父, 而進士主生員主, 不許呼兄, 而曰書房主道令主, 比之奴僕下流, 不令廁之骨肉同氣之列. 夫上帝, 至尊無上也, 而尊卑皆呼之, 曰上帝. 君王亦至尊也, 而貴賤皆呼之, 曰君王. 未聞呼上帝, 不曰上帝, 呼君王, 不曰君王, 而乃以自己卑賤, 改易稱號也.

복용하였더니 병에서 나왔다. 다시 여러 질병에 누차 써보았는데, 종기에 곧바로 효험을 발휘하지 않음이 없었다.<sup>23)</sup>

우리나라 花果 중에는 모란의 경우처럼 중국에서 건너 온 것이 많다. --- 本朝 인조 때에 麟坪大君이 연경에서 水仙花를 옮겨 왔다. 正祖 庚申年(1800)에 참판 이기양이 연경의 벼슬아치 집에서 수선화를 얻어와서 지금 도성에 널리 퍼졌다.<sup>24)</sup>

寶豆에 관한 기록은 조선 시대 문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이학규의 위의 기록 이외에 『송남잡지』에 나온다.<sup>25)</sup> 寶豆는 여송과의 종자로, 복통과 이질로 인한 설사를 그치게 하고 외상으로 인한 출혈을 낮게 하는 약재이다. 배가 아프고 설사할 때, 학질, 소아회충, 칼에 베어 출혈할 때, 頭瘡, 치질, 독사나 해충에 물렸을 때 쓴다고 알려져 있다. 이학규는 이 寶豆라는 약재가 필리핀 군도의 루손 섬을 원산지로서 하며, 40여 년 전에 金魯敬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고 하여 그 유래와 전래 과정을 밝혔다. 추사 김정희의 생부인 金魯敬은 使行으로서 1809년 동지 겸 사은부사로, 1822년에는 동지사로서 연경에 다녀왔다. 이로 볼 때에 1809년 김노경에 연경에 갔을 때에 寶豆를 구입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울의 약방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학질 치료 경험에 근거하여 寶豆의 효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寶豆에 이어 독기를 빨아내는 돌인 吸毒石 항목이 나오는데, 이 또한 중국으로 통해 수입된 약재의 일종이다. 이 약재의 효능과 전래 과정을 설명한 다음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끝으로 자신 및 여종의 치료 경험의 사례를 활용하여, 吸毒石의 효능을 입증하였다.<sup>26)</sup>

두 번째 인용문은 水仙花가 조선에 유입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선화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대부들의 화훼 취미의 유행 속에 완상의 대상이 되었던 꽃 중의 하나이다. 이학규는 중국 사신으로 갔던 參判 李基讓을 통해 수선화가 유입되어 도성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sup>27)</sup> 화훼에 남다른 취미를 가졌던 이학규는 「感事三十四章」에서 수선화를 소재로 하여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였다.<sup>28)</sup> “사신으로 간 李水部(李基讓) / 선계의 꽃 수선화 / 지난 날 종자 남겨져 / 오늘날 서울에 두루 퍼졌네 / 마녀옥 화분에 꽃이 피니 / 수선화에 생기가 도네 / 순옥의 향기 나는 자리가 없어도 / 기이한 향기까지 거둬 말네” 이 시의 주석에서 중국 사신으로 간 이기양을 통해 조선에 수선화가 유입되었으며, 서울의 사대부들 사이에서 고급 취미의 일

23) 李學達, 「寶豆」, 『洛下生藁』 2책(서울대도서관 소장본) 寶豆本出呂宋國島中, 四十年前, 始傳至我國. 近時金判書魯敬, 奉使入燕, 得之最多, 京裏藥舖, 至爲寶買. 正廟己酉余病瘡屢月, 雜試諸藥, 不效. 有贈余一枚者, 服之良已. 又屢試諸病, 瘡瘍無不立效者.

24) 李學達, 「水仙花」, 『洛下生藁』 2책(서울대도서관 소장본) 我國花果, 多從中國來如牧丹. --- 本朝仁廟時麟坪大君自燕邸, 移來水仙花. 正廟庚申李參判基讓, 得之燕京薦紳家, 今則徧滿都下矣.

25) 安南國, 樹名也. 其實如大蒜. 片乾者, 虫蛇毒之妙藥. 本草所無. (『송남잡지』 花藥類)

26) 약재에 관한 관심과 관련하여 緬鈴에 관한 항목도 참고할만하다. 緬鈴은 성기구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학규의 「感事三十四章」에서 緬鈴을 소재로 하여 남녀간의 농밀한 애정 장면을 묘사하기도 하였으며, 유득공의 『열하기행시주』에서도 외설스러운 용도로 사용되는 緬鈴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 여기에 더해 이학규는 緬鈴이 성기구의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님을 언급하였다. 100여 년 전에 이미 역관을 통해 조선에 유입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미얀마에서 유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운 지방인 미얀마에서 임신의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밝혔다. 이규경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 緬鈴辨證說에서 緬鈴이 애초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지적하였다.

27) 자하 신위의 시에는 1812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수선화를 가져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취미의 일환으로 수선화가 유행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민, 이종묵, 윤지안의 논저를 참조.

28) 이학규의 화훼 취미와 관련해서 정은주의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심층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환으로 수선화 완상이 유행하고 있음을 노래하였다. 「燠室冬花」에서도 끓는 물과 유황가루를 사용하여 겨울에 꽃을 피우게 해서 완상하는 방법을 자신의 체험과 관련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俗子, 擡頭法 등 언어문자 생활에 관한 항목도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려고 한다.

#### 4. 洛下生 李學達 시론의 지향

이학규는 일찍이 唐宋元明 시대의 시에 관한 논의를 모아서 『廣詩則』이라는 일종의 시론서를 완성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sup>29)</sup> 그만큼 이학규의 경우 시론 방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진 바 있으며, 실제 현재 전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시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펼쳤음을 알 수 있다.

평범하고 특별한 변고가 없는 사람이 시문을 지을 때 가을날을 슬퍼하는 송옥의 작품과 나라를 걱정하는 두보의 작품을 억지로 본뜨려고 해도 본뜰 수 없을 겁니다. 비록 똑같이 본뜬다고 하더라도, 속마음과는 너무도 달라서 진실되지 못하고, 보는 자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답니다. 슬퍼하는 자도 울고 겨자를 씹은 자는 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우는 것은 같지만 속마음은 다르니, 비록 어린아이라고 하여도 그 둘을 혼자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작품 중에서 「바람에 막히다(阻風)」, 「절을 찾다(尋寺)」, 「가뭄을 걱정하다(閔旱)」, 「취을 캐다(采葛)」 등은 시름을 노래한 참된 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맑고 화창한 날에 웃으면서 읊은 것이 시름을 노래한 참된 시입니다. 여기에 「將進酒」 3편과 「春盡日書事」 10장을 인편에 부치니, 그대께서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sup>30)</sup>

이학규는 시론의 출발점을 창작 주체의 진실한 정감에 두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풍부한 감정 및 욕망 등을 포함한다. 그가 볼 때 시는 억지로 꾸미지 않고 그같은 감정과 욕망에 충실함으로써 시의 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신기한 것만을 집착하는 시풍을 비판하였으며, 중세적 윤리 관념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비속하고 자유분방한 생활 감정과 정서를 적극 옹호하였다.

창작 주체의 진실한 감정(中情)은 시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관건이며, 작품의 풍부한 감염력의 원천이다. 그는 객관적인 물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촉발, 형성되는 개인의 진실한 체험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시인의 내발적 창작 충동을 계기로 발출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시 창작의 제일 요건은 작가의 주관적 정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시의 진실성은 작가의 진실한 정감과 직결된다.

29) 李學達, 「答」, 『낙하생집』 10책, 『한국문집총간』 290, 362면. 僕嘗著廣詩則一書, 俱載唐宋元明諸家著說. 第恨不盡脫藁, 不能寄去, 俟來便更示奉報也.

30) 李學達, 「答」, 『인수옥집』 10책, 『한국문집총간』 290, 360면. 平常無故人, 作詩若文, 強效宋玉之悲秋, 杜甫之憂國, 定是摹擬不出, 縱復十分摹擬出來, 中情迥別, 終是不真, 自不能使覽者興愴. 譬之悲哀者必泣, 啜芥者亦泣, 同是泣也, 而中情有異, 則雖三尺小童, 自可辨別也. 然則如此君詩藁中阻風尋寺閔旱采葛等諸篇, 非眞憂愁詩. 吾曹於青天麗日, 談笑而道出者, 爲眞憂愁詩. 茲有將進酒三篇及春盡日書事十章, 臨便覓付, 望吾兄鑒之.

이학규는 散文과 詩의 본질적 근본적 차이점을 理와 情에서 찾았다. 散文의 지극한 경지는 理로써 뛰어난 것이며, 시의 지극한 경지는 情으로써 뛰어난 것이다. 이성적, 논리적 분석과 추론에 의존하는 산문과 달리 시 장르의 본질적 특성은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에 합치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시의 가장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은 情感性에 있다고 보았다. 창작 주체의 감정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 시의 근본적인 특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규는 “산문은 理를 위주로 하고, 시는 韻을 위주로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이라고 하여 시와 산문의 차이를 韻과 理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sup>31)</sup> 그는 韻이 뛰어난 시는 물 속에 비친 달, 거울 속의 꽃과 같이 쉽게 포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인용한 말 - 물 속에 비친 달, 거울 속의 꽃,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것, 들어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것 - 은 모두 좋은 시의 미감 작용을 지칭한 것으로, 시가 묘사하는 바의 虛의 방면을 강조한 말이다.<sup>32)</sup> 달리 말하여 그것은 자연 경물을 관조할 때 고무된 시적 興趣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시는 논리적 분석과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言外의 묘미가 풍부한 심미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학규는 詩와 散文의 내재적 차이에 주목하여 독자의 연상 과정을 거쳐 작품의 심원하고 무궁한 의미를 감득하게 하는 미감 작용으로서의 韻을 시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시는 이성적 인식을 주로 하는 저작과 달리 독자의 정서를 감발시킬 수 있는 言外之意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의 표현 방식상의 특징이며, 시의 예술적 경계의 특징이다. 그 특징이 바로 ‘水中月’과 ‘鏡中花’이다. 물 속에 비친 달과 거울 속에 비친 꽃은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유동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언어로 형용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직관과 상상을 통해 주관적으로 체득할 수 있다. 그러나 ‘不即不離, 不粘不脫’에서 보듯이 물상 자체를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理로 뛰어난 것은 산문의 지극한 곳이며, 情으로 뛰어난 것은 시의 지극한 곳이다. 옛사람이 먼 산을 노래하기를 ‘온종일 가을빛 / 지명을 아는 사람 없네 / 어두운 때에 구름 다시 합치고 / 이지러진 곳에 길은 평탄하리라’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로써 뛰어난 것이니, ‘해 저무는 몇몇 봉우리 푸르러 마치 물들인 듯한데 / 행인들이 여주 땅의 산이라고 말하네’라는 시구가 경물을 묘사하고 감정에 합치하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sup>34)</sup>

이성적, 논리적 분석과 추론에 의존하는 산문과 달리 시 장르의 본질적 특성이 감정에 있다고 주장한 이학규는 이 점을 실제 시 작품을 들어 입증하였다. 북송 때의 저명한 문인이며 사상가였던 李靚의 「遠山」과 中唐 시기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王建의 「江陵使至汝州」를 비교하면서 전자보다 후자가 시적인 감동과 깊이

31) 李學達, 「答朴思浩」, 『洛下生集』 14책, 『총간』 290, 46면. “文以理勝, 詩以韻勝, 不易之法也. 詩須如水中月鏡中花. 靚之故在, 捉之不定. 內典所云, 不即不離, 不粘不脫.”

32) 敏澤, 『中國文學理論批評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上冊 588-590면 및 下冊 894면.

33) 劉若愚, 『중국문학이론』, 이장우 역(동화출판공사, 1984), 85-86면.

34) 李學達, 「詩話」, 『逸名稿』(임형택 선생 소장본) 以理勝, 文之至極處, 以情勝, 詩之至極處. 昔人賦遠山云, 盡日自秋色, 無人知地名. 暗時雲更合, 缺處路應平. 此以理勝, 不如日暮數峰青似染, 行人說是汝州山, 寫景入情, 真是感人. 이 자료는 『洛下詩話』에도 실려 있다.

가 우수하다고 하였다. 왕건의 시를 들어본다.

뒤돌아보니 巴山の 길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한식날에 집 떠나 보리 익을 무렵 돌아오네  
해 저무는 몇몇 봉우리 푸르러 마치 물들인 듯한데  
행인들이 말하길 여주 땅의 산이라고 하네  
回看巴路在雲間，寒食離家麥熟還。  
日暮數峰青似染，行人說是汝州山。(王建, 「江陵使至汝州」)

810년 나이 42세 때에 王建이 江陵으로 파견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시이다. 작가의 고향인 許昌은 汝州와 가까웠는데, 이 시는 고향에 가까이 다가올 무렵에 지었다. 起句의 巴路는 巴山の 작은 길로, 강릉현으로 나 있는 길이다. 강릉 때에 한식날 파견을 나갔다가 이제 보리가 익을 무렵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왔던 길을 뒤돌아보았다. 이학규가 특히 이 시에서 높이 평가한 대목은 承句와 結句이다. 해질 녘 어스름한 분위기 속에서 멀리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봉우리들은 물을 들인 듯 푸르다. 시인의 시선을 잡아끄는 봉우리를 매우 산뜻하게 묘사하였다. 하지만 이 대목은 단순히 寫景에 그치지 않고 시인의 기분과 감정을 은은하게 함축하고 있다. 고향에 가까이 왔음을 새삼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즐겁고 기쁜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경물 속에 용해시켜 놓았다. 이학규가 ‘경물을 묘사하고 감정에 합치하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감정에 합치하다’(入情)는 말은 독자의 감정에 합치하는 것, 달리 말해 작품의 형상을 통해 독자가 깊은 감정의 울림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시인과 독자의 상상의 경험 속에서 감정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이학규는 산문과 변별되는 시의 가장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특성을 ‘情’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情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물 또는 형상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바, 情과 景의 관계가 시창작에서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시 창작에 있어 情과 景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이 점에 대해 이학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는 情과 景의 두 가지가 융합하여 말을 이루는데, 감정에 기인하여 경물에 기탁하는 것이 있고 또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 감정과 경물 이 두 가지는 마치 거울 속의 꽃, 물에 비친 달과 같다. 눈을 현란케 하듯 어여쁜 나뭇가지 하나를 보면 꽃 속의 참 향기에 향기 속의 별떼를 생각하기에 미친다. 다시 꽃가지 끝 날아가는 참새와 꽃 앞의 작은 집, 집 안의 은자, 사람 곁의 술잔 하나, 술잔 앞에 비 내리는 모습 등이 마음 속에 얽혀 있지 않음이 없게 된다. 다시 물 속의 달이 둥글고 깨끗하게 사람 얼굴에 비추는 것을 보면 문득 달 가의 구름, 구름 위로 푸른 하늘, 하늘가의 누각 하나, 누각 안의 먼 나그네, 때로는 난간에 기대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주름 너머로 젖대를 부르는 모습들이 마음 속에 얽혀있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감정에 기인하여 경물에 기탁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꽃을 보면 용무늬 장식한 거울을 한번 비쳐보니 가냘팠던 더욱 심해지고, 달을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한번 비추어 상쾌함이 더욱 배가된다. 이것을 일컬어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sup>35)</sup>

情과 景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학규는 정과 경의 관계를 통해 시 창작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개괄하였다. 정과 경은 시 창작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 융합해야 한 편의 시를 창작하게 되는데, 그 융합의 방식이 둘로 나뉜다. 하나는 ‘감정에 기인하여 경물에 기탁하는 것(因情寓景)’이며, 다른 하나는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 것(遇景起情)’이다. 이 두 가지는 시 창작에서 정과 경이 결합하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방식인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서 景의 함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景의 함의는 두 층위로 구분된다. 하나는 객관적 존재로서의 외부 경물, 다른 하나는 작품 속에 존재하는 예술적 형상이다. ‘감정에 기인하여 경물에 기탁하는’ 창작 방식에서 景은 작품 속에 존재하는 예술적 형상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 창작 방식에서 景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경물을 지칭한다.

‘감정에 기인하여 경물에 기탁하는(因情寓景)’ 창작 방식은 작품 속 형상 속에 속에 시인의 감정을 기탁, 투영시켜 놓은 것을 뜻한다. 감정을 직설적, 노골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묘사되는 형상 속에 때로는 은미하고 함축적으로 숨겨놓기도 하고, 강렬한 색채를 띠게 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경물 묘사가 단순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묘사 속에 시인의 감정이 투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경물 묘사를 깊이 음미하고 스스로 체득함으로써 작가의 감정과 의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遇景起情)’ 창작 방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경물과의 우연한 접촉을 계기로 시인의 감정이 흥기되는 것을 가리킨다. 감정의 발생 근거는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 경물이다. 이학규는 정과 경의 상호 관계에 의한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창작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는 대신에 『시경』과 당시 작품에서 두 구씩을 뽑아 실례로 들었다.<sup>35)</sup>

그런데 이 情과 景은 상호 긴밀하게 합치, 결합하였을 때에 고도의 예술성을 갖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정과 경이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王夫之는 『姜齋詩話』에서 “정과 경이 서로를 낳아 서로 감추어준다(情景相生, 互藏其宅)”라고 한 바 있다. 이른바 정경교응의 경지를 통해 정은 경에 의해 드러날 수 있고, 경은 정에 의해 깊어질 수 있다. 이때에는 정과 경 중에서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학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정과 경의 상호 결합과 교응의 상태를 ‘鏡中之花’, ‘水中之月’에 비유를 하였다. ‘鏡中之花’, ‘水中之月’는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한 말인데,<sup>37)</sup> 정과 경이 하나의 혼연한 전체로서 존재

35) 李學達, 『洛下詩話』(단국대 소장본) 詩以情景二道, 融合成語, 有因情寓景者, 又有遇景起情者。—— 槩情景二致, 如鏡花水月。見鏡中一枝, 刺眼嬌嬌, 便思及花中真香, 香裏群蜂, 又思及花梢飛雀, 花前小屋, 屋裏幽人, 人邊一樽, 樽前雨氣, 無不繚繞心內。又見水中一輪, 照面圓潔, 便思及月邊雲葉, 雲上碧天, 天涯一樓, 樓中遠客, 或倚檻懷人, 隔簾橫吹, 又無不繚繞心內。此之謂因情寓景上事也。又有見花而因思盤龍一照, 嬌暈必加, 見月而遂望綺文一映, 清爽更倍。此之謂遇景起情上事也。

36) 달리 해석해 본다면,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발생의 선후 관계에 달려 있다고 이해된다. ‘감정에 기인하여 경물에 기탁하는 것’은 정이 경에 앞선다. 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이 있는 방식이다. 시인의 감정에 따라 주변의 경물이 달리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인이 슬픈 감정에 쌓여 있을 때에는 주변에 보이는 경물 또한 울고 있는 듯 슬프게 보이게 마련이다. 이에 비해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먼저 경이 있고 뒤에 정이 있는 방식을 말한다. 평온한 상태에 있던 시인이 우연히 외부 경물에 의해 자극을 받아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觸景生情’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외부의 객관 경물이 시인의 내면 감정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창작 방식이다.

37) 嚴羽, 『詩辨』, 『滄浪詩話』. 詩者, 吟詠情性也。盛唐諸人, 惟在興趣, 羚羊掛角, 無跡可求。故其妙處, 透徹玲瓏, 不可湊泊, 如空中之

함을 비유한 것이다. 『창랑시화』에서 이 비유는 예술 작품이 하나의 전체 속에 통합, 용해되어 ‘無跡可求’의 경계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거울 속에 비친 꽃처럼, 물 속에 비친 달처럼 드러낸 듯 숨은 듯 하면서 느낄 수 있지만 실체를 규명할 수 없는 경지여야 한다. 이학규는 이러한 비유를 끌어와 정과 경의 결합과 교용이 혼연한 일체를 이루어야 함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야 시 작품이 함축적이며 은미하며 완곡한 미적 특징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이학규는 정과 경의 상호 결합 양상에 따라 시 창작 방식을 크게 ‘因情寓景’, ‘遇景起情’ 두 가지로 개괄하였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정과 경을 통해 창작 방식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방식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학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당시와 송시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나라 이전의 시는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많지만, 송나라 이후로는 그와 반대이다. 이것은 당나라 이전에는 앞선 사람들의 작품이 매우 적어서 도습을 하지 않아서이니, 비유하자면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가 한번은 슬퍼하고 한번은 하소연하는데 천진스러움이 반짝반짝거리니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당나라 이후로는 수레에 실어 운반하면 소가 땀을 흘리게 되고, 쌓아올리면 들보에 닿을 정도로 작품 수량이 많은데, 오직 오연, 칠연만이 절반을 차지한다. 만약 하나의 일, 하나의 사물을 노래하고자 하면 옛사람의 이름을 많이 따오거나 서적을 늘어놓지 않으면 시구 하나 글자 하나조차도 얻지 못한다.<sup>38)</sup>

당나라를 기점으로 당나라까지의 시는 ‘경물을 만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많았던 데에 비하여, 송나라 이후의 시는 그 반대라고 하였다. 이학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처음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짓는 표정이 모두 천진스러워 사랑스럽듯이 당나라 시기까지는 시인도 많지 않고 작품 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전대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도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반해 송나라 이후로는 시인도 대폭 늘어나고 작품 수량 또한 증가한데다가 오연시와 칠연시만으로 창작을 하게 됨에 따라 전대의 작품을 참고하여 빌려 오거나 전고를 활용하여 시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 점은 宋詩의 산문적이며 서술적인 특성과 일정 부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변적이며 說理的 경향이 강한 宋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작 방식이다. 도덕적이며 교훈적인 내용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었던 宋詩에서 객관적인 외부 경물과의 우연한 접촉을 통해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 방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형께서 보내신 시는 ‘기러기 울음’과 ‘떨어지는 잎사귀’로 이별의 정황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造語가 너무 친절하셔서 본래의 뜻을 도리어 잃어버렸습니다. 일찍이 『西廂記』에 나오는 구절을 보았는데, ‘사방을 에워싼 산 속 / 한줄기 석양빛만 비추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열 글자 안에 이별의 말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참으로 아담해 혼이 다 녹을 듯합니다.<sup>39)</sup>

音, 相中之色, 水中之月, 鏡中之象, 言有盡而意無窮.

38) 李學達, 『洛下詩話』(단국대 소장본) 且凡唐以上詩, 最多遇景起情. 自宋以下, 反是. 此因三唐以前, 前人製作甚少, 無從蹈襲. 如初學語小兒一吐一訴, 天真爛然, 無不可愛. 自唐以後, 充棟塞樓, 惟五七字居半焉. 假使賦一事咏一物, 自非點鬼獮祭, 則道一句一字不得.

39) 李學達, 『洛下詩話』(단국대 소장본) 吾兄來詩, 欲以叫鴻落葉, 點得別筵, 只因造語太丁寧, 反失本意. 嘗見西廂有云, 四圍山色中, 一鞭殘照裏. 此十字內毫不用離別底言語, 而真乃黯然銷魂.

누군가가 보내온 시에 관해 논평을 하는 글이다. 상대방의 시는 ‘기러기 울음(叫鴻)’과 ‘떨어지는 잎사귀(落葉)’라는 시구 등을 활용해서 이별의 정황을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학규는 언어 운용의 방식이 지나치게 친절하다고 평하였다. 여기서 친절하다라고 번역한 ‘丁寧’은 비슷한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함축적인 미감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기러기 울음’이 쓸쓸한 이별의 분위기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또 다시 ‘떨어지는 잎사귀’라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를 통해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뜻(本意)을 오히려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학규는 시의 의미를 지나치게 드러내 놓기 보다는 감추고 숨김으로써 시적 여운과 함축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문 희곡작품 『西廂記』에 나오는 아래의 시구를 인용하면서 시의 예술적 형상과 그 표현 방식의 모범적 실례를 제시하였다.

사방을 에워싼 산 속	四圍山色中
한줄기 석양빛만 비추네	一鞭殘照裏

『西廂記』 4本 3節에 나오는 유명한 ‘長亭送別’의 한 장면에 나오는 시구이다. 역시 이별의 정황을 노래하였다. 『西廂記』의 남녀 주인공인 장군서와 앵앵이 이별을 하는 ‘長亭送別’의 장면은 짙은 서정적 분위기 속에 이별의 슬픈 정서를 예술적으로 승화한 표현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학규는 이 장면 속에서 위의 인용문에 보이는 열 글자에 주목하였다. 두 남녀 주인공의 애틋한 이별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작가는 애간장을 찢는 아픔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정경이 어우러진 예술적 경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사방을 에워싼 산중에 한줄기 석양빛만이 비추고 있네’라는 이 10글자에 불과한 시구는 두 남녀가 이별하는 주변의景物 속에 이별의 슬픈 정감이 한데 어우러진 예술적 意境에 해당된다. 이학규는 희곡 장르에 속하는 작품을 정경교용의 창작 방식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실례로 원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시 창작에 있어 정과 경의 상호 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情과 景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 이상의 논의는 이학규의 시론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생각된다. 情을 중심으로 두었던 그의 시론은 情의 진실한 표현이라는 측면에 머물지 않고 情景의 상호 유기적이며 완미한 결합 방식을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情景의 상호 관계 및 결합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조선후기 시론사의 가치 있는 성과의 하나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 5. 앞으로의 과제

낙하생 이학규의 학문과 문학에 관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텍스트 문제이다.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텍스트이다. 1985년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이학규의 시문을 모아서 영인본 『낙하생전집』을 발간한 것은 이학규에 관한 본격적 연구를 열어주는 시발점이었다.

그만큼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시문 자료 등이 계속해서 발굴 소개되어 왔다. 이번 발표에서도 몇 종의 신자료를 소개 하였는데, 앞으로도 자료 발굴의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문집 이본들간의 비교 대조를 통한 정본화 작업 또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천리대학 소장본을 중심으로 편집한 한국문집총간본이다. 하지만 여기에 누락된 시문 작품도 상당수에 이르며, 같은 작품 일지라도 글자의 출입, 주석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본간의 정밀한 교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본간 대조 작업을 통해 보유편을 간행하거나 교감본을 편찬하는 작업이 앞으로 텍스트 문제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된 『낙하생고』는 그동안 가장 중요한 이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인을 하는 과정에서 1권과 8권에 붙어있는 부지가 누락되었고, 일부 작품들의 경우 頭註 형태로 기록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영인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천리대학에 소장된 『洛下生藁』를 재조사하고 현재의 영인본에서 누락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학규의 생애 및 교유 관계에서 그동안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텍스트 문제만큼 연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작가의 생애와 교유 관계의 면밀한 복원이다. 물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학규의 생애와 교유 관계의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수 밝혀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남 학자와의 교류와 관련하여 앞서 이학규의 글을 읽고 쓴 河達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東岡 金宇顒(1540-1603)의 8대손이었던 金冕運(1775-1839) 또한 주목할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는 19세기 경상우도 유림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德川, 臨川, 鼎岡, 淸谷 書院의 원장을 역임했다. 동강의 후손으로 남명학을 가학으로 이어받았고,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안동의 金聖鐸과 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학문과 문장으로도 이름이 있었으며, 몽유록 작품 「錦山夢遊錄」을 남겼다.<sup>40)</sup> 그의 문집에는 이학규에게 보내는 간찰이 3통, 다산 丁若鏞에게 보내는 간찰 1통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학규에게 보낸 간찰 중에서 이자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보인다.<sup>41)</sup> 이자를 늘려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하는 일 자체가 해가 될 일은 아니지만, 김면운은 군자가 가난을 견디는 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영남의 풍속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였다. 장사치와 시정간의 일에 대해 입에 오르기를 부끄러워 하였던 김면운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한편 영남의 학자였던 金疇壽(1787-1863)의 『四可軒遺集』 소재 「東遊錄」에는 1823년 2월 29일 김해를 방문하여 이학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의 언변과 풍채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라고 이학규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sup>42)</sup>

또한 중국과 일본 등의 인물들과 교류를 하였던 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들 외국 인사들과

40) 김면운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는 강혜중, 「오연 김면운의 생애와 시문학」, 『남명학연구』 64, 남명학연구소, 2019 참조.

41) 金冕運, 「答李亨叟」, 『梧淵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2. 兄之因人貿遷, 爲數年長殖之計者, 亦何傷哉? 但因此, 而通商賈之伎, 逐什一之利, 以取其贏羨, 則恐非君子固窮之節也. 且山南風俗, 勤儉務本, 士大夫甘窮餓而樂名檢, 開口恥言商賈市井之事. 挽近以來, 世變風移, 往往以長貧賤, 好言仁義爲可羞. 從今以往, 又安知不以兄爲口實, 靡然從趨, 終至於莫之救以正耶?

42) 金疇壽, 「東遊錄」, 『四可軒集』入城中, 訪李學達(주: 本洛下文章士, 而方在謫居, 故訪之) 其言論風采, 動人耳目. 李設小酌, 深謝勤訪. 日晏偕李登燕子樓, 望中沚亭, 亭在四面清潭之中, 而種以叢竹芳蘭, 其景可賞, 與昌原蓮花亭可甲乙也.

는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만남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서신 교류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청나라 때의 시인이었던 熊昂碧, 서화가로 유명한 吳嵩梁 등과의 교류가 문집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들 두 사람과의 교류는 자하 신위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인물 중의 한 사람이 翁樹岷이다. 용방강의 아들 翁수곤이 이학규에게 시를 칭하는 내용의 서한이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翁수곤의 친필로 쓰인 이 서한에는 율시 한 수를 보내니 이에 대한 화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翁수곤과의 교류 또한 자하 신위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翁수곤의 작품과 이에 대한 이학규의 화답시 등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일본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김해 지역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이학규는 1810년 통신사 일원으로 일본에 가는 동자 金哲俊을 위해 「送童子金哲俊陪信使入日本」과 연작시 「釜山放船詞七章追贈金哲俊」을 지었으며, 1811년에는 총 20수 연작시인 「草梁倭館詞」를 통해 19세기 전반 부산 및 초량 왜관의 풍속과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여러 작품 속에서 일본 문화와 풍속이 지역 사회에 스며든 모습들을 표현하였다. 일본 문사와의 교류 중에서 飯田篤老(1778-1826)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飯田篤老는 히로시마 태생으로 의사이며 藩士였으며, 俳人으로 유명하였다. 이학규는 동래 사람 윤사혁을 통해 飯田篤老가 지은 시에 화답하는 작품을 남겼다. 왜관을 통해 한일간 문사가 시를 수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학규의 문학 세계와 관련하여 그동안 악부계열의 작품, 민중의 삶을 소재로 한 현실주의적 성향의 작품군들이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배 후기 및 만년기의 작품들에 주목을 하고 이학규 시세계의 변화상이나 내면 의식, 표현 기법 등에 새롭게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명청 시대 도시문화사, 물질문화와 소비문화 등에 관해 대표적 성과를 제출해 온 대만의 학자 巫仁恕는 『사치의 제국』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명말의 소비현상은 중국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꽤 오랫동안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 과거 중국의 명청사 학계에서 제시한 ‘자본주의 맹아론’은 선형적 연구 방법으로, 당시 정치적 분위기와 민족적 정서의 영향 아래에서 서양의 자본주의가 중국에도 있어야만 한다고 하여 중국 역사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 자본주의 맹아나 초기 상업화와 상관없이 생산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명청 경제사 연구의 중심이며, 소비에 관한 연구는 아무런 비중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sup>43)</sup>

巫仁恕는 이 책에서 명대 말기에 두드러졌던 문인층과 상인층의 문화정체성 구축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양상을 명말 사대부들의 사치 유행 풍조 등의 소비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책을 여기서 거론한 것은 우리가 이학규의 문학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참조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다. 이학규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과 독특한 풍속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시정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와 생활상 등에 대해서도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도시문화, 물질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변화상 또한 이학규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였다. 이처럼 도

43) 무인서, 『사치의 제국』, 김의정 외역, 글항아리, 2019, 496-497면 참조.

시와 농촌 두 공간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 당대 사회와 문화의 변화상과 그 문제점, 그리고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을 폭넓게 조명하면서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가로서 이학규는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문화, 물질문화가 이러한 이학규 문학에 접근하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금관죽지사」, 「금관기숙시」 등에 보이는 음식, 의복, 놀이, 주거양식 등에 보이는 소비 행태를 倭風 또는 한일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넓게 본다면 서울 등의 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대부 중심의 취미, 소비 행태, 욕망 추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感事三十四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이학규 문학과 관련하여 불교 승려들과의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학규는 김해의 西林寺 승려인 留坦, 仙正과 교분을 맺었으며, 戒悟(1773-1849)와는 서신을 주고 받고 시를 창화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西林寺 이외에 거제부의 隱寂庵과 淨水寺를 방문하여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장지연의 『대동시선』에는 이학규의 시가 모두 11수 실려 있는데, 그 중의 한 작품인 「夜宿西林寺坦公房」은 留坦과의 교유 및 유배객으로서의 내면 감정을 잘 보여준다.

戒悟는 자가 鵬舉, 속성은 權, 본관은 안동이다. 11세에 부모의 뜻에 따라 팔공산 月庵和尚에게 출가하였고, 가지산 燃燈精舍에서 입적하였다. 그는 李學逵 이외에 洪直弼 등 유학자들과 교유를 가졌으며, 문집 『伽山藁』를 남겼으며, 『대동시선』에는 5언절구 「山行」이 수록되어 있다. 이학규가 계오에게 1821년과 1823년에 보낸 편지가 문집에 전하며, 계오의 문집 『가산고』에는 이학규와 주고받은 시와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편지글에서 頓悟의 문제를 둘러싸고 오간 문답이 흥미롭다. 계오는 이학규의 물음에 답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미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힘을 써서 살피고 염하십시오. 그것을 觀하고 상세히 이해해 단박에 깨닫게 된다면, 또한 客塵의 번뇌를 아득히 벗어나 흔쾌히 佛法의 문 안으로 두뇌를 돌리고 반야의 혜명을 깊이 심는 일이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흠모와 부러움 그지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가산고』에는 이학규의 原詩를 함께 수록해 놓았는데, 이학규의 「題西林寺」는 문집총간에 보이지 않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학규의 또 다른 호로서 海廬가 사용되었음을 밝혀 놓기도 하였다. 불교 승려와의 교유 및 이를 통해 산출된 작품들은 이학규의 유배 후기 및 해배기의 삶과 의식 지향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李學逵,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 민족문화추진회.

李學逵, 『洛下生全集』, 아세아문화사, 1985.

李學逵, 『洛下生集』, 국립중앙도서관.

李學逵, 『洛下生稿』, 서울대 규장각.

李學逵, 『洛下生藁』, 서울대 중앙도서관 일사문고.

- 李學逵, 『因樹屋集』, 서울대 규장각.
- 李學逵, 『洛下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李學逵, 『洛下生稿』, 연세대 국학자료실.
- 李學逵, 『洛下詩話』,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
- 李學逵, 『洛下尺牘』, 영남대 도서관.
- 李學逵, 『文漪堂稿』, 서강대 도서관.
- 李學逵, 『秋樹根齋集』, 버클리대 동아시아문고.
- 李學逵, 『秋樹根齋初稿選』, 버클리대 동아시아문고.
- 李學逵, 『因樹屋集』, 한국국학진흥원.
- 李學逵, 『西洛詩集』, 한국국학진흥원.
- 李學逵, 『匏花屋集』,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본.
- 李學逵, 『匏華屋集』, 계명대 도서관본.
- 李學逵 盧德圭, 『物名類解』, 부산대 도서관.
- 『逸名稿』, 임형택 선생 소장본.
- 『新腔』, 임형택 선생 소장본.
- 『雜詩』, 고려대 도서관본.
- 李家煥, 『錦帶詩文鈔』 등, 『近畿實學淵源諸賢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李用休, 『惠寰雜著』, 『近畿實學淵源諸賢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李瀛,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8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경인문화사, 1987.
- 金冕運, 『梧淵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金疇壽, 『四可軒遺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河達弘, 『月村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戒悟, 『伽山藁』, 『한국불교전서』
- 張志淵, 『逸士遺事』
- 京城帝國大學朝鮮語學文學會 편, 『朝鮮語學文學 古書展覽目錄』,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문학회, 1939.
- 강혜중, 「오연 김면운의 생애와 시문학」, 『남명학연구』 64, 남명학연구소, 2019.
- 곽미선, 「이학규의 금관기속시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연민학지』 21, 연민학회, 2014.
- 김보경, 「김해 함허정의 장소기억 :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을 겸하여」, 『한국한문학연구』 80, 한국한문학회, 2020
- 김성진, 「부산왜관과 한일간 문화교류」, 『한국문학논총』 22, 1998.

- 김성진, 「조선후기 김해의 생활상에 미친 일본문물」, 『인문논총』 52,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 김수철, 「낙하생 이학규의 영남악부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영진,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 오가시적구」, 『고전과 해석』 창간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
- 김영진, 「유산 정학연 시집 이본고(2)」, 『한국시가연구』 52, 한국시가학회, 2021.
- 김지인, 「이학규 산문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철범, 「이학규의 금관기속시」, 『문화전통논집』 2, 경성대 부설 한국학연구소, 1994.
- 김하라, 「낙하생 이학규 서간문의 자기서사적 특성」, 『민족문학사연구』 제2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5.
- 김혜실, 「이학규의 영남 해동악부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1990.
- 김효정, 「낙하생 이학규의 원예시 연구」, 『한국민족문화』 6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류화송, 「이학규의 「성운설」 소고」,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2005.
- 박정희 역, 『동사일지』, 한국국학진흥원, 2016.
- 박혜숙, 「이학규의 악부시와 김해」, 『한국시가연구』 6, 한국시가학회, 1998.
-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연구 : 실학과문학의 일례」,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1.
-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연구』, 보고서, 2005.
- 백원철, 『한국학 탐구의 시각』, 보고서, 2007.
- 석진주, 「이학규의 영남악부 해동악부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손혜리, 「낙하생 이학규의 영남악부 재론」, 『영남학』 2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3.
- 신익철 외역, 『역주 해동악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2.
- 신익철, 「다산과 다산학단의 국영시 창작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16, 한국실학학회, 2008.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유배지에서 역사를 노래하다, 영남악부』, 성균관대 출판부, 2011.
- 심경호, 「서정 자아의 근대적 변모와 그 한계 : 낙하생 이학규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25, 일지사, 1981.
- 심경호, 「한국 유서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7.
- 안대회, 「성시전도시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안대회, 『조선의 명문장가들』, 휴머니스트, 2016.
- 안미정, 「이학규의 금관죽지사 금관기속시 연구번역」,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13.
- 양업교회사연구소 편, 『황석두 루카 성인 전기자료집』, 천주교 청주교구 연풍순교성지, 2013.
- 양업교회사연구소 편, 『황석두 루카 성인 전기자료집』, 천주교 청주교구 연풍순교성지, 2013.
- 유화송, 「이학규의 성운설 소고」,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2005.
- 윤지안, 「조선후기 수선화의 유행과 쇠퇴」, 『인문과학연구』 27,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 윤민구, 『초기 한국천주교회사의 쟁점 연구』, 국학자료원, 2014.
- 윤승준, 「필사본 추운다집의 자료적 가치」, 『동양학』 4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0.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민중서관, 1961.

- 이강옥, 「김해 여성과 이학규의 시세계」, 『고전여성문학연구』 12, 고전여성문학회, 2006.
- 이국진, 「이학규의 현실인식과 시세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국진, 「이학규 한시의 표현기법과 미적 특질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이국진, 『낙하생 이학규의 시문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 이병영, 『어둠을 헤친 사람들』, 성바오로 출판사, 1968.
- 이봉원, 「낙하생 이학규의 금관죽지사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용범, 「한학자 김태준에 대하여」, 『동방학지』 18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9.
- 이종묵, 「조선후기 연행과 화훼의 문화사」, 『한국문화』 6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 이철성, 「18·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인삼 재배기록 비교연구」,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0, 세계문화사학회, 2021.
- 이철성, 『작지만 큰 한국사, 인삼』, 푸른역사, 2023.
- 이현일, 「소재 서기수 시 연구」, 『동양학』 5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4.
- 임형택, 「낙하생전집 해제」, 『낙하생전집』, 아세아문화사, 1985.
- 임형택,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2007.
-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정승혜, 「낙하생 이학규와 물명유해」, 『문헌과해석』 38, 문헌과해석사, 2007.
- 정우봉,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세계」, 『한국실학연구』 6, 한국실학학회, 2003.
- 정우봉, 「이학규의 문학론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 정우봉, 『아침은 언제 오는가』, 태학사, 2007.
-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변모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심층 연구』, 학자원, 2020.
- 정은진, 「이가환의 정현쇄록 해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 정은진 정은주, 「동빈문고 소장본 낙하척독 고찰」, 『민족문화논총』 6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6.
- 최범, 「낙하생 이학규의 고정기사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 한영규 정은주, 「이학규의 성시전도시 창작 배경과 그 특성」, 『한자한문교육』 29,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 허경진 역, 『낙하생 이학규 시선』, 평민사, 1998.
- 허연구, 「낙하생 이학규의 해동악부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3.
- 홍귀향, 「낙하생 이학규의 농촌시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19, 동양한문학회, 2004.
- 무인서, 『사치의 제국』, 김의정 외역, 글항아리, 2019.
- 淺見洋二 外, 「이학규 초량왜관사 역주고」, 『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53, 大阪大學, 2010.

## 이학규의 지역 학풍을 향한 시선과 그 振作 의지

정용건(강원대)

1. 들어가며
2. 이학규의 지역 학문 현실에 대한 인식
3. 학풍 진작을 위한 노력과 그 작품화 양상
4. 결론

### 1. 들어가며

洛下生 李學達(1770~1835)는 1980년대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래 현재까지 여러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다방면으로 주목받아 왔다. 李瀾-李用休-李家煥으로 이어지는 ‘星湖 학파’ 후손으로서의 면모, 신유옥사(1801)와 20년 이상의 유배 생활을 경유한 불우한 생애, 丁若鏞·申緯 등 당대 명사와 두루 교유한 행적 등이 특별한 주의를 끌었으며, 유배지 김해(및 영남) 일대를 배경으로 창작한 紀俗詩·竹枝詞·樂府 작품은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리한 현실 비판 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분석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그간 시 방면에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던 이학규 문학에 대한 시각이 산문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학규가 견지한 작가 의식과 그 산문 세계의 형식적·내용적 특징 전반을 고찰한 연구가 제출되는 한편,<sup>1)</sup> 작품에서 드러나는 내면 의식을 면밀히 살핀 논의가 등장하기도 하였다.<sup>2)</sup> 이러한 성과는 그가 유배지에서 형성한 학문관과 의식 지향을 한층 깊이 있게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규의 산문은 여전히 탐색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전하는 『洛下生集』에 다수의 산문 작품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절대적인 연구 수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가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대체로 그의 유배 경험 속에서 산생된 개인적 불우와

1) 정우봉(2003), 「洛下生 李學達의 산문세계」, 『한국실학연구』 6, 한국실학학회; 정은주(2006),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 김하라(2005), 「낙하생 이학규 서간문의 自己敘事的 특성」,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김지인(2012), 「이학규 산문 연구: 사적 고통의 문학적 형상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고통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학규의 산문을 일별해 보면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짙게 표현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기속사·죽지사·악부 등 시 작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변과 지역으로 시선을 돌린 작품 또한 또한 적지 않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해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상한 관심 위에서, 그곳의 학문·풍속 진작과 교화를 목적으로 지은 작품군의 존재가 눈에 띈다. 이들 작품은 이학규가 고된 유배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실상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문학’의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한 또 하나의 면모를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학규의 산문 작품을 대상으로, 그가 지역의 학풍 진작과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학규가 품고 있던 지역의 학적 토대와 실상에 대한 인식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뒤, 이어 작품 창작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儒風 흥기 의지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그간 상대적으로 ‘내면’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던 이학규 산문 연구의 지평을 ‘외부’로 확장함과 동시에, 시를 통해 지역 풍속역사에 두터운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설명되어 온 이학규의 문학 세계를 산문과 함께 한층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2. 이학규의 지역 학문 현실에 대한 인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학규가 유배지인 김해 및 영남 일대의 풍속과 학문 실상에 대해 지니고 있던 인식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와 같이, 이학규는 20년 이상 계속된 유배 생활 중에도 지역의 지리·풍속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곧 그의 작품 활동으로 이어져, 「金官竹枝詞」(1809), 「金官歲時記」(1812), 「金官紀俗詩」(1819) 등 김해 풍속을 관찰·기록한 시문을 두루 창작하였으며,<sup>3)</sup> 「嶺南樂府」(1808)를 통해 고려 이전 영남의 역사를 악부의 형식으로 노래하였다.<sup>4)</sup> 또한 「飢民十四章章十句」, 「己庚紀事詩」 등의 작품을 지어 극심한 가뭄과 기근, 지방관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의 실상을 적실하게 드러내었다.<sup>5)</sup> 이와 같은 면모는 그가 지역 문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현실에 대한 예민한 감각 속에 이곳을 ‘창작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이학규는 김해를 새로운 공부 터전으로 삼아, 그곳에서 그만의 학적 성취를 쌓아 나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역사·문물·제도에 대한 사항을 120여 항목으로 정리한 「東事日知」(1819)와 자료근거를 통해 三韓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三韓疆域辨」(1819)은 「영남악부」·「해동악부」(1821)와 함께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다.<sup>6)</sup> 또한 「亂臣婦人辨」(1814), 「孔氏三世出妻辨」(1814) 등의 논변류 작품과 「擬問春秋三傳同異策」(1820), 「擬問夫子刪詩策」(1820)과 같은 擬

3) 李學達, 『洛下生集』, 「金官竹枝詞」; 「金官歲時記」; 「金官紀俗詩」

4) 李學達, 『洛下生集』, 「嶺南樂府」

5) 李學達, 『洛下生集』, 「己庚紀事詩」

6) 李學達, 『洛下生集』, 「東事日知」; 「三韓疆域辨」

策의 저술을 통해 經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sup>7)</sup> 나아가, 「月食說」(1814), 「百刻說」(1814), 「聲韻說」(1814), 「潮汐說」(1820) 등 과학언어 관련 분야에 대한 논설류, 「錢論」(1820), 「尸童辨」(1820), 「兵仗說」(1822) 등 사회제도를 다룬 산문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함으로써, 그의 학문적 관심이 역사경학의 측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sup>8)</sup> 그러한 점에서 김해는 이학규에게 혼란하고 번다한 현실에서 이격되어 자신의 학적 활동에 침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학문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학규가 이곳에서 행한 이와 같은 작품 활동과 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김해 지역에 대한 그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이학규는 서울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文才로 주목받았으며, 정조의 명을 받아 규장각 도서 편찬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정조 사후 일어난 옥사에 연루되어 먼 김해 땅에서 20년 이상의 유배 생활을 감내해야 하였다. 촉망받는 유망주에서 불경한 죄인으로 한 순간에 떨어진 전락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커다란 상실과 좌절을 안겨주었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낯선 환경에 새로이 적응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학규는 그의 여러 산문 기록들, 특히 서간문을 통해 김해 일대의 열악한 환경과 그곳에서의 고된 삶에 대해 지인들에게 자주 토로하였다. 김해에서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혹자의 서신에 대해 ‘이곳에는 결코 좋은 곳이 없다’고 말하며 ‘뱀’, ‘모기’, ‘고을 사람들의 허황된 이야기’가 김해의 3대 특산물로 일컬어진다는 점을 언급하거나,<sup>9)</sup> 유배지에서 겪고 있는 자신의 괴로움을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빈한한 생활’, ‘지역 인물 응대’, ‘뱀’ 등 네 가지로 정리해 하소연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0)</sup>

나아가, 김해 지역에 대한 이학규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곳의 문화와 풍속, 학문의 지점으로까지 옮겨갔다. 다음은 이학규가 혹자에게 부친 서신의 일부이다.

㉠ 이 고을 남자에 대해 말하자면, 재주와 명성이 온 고을에 떠들썩한 자가 있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면 과거에 응시할 만한 사람이 없으며, 시문을 짓는 자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빗을 때먹기만을 알 뿐입니다. 빗을 때먹는 법은 문에 올라 욕하고 꾸짖는 자를 보면 빙그레 웃을 따름이요, 문서를 갖추어 송사를 일으킨 자를 보면 도리어 꾸짖을 따름입니다. 고을 여자에 대해 말하자면, 술과 음식에 대해 논하지 않고 베 짜는 일 또한 돌아보지 않으니 이 때문에 고을에 좋은 양념과 장, 직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비둘기가 오디를 따먹고 꿩이 수컷을 구하는 것처럼 짝을 찾으며, 서로의 행실을 들추어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아침저녁으로 오직 파와 달래만 씹어 그 냄새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축농증을 지닌 자, 야맹증을 가진

7) 李學遠, 『洛下生集』, 「亂臣婦人辨」; 「孔氏三世出妻辨」; 「擬問春秋三傳同異策」; 「擬問夫子刪詩策」

8) 李學遠, 『洛下生集』, 「月食說」; 「百刻說」; 「聲韻說」; 「潮汐說」; 「錢論」; 「尸童辨」; 「兵仗說, 贈金君鎮擘」

9) 李學遠, 『洛下生集』, 「答」, “金官有何好處? 如吾曹自無悚况, 固難爲好, 假使平常無故人當之, 金官決非好處也。(中略) 往年有一邑宰善諛者, 謂金官有三產, 蟒蛇, 一也; 飛蚊, 二也; 邑人撒謊, 三也。(中略) 如是而金官有何好處? 僕之南來, 路次見檜山一土校, 拱手賀余曰: ‘金官樂土也. 因何遭此佳處?’ 爾時聞言, 猶以爲未必然, 到今思之, 政宜一笑. 足下聞僕此言, 想以爲厭之太甚, 言必過中, 亦猶君子絕交不出惡聲, 何乃如是齟齬耶? 第因足下以金官風土謂必可樂, 亦因足下問及此鄉俗尚風氣至于再三, 茲故言之, 不厭煩耳.”

10) 李學遠, 『洛下生集』, 「與」, “此中有四般苦况, 不比他苦, 不可不令吾兄知之。(中略) 嗟乎! 生居安樂者, 一刺割爪, 猶以爲苦, 一蠅嘍肌, 亦以爲苦. 我獨何人哉? 偏受此苦, 而救苦無人, 離苦無地. 今日雖使吾兄盡知此苦, 於僕固無損益, 而環顧今世, 此情此狀, 亦無處告知, 今故言之, 不嫌絮煩耳.”

이학규의 서간문에 나타나는 김해 지역 실상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강욱(2004), 「낙하생 이학규의 문학과 조선 후기 김해」, 『지역문학연구』 10, 경남부산지역문화회, 137~145면; 김하라(2005), 158~161면 참조.

자, 나두창(癩頭瘡)·두부백선(頭部白癬)을 앓는 무리들이 수군대며 쳐다보니, 백에 하나도 좋은 풍속이 없습니다.<sup>11)</sup>

② 궁벽한 시골 글방의 선생들은 시문을 지을 적에 자신을 서울의 거벽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여겨 스스로 옳고 외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이 고을에 처음 왔을 때 시문을 가져와 보여주며 품평해 주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는 필시 나에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요 비판을 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좋은 말로 둘러대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좋은 말을 해 주니, 돌아가는 자들이 만족하여 스스로 서울 사람들의 기호에 부합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찾아오는 자들이 끊이지 않아 도리어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가공되지 않은 광석이 화로와 풀무를 구하고 굵은 물건이 櫛括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나는 그 임무를 맡지 않을 뿐 아니라 따라서 조장하려 하고 있으니, 어찌 충후하고 간절한 뜻이겠는가.’라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하니, 돌아가는 자들이 발끈 성을 내며 서울 사람들의 기호에 구차히 영합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날 찾아오던 자들이 팔을 휘저으며 지나가니, 응접하는 일이 거의 드물어져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된 지 여러 날 되었습니다.

대개 시문의 체재는 비유하자면 사람의 용모, 태도와 같습니다. 서울과 시골 인물들은 같은 사람이니, 코가 있는 것이 같고 눈이 있는 것이 같으며 말하고 웃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본래 서울이요 시골은 본래 시골이어서 구차히 같아질 수 없으며 또한 구차히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서울 입장에서 보면 서울과 시골의 차이를 알지만 시골 입장에서 보면 그 궁벽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서울과 같은 수준이 되는 줄만 할 뿐입니다.<sup>12)</sup>

①에서 이학규는 김해 지역의 척박한 문화 풍토에 대해 논하면서, 이곳 남성과 여성들의 생활 실태를 적나라하게 비판하였다. 남성들의 경우 재주와 명성으로 고을에 이름 높은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면 과거에 응시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시문 또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들 또한 음식을 만들거나 베 짜는 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이성을 좇거나 타인을 홍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지역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다.

또한 ②에서는 김해와 서울 문사들의 역량 격차에 대해 논하였다. 그에 따르면, 김해 문사들은 자신의 재주가 서울 명사에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탄식하곤 하는데, 실제 시문을 살펴보면 그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그럼에도 작품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리면 그들은 이내 성을 내고 돌아가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11) 李學達, 『洛下生集』, 「答」, “其爲男子者, 有以才名噪一邑, 而考其實, 則無能爲應舉家, 無病詩文者, 惟會撒謊與賴債耳. 賴債之法, 見登門辱罵則莞爾而已, 具狀起訟則反詈而已. 其爲女子者, 不議乎酒食, 不恤乎織紉, 所以此鄉無佳齋美醬及絨線紬布. 惟鳩食菘, 惟雉求牡, 從相摘發, 恬不爲恥, 朝夕惟噉蔥蒜, 臭不可近. 兼之多鼻鰾雀目及癩癬之類, 豐諄軟語, 曼睞善暎, 百不見一俗好.”

12) 李學達, 『洛下生集』, 「答」, “荒鄉學究, 作詩若文, 自以爲不下於京華巨擘, 自吟自誦, 嘖時人之不或知也. 僕之初到斯鄉, 人有以詩文來示, 乞爲評點者. 余惟是必求余譽稱而不求訾議, 則余將凡事容悅, 冀余安頓而已. 來斯諛之, 去者充然, 自以爲有中於京華好尚也. 於是乎來者踵相繼也, 反不勝其煩, 則又自思曰朴樸而求爐鑪, 枉材而求櫛括, 人之情也, 而余不惟任之, 又將順而助成之, 豈余忠厚惻怛之意耶? 來斯劾之, 去者怫然, 舉以爲不當苟合於京華好尚也. 於是乎昔之來者, 掉臂而過之, 應接絕稀, 脫然寧靜, 已有日矣. 蓋詩文體製, 譬猶人之容止態色. 京華荒鄉, 均是人也, 則鼻猶鼻也, 目猶目也, 言笑舉動, 猶言笑舉動也. 然猶京華自京華, 荒鄉自荒鄉, 不可以苟同, 亦不可以苟異. 自京華視之, 則知京華與荒鄉之異, 而自荒鄉視之, 則不自知其荒鄉, 而惟知爲京華耳.”

서 서울과 지방의 부득이한 학적 격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서울의 수준에 도달하기만을 바라는 지역 인사들의 실상을 비판하였다. 두 글에 모두 김해 지역의 문화적 열악함을 개탄하는 이학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지역 학풍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① 옛적 崔木翁이 매년 “집안 책상 위에 나관중의 『三國演義』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필시 문장이 형편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제가 일찍이 李 아무개가 시문에 능한지를 아무개 씨에게 묻자 아무개 씨는 웃으며 말하기를, “李 아무개는 일찍이 글을 지을 적에 서두에 ‘삼가 『事文類聚』를 살펴보건대’라 하였으니, 그 다른 부분은 알 만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면 본색이 다 드러나고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무궁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못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라 실로 돌아볼 것이 없지만, 오직 식견 있는 한 분의 隻眼은 두려워할 만할 따름입니다.

이 고을은 『삼국연의』를 입으로 외는 것을 능사로 삼고 『사문유취』를 귀한 물건처럼 집안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낸 8, 9년 사이에 보고 들은 것이 이와 같으니, 매년 지날 날 몇 분 군자들의 말을 떠올려 보면 저도 모르게 큰 탄식이 나옵니다.<sup>13)</sup>

② 이 고을에는 서적이 너무도 없어 瞿存齋의 『剪燈新話』를 책상 위에 높이 올려 두고 羅貫仲의 『三國演義』를 머리맡에 잘 보관해 둡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을 빌릴 마음이 없고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을 빌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건대 지난해 2월에 우연히 나무 위의 비둘기 울음소리를 듣고서 『禮記』「月令」의 ‘매가 변화하여 뻐꾸기가 된다.[鷹化爲鳩]’라는 구절을 떠올렸는데, 그것이 2월인지 3월인지 정확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글방에 보관해 둔 『예기』가 없다는 것을 평소 알고 있었기에 曆書 매월 아래 「월령」을 뽑아 부기해 둔 것을 생각하고서 역서를 급히 구해보았으나, 또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택일하는 일을 담당하는 土校에게 주머니를 털어 구해 살펴보고서 크게 만족하였으니, 이 고을의 열악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고을에는 큰 집이 없으니, 文雅를 관장하는 이는 온 고을을 둘러보아도 오직 다소 식견 있는 서리 뿐입니다. 저들은 실로 ‘帝’와 ‘帑’를 구분하지 못하고 ‘豕’와 ‘亥’를 자기 짐작대로 생각하지만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저들이 곧 무엇을 돌아보고 꺼리며 조금이라도 학문에 나아가겠습니까. 이곳에서 지낸 8, 9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라고는 문서를 작성해 송사를 일으키는 일에 지나지 않으며, 묻고 따지는 것이라고는 범죄 기록을 살펴 형벌을 주는 일에 불과합니다. 秘閣에 가득 찬 서적과 名家에 꽂혀 있는 책들을 때때로 생각하면 높은 하늘과 깊은 못처럼 아득하여 절로 긴 탄식만 내뱉을 뿐입니다.<sup>14)</sup>

위 두 글에서 이학규는 김해 지역의 열악하고 부족한 독서 행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①에서는

13) 李學達, 『洛下生集』, 「與」, “昔崔木翁每言: ‘見人家案上, 置羅貫仲『三國演義』一書, 意謂此人必不文.’ 僕嘗問李□□詩文能否於□□, □□笑曰: ‘李嘗作文, 起頭曰: 愚謹按『事文類聚』云爾, 則其他可知矣.’ 吾人有一言而露出本事, 一事而傳笑無窮者, 衆楚之咻, 固無足恤, 而惟一有知識者隻眼爲可畏耳. 此鄉則以口誦『三國演義』爲能事, 家藏『事文類聚』爲稀玩. 八九年間, 見聞如此, 每憶前日數君子之言, 不覺浩歎.”

14) 李學達, 『洛下生集』, 「答」, “此鄉苦無書籍, 以瞿存齋『剪燈新話』, 爲丁上尊閣, 羅貫仲『三國演義』, 爲枕中秘藏. 彼固無意於借人, 我亦不擬借於人. 記前年仲春, 偶聞樹上鳩鳴, 因想到月令鷹化爲鳩, 或是仲春, 或是季春, 疑思不定. 素知邨塾無藏弄『禮記』者, 轉思曆書每月之下, 抄附月令, 曆書急亦難求. 僅從土校之業涓日者, 傾囊肆考, 以爲大快, 斯鄉之鹵莽, 斯可知矣. 況此鄉無巨室大家, 其主持文雅, 雄視一邑, 惟是府胥之稍黠者. 而彼固帝帑不分, 豕亥惟意, 人無能從而摘發, 則彼即何所顧憚而稍就問學耶? 八九年間, 聞見不出乎具狀起訟, 問難無過乎慮囚議讞, 時時想到, 秘閣充棟之藏, 名家插架之玩, 邈若天淵, 惟自浩歎而已.”

『三國演義』, 『事文類聚』 같은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글을 짓지 못한다는 선배의 발언을 인용하며, 『삼국연의』 외우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사문유취』를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김해 학문의 실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②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김해 지역에 瞿佑의 『剪燈新話』를 중요한 책으로 숭상하고 『삼국연의』를 귀하게 보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 문사들이 다른 책은 빌려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 또한 그들에게 책을 구할 일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러고는 글방에 『禮記』 같은 기본 경서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독서와 공부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탄식 어린 어조로 논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고을 사람들이 喪事를 만나면 자신에게 挽詞를 써 줄 것을 청해 오는데 망자의 성명과 생애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서 무작정 좋은 시구만 지어주기를 청하는 실태를 비판하고<sup>15)</sup> 고을 내에 글씨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이가 희소함을 언급하는 등<sup>16)</sup> 지역의 문화풍속·학문 수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해는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이학규에게 오래도록 시련과 좌절을 안겨 준 공간이었다. 그런 만큼 서울과 상이한 그곳의 문화적 여건은 아무래도 그의 눈에 우호적으로 비추어질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학규는 그와 같은 시선과 감정을 비판의 영역에만 머물러두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의 유배 생활 속에서 보고 느낀 지역의 문화와 학풍에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낀 만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교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주로 지역 교육과 관련한 작품을 창작해 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범적인 면모를 보인 고을 인사를 새로이 발굴해 풍속을 면려하고 교화를 행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학규가 문학의 방식을 통해 지역 학문 진작과 교화를 위해 노력한 면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학풍 진작을 위한 노력과 그 작품화 양상

이학규가 김해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면모는 크게 ‘학문 면려와 인재 육성’, ‘지역 인사의 발굴과 현양’이라는 두 지점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1) 학문 면려와 인재 육성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학규가 지역 사회의 학문 면려와 인재 육성의 목표 하에 창작한 작품들에 대한 것

15) 李學達, 『洛下生集』, 「與」, “此鄉之人, 遇鄰里喪死, 不論樵兒牧豎師酒媪, 動費一張紙本, 東西奔馳, 乞爲輓詩. 然輓詩何可易作? 或不道出死者名姓居址, 直請作大好詩句, 傍觀爲之失笑. 鄰里情熟, 僂勉副急, 見其詩, 不知其人, 古或有之, 不知其人名姓居址, 而爲賦其詩, 必於吾始有也.”

16) 李學達, 『洛下生集』, 「答」, “吾兄謂□□書格, 爲此鄉第二手者, 不幾似乎東郭之耦射者乎? 昔有市人子居東郭者, 每日出之郭外, 合耦而射, 耦命射, 拙而居殿, 則持酒食以饗諸耦, 市人子者, 每日射居殿, 歸家即遇其妻譏罵, 食飲之需, 衽席之供, 不勝其疎薄矣. 一日施然自郭外來, 投弓卸鞵, 喙息而言曰: ‘今日吾病矣.’ 其妻問故, 曰: ‘今日吾得居第二, 不若前日之射拙矣.’ 其妻以爲過望. 於是乎食飲之需, 衽席之供, 不比於前日矣. 已而又問曰: ‘今日凡與幾耦射?’ 乃俛首僂勉而言曰: ‘先有一耦, 及吾兩人而已矣.’ 今夫十人而居殿, 猶可說也, 兩人而居殿, 則不可議也. 此鄉本無書手, 其或僅合場屋者數人而止, 不甲則乙耳. 顧不爲其妻所譏罵則幸矣. 無以作懷, 漫發此言, 亦以博吾兄一粲耳.”

이다.

「金官書社記」는 이학규가 김해로 유배된 초기인 1803년, 고을 내 건립된 書社에 대해 지어준 기문이다. 앞서 제시한 이학규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당시 김해 지역은 이름난 장서가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글방에도 서적이 온전히 구비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바로 이것이 고을 학풍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이와 같은 열악한 현실을 근심한 崔斗極, 金德河 등 지역 인사들이 뜻을 모아 서사를 새로 지었는데, 이학규가 여기에 대해 기문을 지어준 것이다.

다음은 「금관서사기」의 일부이다.

오늘날 시골 글방의 문장이 위로는 문채를 밝게 빛내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文雅를 잡아 지키기에 부족하여 관리와 선비들이 말하기에 부끄러워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들을 만한 스승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읽을 만한 장서가 없기 때문이다. 매번 작은 시골 마을의 글방 선생을 보면 건문이 넓지 못하는데도 넉넉한 음식을 가르침의 댓가로 받고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니, ‘金根車’를 ‘金銀車’로 잘못 읽고 ‘杖杜’를 ‘杖杜’로 잘못 읽으면서도 태연스레 지내고 있다. 한 가지 어려운 글자를 보면 橐駝를 가리켜 馬腫背라 하고, 하나의 時文을 주워들고는 진귀한 문장처럼 여긴다. 혹시라도 惠施의 수레를 엿보고 鄴侯의 찌를 뽑는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노하고 입으로 꾸짖으며 “저 사람은 괴이한 일을 행하고, 저 사람은 또 법술을 전하며 신을 보호한다.”라 말하니, 못사람들이 서로 잡아 쫓아낸 뒤에 그만둔다. 이러한 풍속이 널리 퍼져 마침내 오늘날 시골 글방의 黨風이 되었으니, 이에 어리석은 자들이 휩쓸리듯 호응하고 뒤쫓아 이에 의지해 부족한 점을 감싸고, 영특하고 예리한 자들이 또 감히 스스로 견고히 지키지 못하여 못 비방을 초래하고 만다.

지난봄 고을 사람 崔斗極, 金德河 두 사람이 나의 因樹屋에 들러, 고을 내에 장서가가 없어 간혹 서적에 마음을 두는 자가 있더라도 찾아볼 길이 없으니 고을의 문장이 불품없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라는 점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러고는 여러 고을 글방 가운데 힘 있고 일 잘하는 자들과 논의해 林遇春, 禹允權, 裴尙烈 등 세 사람을 얻고서 ‘金官書社’를 지었다. 자본금을 마련하여 六經과 역사책 약간 권을 먼저 모아 글방에서 공부하는 고을 자제들로 하여금 가져다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황금이 가득한 상자를 물려주는 것보다 경서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이어 嬭嬭宮과 汲冢의 숨겨진 서적과 天祿閣과 石渠閣의 좋은 서적들이 이곳 선반에 모여든다면, 이는 제군들이 후생에게 훌륭한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적은 한갓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야 한다. 오늘날 시골 글방의 풍속에 더럽혀지지 않고 못 사람의 논의에 휘둘리지 않는 자 중에서 스승을 가려 뽑아야 할 것이니, 제군들은 사망에서 구할 것 없이 고을 사람에게서만 찾아도 될 것이다.<sup>17)</sup>

이 글에서 이학규는 먼저 오늘날 시골 글방 출신들의 문장이 특별한 문채를 내지 못하고 전아하지도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첫 번째는 고을에 학문적 역량을 갖춘 훌륭한 스승이 없는 것이요,

17) 李學達, 『洛下生集』, 「金官書社記」, “今日鄉塾之文, 上不足以彰施絺繡, 下不足以主持騷雅, 薦紳學士羞稱道之者, 其故有二. 曰無師說可聞, 無藏書可讀也. 每見三家邨中冬烘夫子, 見聞不博, 而豐饌肥脩, 致爲己有, 則金銀杖杜, 晏然自掩. 見一難字, 指以橐駝腫背, 拾一時文, 視爲吉光片羽. 遇有窺惠施之車, 抽鄴侯之籤也, 則心怒而口詛之曰: ‘夫也行怪, 夫也又其傳法護神也.’ 羣相操逐而後已. 此俗廣布, 遂爲今日鄉塾之黨風, 於是乎蒙駭者, 靡然景從, 依托以護短, 穎銳者, 又不敢堅自樹幟, 以速羣謗也. 客春, 有邑人崔斗極金德河二君者, 過余因樹屋中, 數言邑無藏書家, 間有留心載籍, 而無因搜覽, 邑之少文, 槩由此也. 乃謀諸邑塾之強力幹事者, 得林遇春禹允權裴尙烈三人, 爲金官書社. 就贖錢, 先聚六經諸史若干卷, 令邑子弟之就塾者, 取便覽焉, 是固遺金滿籩, 不如一經者也. 嗣是而嬭嬭汲冢之秘, 天祿石渠之玩, 聚度于斯, 則諸君之以嘉惠後生者也. 然書不可徒讀, 必資于師說. 求諸今之不汚鄉塾之風, 而不爲羣議所撓者, 斯其選也, 諸君不求之四方, 而第求之鄉人可也.”

두 번째는 읽을 만한 장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고을의 글방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견문이 넓지 못하고 정확한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에도 스승으로 대접받으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 학문이 이 때문에 어그러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고을 내에 장서가가 없어 독서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문장이 이로 인해 진작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였다.

이 가운데 후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뜻 있는 지역 인사들이 합심하여 서사를 새로 건립하고 六經과 史書를 구비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이 후학들을 위해 남긴 공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 뒤, 학문이란 책을 읽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역량 있는 스승의 가르침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장서를 제대로 갖춘 사서의 건립을 통해 후생들의 학적 수준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학풍의 진작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서적 구비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강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학규의 인식은 『經畬堂記』과 같은 작품에서 한층 선명하게 드러난다. 經畬堂은 1805년 지역 인사들이 고을의 어린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새로이 조성한 강학 공간이다. 이학규는 금관서사에 이어 이에 대한 기문도 지어줄 것을 부탁 받았다. 이 글에서 그는 고을의 낙후된 학문 실정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이를 교정하여 후학들이 보다 진보된 공부를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오늘날 시골 글방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類合』과 『童蒙先習』 두 책만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습속이 어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옛날 兔園冊(시골에서 사용하는 초학자용 교재)의 부류인 듯하다. 또 曾先之의 『十九史略』 및 瞿佑의 『翦燈新話』를 이와 함께 붙이고서 ‘四書’라 일컫는다. 매번 시골 글방의 노 선생을 보면 이 네 책을 끼고서 깊이 익히고는 곧 스승의 자리에 편이 앉아 문득 束脩의 예를 받는다. 이 때문에 『유합』에 대해서는 초학자의 금과옥조라 여기고 『전등신화』를 강하면서는 곧 斯文의 훌륭한 글이라 여기니, 온 고을의 풍속이 같아지고 못 사람들의 말이 같아지는 모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날 시골 글방 출신 가운데 쓸 만한 재주를 지닌 자들은 과거 시험에 힘쓰지만 끝내 낙방을 면치 못하고 종이 쪼가리를 주워 모아 다른 이의 글을 모방하기 일쑤이며, 그 이하 사람들은 전과 같이 어리석게 지내 한 글자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찌 시골 글방의 잘못으로만 전적으로 돌릴 것인가. 이는 곧 처음 가르침을 베풀 적에 제대로 된 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가르침을 행할 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탓이다.

김해 땅은 해를 공경히 맞이하는 곳과 맞닿아 있어 훌륭한 인재와 석학을 매우 많이 배출하였다. 金濯纓(=金駟孫)은 문단에서 명성을 떨쳤고, 曹南溟(=曹植) 선생은 유학의 맥을 계승하여 창도하였으니, 풍류의 크고 넓음과 제사를 공경히 지내는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다. 이에 고을 동쪽 기슭에 經畬堂을 건립해 재능과 품성이 빼어난 고을의 어린아이들을 모아 이 당에 입학해 『小學』을 강하게 하고 문장을 아울러 익히도록 하였다.

건물이 완성된 뒤에 나에게 한 마디를 청하여 기문으로 삼고자 하니, 이에 오늘날 시속에서 숭상하는 ‘사서’의 잘못을 갖추어 말하는 바이다. 만약 후에 초학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행히 ‘사서’에 의해 그르침을 당하고 다시 후학을 그르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경서의 가르침이 곧 전답이다.’라고 한 옛 사람의 뜻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니, 그 효험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sup>18)</sup>

18) 李學達, 『洛下生集』, 「經畬堂記」, “今之鄉塾教兒, 有謂『類合』、『童蒙先習』二書, 雖不知作於何人, 疑卽古兔園冊之類也. 又以曾先之『十九史略』及瞿佑『翦燈新話』附之, 命曰四書. 每見鄉塾老生, 挾斯四者, 爛熟一通, 即便據臯比, 而奄有束脩矣. 是以, 語『類合』則以爲初學之金科, 講『新話』, 則便作斯文之玉振, 舉鄉同風, 衆夫一辭, 殆不可喻矣. 今之出於鄉塾者, 其茂才則拚援公車, 終倒縶于孩兒,

이 글에서 이학규는 먼저 지역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類合』, 『童蒙先習』, 『十九史略』, 『剪燈新話』 같은 서적을 ‘四書’라 칭하며 중시하는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가르침을 베풀 적에 제대로 된 교육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다른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김해 지역은 과거 金駟孫(1464~1498), 曹植(1501~1572) 등의 명사를 배출한 고을로 그 餘響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강학 공간인 경여당을 건립해 재능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小學』과 문장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속에서 숭상하고 있는 ‘사서’의 해악에서 벗어나 전아한 학문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장서의 미비’와 함께 지역 학풍 침체의 주요인으로 거론한 ‘교육 부재’ 문제의 해소를 기도한 그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장서의 확충과 교육 공간의 마련을 통해 고을의 학풍을 기초부터 개선하고자 하였던 이학규는,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지역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베풀기까지 하였다.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학문 풍토를 교정하기 위해 직접 서적을 편찬하거나 기존 서적의 상세와 의의를 밝히는 내용의 글을 여러 편 지은 것이다.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은 1822년에 지은 「二十一史評序」이다. 이는 이학규가 청나라 사람 徐汾이 지은 『二十一史徵』의 대의를 18則의 史評으로 엮어 ‘二十一史評’이라 이름하고, 그 저작 동기와 의의를 밝힌 서문이다. 글의 전반부에서 이학규는 역사서에 크게 編年, 立傳, 紀事 등의 세 체제가 존재함을 말하고, 그 始原과 형식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sup>19)</sup> 그런 뒤 이어지는 대목에서 자신이 『이십일사징』을 새로이 편찬하게 된 동기와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영남 우도에는 본래 장서가가 없어 史學에 대해 아는 이가 없다. 간혹 시골 글방에 역사에 대해 그런대로 이해하고 외우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曾先之의 『十九史略』과 江少微의 『家塾通鑑』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전에 十六國, 南北朝, 宋, 遼, 金나라 등 여러 역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실로 눈을 휘둥그레 뜨고서 마치 작은 시골 아낙이 큰 도성을 처음 마주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의심하고 두렵게 여기는 것처럼 하였으니, 어느 겨울에 일의 전후 사정과 곡직을 논하겠는가.

옛날 나는 金醒維, 韓霽園 등 두세 사람을 따라 藕船樓에서 여름 동안 머무르며 책을 지은 적이 있었다. 그때 청나라 사람 仁和 徐武令(=徐汾)이 지은 『二十一史徵』 한 편을 보았는데, 서술한 내용이 몹시 상세하고 의론이 공정하였으니 글을 짓는 틈에 대략 외워두고 있었다. 지금 30년의 시간이 흘러 잊어버린 것이 태반이지만 그래도 그 대의를 모아 『史評』 18則을 지어 학문에 뜻을 두고 문기를 좋아하는 고을 사람들에게 남겨주니, 이를 통해 編年體 외에 별도의 史體가 있고 역사에 또한 이십일대의 紀傳表志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글을 읽는 선비들은 알아두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sup>20)</sup>

擡捨赫蹏，動依樣于胡蘆，下此則依舊阿蒙，不識一丁，夫豈專談鄉塾之過耶？乃厥初設教無法，爲教不慎之過也。金官地瀕寅賓，出偉才碩學甚多，金濯纓擅名于文垣，曹南溟先生繼倡于儒宮，風流弘長，俎豆尸祝，歷屢百禩而不替。乃於府東之麓，建置經畬堂，聚府之小兒有才性超悟者，入是堂以講小學，兼修時藝。既落成，乞余一言爲記，乃備言今俗四書之誤以告之。若後之教初學者，幸不爲四書所誤，復以誤後學，則昔人菑畬經訓之旨也，顧其效可盡俚指哉？”

19) 李學達, 『洛下生集』, 「二十一史評序」, “史例有三, 編年一也, 立傳二也, 紀事三也。編年始于夫子作『春秋』, 後之司馬氏『資治通鑑』及紫陽綱目之類, 皆祖述麟經者也。立傳, 始于司馬子長而後之班固『漢書』及范曄『後漢書』之類, 皆規樞腐史者也。紀事之法, 始見于『皇明紀事本末』, 而『三藩紀事』, 又繼而作, 乃使一時事實首尾畢見, 瞭如指掌, 信可躋之史成, 與夫編年立傳並行而不悖者也。”

20) 李學達, 『洛下生集』, 「二十一史評序」, “嶺右素無藏書家, 其於史學, 固蔑如也。間有荒邨塾師粗解記誦者, 無過乎曾先之『十九史略』



은 자기 자신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점을 종종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거니와<sup>26)</sup> 글 내용이 서적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이는 역시 고을 초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진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학규의 학풍 진작 노력은 지역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① 대저 이 고을의 풍속을 살펴보면, 문사라는 자들이 대부분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혹자는 “이를 아는 것은 또한 쓸모없는[沒用頭] 일이니, 어찌 괴롭게 힘을 들이며 나의 정력을 허비하겠는가.” 하고, 또 혹자는 “우리들이 일삼는 바에는 본래 좋은 땅[樂地]이 있는데, 저 사람만 유독 은미하고 괴이한 것을 찾고 있다.” 한다. 그러다 시험장 안에 들어와서는 有司의 命題가 어떠한 고사인 줄도 모르고 어떠한 책에서 나온 것인지도 알지 못하니, 그제야 비로소 당황하고 급해져 사방으로 물어 번독스럽게 한다는 비방을 피하지 않고 구차하다는 비판을 돌아보지 않는다. 시험삼아 물건대 이 무리들이 지난번에 이른바 ‘쓸모없다’고 한 것이 과연 쓸모없는가. 이른바 ‘본래 좋은 땅이 있다’고 한 것이 또한 좋은 땅인가.

평소 그대가 마음을 비우고 물기를 좋아하며 이러한 무리들에게 물들지 않았음을 알아 이를 다행으로 여겼다. 이에 30년 전 나의 선생에게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날날이 들어 이야기해 주노니, 너무 자질구레하다고 꺼리지 말고 그대는 잘 헤아려주기를 바란다.<sup>27)</sup>

② 우리나라에서는 고을의 서리를 ‘衙前’이라 부르고 가장 윗자리에 있는 이를 ‘首尊’이라 부르며, 黜陟을 관장하는 이를 ‘上詔’라 부르고 다음을 ‘記官’이라 부르며, 거주하는 곳을 ‘作廳’이라 부르니, 이들은 모두 주관을 잡고 붓을 끼고 다니며 실무에 매우 밝고 능통한 자들이다. 군현의 수령이 고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담당하면서도 手板을 쥔 채 西山을 바라보고 누런 명주 이불을 덮으며 한가로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사람들의 힘이다. 그러나 일찍이 논해보건대 이 사람들은 네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곤 하니, 곧 不貞, 不奮, 不謹, 不和이다. (中略) 서리 가운데 이 중 하나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드물다.

내가 보건대 金官 裴氏는 고려 때의 이름난 문벌 가문으로서, 지금 서리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緒餘를 전해 익히고 검소하고 삼가서 관리의 가풍을 지니고 있다. 裴致逸 군은 평소 나에게 친절히 해주었는데, 연말에 서리로 나아가게 되어 내게 물음을 청해 왔다.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세히 말해 주어 서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몹시 어렵고 배 군의 집안의 家法 전수가 실로 유래가 있음을 알게 하는 바이다. 서리 직임 수행에 무엇이 어려울 것 있겠는가. 배 군은 가서 잘 행할지이다!<sup>28)</sup>

26) 李學達, 『洛下生集』, 「書翦燈新話後」, “山陽瞿佑著『翦燈新話』四十卷, 今本所載二十一篇, 不知何人所選, 爲今日鄉塾學究所持誦.”; 「答」, “邨塾小兒讀曾先之『十九史略』初卷, 或問所讀何書, 則直答曰初卷也. 窮鄉謬俗, 所向皆然.”

27) 李學達, 『洛下生集』, 「答權處一」, “大抵此鄉之俗, 其爲文士者, 舉未知一事一物之不知, 爲可恥. 或曰: ‘知之亦沒用頭矣, 何苦矻矻唐捐吾精力邪?’ 又或曰: ‘吾輩所業, 自有樂地, 彼獨探索隱怪者耳.’ 及至場屋之內, 不知有司命題是何故事, 並不知出于何書, 則始張皇渴急, 東西訪問, 不避瀆擾之誚, 不顧苟且之嫌. 試問此輩向所謂沒用頭者, 果沒用頭否, 所謂自有樂地者, 是亦樂地否? 素知吾賢虛心好問, 不爲此輩所濡染者, 幸耳, 乃以三十年前受益於先生丈席者, 歷言之, 不嫌覲縷, 吾賢諒之諒之.”

28) 李學達, 『洛下生集』, 「贈裴生致逸序」, “我國謂罷縣胥屬曰衙前, 頭位曰首尊, 主持黜陟曰上詔, 次日記官, 所居處曰作廳, 其凡操牙籌挾毛錐, 皆明達練習者也. 守罷縣者, 舉邑巨細事悉委之, 而方拄手板視西山, 雍容黃紬間, 悉此人力也. 然嘗論之, 此人之失有四, 曰不貞不奮不謹不和. (中略) 胥有能不一犯此者, 尠矣. 余唯見金官裴氏, 在勝朝實推閱, 今爲胥, 猶傳習緒餘, 廉慎有薦紳家風. 裴君致逸, 復於余厚, 歲終, 將詣胥召, 問於余. 故備言之如是, 使知夫爲胥之猶甚難, 而裴君家法之傳, 實有由也. 夫於胥乎何有? 裴君行矣哉!”

㉑은 지역 유생 權處一이 자신의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질문한 것에 대해 이학규가 답한 편지의 일부이다. 권처일은 이학규에게 시문 창작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聲病’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구체적인 의미를 질의하였다. 이에 이학규는 ‘성병’이란 곧 ‘四聲八病’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면서, ‘사성’과 ‘팔병’이 뜻하는 바를 하나하나 소상히 답해 주었다.<sup>29)</sup> 그런 뒤 모르는 것을 만나도 궁금해 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여타 고을인들에 비해 권처일은 항상 묻기 좋아한다는 점을 가상히 여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30년 전 선생에게서 배웠던 바를 근거로 자세히 일러주니 이를 바탕으로 공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면려하였다.

그런가 하면 ㉒는 고을 서리로 임명되어 가게 된 지역 인사 裴致逸에게 서리로서 지켜야 할 법도와 경계해야 할 사항을 일러주는 내용의 贈序이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 고을 행정이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不眞, 不耑, 不謹, 不和’의 잘못에 빠지지 않는 이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배치일의 집안은 고려 때의 문벌인 김해 배씨 가문으로서 아직까지 검소하고 삼가는 관리의 가풍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병통에 빠지지 말고 서리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글은 이학규가 김해 지역의 후학들에게 직접 학문을 면려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哭童子禹聖敦文」과 같은 글을 살펴보면, 어린 나이부터 자신을 따라 儒者로서의 자세와 『小學』을 배워 자식 같이 여겼던 동자 禹聖敦과의 과거를 회고하며 그의 요절에 깊이 상심한 이학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sup>30)</sup> 그는 지역 사회에 정착한 ‘지식인’으로서 나름의 학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종의 ‘鄉先生’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학규는 김해 일대의 학적 토양이 현저히 척박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교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지역 내 새로이 설립된 교육 기관의 역할과 의의를 밝힌 기문 창작, 각종 서적 편찬과 그 내력 설명, 후학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가르침과 학문 면려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작업은,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권에 견고히 지니고 있던 이곳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애정의 모습을 선명히 읽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 2) 지역 인사의 발굴과 현양

이학규의 지역 풍속 흥기에 대한 노력은 위와 같은 교육계몽 작업 뿐만 아니라, 김해 및 영남 일대에서 활동하며 모범적인 행적을 보인 인사들을 발굴하고 작품을 통해 현양함으로써 지역인들의 감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9) 李學達, 『洛下生集』, 「答權處一」, “承問聲病二字之義, 問已數月矣. 今值快涼, 眼眚少差, 纔能把筆爲報, 孤負問益之意多矣. 昔予季弱冠, 問聲病之義於李木齋先生, 先生笑曰: ‘君年已弱冠, 尙不知聲病爲四聲八病邪?’ 予大慙赧, 不敢再問其詳. 退而自咎, 窮搜唐宋以來諸家言詩聲病者, 領略無餘, 頗能暗誦, 今已三十餘年, 惟此尙不遺忘耳. 蓋四聲, 卽所謂平上去入也. 八病, 所謂平頭上尾蜂腰鶴膝大韻小韻正紐旁紐也. 其說昉于沈休文. (後略)”

30) 李學達, 『洛下生集』, 「哭童子禹聖敦文」, “維嘉慶十五年庚午八月三日乙酉, 童子禹聖敦, 將就窆窆, 旅人洛下李生, 前日與之有至愛之情, 吞涕飲泣, 爲文而告之曰: 嗚呼傷哉! 余之離余邱墓室家而爲茲土之纍囚, 且已十年矣. 凡余子女之孩者, 卽者冠, 冠者抱子, 而余不一見之. 生者疾, 疾者札, 札者且骨朽形漸, 而余不一見之. 汝之始見余, 齒甫改齒, 而余喜見汝之容顏羸而頗秀, 磨對警而頗敏矣. 余喜見汝之持心有所不忍, 行己有所不爲而後, 試授以朱晦菴『小學』二三篇, 卽已琅琅上口矣. 繼示以柳誠懸書灑一二行, 卽亦摹摹正心矣.”

### (1) 소외된 지역 문사에 대한 시선

지역 인사의 발굴과 현양을 위해 노력한 이학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남다른 재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로 인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한 인물들을 조명한 작품이 그의 문집에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市隱寮記」는 이학규가 김해 유배 초기인 1803년, 영남 인사 邊振緯의 은거 공간인 市隱寮를 대상으로 지어준 기문이다. 이학규에 따르면, 변씨 가문은 서울에서 대대로 높은 관직을 역임한 명문가였는데 후손이 부산 첨사에 임명된 것을 계기로 온 집안이 동래부로 이주해 2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그 후손인 변진위는 자신을 삼갈 줄 알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중앙 관직에 진출할 만한 재능을 지닌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발탁되지 못한 탓에 자신의 집을 ‘市隱’이라 이름하고는 두문불출 초야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변방 출신이라는 한계로 인해 그 재주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변진위를 위해, 「시은료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오늘날 인재를 선발할 적에 서울 사람을 등용하고 지방 사람을 배제시키며 문벌 가문을 추켜올리고 학문 익힌 자를 도외시한다. 때문에 고을에 빼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 있어 처음에 훌륭한 행적을 보이고 명성을 크게 떨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귀한 역량을 숨긴 채 초가집에서 생을 마쳐 조그마한 벼슬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대로 녹을 먹는 자들은 서울 땅을 버리지 못하고, 시골에서 지내는 자들 또한 감히 지위가 높아지기를 바라지 못하는 것이다. (中略)

아! 지금 전통 있는 가문 출신임에도 현달한 후손 측에 끼지 못하고 학문이 두터움에도 비루한 일만 스스로 행하는 것은 오직 인재 선발 방도가 넓지 못하고 재능 있는 이를 취하는 일이 고르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가로막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邊君과 평소에 맺은 교분이 없으며, 또 벼슬에 대해 뜻을 끊고 초야에서 생을 마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아름다운 재주가 세상에 쓰이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버려진 재목을 반드시 찾아 써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취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변 군이 市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탄스러운 점이 있다. 이에 마침내 글을 써서 변 군에게 주노니, 지금의 인재를 선발하는 자는 나를 죄주지 말고 변 군이 끝내 시골에 버려져 있을 자가 아님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바이다.<sup>31)</sup>

서두에서 이학규는 오늘날 조정의 인재 선발이 서울 문벌 가문에 집중되고 지방 인사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논하였다. 이어 높은 학적 역량을 지니고 있음에도 ‘市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변진위에 대해 언급하고는, 등용의 문이 넓지 못한 탓에 재주 있는 이의 서울 진출이 차단된 상황을 개탄하였다. 그러고는 자신은 비록 변진위와 별다른 교분도 이해 관계도 없는 처지이지만 그의 재능과 명성을 듣고 안타까워 이와 같은 글을 써 주는 것이라 하면서, 중앙의 인사 담당관들이 시야를 넓혀 변진위와 같은 지방 인사를

31) 李學達, 『洛下生集』, 「市隱寮記」, “今之選人, 進京華而擯下縣, 推與闕閱而弁髦詩禮. 是以州郡之有茂才異等者, 始或起跡天荒, 題名大羅, 而末乃懷持瑾瑜, 畢世蓬蒿, 不齒一命者, 踵相繼也. 於是乎世祿者, 不能捨輦轂, 而畎畝者又不敢以望通顯也. (中略) 噫! 以今舊家而不廁于顯胄, 篤學而自列于鄙事, 惟以選道不廣, 取材不徧, 圭竇藿食之倫, 遭闕而不見也. 不佞于邊君無雅契, 且絕意公車, 甘死草莽, 雖其悼美玉之不售, 講遺材之必搜, 必無足取徵于斯世, 而乃於君之以市隱者, 竊有慨焉. 遂書以歸之邊君, 猶冀今之選人者, 不罪不佞, 而知邊君之非終以下縣擯棄之者也.”

알아봐주기를 기도하였다.

이처럼 「시은료기」는 김해 인물 변진위에 대한 위로와 조명에서 출발해 서울 출신만을 중시하는 인재 등용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간 글이다. 이는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을 인사에 시선을 돌리고 글을 통해 그 재능을 드러냄으로써, 지역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한 이학규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이학규가 1812년 지은 「淸溪子詩集序」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평생 김해에 은둔하며 공부에 힘쓰고 후학을 양성하다 생을 마감한 申曠의 시집에 대해 지어준 서문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이학규는 시가 그 작품 자체의 빼어남 때문이 아닌 작자의 훌륭한 때문에 후세에 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한 뒤,<sup>32)</sup> 평생 김해에 살며 고을에서 두터운 명성을 쌓은 신훈이야말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말한다.

청계자 申曠 씨는 그 선조 가운데 고려 때 壯節公과 우리나라의 忠翼公이 가장 현달한 분이다. 그 조부 雲林公은 고요함을 즐기고 옛것을 좋아하여 가솔을 데리고 와 金海府 동쪽 성곽 아래에 우거하였고 부친 固菴公은 淸心溪 주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청계자는 좋은 날 좋은 풍경이 펼쳐져 있을 때면 날마다 고암공을 모시고서 이를 구경하였고, 昏定晨省을 마치자마자 책을 꺼내 읽고 시를 주고받았으니, 이에 대해 헐뜯거나 수군대는 자들이 없었다.

지금 그 유고가 수백 편인데, 청계자가 세상을 떠난 뒤 50여 년 간 집안의 도리가 점차 쇠락하고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한 탓에 그 잔편들이 거의 산일될 지경이다. 이에 그 외손 郭基衡 씨가 그 시들을 속히 모아 편찬하여 한 권으로 만들고는 나에게 한 마디를 청하여 서문으로 삼고자 하였다.

내가 듣건대 청계자는 이 고을에 지낼 적에 고결함을 숭상하고 다른 사람을 허여하는 일이 적었다. 그 지은 시는 그 사람과 닮아서, 머뭇거리거나 구차하게 영합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고을 사람들이 청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다. 또 지금 고을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主客의 그림을 살필 수 있고 장서를 구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청계자를 따라 수학한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에 거의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가 단지 시 때문에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임을 더욱 알겠다.<sup>33)</sup>

이학규는 신훈이 고려 개국 공신 壯節公 申崇謙과 조선 중기 문신 忠翼公 申景禎(1575~1643)의 후손으로, 그 祖父代 이래 김해 지역에 내려와 터를 잡고 살았음을 먼저 말하였다. 이어 부친을 정성스레 섬김은 물론 고결함을 숭상하고 다른 사람과 구차히 영합하지 않아 지역 사회에서 널리 일컬어졌으며, 지역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여 고을의 학풍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특기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 사회에서 획득한 학인으로서의 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시는 작품 자체의 준수함 뿐 아니라 작자의 훌륭한 측면에서도 충분히 후세에 전해질 만함을 역설하였다. 이 또한 지역인 가운데 높이 평가할 만한 인물이 분명히 존

32) 李學達, 『洛下生集』, 「淸溪子詩集序」, “詩不難於以詩傳, 而難於以人傳, 以詩傳如胡釘鉸張打油者, 其人無一言一事稍自著聞, 無可名稱, 直以所執藝目之. 其詩雖傳, 而其人與昆蟲庶草同朽腐, 而人不一稱道焉. 以人傳如邵堯夫游定夫, 其詩如數訣醫歌, 格律苟安, 音韻苟諧, 則已劔梨棗, 敝細素, 家傳而戶誦之不已者, 何也? 如塾角之巾, 雒生之詠, 我以為尤, 人以為美, 不期然而然者也.”

33) 李學達, 『洛下生集』, 「淸溪子詩集序」, “淸溪子申曠氏, 其先在勝國爲壯節公, 暨我朝爲忠翼公, 尤其著顯者也. 其祖考雲林公, 樂靜好古, 挈家寓居于金海府東郭之下, 考固菴公結廬于淸心溪上, 每良辰麗景, 日陪固菴公, 定省纔已, 佔俸繼起, 一唱一酬, 人無訛議焉. 今其遺藁數百篇是已, 淸溪子歿後五十餘年, 家道漸落, 子姓不衍, 其零篇斷表, 幾盡散亡矣. 其外孫郭基衡氏, 亟哀輯贖餘, 編次僅一帙, 乞余一言以弁之. 余聞淸溪子之居斯鄉也, 尚高潔, 寡許可. 其爲詩類其人, 非媿嬰苟合者也. 鄉人至今言之不已. 且今鄉人之粗能按主客之圖, 抽鄉孃之藏者, 無不言從淸溪子受學焉. 於是乎益知其詩之幾亡僅存, 不惟以詩傳, 而直以人傳之至今, 蓋有以也云.”

재함을 밝히고, 이를 통해 고을 인사를 면려하고자 한 이학규의 의식을 보여주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학규는 여러 국면에서 활동한 지역 명사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이 남긴 행적을 특별히 기리는 내용의 글을 다수 창작하였다. 대표적으로 「故節度權公必稱報祀鄉社議」(1820)는 과거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權必稱(?~1784)이 남긴 치적과 행실을 서술하고 이를 관찰사에게 알려 지역 사회에서 대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sup>34)</sup> 또한 權世說을 대상으로 한 「曾谷先生行狀」(1820),<sup>35)</sup> 鶴城 李磻溪의 문집에 대한 발문인 「書磻溪集後」 등을 지어,<sup>36)</sup> 지역에서 의미 있는 자취를 남겼으나 세상에는 미처 이름을 알리지 못한 인물을 새로이 호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학규는 기본적으로 김해 및 영남 일대의 척박한 문화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적극 발굴하여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다.

## (2) 전기류 작품 창작을 통한 孝義의 면려

한편 이학규의 지역 인사 현양은 학문·문학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인 인물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뛰어난 孝義로 타인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을 향해서도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할 수 있는 작품은 이학규가 1821년 창작한 「金孝子傳」이다. 이 글은 金碩崇이라는 김해 출신 인물을 대상으로, 그가 생전에 보인 효행을 정리해 지은 전이다. 작품 편폭이 다소 길기 때문에 글의 줄거리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두> 김석승은 김해 가락촌 사람으로서, 달리 글을 익히지 않았으나 성품은 박실하고 효성스러웠음

<본론-1>

김석승의 효행 1: 부친상 중에도 모친에 대한 봉양을 지극히 하였음

김석승의 성품: 관아 창고가 김석승의 성품을 시험해 보기 위해 양곡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쌀을 바치도록 독촉하였는데, 김석승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진답과 건물을 팔아 쌀을 바치고자 함

김석승의 효행 2: 모친이 와병 중일 때 변을 맛보아 차도를 살피고, 밤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였음. 손가락을 잘라 흘린 피를 약에 타 올리자 모친이 7일 간 더 연명하였음

김석승을 둘러싼 신묘한 사건 1: 모친상을 당해 여묘살이를 할 적에 산중의 범이 김석승을 지켜줌

김석승을 둘러싼 신묘한 사건 2: 여묘살이 동안 물을 길어 오는 것이 어려웠는데, 묘소 근처에 갑자기 샘물이 솟아남

김석승을 둘러싼 신묘한 사건 3: 상복을 벗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에 큰 화재가 나 40여 채가 불에 탔는데, 김석승의 집만 화를 피하였음

<본론-2>

김석승 아들 龍寬의 효행: 9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과 함께 시묘살이를 함

34) 李學達, 『洛下生集』, 「故節度權公必稱報祀鄉社議」, “嗚呼! 公之視一道如愛子, 諄諄辟咄, 尙猶在耳. 一道之視公, 亦何可以卑微自外, 而遂不自居于門弟子之列耶? 一道之見聞於公者, 特膚寸於泰山, 而濫觴於江源者也. 若其侏僂者爲文物, 魚然之爲孝悌, 至于今日, 而鄉黨之內, 喪衣大帶遊談天顯者, 不可以一二僂指者, 皆公之力也. 伏願僉章甫先生, 毋但以一道一言爲取捨, 而惟以節度公篤善實惠, 爲不可忘, 同聲發疏, 達于察司, 倘令德不沫, 報祀有期, 則庶使文翁化俗之鄉, 大闢卻子敦詩之教, 鄉黨幸甚, 多士幸甚.”

35) 李學達, 『洛下生集』, 「曾谷先生行狀」

36) 李學達, 『洛下生集』, 「書磻溪集後」

김석송 손자 玉敦의 효행: 명절마다 선조 묘소에 올라 풀을 깎았는데, 성묘를 마치고 한밤 중에 귀가하다 왼쪽 다섯 손가락이 베임

<결미>

옥돈과 지역 인사 曹雲翼으로부터 김석송의 일을 전해 듣고 「金孝子傳」을 지음

이 글에서 이학규는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김해에서 나고 자라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지만, 성품이 박실하고 효성스러워 언제나 부모를 지극히 모신 김석송의 행적을 하나하나 나열하였다. 그것은 부친상 중에도 살아계신 모친에 대한 봉양을 지극히 하였던 일, 모친이 병에 걸렸을 때 대변을 맛보아 차도를 살핀 일,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에 섞어 올린 일 등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하기 어려운 효행이었다. 김석송이 이처럼 부모 봉양을 극진히 행하자 하늘도 이에 감응하여 여러 신묘한 현상들이 발생하였다고 이학규는 전한다. 모친의 여막살이를 할 적에 범이 김석송을 보호해 주었다는 일화, 묘소 근처에 샘이 솟아 식수의 불편함을 덜었다는 일화, 고을에 난 큰 화재를 김석송의 집만 피해 갔다는 일화 등이 그것이다.

이학규의 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학규는 김석송 뿐 아니라 그 아들 龍寬이 9세의 어린 나이에 조모를 위해 부친과 함께 시묘살이를 한 일, 그 손자 玉敦이 한밤중에 성묘를 하고 돌아오다 손가락이 베인 일 등을 이어서 언급한다. 그러면서 김석송에게서 시작된 효행이 단지 그에게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 뒤 자신을 찾아온 김석송의 손자 옥돈과 고을 인사 曹雲翼으로부터 김석송 일가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듣고, 김해에 이처럼 빼어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민멸될까 염려되어 傳을 짓게 되었다고 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학규가 서술한 바와 같이, 김석송은 사회적·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김해에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낮은 지위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대를 이어 효를 실천한 김석송 및 그 후손을 한껏 현양하고, 이를 통해 고을의 풍속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그는 이밖에도 1802년 절도사 柳氏 집안의 여종 德慧를 대상으로 한 「德慧小傳」을 지어 남성 선비도 미처 행하기 어려운 모범적인 행실을 남긴 그를 칭송한 바 있다.<sup>37)</sup> 인물 현양 작업의 초점이 대상의 신분 고하가 아니라 ‘행실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김석송이라는 지역 인물을 발굴하여 그 효행을 드러낸 이학규의 「김효자전」은 단순히 문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학규가 지은 이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 그의 뛰어난 행실을 조정에 아뢰었고, 그 결과 1829년 김석송의 효를 기리는 旌閭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다.<sup>38)</sup>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의 문인 權馥(1769~?)은 김석송의 효행을 기리는 글에 별도로 서문을 지었다고 하며, 許傳(1797~1886) 또한 「題金孝子實記」를 지어 김석송이 남긴 모범적인 행실을 다시 한번 칭양하였다.<sup>39)</sup> ‘효자 김석송 이야기’의 이와 같은 확산 과정은 이학규의 작품이

37) 이는 이학규가 「덕혜소전」 말미에 남긴 史評에 잘 드러나 있다.

李學達, 『洛下生集』, 「德慧小傳」, “外史氏曰: □□□每述慧事甚詳云, 慧自穉歲, 容不悅而柔, 衣不治而脩, 口不擇言而不流, 始不意其有異爾. 已而不樂外覲, 不適市樓, 則又以爲矜好自由, 至失聲于東郭, 餽米于主家, 刪慧之名始噪, 而慧之志畢見矣. 嗟乎! 士有以一節而顯, 一眚而廢者, 非躬驗其行, 烏能知其終始也哉?”

38) 김석송의 효행과 정려 사실을 기록한 정려비가 현재도 부산시 죽림동에 남아 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465[죽림동 740])

지역 인사의 추송 및 교화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런가 하면, 이학규는 1819년 「通政姜聖玉孝義狀」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었다. 이 글은 경상도 양산 사람 姜聖玉이 보인 효행과 의리를 정리한 것이다. 글에 따르면 강성옥은 명문가로 이름난 旌州 姜氏의 후손으로서, 특히 그 모친 坡平 尹氏가 특별한 孝烈로 세상에 이름나 그 행실이 「姜母三世孝行狀」이라는 글로 정리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sup>40)</sup> 이와 같은 가문 배경 하에 성장한 강성옥은 어린 시절부터 지극한 성품을 지녀, 부모를 깊은 효성으로 섬겼을 뿐 아니라 요절한 아우의 식솔을 자기 가족처럼 돌볼 정도로 우애 역시 뛰어났다. 특히 그는 1814년 여름 영남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직접 배를 마련해 사람들을 구해주고, 전토를 팔아 어려움에 빠진 이웃 사람들을 구휼해 주는 등 지역 사회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sup>41)</sup> 이러한 義行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그는 「通政大夫 折衝將軍 龍驤衛 副護軍」에 가자되었는데, 이 일은 당시 『일성록』 기사에도 수록되어 있다.<sup>42)</sup> 앞서 살펴본 「김효자전」과 마찬가지로 김석송은 지역에서 효행과 의행으로 이름 높았던 강성옥에 대해 이와 같은 글을 지어 남김으로써, 영남 인사의 이름을 드높일 뿐 아니라 고을의 풍속 또한 면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그는 「崔中原孝行錄序」라는 글을 짓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崔中原이라는 지역 인물의 효행록에 대해 쓴 서문이다. 해당 서적은 현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원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는 어렵지만, 그 역시 남다른 효행으로 영남 일대에서 일정하게 일컬어진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학규는 자식을 정성으로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일은 결코 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 하며, 그의 이름과 행적이 후대에 민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였다.<sup>43)</sup>

39) 許傳, 『性齋集』, 「題金孝子實記」, “『金孝子實記』者, 記金孝子善事父母, 生死盡性之實行及旌閭終始者也. 孝子名碩崇, 駕洛國首露王之苗裔也. 世居駕洛, 衰微不振. 爲人質樸, 不通文書, 自幼能知愛親, 應唯必謹, 出入必告, 出遇美味, 必懷而歸. 家在海門, 漁獵以供菽水及衣服之具. 父死欲廬墓, 其母知不可挽, 誓與共往乃止, 朝夕調墓. 母歿泣血骨立, 守墓終制, 自操炊汲, 山舊無泉, 忽自湧. 一衣三年, 垢污襤褸, 亦無蟻蝨. 次子龍寬方九歲隨至, 碩崇諭而遣歸. 夜於樹間有人跡, 呼之乃龍寬也. 問之, 對曰: ‘父尙爲亡母守墓, 我不忍捨生父獨歸.’ 遂同處. 龍寬後竟夭死, 悲夫! 鄉人屢上碩崇事于朝, 純祖己丑有綽楔之命. 孫玉敦愿慙拙訥, 頗若有識, 能繼家行. 然貧甚爲人傭, 隨漕船赴京, 遍遊於諸公卿, 冀所以闡揚其祖之孝, 積十餘年竟得成其志. 玉敦子鼎懿屢乞一言題其卷, 今又走千里而致懇, 亦孝心也. 略採李惺叟學達所爲傳權承旨馥所爲序, 書副其意.”

40) 李學達, 『洛下生集』, 「通政姜聖玉孝義狀」, “姜聖玉, 字學瞻, 望出晉陽. (中略) 考諱興輔, 配坡平尹氏, 世以孝烈聞, 事見姜母三世孝行狀, 士林至今稱道之.”

41) 李學達, 『洛下生集』, 「通政姜聖玉孝義狀」, “聖玉生而有至性, 年十四, 遭父憂, 哀毀如成人. 事母至孝, 夙夜力作, 滸瀉之供畢給也. 有一弟夭, 待其寡嫂甚至, 斗粟尺布, 先嫂而後己, 教養遺孤, 人不知其非己出也. 其季父及妻俱歿, 撫其三弟, 皆同室壻, 家道謐如也. 先是, 其仲父出遊于外, 至數年不返. 一夕, 啓母請出而物色之, 母亟許焉, 間關數月, 卒遇於湖南之邨舍, 卜姜儼屋以居年矣. 後仲父歿, 自經理, 亟返葬于先壟, 別立家產, 奉其妾以居, 擇諸從弟之可者爲立後焉. 今上甲戌, 嶺外大水, 繼以饑饉, 罄家困, 賣田土, 以贖親戚及鄰里垂死者, 日具舟楫, 拯濟漂沒以千數, 事聞, 贈通政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 余向見柳玼家訓崔瑄曾祖母長孫夫人之言曰: ‘願新婦, 有子有孫, 皆如新婦孝敬, 則崔之門, 不昌大乎?’ 姜氏之家實有焉, 向非貞烈夫人暨貞夫人內行絕異, 寧有其婦若尹氏之至孝感天, 非尹氏孝感, 寧有其子若聖王之孝義, 若是其卓卓也乎? 詩云: ‘孝子不匱, 永錫爾類.’ 余知姜氏之慶不止聖玉, 而將錫類以濟其美, 豈苟狀哉, 聖玉有三子皆幼, 梁山郡社頭邨人也.”

42) 『日省錄』, 「純祖 14年 8月 19日」, “兵曹啓言, 觀此慶尙監司李存秀狀啓, (中略) 梁山郡去月十六七日雨後, 數十里環島之地, 渾成大海, 本郡島面舉至沈沒之境. 同郡南允極, 金萬采, 孔大興, 金命貴, 李莫福, 金哲文, 姜聖玉, 金應大, 金守恆, 禹仁大, 黃來麟, 金有儀, 李聖三, 鄭得成, 尹長文, 金正云, 金太發, 金栢伊, 東萊徐萬永, 朴守先, 裴大哲, 李之五, 朴元世等二十三人, 乘舟救島人一千七百四十名. 各人冒危涉險, 救出人命於必死之地者, 誠極嘉尙, 合有褒賞之舉, 令該曹稟處云. 竝施加資之典, 似合事宜, 係干恩典, 上裁.”

43) 李學達, 『洛下生集』, 「崔中原孝行錄序」, “凡人之情, 向上則勉而至難, 下施則反是, 向上者, 孝親是也, 下施則慈子是也. 觀乎溯流之楫, 上板之車, 用力倍而所造遲, 非明驗哉? 是以, 大舜曾子非歎於慈, 而必稱夫孝. 古史傳, 傳孝而不傳慈, 以其衆人之所不能而自能其至難也. 崔中原, 邨峻窮餓者也. 智不足以窮理盡性, 言貌不能以悅人, 惟其孝親爲可稱可傳也, 夫智與言貌, 固夫人之能事, 而孝

이처럼 이학규는 오랜 기간 이어진 고된 유배 생활 속에서도 남다른 행적을 보인 인사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이 남긴 모범적인 면모를 현양하기 위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傳, 狀, 序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은 그의 글들에는, 김해 및 영남 일대의 열악한 문화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행실을 보인 인물들이 존재했음을 세상에 드러냄과 동시에, 이러한 현양 과정을 통해 지역의 여타 인물들 또한 감화되기를 바란 의도가 녹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는 이학규가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교화 의지, 나아가 두터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

#### 4.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을 대상으로, 작품을 통해 그가 피력한 김해 및 영남 일대 학풍 흥기와 교화에 대한 의지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기속시·죽지사·악부 등의 작품 창작 활동에서 드러나듯, 이학규는 김해 및 영남 지역의 풍속과 역사를 관찰하고 기록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는 지역의 낙후된 문화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열악한 학적 조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도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과 한탄, 울분에만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일정하게 교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는 지역 사회에 학문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시하며, 「금관서사기」, 「경치당기」 등의 창작을 통해 ‘서적 구비’와 ‘충실한 강학 활동’이 학풍 흥기를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또 『이십일사평』과 같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당대 통용되던 여러 서적의 개요를 설명하는 글을 남겨 지역 후학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배움에 뜻을 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르침을 베풀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지역 사회에서 일종의 ‘향선생’으로서 역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그의 학풍 개선 및 교화 의지는, 모범으로 삼을 만한 지역 인물을 발굴하고 그 행적을 적극 현양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시은료기」, 「청계자시집서」와 같은 작품을 통해 준수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한 인물을 조명하는가 하면, 「김효자전」, 「통정강성옥효의장」, 「최중원효행록서」 등의 글에서는 효행과 의리의 측면에 한층 주목함으로써 인물 자체에 대한 현양은 물론 지역의 여타 인물들 또한 이에 감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이처럼 이학규는 20여 년에 가까운 김해 유배 생활 동안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어디까지나 유배인의 신분이었던 만큼 지역에 대한 그의 인식은 비판과 폄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관찰과 학습의 결과 그 부정적 시선은 관심과 애정의 국면으로 점차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느덧 그 역시 ‘김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부나마 갖추어 나가고 있던 것이다. 이는 기속시·죽지사·악부 등 그의 여타 작품군에서 발견

非夫人之所能也。今世之無知中原者，固也。然見聞者知之，知者稱之嘖嘖，有嶺之二三君子傳之，故其事爲顯末，余不贅焉，以其傳之者，既盡之矣。”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비상한 주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점이자, 그의 산문 활동이 내면에 대한 탐색 뿐 아니라 주변 사회의 교화기여 등 외부의 영역으로도 분명히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본고의 논의를 통해 이학규 산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장됨은 물론, 그가 유배지에서 수행 하였던 제 활동에 대한 고찰 역시 한층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자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日省錄』

李學逵,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 한국고전번역원.

許傳, 『性齋集』, 『한국문집총간』 308~309, 한국고전번역원.

이학규 저, 박정희 역(2016), 『東史日知』, 한국국학진흥원.

김지인(2012), 「이학규 산문 연구: 사적 고통의 문학적 형상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하라(2005), 「낙하생 이학규 서간문의 自己敍事的 특성」, 『민족문화사연구』 27, 민족문화사학회.

이강옥(2004), 「낙하생 이학규의 문학과 조선 후기 김해」, 『지역문화연구』 10, 경남부산지역문화회.

정우봉(2003), 「洛下生 李學逵의 산문세계」, 『한국실학연구』 6, 한국실학학회.

정은주(2006),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은주(2016), 「19세기 星湖學派 문인의 문물 고증과 기록」, 『東事日知』, 『漢文古典研究』 31(1), 한국한문고전학회.

## 이학규의 <감사삼십사장(感事三十四章)>에 담긴 내용과 문학적 의미

이국진(강원대)

1. 서론
2. 「感事三十四章」 주요 내용
3. 결론 : 「感事三十四章」의 문학적 의미

### 1. 서론

洛下生 李學達(1770~1835)는 辛酉獄事(1801)에 연루되어 김해에서 24년간 유배 생활을 보낸 조선 후기 문인이다. 이학규는 유배 이후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해배 이후에도 외지를 떠도는 등 한평생 외롭고 궁핍한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규의 문학과 학문은 조선 후기 문학과 지성의 다채로운 성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개성을 발산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성호학파의 주역인 외할아버지 李用休와 외삼촌 李家煥에게 가르침을 받은 가학 연원, 20대 젊은 시절 서울의 문사들과 교류하고 규장각과 왕실의 도서 편찬 사업에 참여한 경험<sup>1)</sup>, 유배 이후 丁若鏞과 申緯처럼 조선 후기 대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맺은 경험 등이 토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학규는 수많은 藏書를 열람하고, 실학적 사유와 학문 방식을 체득하고, 당시 유행하던 국내의 문예사조와 학문 동향을 인지하고, 새롭고 전위적인 문학·예술·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 불우한 삶과 궁벽진 터전은 문학과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진지하고 치열한 방향으로 이끌었으며, 날카로운 관찰력과 예민한 감수성은 그만의 개성을 창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학규의 이른바 현실주의적인 시작품과 실학적 저술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작되었다. 이학규는 신유옥사(1801)가 있기 전부터 민중의 생활상·민간 풍속·사회 현실을 제재로 한 시 창작에 관심을 보였다.<sup>2)</sup>

1) 李學達, 『洛下生集』(한국문집총간 290 \* 앞으로 ‘한국문집총간’에서 인용할 때는 ‘문총’으로 약칭함) 책11, 「聲韻說 一」, 407면, “正宗乙卯, 頒行奎章全韻, 予實從事于校讎之役, 當其增入叶韻之際, 間有由予一言存拔者, 自今追惟意, 其或有不盡停當者也.”; 李學達, 『洛下生集』(문총 290) 책11, 「感舊紀恩(三首·並序)」, 411면, “丁巳夏, 上手選三禮·馬史·漢書·朱書各若干篇, 彙爲一卷, 俾授元子宮, 亟命校讎以進, 諭以此士子不惟文詞優好, 其於字學, 必不生疎也.”

2) 이학규는 신유옥사(1801)가 있기 두 해 전에 「元朝紀俗三十韻」(1799)을 창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시창작 경향은 유배 이후 정약용으로부터 문학적 감발을 받은 1808년~1810년에 본격화되었으며,<sup>3)</sup> 유배 후기와 해배 이후까지 지속되었다.<sup>4)</sup> 아울러 이학규는 성장기와 젊은 시절에 체득한 실학적 학풍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주변 사물·정치경제와 자연현상·자국의 역사와 문물제도 등을 박학적·고증적·과학적·실용적인 관점으로 탐구하는 자세와 실사구시적인 학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유배되기 한 해 전에 家蓼 재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蓼書」를 저술한 데에서부터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심리적 불안정감에 시달리던 유배전기를 지나, 1812년에 「金官歲時記」를 창작하고 1814년에 「月食說」·「書九數詳後」·「百刻說」 등을 창작하며 점차 고증적이고 과학적인 사유에 기반한 저술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갔다. 이는 1819년~1820년에 「東事日知」 등을 저술하며 절정을 이뤘다.<sup>5)</sup>

본고에서 논의할 「感事三十四章」<sup>6)</sup>은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학규가 1824년에 창작한 「感事三十四章」은 당시 서울과 김해지역의 다양한 인간사와 생활상을 보고 느낀 점을 서른 네 수의 오언율시로 표현한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感事三十四章」은 제재가 역사·지리·서적·서화·금석문·서양문물·음식·의복·기생·담배·식물·性 등 당대의 문화·예술·생활상을 망라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다가 각종 대상과 상황을 고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주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내용의 구체성을 높이고, 대상의 특징과 인상적인 장면을 포착하여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따라서 「感事三十四章」은 19세기 초반 서울과 김해 지역에 존재했던 다채롭고 이색적인 문물과 생활상을 알 수 있고, 이학규의 유배 후기 작가적 성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 사회문화 및 문학적인 특징과 연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학규의 한시와 실학적인 저술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상당 부분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感事三十四章」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感事三十四章」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고 그 문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感事三十四章」 주요 내용

### 1) 역사·지리 인식과 서적·예술 애호 양상

3) 이학규는 능주로 유배를 갔을 때 「綾州紀俗, 戲作俳體排悶」(1801), 「種秧詞」(1801)를 창작했다. 이후 현실주의적인 시창작 활동을 보이지 않다가, 유배 8년째인 1808년에 정약용의 자제들과 시문을 주고 받고 1809년에 정약용과 시를 주고받으면서부터 현실주의 시창작을 본격화한다. 이학규는 정약용의 「耽津樂府」를 읽고 공감하여 「嶺南樂府」(1808)를 지었으며, 정약용의 「耽津農歌」를 읽고 그 내용과 창작 의도에 동조하여 「江滄農歌」(1809), 「南湖戲歌」(1809), 「上東樵歌」(1809)를 지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학규의 현실주의 시 중에서도 사회의식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는 「己庚紀事詩」(1810)의 서문에서 정약용의 「田間紀事」에 큰 감발을 받아 이 시를 짓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菘亭紀事詩」(1808), 「金官竹枝詞」(1809), 「採鰾女」(1809), 「前下山歌」(1809), 「後下山歌」(1809), 「飢民十四章章十句」(1810)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으며, 「城市全圖一百韻」(1810)도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이학규와 정약용과의 문학적 교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자세한 고찰이 이뤄졌다.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 연구』, 보고사, 2005, 82~98면.)

4) 이학규는 유배후기에 「海東樂府」(1821)를 지었으며, 해배이후에도 「前浦行」(1830), 「後浦行」(1830), 「採山歌」(1833)와 같은 작품을 지었다.

5) 이 당시 이학규는 「東事日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다. (「三韓疆域辨」(1819), 「潮汐說」(1820), 「錢論」(1820), 「量田要旨序」(1820), 「書彙語後」(1820), 「與金天一論星曜書」(1820).)

6) 李學達, 『洛下生集』(문충 290) 책11, 548면.

「感事三十四章」의 도입부는 우리나라 역사의 기원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東事日知」에서 ‘三韓疆域’과 ‘四郡’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조목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고증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양상과 유사하다. 이학규는 우리나라 人事에 대한 소감[感事]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맨 앞에 내세워 작품의 전체 체계를 아우르는 서론의 역할로 삼은 것이다.

萬古箕封國	아득한 옛날箕자가 봉해진 나라
三邊左界遐	세 변방 중 머나먼 왼편 경계
當岾受詩禮	당시 시와 예의 가르침 받고
繼世業桑麻	대대로 뽕과 삼 농사 일삼아
自可文因質	질로 꾸밈이 질박함을 말미암게 되었으니
胡令儉入奢	어찌 검소한 데서 사치한 데로 들어가라
竟將貧薄俗	마침내 가난하고 경박한 풍속이
眞作小中華	진정 小中華가 되었다네

尙憶弁園叟	생각해보면 弁園 노인은
傷岾觚不觚 <sup>7)</sup>	觚가觚답지 않은 시절을 슬퍼했지
檀箕遺制度	단군과 기자가 제도를 남기고
孫董妙傳擘 <sup>8)</sup>	孫睦(?)과 董越이 묘하게 베껴 전했건만
竟作蘇州獸 <sup>9)</sup>	결국은 蘇州의 어리석은 이가 되었으니
那須燕石愚 <sup>10)</sup>	어찌 燕石을 보배로 여기는 우를 범하라
故知良貴在	그러므로 良貴 <sup>11)</sup> 가 있어
義勝邁鮮腴	義가 이기면 몹시 살이 짙을 알겠네 <sup>12)</sup>

위의 두 작품은 「感事三十四章」의 1장과 2장이다. 이학규는 1장에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관점에서 세 변방[三邊]<sup>13)</sup> 중 하나로 들고,箕자가 동쪽으로 온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詩와 禮를 배우고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는 등 교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殷尙質’<sup>14)</sup>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은나라의

7) 自註：王世貞著觚不觚錄，言儀文制度隨岾嬗變。왕세정이 지은 『觚不觚錄』에서 의식과 제도가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점을 말했다.

8) 自註：孫睦·董越，皆大明人，紀述朝鮮事甚悉。越所著朝鮮賦，載輿地勝覽。손목과 동월은 모두 명나라 사람이니, 조선의 일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했다. 동월이 지은 『朝鮮賦』는 『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9) 自註：元人高德菴言，吳中人尙奢爭勝，反貽子孫不肖之害，謂之蘇州獸。원나라 사람 고덕암이 말하기를 오나라 지방 사람들은 사치를 좋아하고 이기기 위해 다투어, 도리어 자손들에게 못나고 어리석은 해악을 전해주니 그들을 蘇州獸라고 한다.

10) 自註：宋愚人得燕石，以爲大寶。송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燕石(燕山에서 나는 돌로서 옥과 비슷하지만 옥이 아니다.)을 얻고는 대단한 보물로 여겼다.

11) 良貴：『孟子』，「公孫丑 上」，“仁義禮智，皆天所與之良貴.”

12) 『韓非子』，「喻老」，“子夏見曾子。曾子曰：‘何肥也?’對曰：‘戰勝故肥也。’曾子曰：‘何謂也?’子夏曰：‘吾入見先王之義則榮之，出見富貴之樂又榮之，兩者戰于胸中，未知勝負，故癯。今先王之義勝，故肥。’”

13) 三邊：漢나라 때 북방의 匈奴, 동북의 古朝鮮, 남방의 南越을 가리킨다. (司馬遷, 『史記』 권25, 「律書」, “高祖有天下, 三邊外畔.”)

질박한 풍속을 이어받아 마침내 小中華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것은 近畿南人の 학맥적 차원을 고려하면, 許穆(1595~1682)·李漢(1681~1763)·安鼎福(1712~1791)이 箕子 중심의 中華主義를 적극적으로 표방한 점<sup>15)</sup>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소론과 근기남인계의 중화주의는 노론의 존명대의론과 달리 기자문화를 통해 上古의 중화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에 내면화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명청교체 이후 상실한 중화를 대신해 자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조선 문화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했다.<sup>16)</sup> 이학규가 箕子朝鮮에 입각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小中華를 자처하는 문명관을 명확히 하는 면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장은 1장의 역사관과 문명관을 바탕으로 당대 현실을 경계하는 내용을 표현했다. 이학규는 王世貞이 『觚不觚錄』을 지은 동기를 언급하며 의식과 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의 의미와 가치에서 변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리하여 경련에서 사치를 숭상하는 일을 지적하며 虛飾이 만연한 세태를 경계하고, 미련에서 물질적 부귀함보다 유가적인 의로움의 가치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상고주의적인 의식 아래 기자가 전수해준 유가 문명과 질박한 풍속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함련에서 단군과 기자를 나란히 시조로 언급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과 혈통적 정체성을 모두 중시하는 관점을 견지했다.

이학규는 6장에서도 ‘단군과 기자가 외딴 지역의 시조가 되어, 洌水(한강)와 涓水(대동강)가 비로소 근원을 찾았네[檀箕元絕域, 洌涓肇尋源]’라고 하여, 영토적 차원에서 단군과 기자를 나란히 우리나라의 시조로 보았다. 이어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영토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아쉽게 여기며, 이 점에서 이중환의 『택리지』를 그 내용이 변해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sup>17)</sup>

한편, 박학과 고증을 중심으로 한 학풍을 이어받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가 필수적이다. 다음 시는 이학규가 다양한 독서를 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당대 새로운 문학과 예술 작품들을 쉽게 접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四庫皆縑素	사방 서고가 모두 서적이니
聊將玩物陳	그저 즐기려고 늘어놓았네
耐菴丁閣晚 <sup>18)</sup>	시내암의 책을 늦게까지 보는데
醫鑑鏤痕新 <sup>19)</sup>	『東醫寶鑑』 새겨진 흔적 새롭구나

14) 『論語集註』, 「爲政」의 주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馬氏曰: “所因, 謂三綱五常. 所損益, 謂文質三統.” 愚按: “三綱, 謂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妻綱. 五常, 謂仁, 義, 禮, 智, 信. 文質, 謂夏尙忠, 商尙質, 周尙文.”)

15) 김문식, 「18세기 후반 順庵 安鼎福의 箕子 인식」,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학회, 2000. ; 김문식, 「星湖 李漢의 箕子 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3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조성산,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역사학회, 2009.

16) 조성산, 위의 논문, 53면.

17) “聞道窺河使, 纔能見火敦. 檀箕元絕域, 洌涓肇尋源. 轉輿輿圖陋, 翻嫌鄙註煩. 寥寥西郭老, 擇里謾多言.” (自註: 青潭李重煥, 元陵時人, 著擇里志, 述八域山川土俗及稼穡可居之地.)

18) 自註: 施耐菴序水滸傳, 第末知名字皆代. 或謂金人, 瑞捏造氏號, 瞞卻後人也. 近有從燕市, 購得耐菴詩文諸集若干卷秘之, 惟同志一二見之, 殊可笑. 시내암은 『水滸傳』의 서문을 썼는데 이름과 활동 시대는 모른다. 후자는 금나라 사람인데 성씨와 호를 날조해서 후인들이 속였다고 이른다. 근래에 연경의 저자에서 시내암의 시문 諸集 약간 권을 사서 숨겨 놓아 뜻이 맞는 한 두 사람만 보았다고 하니 매우 우습다.

不媿詩書僞 <sup>20)</sup>	시서가 위서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仍知馬呂眞 <sup>21)</sup>	呂柟과 馬理가 참됨을 알겠네
翻嗟汲冢闕	『汲冢書』가 빠진 것 한탄스러우니
楚事委窮塵 <sup>22)</sup>	『論楚事』는 무덤 속에 버려졌었다오

유배 이전에 이학규는 서울 서대문 밖 盤松坊에서 살았는데, 주택에는 수목과 돌로 가꾼 정원이 있고 서재에는 장서 천여 권이 있었다.<sup>23)</sup> 이학규에게 각별한 보살핌과 가르침을 준 외할아버지 李用休의 집에는 많은奇書와 명나라 문인들의 문집이 소장되어 있었다.<sup>24)</sup> 또한 이학규는 20대 시절에 같은 동네에 있던 韓在濂(1775~1818)과 각별한 교유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때 두 사람은 수시로 왕래하면서 서책을 교환하며 지냈다. 그런데 당시 한재림의 집에는 개성의 갑부였던 조부의 경제력 덕분에 서책 수 만권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異書도 많아 정약용이 서책을 빌려보기도 했다.<sup>25)</sup> 이러한 생활 배경은 18세기 이후 서울에 京華世族을 중심으로 대형 장서가 등장하고 중국 서적의 수입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환경에서<sup>26)</sup> 이학규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感事三十四章」의 3장인 위 시에서 이학규가 회상하고 있는 서고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는 함련과 같이 중국의 四大奇書 중 하나인 『水滸傳』과 건륭 연간에 북경에서 간행된 『東醫寶鑑』이 소장되어 있었다. 또한 경련처럼 명나라로부터 위서로 판정받은 六經眞本과 『顏子朝儀』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呂柟과 馬理의 문집도 있었다. 그리고 이학규는 미련에서 『汲冢書』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특히 裴觀소설 성격의 글이 수록된 『論楚事』를 주목하였다. 이 시를 통해 18세기 후반 서울지역 장서가에 명칭서적이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었고, 당시 문인들은 『水滸傳』을 밤늦게까지 읽는 등 裴觀소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18세기 후반 서울지역 경화세족들은 고동서화에 관한 애호와 관심도 남달랐는데<sup>27)</sup>, 다음 두 작품은 이학규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화·금석문에 대한 높은 감식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 自註：陽平君所纂東醫寶鑑，乾隆季間，自燕市鏤版，象胥多購來者。 양평군 허준이 지은 『東醫寶鑑』이 건륭 연간에 연경에서 간행되어 역관들이 많이 구입해 왔다.

20) 自註：洪武初，本朝進六經眞本，以僞書卻之。胡元瑞甲乙剩言，“劉玄子從朝鮮還言，‘彼中書集多中國所無’，惜爲倭奴殘破，乃知國初朝鮮獻顏子朝儀，以僞書卻之。”此四庫之所以不及前代也。 홍무 초에 우리 조선에서 六經眞本을 명나라에 올렸는데 위서라고 판단해 받지 않았다. 호응린의 『甲乙剩言』에서 이르길 “劉玄자가 조선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저곳에 있는 서책들은 대부분 중국에 없는 것이다.’고 하고 왜노들이 없애고 파손시킨 것을 애석해 했다. 이에 국초에 조선에서 바친 『顏子朝儀』가 위서임을 알고 물리쳤다.”라고 하였다. 이는 四庫가 전대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21) 自註：王弇州卮言，嘉靖中，朝鮮上書請頒關西馬某呂某文。 왕세정의 『예원치언』에서 가정 연간에 조선에서 글을 올려 관서지역의 呂某와 馬某의 글을 반포하여 두루 알려 모범으로 삼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고 했다.

22) 自註：汲冢載楚事一段尤妙，蓋小說也，惜其不傳云。俗尚稗官小說，有聚至百餘種者。 『汲冢書』에 실려 있는 『論楚事』의 한 부분이 더욱 묘하니 대개 소설인데 전하지 않는 것이 애석하다. 세속에서는 裴觀소설을 숭상해 백여 종을 모은 자도 있다.

23) 李學達，『洛下生集』(문충 290) 책15, 「答丁參議若鏞書」, 483면, “舊有敝廬在盤松坊，雖無涼堂燠室及山園池亭之娛，猶以庇風霜擬伏臘，三十季于茲矣，而況妨帽礙眉之室，莫非先祖考逍遙燕居之所，叢條拳石之觀，亦莫非先世叔經理封植之餘耳。亦有藏書千餘卷，臧獲四五口。”

24)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3, 28~29면.

25) 이학규와 한재림의 서책 교환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고찰이 이뤄졌다.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심층 연구』, 학자원, 2020, 307~315면.)

26)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253~276면.

27) 강명관, 위의 책, 277~316면.

書畫覃谿在<sup>28)</sup> 書畫의 탁월함 담계에게 있으니  
 于時趨向齊 요즈음 한결같이 좇아 따르네  
 謙玄猶刻鵠<sup>29)</sup> 겸재와 현재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韓李摠家鷄<sup>30)</sup> 한호와 원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라네  
 鳳眼描能徧<sup>31)</sup> 봉안법으로 묘사하는 일 널리 유행하니  
 蠶頭法較低<sup>32)</sup> 잠두법은 그에 비하면 수준 낮은 것이네  
 何如唐穎士 어찌하여 당나라의 蕭穎士는  
 師授到天倪<sup>33)</sup>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이 변방까지 이르렀던가

過眼煙雲事<sup>34)</sup> 서화금석문을 감상하니  
 何須歎識煩 어찌 歎識를 번거롭게 여기라  
 朗原眞一錯 朗原君이 진정 한 번 실수했다면  
 白月竟無存<sup>35)</sup> 白月樓雲塔碑 탁본은 끝내 없었으리  
 博雅皆前輩 선배들 모두 박식하고 고아해  
 蒐羅到本根 널리 수집해 근본에 이르렀네  
 夔鍾與癸鼎 鍾과 鼎에 새겨진 金文은  
 自昔未深論<sup>36)</sup> 예로부터 깊이 논하지 않았다네

위의 두 작품은 「感事三十四章」의 4장과 5장이다. 4장은 이학규의 書畫 인식과 鑑評의 양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음을 보여준다.<sup>37)</sup> 이학규는 翁方綱을 당대 최고의 서화가로 일컬으며 당시 조선의 서화가들이 그를 추종하는 현상이 유행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함련에서는 겸재 정선과 현재 심사정은 ‘刻鵠類鷄’이라는 말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한호와 이광사는 들오리[野鷲]에 견주는 집닭[家鷄]<sup>38)</sup>과

28) 自註：雍方綱號覃谿，嘉慶昔人。能詩善書畫，近時主持文雅者，舉翁狀宗師之。옹방강은 호가 覃谿이니 嘉慶 때의 사람이다. 시에 능하고 글씨와 그림을 잘해서 근래 文雅를 주재하는 자들이 모두 흡연히 스승으로 삼는다.

29) 自註：鄭數字元伯，號謙齋。沈師正字頤叔，號玄齋。並善山水，沈尤工翎毛折枝，皆元陵時人。鄭數은 자가 元伯이고 호가 謙齋이다. 沈師正은 자가 頤叔이고 호가 玄齋이다. 둘 다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심사정이 영모절지화에 더욱 뛰어났으니, 모두 영조 때의 사람이다.

30) 自註：韓濩字景洪，號石峯，穆陵時人。李匡師字道甫，號圓嶠，元陵時人。並善草楷，李尤兼工篆隸諸法，蓋我東金生後一人云。韓濩는 자가 景洪이고 호가 石峯이니 선조 때의 사람이다. 李匡師는 자가 道甫이고 號가 圓嶠이니 영조 때의 사람이다. 둘 다 초서와 해서를 잘 썼는데, 이광사가 더욱 전서와 예서 등 여러 서법에 솜씨가 좋았으니, 대개 우리나라에서 김생 이후의 일인자라고 이른다.

31) 自註：畫家畫蘭蕙，有鳳眼蛾眉等式。화가들이 난초와 혜초를 그릴 때 鳳眼法和 蛾眉法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32) 自註：書家，有蠶頭馬蹏等式。서예가들에게는 蠶頭法和 馬蹏法 등의 필법을 사용한다.

33) 自註：唐大曆中，新羅請以蕭夫子穎士，爲師。당나라 大曆 연간에 신라에서 蕭穎士를 스승으로 삼고 싶다고 청했다.

34) 自註：宋周公謹，號弁陽老人，集古今書畫序目，煙雲過眼錄。송나라 周公謹은 호가 弁陽老人이니, 고금의 서화를 모아 책 이름을 『雲烟過眼錄』이라고 했다.

35) 自註：宗室朗原君，集東方金石無遺錄。新羅金生書白月寺樓碑，寺僧苦於印役之繁，擊碎埋地。後宋帝問麗使曰，“白月碑在否。”宗室인 朗原君 李侖은 우리나라의 금석문을 남김없이 모았다. 신라시대의 김생이 白月樓雲塔碑를 썼는데, 절의 승려가 탁본하는 번거로움이 괴로워 부수어 땅에 묻었다. 후에 송나라 황제가 고려 사신에게 “白月樓雲塔碑는 잘 있는가?”라고 물었다.

36) 自註：文翰家專尚金石古文，兼沿東國水經。文翰家에서는 오로지 金石古文만을 숭상하니, 겸하여 『東國水經』을 따랐다.(?)

37) 이학규의 書畫 인식과 鑑評의 실제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고찰이 이뤄졌다. (정은주, 앞의 책, 350~380면.)

38) 『太平御覽』 권918, 「羽族部 五」, “晉書庾征西翼書, 少時與逸少齊名。右軍後進, 庾猶不分, 在荊州與都下人書云, ‘小兒輩賤家雞,

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라고 칭송한다. 그리고 경련에서 최근 난초와 혜초를 그릴 때 鳳眼法과 蛾眉法을 사용하는 풍조를 언급하고, 馬蹄法과 蠶頭法은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筆法이라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미련에서는 신라에서 당나라의 蕭穎士를 國師로 청한 일에 의문을 제기하며, 맹목적으로 중국의 서화가를 추종하는 풍조에 반감을 드러낸다.

5장은 이학규가 『大東金石書』를 열람한 경험을 말한 것이다. 『大東金石書』는 宣祖의 손자인 朗善君 李俔와 朗原君 李儼 형제가 17세기 후반에 신라 진흥왕순수비로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 우리나라의 금석문 280여 종에 대한 탁본 400여 건을 수집하여 편집한 탁본첩이다. 正帖 5책과 續帖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우리나라 탁본첩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sup>39)</sup> 『大東金石書』에 대해서는 許穆이 「王孫朗善君金石貼序」<sup>40)</sup>를 썼고 李瀾이 『大東金石書』의 내용과 가치를 서술한 바가 있다.<sup>41)</sup> 이렇게 남인계 문인들이 『大東金石書』를 가까이에서 열람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학규도 『大東金石書』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던 듯하다.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大東金石書』의 편찬자를 許穆은 朗善君으로 여기고 李瀾은 朗原君으로 여기는 등 예전부터 지금까지 의견 차이가 있는데<sup>42)</sup>, 이학규는 朗原君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이학규는 『大東金石書』의 자료 중에서 특히 「太子寺朗空大師白月樓雲塔碑」를 주목했다. 「太子寺朗空大師白月樓雲塔碑」는 무엇보다도 신라시대 명필 서예가 金生의 集字碑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太子寺가 없어진 뒤 방치되어 있다가 1509년(중종 4) 당시 영천군수로 있던 李沆이 발견해서 다시 전해지게 되었다.<sup>43)</sup> 이학규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바탕으로 「太子寺朗空大師白月樓雲塔碑」의 탁본이 『大東金石書』에 수록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고 『大東金石書』가 우리나라 금석문 자료의 근본이 됨을 칭송하고, 우리나라 금석문 자료 중에서 金文은 많이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 2) 부조리한 세태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

이학규의 현실주의적인 시작품들은 크게 紀事詩, 紀俗詩, 民謠詩, 詠史樂府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학규는 지배계층의 貪虐과 현실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일반 백성들의 곤궁한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표현했다. 이러한 창작 역량은 정약용으로부터 문학적 감발을 받은 유배 중기부터 활발하게 펼쳐져 「感事三十四章」에서도 발휘되었다.

盡說文迪術<sup>44)</sup>

다들 말하네 曾文迪의 술법이

愛野雉, 皆學逸少之書, 須吾下當比之.”

39) 『大東金石書』는 20세기 전반에 京城帝大 교수로 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그의 사후 일본 천리대학에 기증되었다. 최근에 『大東金石書』 원본의 조사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 발간되었다. (남동신 외, 『대동금석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40) 許穆, 『記言』(문종 98) 권29, 「王孫朗善君金石貼序」, 149면.

41) 李瀾, 『星湖僿說』 권30, 「東方石刻」.

42)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84~88면 참고. ; 남동신 외, 앞의 책, 28~32면 참고.

43) 성인근, 「<白月樓雲塔碑>의 전래과정과 전승유형」, 『서예학연구』 10, 한국서예학회, 2007.

44) 自註: 藝師之說, 多宗楊松筠, 唐僖宗時人. 將其術, 授曾文迪諸徒, 世稱救貧仙人. 迪音延. 풍수[葬師]들의 말이 대부분 楊筠松으

其於強占那	강제로 차지하게 도와주는 것인가
千金聊券記	토지문권이 천금의 가격이니
一草敢摩挲	풀 한 포기라도 감히 어루만지랴
天理豈如此	하늘의 이치 어찌 이와 같은가
雲仍無奈何	후손들이 어찌할 수 없네
近聞休紙盛	근래 들으니 休紙進封이 성행해서
田地又添他 <sup>45)</sup>	논밭을 또 저들에게 더해준다고 하네

供上其人在 <sup>46)</sup>	공물을 바치는 其人이 있으니
于今作用專	지금도 독점해서 일을 시키네
館馱蕉葛細 <sup>47)</sup>	관사로 짐 실어나르는데 가는 蕉葛로 짠 옷 입고
遞飼羽毛鮮 <sup>48)</sup>	큰 맹견과 앵무새에게 번갈아 먹이 주니 깃과 털이 곱구나
膩首三絃樂 <sup>49)</sup>	머리에 기름 바른 兒細樂手가 삼현육각 연주하고
籤牙四庫編 <sup>50)</sup>	상아로 만든 旣 사방 서고에 널려있는데
從來饒外府	예전부터 國庫는 넉넉하기에
快意盡生前	유쾌한 기분 살아생전에 맘껏 즐긴다오

위의 두 작품은 「感事三十四章」의 7장과 10장이다. 7장은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대대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권문귀족들과 그렇지 못한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은 감히 풀 한 포기도 만져볼 수도 없는 높은 금액의 땅을 소유하고 땡땡거리며 사는 권문귀족들을 보며, ‘조상의 묘를 잘 쓴 덕분인가?’ 라고 생각하며 낙담할 따름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地方에 나가 있는 官員이 논밭을 사서 그 文書를 權門勢家에 阿諛하느라고 바치던 일[休紙進封]’로 인해서 권문귀족들의 貪虐과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이었다. 이학규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비판적인 시선이 담긴 시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10장은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 其人을 독점해서 사사롭게 부리며 이익을 갈취하는 실태를 고발한 작품

로 으뜸을 삼으니, 균송은 바로 唐 僖宗 때 사람이다. 지리의 술법을 曾文辿 무리들에게 전수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救貧仙人이라 한다. 辿은 음이 ‘延’이다.

45) 自註：近時守宰，多買沃田，納其券于權貴，命曰休紙進封。근래 수령들은 기름진 밭을 많이 사서 그 토지 문서를 권문귀족들에게 바치니, ‘休紙進封’이라고 한다.

46) 自註：其人詳見東事日知篇，今多爲貴遊所占。但用市民名字簽載貢案，利歸貴遊，貢人只備使令。‘其人’에 대해서는 『東事日知』편에 상세히 보인다. 지금은 대부분 귀족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만 시전 상인들의 이름 글자 서명만 貢案에 실어 놓고 이익은 귀족들에게 돌아가니, 貢人들은 다만 심부름을 맡을 따름이다.

47) 自註：家常服著，皆用吳中蕉葛。집에서 항상 옷을 입을 때면 모두 吳中의 蕉葛로 짠 옷을 쓴다.

48) 自註：名獒，蜀鼠堪達漢。呼扒囉，鸚鵡之屬，歲購不已。

49) 自註：三國史新羅樂志，三絃三竹，三絃，一琴·二伽椰琴·三琵琶也。國朝俗樂，以細箏鼓·笛·觱篥·奚琴合奏，亦謂之三絃，蓋沿羅峇舊稱也。今多以膩首粉面小兒奏之，謂之兒細樂手云。『三國史記』，「新羅樂志」에서 세 가지 현악기와 세 가지 관악기 중에 세 가지 현악기는 첫째 거문고·둘째 가야금·셋째는 비파라고 했다. 우리 조선의 俗樂에서는 장구·젓대·피리·해금으로 합주하는 것을 또한 三絃이라고 하니, 신라시대 때 옛 명칭을 따른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 기름 바른 머리에 화장한 얼굴의 작은 아이가 삼현육각을 연주하는데, ‘兒細樂手’라고 이른다.

50) 自註：經解·二十一史·佩文韻府·淵鑑類函諸書，舊皆非文人鉅富，不得藏弄。今則稍富豪，无不有之。『經解』·『二十一史』·『佩文韻府』·『淵鑑類函』 등 여러 책은 예전에는 거부의 문인이 아니면 소장할 수 없었다. 지금은 조금 재산이 넉넉한 집이면 없는 곳이 없다.

이다. 其人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 궁중과 관청에 숯과 땀감 등을 貢物로 바치던 貢人이다. 이학규는 『東事日知』에서 其人의 내력을 고증했다.<sup>51)</sup> 其人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노동의 증가와 지급되는 대가의 부족함 등으로 많은 고충에 시달렸다.<sup>52)</sup>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其人들이 부귀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 나라에서 其人에게 지급하는 貢物價를 빼앗기고 일만 하는 현실이었다. 이를 통해 부귀한 사람들은 이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싼 옷을 입고 이국에서 수입된 맹견과 앵무새를 키우며, 삼현육각을 즐기고 수많은 장서를 꽂아놓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國庫에서 지급되는 貢物價는 그칠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 양심의 가책 없이 한평생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갔다.

### 3) 문란하고 개방적인 성풍속과 다양한 유흥 문화

조선 후기 사회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유교적인 성윤리와 제도 속에서 성적으로 엄격히 억압된 사회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성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거나 개방적이고 문란한 성풍속이 만연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다.<sup>53)</sup> 이학규의 「感事三十四章」에도 18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개방적인 성풍속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斗帳濃香裏	깊은 향기 가득한 작은 장막 안에서
春宵祕戲同	봄밤에 같이 성교를 즐기네
十季囊藥戀 <sup>54)</sup>	십 년간 성욕을 높여준다는 媚藥이 사랑스러우니
千轉緬鈴功 <sup>55)</sup>	천 번을 회전하는 緬鈴은 효과가 좋네
變非司龍火 <sup>56)</sup>	미소년이 龍火를 맡고
妖鬢發蠱風	요염한 여종은 蠱風이 생겼는데
盡將紋繡美	어여쁜 비단옷을 모두다 가져다가
刻意豐房權	애를 써서 방안에 포개 놓았네
妙解房中術	방중술을 통달하고서
能爲峇世粧	유행하는 화장을 했네
隨緣皆綺饌	인연 따라 화려한 음식만 먹으니

51) 李學逵, 『洛下生集』(문충 290) 책20, 「東事日知·其人」, 610면, “市民受直, 供給炬(音毀)燎曰其人貢物, 或曰: 炬人之謬也. 高麗史忠烈王二十二年, 右中贊洪子藩上書, 條陳便民十八事, 一言“諸州之吏留京聽候者, 謂之其人. 外方多故, 其人或闕, 計其年月, 以徵其備, 所以州縣日漸殘弊, 請量減之.”

52) 한우근, 『其人制研究』, 일지사, 1992, 176~189면 참고.

53) 『韓國漢文學研究』 42집에는 ‘한국한문학과 성담론’이라는 기획주제 아래 다음 네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성(性)」, 『韓國漢文學研究』 42, 한국한문학회, 2008.; 김경미, 「조선 후기 성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韓國漢文學研究』 42, 한국한문학회, 2008.; 윤채근, 「조선 후기 남성회절 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 -정념(情念) 담론에서 이익(利益) 담론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2, 한국한문학회, 2008.; 진재교, 「조선조 후기 문예공간에서 성적 욕망의 빛과 그늘 -예교, 금기와 위반의 길항(拮抗)과 그 변증법(辨證法)-」, 『韓國漢文學研究』 42, 한국한문학회, 2008.)

54) 自註: 媚藥方, 有一度十季思膏. 媚藥의 약방문에 한 번 먹으면 십 년간 성욕이 길어진다고 한다.

55) 自註: 鈴出緬甸, 自朕旋轉啾啾, 用之房中. 미얀마에서 비롯된 구슬인데 스스로 회전하고 구르며 울음소리를 내어 방중술에 쓴다.

56) 自註: 狎變童, 大清會典, 謂之雞姪. 미소년을 가지고 노는 것을 『大清會典』에서는 ‘雞姪’이라고 했다.

到處卽金張	가는 곳마다 부귀한 사람들이 있네
見說回頭女	듣자하니 고개 돌린 여인은
羞看接腳郎 <sup>57)</sup>	부끄럽게 셋서방을 바라본다는데
陳潘存故事	陳瓘과 潘良貴의 고사가 있으니
哺養定誰當 <sup>58)</sup>	먹이고 기르는 것 진정 누구 책임인가

위의 두 작품은 「感事三十四章」의 11장과 12장이다. 11장의 전반부에서는 봄날 밤에 은밀한 장막 안에서 최음제와 緬鈴이라는 기구를 사용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미소년을 데리고 男色을 일삼는 정황과 지나친 성관계를 즐기던 여종이 몸이 허해지고 正氣가 손상되어 마치 蠱毒에 중독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을 앓는 정황을 보여준다.

12장의 전반부에서는 방중술을 익히고 유행하는 화장을 하고서 부잣집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셋서방(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몰래 관계하는 남자)과 불륜 행각을 벌이는 일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아버지는 다르지만 천한 종 신부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陳瓘과 潘良貴의 고사를 들어,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양육 책임을 물으며 문란한 성풍속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정황은 셋서방과 관련된 사설시조<sup>59)</sup>의 내용과 조선 후기 사람들은 과반수가 진짜 부모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풍기가 문란하다고 지적한 천주교 신부의 기록<sup>60)</sup>을 참고할 때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밖에도 「感事三十四章」의 13장에서는 궁녀들 사이에 벌어지던 동성애가 지금은 서울에 두루 퍼졌는데, 특히 민간의 과부들은 집안일도 소홀히 한 채로 서로 동성애를 즐기는 것이 풍속이 되어, 남녀부부보다 더 정답게 지낸다고 말했다.<sup>61)</sup>

服食便居養	입고 먹는 것이 곧 생활 형편이니
心知子弟佳	지체 높은 집안 자제임을 알겠네
紫團茶飯共	紫團蓼 먹는 일이 다반사이니

57) 自註：朱子語類，有告繼母姪行者，其所好之夫，謂之接腳。『朱子語類』에서 “繼母의 음행을 고한 자가 있었는데 그 간음한 사나이를 接腳夫라고 한다.”라고 했다.

58) 自註：陳瓘之父，與潘良貴之父榮情密。惜潘无子，借其生子之婢，生良貴。後其母往來兩子家，人謂一母生二名儒。陳瓘의 아버지는 潘良貴의 아버지 榮과 인정이 매우 친밀했다. 진관의 아버지가 반영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아들 낳을 여종을 빌려 주어 반양귀를 낳았다. 뒤에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의 집을 왕래하니, 사람들이 한 어머니가 이름난 선비 둘을 낳았다고 하였다.

59) ‘셋서방[소대남편]’이 등장하는 사설시조 중에서는 다음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 “어이려뇨 어이려뇨 시어머님아 어이려뇨 / 소대남편의 밥을 담다가 늦주걱을 덜켜 부러뜨렸으니 이를 어이하려뇨 시어머님아 / 저 아기 너무 걱정 마라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꺾어 보았노라.”(『진본 청구영언』)

60)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는 “풍기의 문란은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과반수가 그들의 진짜 부모를 모르고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이글은 어떤 여자가 겁탈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저는 당신 딸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강간을 막을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이고 있다.”(샤를르 달레, 안응렬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원저는 1874년 파리 출간), 229쪽. 이 기록은 다블뤼 주교(1817~1866)의 편지를 인용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정병설, 「조선 후기 性的 실상과 배경 - 『紀伊齋常談』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10, 173면 재인용 했음.

61) “對食宮中事，于今遍國城。藥渣非子弟，演揲若天成。尚有尸饗譏，都無恤緯情。向來眞笑殺，晝哭正勞生。”(自註：對食，見漢書，蓋宮人自爲夫婦也。；自註：近峇閭巷嫠婦，對食成風，好合甚於伉儷。)

白皙雪冰皆	뽀얀 살결이 눈과 얼음 같네
丈席胡葵撒	스승 모시는 자리에 고수풀 뿌려놓고
文房馬弔排 <sup>62)</sup>	글 읽는 서재에서 투전판을 벌이네
誰憐花月夜	누가 꽃 핀 달밤을 애달파하는가
峯調正悽懷 <sup>63)</sup>	시조가 진정 마음을 처량하게 하네
紫管宮商葉	자주빛 관 簧葉은 음률을 자아내니
紅銅文武絲 <sup>64)</sup>	검붉은 구리줄 채로 쳐서 연주하네
銀河虛悵望 <sup>65)</sup>	은하수를 공연히 서글피 바라보나니
淥水定誰知	淥水曲 타는 심정 진정 누가 알라
并看當階藥 <sup>66)</sup>	아울러 섬돌의 작약을 바라보는데
同名釘坐梨 <sup>67)</sup>	釘坐梨와 같은 이름이네
生來取騷雅	태어나 아름다운 시문을 얻는 일이
未必在鬚眉	만드시 남자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네

위의 두 작품은 「感事三十四章」 8장, 27장이다.

鐵笠些兒炙 <sup>68)</sup>	철립 위에 고기 몇 점 구워 먹으며
瓷匙骨董羹	사기숟가락으로 骨董羹을 떠 먹네 <sup>69)</sup>
浙蟲曾健羨 <sup>70)</sup>	浙蟲羹이 일찍이 몹시 부러웠는데
洌膊竟施行 <sup>71)</sup>	소와 양 내장탕을 마침내 보여주네
不用鮠魚議 <sup>72)</sup>	뱀장어는 넣지 않으니
仍須煉炭烹 <sup>73)</sup>	숯을 써서 삶아야 한다네

62) 自註：馬弔，亦名葉子戲。투전[馬弔]을 또한 葉子戲라고도 한다.

63) 自註：峯調，亦名峯節歌，皆閭巷俚語，曼聲歌之。시조는 또한 ‘시절가’라고 부르는데, 모두 민간의 속된 말이니, 유장한 소리로 노래한다.

64) 自註：笙簧洋琴聳於音樂者，悉蓄之。생황과 양금은 음악에 무지한 사람도 다 소장하고 있다.

65) 自註：李義山詩，悵望銀河吹玉笙。李義山の 시에서 “서글피 은하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생황을 불었고”라고 하였다.

66) 自註：劉禹錫詩，人於紅藥惟看色。劉禹錫의 시에서 “사람은 작약의 꽃 색깔만 보노라니”라고 하였다.

67) 自註：崔遠目爲釘坐梨，言席上之珍。崔遠을 지목하여 釘坐梨라고 하였으니 자리 위의 보배임을 말한 것이다.

68) 自註：俗以鐵造甌笠樣，謂之甌笠套。每飯，煎珍儻嘉蔬，以佐飯。민간에서는 철로 甌笠(조선시대 무관이 쓰던 모자) 모양의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를 ‘전립투’라고 한다. 밥 먹을 때마다 잘게 저민 귀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전립투 안에 넣고) 끓여서 반찬으로 먹는다.

69) 조선 순조 때의 학자인 이학규는 “전골은 쇠로 전립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고기를 요리한 것에서 비롯됐는데 그릇 모양이 멍거지 같아서 전립투(甌笠套)라고 한다”고 했다. 투(套)는 그릇 세트라는 뜻이다. 같은 시대를...

70) 自註：近世華人，尙浙蟲羹，不知何物。근래에 중국인들이 浙蟲羹을 숭상하는데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다.

71) 自註：揚雄方言，朝鮮洌水之間，凡牛羊五臟謂之膊。揚雄의 『方言』에 조선 洌水의 사이에서는 무릇 소나 양의 오장을 일러 ‘膊’이라고 한다.

72) 自註：何胤侈於食味，猶食鮠脯糖蟹，以爲非見生物，擬食蚶蠣，使門人議之，鍾毓曰，“鮠魚就脯，驟見屈伸，蟹之將糲，躁擾彌甚。仁人用意，深衷此怛。”何胤은 음식에 사치를 부려서 여전히 뱀장어의 포와 꿀에 쥔 게를 먹으면서 못 본 생물이라고 여기고 蚶蠣를 먹고 문인들에게 폄평하게 하였다. 鍾毓이 말하기를 “뱀장어를 말려 포가 되니 굵거나 퍼기가 순간이요, 게를 꿀에 제니 요란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어진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는 법입니다.”라고 했다.

73) 自註：唐貴家子，必用煉炭，不爾便嫌煙氣。당나라의 귀한 집 자제들은 반드시 연탄을 사용하니, 그렇지 않으면 곧 연기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一栢三萬直                    한 그릇에 삼만 전이니  
 須是贊皇名                    贊皇伯 李德裕를 일컫는 말이라오<sup>74)</sup>

小帚烏銅篆                    작은 검은빛 구리 대통에서 연기 피어나고  
 長筠黃篋光                    대나무 속 껍질로 만든 설대는 광택이 나네  
 杏仁徐嚼罷<sup>75)</sup>                   杏仁糖을 천천히 다 씹어 삼키니  
 茶水莫呼將                    차를 마실 것인지는 묻지를 말게  
 至味從生火                    불을 붙이자 지극한 맛이 나니  
 微薰不離房                    은은한 향기가 방을 떠나지 않네  
 此間眞意足                    이 사이에 참된 뜻이 충분하니  
 愁殺念珠香<sup>76)</sup>                    念珠香을 몹시도 시름겹게 한다네

위의 두 작품은 「感事三十四章」 23장, 24장이다.

#### 4) 부귀하고 이국적인 생활상과 외모

未是崔盧貴                    고귀한 문벌이 아니더라도  
 猶能服飾同                    복식은 얼마든지 같을 수 있네  
 腕珠非佞佛                    팔에 찬 엄주는 부처에게 복 빌려는 것 아니요  
 眼罩不因風                    낮가리개는 바람 때문에 쓴 게 아니라네  
 羅瑪刀全利<sup>77)</sup>                    로마칼은 더할 바 없이 날카롭고  
 那斯鏡若空<sup>78)</sup>                    러시아 거울은 텅 빈 듯 맑은데  
 公家問赤仄                    그대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니  
 搜索定難窮                    찾아봐도 진정 다 알 수 없다고 하네

毛襖華人制                    중국인들 양식인 털도포 입고  
 駿冠秀士裝<sup>79)</sup>                    말총갓을 쓴 수려한 선비 행장  
 風流眞絕俗                    풍류가 진정 속기 없으니  
 坐席欲生香                    좌석에는 향기가 풍기는 듯  
 細蕪西關草<sup>80)</sup>                    양담배를 뺨뺨 태우며  
 長呼北髻娘<sup>81)</sup>                    쪽진머리 한 여인 긴소리로 불러

74) 찬황은 당(唐)나라 때 찬황백(贊皇伯)에 봉해진 명상(名相) 이덕유(李德裕)를 가리킨다. 太平廣記「奢侈 二」武宗朝宰相李德裕奢侈 每食一杯羹 其費約三萬

75) 自註：飯後，嚼下糖纏杏仁，亦華入法。 밥 먹은 뒤에 설탕에 절인 살구씨를 씹어 삼키니 또한 중국인들의 방법이다.

76) 自註：文房清供，以念珠香，爲最佳。文房의 맑은 생활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는 念珠香을 가장 좋다고 여긴다.

77) 自註：俗喜用西洋刀子，羅瑪，泰西地名。세속에서는 서양에서 온 칼을 사용하는데 로마는 서양의 지명이다.

78) 自註：鏡，出鄂那斯國者，最珍貴。거울은 러시아에서 만들어 온 것이 가장 진귀하다.

79) 自註：貴遊，皆著駿冠，作秀士裝。귀족들은 모두 말총갓을 쓰고 수려한 선비 행장을 했다.

80) 自註：今之門快阜卒，多吃西煙。지금의 門快와 阜隸와 邏卒들은 대부분 양담배를 핀다.

81) 自註：向峇童女爲北髻，既嫁，辮髮作兩條，縮結額端。近士夫家女，使皆作北髻，法司屢禁止之，終不易。지난날에는 어린 여자가 쪽머리를 하다가 시집을 가면 땅아 내린 머리를 두 갈래로 만들어 이마 끝에 엮어 묶었다. 근래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은 모두

明朝有尊客	내일 아침 귀한 손님이 올테니
須試熱毬湯 <sup>82)</sup>	열구자탕을 내어드리라고 하네
車幔花紋薄	수레 장막에는 얇은 꽃무늬 그려있고
裘毡縠色明 <sup>83)</sup>	북방 털옷에는 아침노을 색 빛나네
著來寬窄愜	옷을 입었는데 품이 만족스럽고
推去坎离貞 <sup>84)</sup>	바늘침 움직이니 남북이 정확하네
入手鮮蘑嫩 <sup>85)</sup>	손에든 신선한 표고버섯 어여쁘고
齊眉假梅榮 <sup>86)</sup>	눈앞에 치켜든 假梅가 싱그러운데
輿儻渾氣勢	하인의 기세가 등등하니
貂裙任風傾 <sup>87)</sup>	담비털로 만든 휘양이 바람에 기울네

위의 세 작품은 「感事三十四章」 14장, 16장, 17장이다.

### 5) 화려하고 이색적인 생활상과 식물

髹閃龜文赤 <sup>88)</sup>	옷칠한 널마루에는 붉게 거북등무늬 빛나고
紗黏卍字青 <sup>89)</sup>	비단 격자창에는 푸른색 卍字 창살 붙어있네
玻瓈風外磬 <sup>90)</sup>	오색빛 유리 바람결에 경쇠 소리 내고
檀柏雪中屏	향나무 측백나무가 눈 속에 그려진 병풍이 있네
峻壁皆花樣 <sup>91)</sup>	높다란 벽에는 온통 꽃무늬 새겨져 있고
深房尙月形 <sup>92)</sup>	깊은 방 유리로 만든 미단이창엔 달이 환히 보이네
政憐魚五色	참으로 어여빠라 오색 빛깔 금붕어
游泳水天萍 <sup>93)</sup>	천정의 물속에서 부평초처럼 헤엄치네

쪽머리를 하는데, 法司에서 여러 차례 그것을 금지했지만 바뀌지 않는다.

82) 自註：肉膾有名熱毬子湯，一椀，動費千餘錢。 이름이 ‘熱毬子湯’인 고깃국이 있는데, 한 그릇에 천여전을 번번이 소비한다.

83) 自註：襦袴及襪子，皆織成縠毡，燕中謂之無大小。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버선은 모두 양털로 짜서모직물로 만드니, 연경에서는 그것을 일러 ‘無大小’라고 한다.

84) 自註：車中置羅經，俗名乾靈龜。 수레 안에 나침반을 두는데, 세속에서는 乾靈龜라고 한다.

85) 自註：耽羅巨濟等邑，鉅斷蘑菰樹幹，以相饒遺。 澆灌，置溼地，得新蕈，以供滋味。 제주도과 거제도 등의 고을에서는 나무등걸에 서 표고버섯을 크게 끊어 서로 선물로 보낸다. 물을 주기 위해 습지에 설치하는데 새 버섯을 얻으면 맛있는 음식을 장만했다.

86) 自註：假花無不逼真。 假花가 핏진하지 않은 것이 없다.

87) 自註：下賤，皆著銀鼠紫貂風領。 신분이 미천한 자들이 모두 변색족제비와 검은 담비의 털로 만든 휘양을 썼다.

88) 自註：板軒，多施髹漆，作龜文。 널마루에는 주로 옷칠을 하고 거북등무늬 문양을 새겼다.

89) 自註：窗櫺，皆作卍字格。 격자창은 모두 卍字로 만들었다.

90) 自註：檐馬，皆用五色玻瓈，出日本。 풍경은 모두 오색 유리를 사용하는데 일본에서 난다.

91) 自註：牆壁雕作花樣。 담장 벽에 꽃무늬를 새겼다.

92) 自註：推窗，卽今喚窗，多用玻瓈，洞見星月。 미단이창은 바로 지금의 喚窗이니, 주로 유리로 만들어 별과 달이 환히 보인다.

93) 自註：玻瓈盆，養五色鯽魚，自燕市一頭費千許錢。 或以玻瓈，代天花板，養魚其中，以便仰觀。 유리 어항에 오색 빛깔 붕어를 기르는데, 연경 저자에서 한 마리에 천여전씩 주고 사온 것이다. 간혹 유리로 소란반자를 대신하여 그 속에서 물고기를 길러 치켜 올려 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帳燠玲圍毳      장막은 모직물을 둘러 따뜻하고  
 屏昏豹點彪      병풍은 표범무늬 얼룩져 어둑하네  
 商嵌周治鑿<sup>94)</sup>      周治가 음각한 듯한 상감 도자기  
 禹篆陌頭班<sup>95)</sup>      두건과 같은 털로 만든 篆字 문양 방석  
 尙憶東牀市<sup>96)</sup>      지금도 생각나네 東牀塵의  
 橫眠北賈間      가로누워 자던 북쪽 상인 사이에서  
 謾將金翠尾      공연히 황금빛 청록빛 공작 꼬리깃털을  
 一一暎朱顏<sup>97)</sup>      하나하나 홍안의 젊은 얼굴에 비취보았었지

返照深棚好      석양빛 깊숙한 차일막에 비쳐 아름다우니  
 猶嫌錦繡烘      비단 빛 내리쬐는 햇볕을 꺼린다네  
 倭幘涼不歇<sup>98)</sup>      일본 모기장은 서늘하기 그지없고  
 眞簟靜相從<sup>99)</sup>      북방 돗자리에는 고요함이 감도네  
 快意新規扇      부채를 새로 장만해 마음 흡족하고  
 閒情自拷鍾<sup>100)</sup>      자명종 놓여 있어 정취가 한가하니  
 故知炎熱在      찌는 듯한 무더위에는  
 未許肉屏供      기생도 들이지 못하게 한 이유를 알겠네

細橘金丸樹<sup>101)</sup>      작은 금빛 탄환 주렁주렁한 굴나무  
 踈梅綠萼花      가지에 듬성듬성 피어난 청매화  
 嶺南非別種      영남지역에서는 별종이 아니니  
 淮北亦通家      淮北지역과 또한 교분이 있다네  
 穉穉繁霜退      穉穉엔 된서리 가득하고  
 玻瓈缺月遮<sup>102)</sup>      유리엔 조각달 새겨 가렸는데  
 絕憐狂蛺蝶      몹시 어여빠라 이리저리 날던 나비  
 乾死也婆娑<sup>103)</sup>      말라 죽어서도 나풀나풀 거리네

94) 自註：周治，治商嵌，王小溪，治瑪瑙，皆價倍于市。周治가 상감 도자기를 만들고, 王小溪가 마노로 기물을 만들면 모두 시장에서 값이 배가 된다.

95) 自註：俗尙氊坐，有水紋·禹篆·猩紅·鴉青，種種名色。○ 晉太康中，天下以氊，爲陌頭帶身袴口。세속에서는 방석을 숭상하는데 물결무늬·篆字 문양·선홍빛·검푸른빛이 있어서 명색이 갖가지이다。○ 晉나라 太康 연간에 온 세상에서 모전으로 두건과 몸을 두르는 띠와 바지 아랫단을 만들었다.

96) 自註：京中，有東牀塵，專管買賣唐貨。서울에 東牀塵이 있는데 중국 물건을 전담하여 관리하며 사고 판다.

97) 自註：膽瓶，多插孔雀尾。목이 길고 배가 불룩해서 마치 쓸개를 달아 놓은 듯한 병[膽瓶]에는 주로 공작의 꼬리 깃털을 꽂아놓았다.

98) 自註：暑月，施日本蚊幘。더운 달에는 일본식 모기장을 사용한다.

99) 自註：織文藤簟，出燕市，薔委稻簟，出關西清北，皆貴遊所珍愛。문양이 있는 등나무 돗자리는 연경의 저지에서 나고, 옥수수 겉잎으로 만든 돗자리는 관서지방 청천강 이북에서 나니, 모두 귀족들이 보배로 여겨 아끼는 것이다.

100) 自註：達城近出各樣便面，作芙蓉芭蕉等形，各家置自鳴鍾。달성지역 근처에서 다양한 모양의 부채가 생산되는데 연잎이나 파초잎 등의 모양으로 만들고, 각 집에는 자명종을 두었다.

101) 自註：貴家輩，致南方橘柚小樹，爲園池美觀，亦能結子。신분이 높은 집안 사람들은 남방의 작은 굴나무와 유자나무를 심어 정원 연못의 아름다운 관상용으로 삼았는데 또한 열매를 잘 맺었다.

102) 自註：花闌內，塗泥金爲缺月。안방에는 아교로 깎은 금가루를 칠해 조각달을 만들었다.

103) 自註：春夏捉金粉蝴蝶，針刺即死，曬乾，及梅發綴之花間。봄과 여름에 금분나비를 잡아 침을 찔러 죽여 햇빛에 쬐어 말려, 매

行理 <sup>104</sup> 李水部 <sup>105</sup> )	수부 이기양이 연경에서 가져온
仙葩梁玉淸 <sup>106</sup> )	수선화 꽃송이가 梁玉淸 같네
向峯餘種子	지난날 가져온 씨앗이 넉넉하여
今日遍京城	지금은 한양에 널리 피었다네
瑪盤菁華在	마노 사발처럼 정채롭고
銀臺面目生 <sup>107</sup> )	은 받침 모양이 생생한데
無由荀令席	순령이 앉았던 자리 찾을 길 없어
重見異香并	거듭 보니 독특한 향기를 겸하였네

위의 다섯 작품은 「感事三十四章」 19장, 20장, 21장, 32장, 33장이다.

### 6) 신문물과 골동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飯桌三峯設 <sup>108</sup> )	식탁을 세 끼 밥 때마다 설치하고
賓椅一帶張 <sup>109</sup> )	손님 앉는 의자를 한 줄로 늘어놓았네
何須慕眞德	어찌 그리워할 것 있으랴 진덕왕 때에
自去請皇唐 <sup>110</sup> )	직접 가서 당나라 제도 따르길 청한 것을
廣席猶花樣 <sup>111</sup> )	넓은 돛자리에는 여전히 꽃무늬 새겨 있고
圓擘讓棹光	둥근 소반에는 공연히 옷칠한 광택 빛나는데
從今束高閣	이제부터 높은 다락에 묶어두고
付與舊家常	옛날의 집안 법도로 남겨둬야겠네
器玩元多事	완호품 즐기는 것은 원래 일이 많으니
胡爲歐邏遙	어째서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나
鏡抽千里替	망원경을 뽑으니 천리 밖이 가깝게 보이고
環緹六峯標 <sup>112</sup> )	둥근 고리 매달려 여섯 때를 표시하네
巴鞞通醫訣 <sup>113</sup> )	발삼 기름은 의술의 비결과 통하고

화가 피면 꽃 사이에 묶어 놓았다.

104) 自註：理與李通. ‘理’는 ‘李’와 통한다.

105) 自註：健陵己未, 李參判基讓以賀正使, 自燕京得水仙花種以來. 정조 기미년(1799)에 참판 李基讓이 賀正使의 신분으로 연경에 가서 수선화 씨를 가지고 왔다.

106) 自註：袁石公瓶史, 水仙比之梁玉淸, 玉淸, 嫦娥侍女名. 원평도의 『瓶史』에서 수선화를 梁玉淸에 비유했는데, 玉淸은 항아의 시녀 이름이다.

107) 自註：花名金盞銀臺, 始見此花於錦帶館書案頭. 꽃이 金盞銀臺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 꽃을 이가환 어른의 책상 머리에 서 처음 보았다.

108) 自註：飯峯, 或用桌子, 不使圓盤.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탁자를 쓰고 둥근 소반을 사용하지 않는다.

109) 自註：居家, 多椅坐. 사는 집안에 의자가 많다.

110) 自註：新羅眞德王峯, 請襲唐儀制, 玄宗許之. 신라 진덕왕 때 당나라의 의식과 제도를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청하여 당 현종이 허락했다.

111) 自註：我國龍紋花紋席, 今猶貢獻中國. 우리나라의 龍紋席과 花紋席은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공물로 바친다.

112) 自註：豪富多買白銅峯標. 세력 있는 부잣집에서는 백동으로 만든 시계를 많이 산다.

恒升亦沃焦<sup>114)</sup>      恒升車는 달귀진 가마솥에 물을 분네  
想來須日用      생각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인데  
側耳正寥寥      귀 기울여도 참으로 적막하기만 하네

燈角丁諶式<sup>115)</sup>      네모진 등은 丁諶의 양식이고  
鑪銅宣德名<sup>116)</sup>      향로 중에는 宣德鑪가 유명하네  
汝窯渾闕色<sup>117)</sup>      汝窯와 哥窯는 온통 비색이니  
靑翠若天成      푸른 비취빛이 하늘이 만든 듯  
甌茗莆洱在<sup>118)</sup>      사발에는 보이차가 담겨 있고  
壺煙薇露并<sup>119)</sup>      비연호와 장미 오일 함께 놓여 있거늘  
窺鄉定少此      궁벽한 시골이라 진정 이것들 적으니  
那得免儻儻<sup>120)</sup>      어찌하면 고달픔을 면할 수 있을까

위의 세 작품은 「感事三十四章」 22장, 25장, 26장이다.

### 3. 결론 : 「感事三十四章」의 문학적 의미

※ 인간의 삶과 사물에 대한 강한 호기심, 예리한 관찰력, 예민한 감수성, 박학적인 지식, 고증적인 탐구 태도, 대상의 특징을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는 시적 표현력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작품. 이학규의 실학적인 학문 자세와 현실주의적인 시창작 정신(역사의식, 애민의식, 현실비판의식 등)이 난숙한 경지에서 결합된 작품.

#### <「感事三十四章」 중에서 34장>

天步艱方蹶<sup>121)</sup>      하늘의 운수 어려워 엎어지려 하니  
民生迄可休      백성들의 삶 이제는 끝날 듯 보이네  
庶聞齊有豸<sup>122)</sup>      “齊나라에서 화란이 그쳤다”는 말 들었고

113) 自註：巴爾撒鞞，泰西樹名。樹有果榨油，傳金瘡及瘡處殊效。 발이살마는 서양의 나무 이름이다. 나무에 열매가 있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분비되는데, 쇠붙이에 다친 상처나 상처난 곳에 바르면 특효라고 전한다.

114) 自註：泰西水法，有龍尾·玉衡·恒升等車制，爲旱暵之用。『泰西水法』에 龍尾車·玉衡車·恒升車 등의 수차 제도가 기록되어 있으니, 가뭄이 들었을 때 사용한다.

115) 自註：丁諶，漢峇巧工。‘丁諶’은 한나라 때의 솜씨 좋은 장인이다.

116) 自註：俗尙宣德鑪，或就分院瓷窯，依樣造成。 세속에서는 宣德鑪를 숭상하니 어떤이는 分院에 있는 가마에 가서 모양을 만든다.

117) 自註：汝哥二州，出闕色瓷器，最珍貴。汝와 哥 두 고을에서 비색의 자기가 생산되는데 가장 진귀하다.

118) 自註：莆洱茶餅名。‘莆洱’는 둥근달 모양 떡처럼 만든 차 이름이다.

119) 自註：或用鼻煙如華人。 어떤이는 鼻煙壺를 중국 사람들처럼 사용한다.

120) 自註：儻儻，夷語相呼聲，出唐書劉禹錫傳。 ‘儻儻’은 夷語로 서로 부르는 소리이니 당나라 유우석이 지은 傳에 나온다.

121) 自註：音劇。 음은 ‘劇’이다.

終見魯無鳩 <sup>123)</sup>	“魯나라를 안정시키지 않겠습니까?”라고 써 있었지
惻怛思黃髮	측은한 마음에 노성한 인물 생각하니
沈淹至白頭	그 병이 깊어 머리가 다 세었네
從來東郭老	예전에 동곽의 노인은
藿食最深憂	콩알을 먹으면서도 가장 깊이 근심했다오

<王世貞의 『觚不觚錄』 중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글>

공자가 말씀하시길 “觚(모난 술잔)가 모나지 않으면觚라고 할 수 있겠는가?觚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으니, 대개觚가 더이상 예전의觚가 아님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이른바 ‘모난 것을 깎아 둥글게 만든다’, ‘질박한 것을 깎아 조각한 장식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이른 것이다. 또 말씀하시길 “나는 그래도 사관들이 글을 빼놓고 기록하지 않음과 말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빌려줘 타게 함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구나!”라고 하셨다. 『춘추』를 짓고 왼쪽 驂馬를 벗겨 부의하게 하신 것은 대개 모두 은미한 뜻을 붙인 것이다.

내가 열다섯 살 때부터 사람의 일들을 조금씩 기록했는데, 약관의 나이를 지나 벼슬에 올라 몇 차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으니, 이제 예순 살이다. 높은 언덕은 골짜기로 바뀌고 강과 하천의 물은 아래로 내달리니,觚가觚가 되지 못함을 얼마나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한가히 살며 일 없는 가운데 우연히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적는다. 크게는 조정의 문물제도와 작게는 민간풍속의 그릇 한 개 물건 하나의 미미한 것에 이르기까지 개탄할 만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지금이 옳고 옛날은 잘못되어觚가 아닌 것을觚라고 하는 것은 백에 진실로 두셋도 되지 않는다. 완성하고서 이름을『觚不觚錄』이라고 한다.<sup>124)</sup>



122) 自註：豸，止也。見左傳宣公十七季，范武子語。豸는 그치다는 뜻이다. 『春秋左氏傳』宣公 17년조에 范武子の 말이 보인다.  
 123) 自註：鳩，集也。見左傳襄公十六季，范宣子語。鳩는 모인다는 뜻이다. 『春秋左氏傳』襄公 16년조에 范宣子の 말이 보인다.  
 124) 王世貞, 『觚不觚錄』, “孔子有言, ‘觚不觚, 觚哉! 觚哉!’ 蓋傷觚之不復舊觚也。所謂‘削方爲圓’, ‘斲樸爲雕’者, 茲之謂矣。又曰, ‘吾猶及史之闕文也, 有馬者借人乘之, 今亡矣夫!’ 其作春秋, 脫左驂而賻, 蓋皆寓微旨焉。余自舞象而小識人事, 逾冠登朝, 數躋數起, 以至歸田, 今垂六十矣。高岸爲谷, 江河下趨, 觚之不爲觚, 幾何可辯識? 閑居無事, 偶臆其事而書之。大而朝典, 細而鄉俗, 以至一器一物之微, 無不可慨嘆。若其今是昔非, 不觚而觚者, 百固不能二三也。既成, 而目之曰觚不觚錄。”

## 근기남인 실학과의 지식 계보와 이학규의 유서(類書) 창작

정은주(영남대)

1. 들어가며
2. 근기남인 실학과의 類書 창작 전통
3. 이학규의 두 편의 類書 창작과 그 의미
4. 맺음말

### 1. 들어가며

1930년대 조선학(朝鮮學)의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실학(實學)’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학적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때 조선학 운동의 원천으로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학문세계가 주목을 받았고, 1929년 『성호사설(星湖僿說)』을 필두로 『연암집(燕巖集)』·『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완당전집(阮堂全集)』·『담헌서(澐軒書)』 등이 출간되었다. 이때 『여유당전서』의 교열자로 참여했던 안재홍(安在鴻)은 조선의 실학파에 대해 “다산의 학은 성호 이익으로부터 나왔으며 거기서 다시 올라가면 반계 유형원에 이른다.”고 하였고, 정인보(鄭寅普)는 “반계가 일조(一祖)요, 성호가 이조(二祖)요, 다산이 삼조(三祖)”라고 말하였다.<sup>1)</sup> 이를 통해 보면 실학의 사조에 대해 유형원-이익-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계승 구도로 파악한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파를 구분할 때 경세치용학과(經世致用學派)·이용후생학과(利用厚生學派)·실사구시학과(實事求是學派)의 3가지 유파로 구별한다. 이중 경세치용학과는 중농학과(重農學派)로 불리기도 하는데, 토지개혁과 농민생활의 안정을 주장했던 유형원·이익·정약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경세치용의 학풍을 특색으로 하는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남인계 문인으로 근기남인 실학파로도 호칭된다. 이익의 학통은 근기남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문하에 많은 제자를 배출했는데, 그들은 각자의 학문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기되었다. 전통 성리학을 견지하고자 했던 안정복 계열과 양명학과 서학 등 새로운 학문 경향을

1) 임형택, 「국학의 성립과정과 실학에 대한 인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29면.

수용했던 권철신-이병휴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정복 계열의 경우 황덕길을 거쳐 허전에게 학통이 전수되었고, 권철신 계열의 경우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에게 학통이 전수되었다. 또한 이익의 학문은 가학으로도 전해졌는데 이맹휴는 예학에, 이병휴·이구환·이철환·이삼환은 경학에, 이용휴는 문학에, 이중환은 인문 지리에, 이가환은 천문학·서학에 밝았던 것으로 전한다.

근기남인 실학과의 마지막 세대로 언급되는 이학규(李學逵)는 외가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외조부인 이용휴와 외숙부인 이가환에게 학문적 가르침을 받았다. 곧 이익으로부터 전승된 가학의 학풍 속에서 형성된 이학규의 실학적 사고와 지식 체계는 다수의 실학적 저술로 체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학규는 이러한 가학적 배경으로 인해 1801년 신유사옥 때 정쟁에 휘말려 24년 간의 유배 생활을 보내야 했고, 오랜 시간 낮은 공간에서의 실체험은 현실 인식의 변모와 시문 창작의 변화로 나타났다.

본고는 근기남인 실학과 문인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유서(類書)를 창작했던 과정을 살피고, 이러한 학맥이 계승되는 구도 속에서 이학규가 저술한 두 편의 유서 창작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서는 당대 지식의 총체이며, 저자의 지식 정보가 최대한 구현된 저술 체계이다. 또한 유서에는 저자의 학문과 사상 정립에 영향을 미친 시대별·지역별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근기남인 실학과의 지식 정보가 세대별로 전승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동 학과의 개별 문인들에 내재된 지식 정보의 원천과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선후기 지성사의 지적 토대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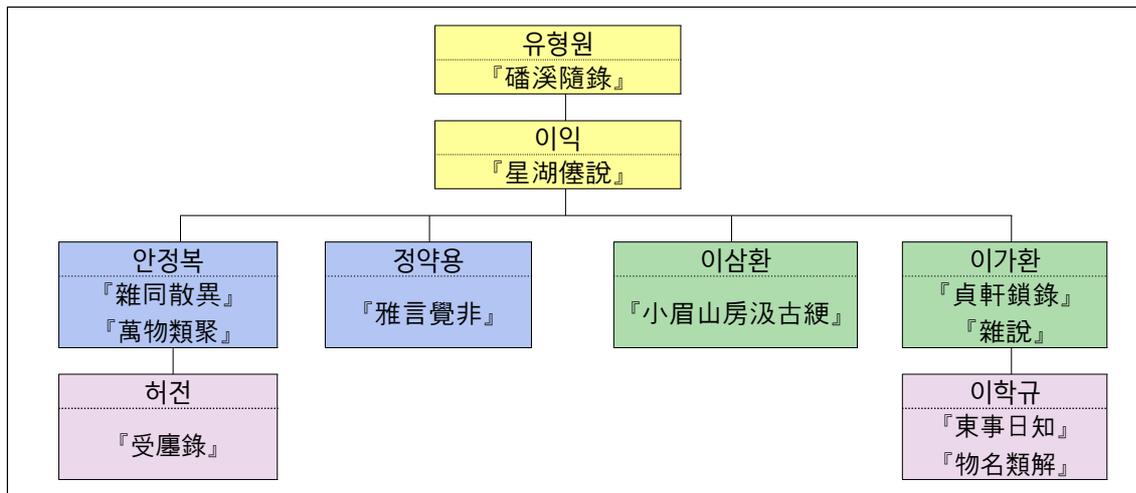
## 2. 근기남인 실학과의 類書 창작 전통

유서는 정치나 제도·경학 등을 망라하는 백과전서식 자료회집(百科全書式 資料匯集)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한 시대의 지식 형성에 기초가 되며 기타 한학 기초학의 여러 저술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조선후기에 유서가 발달하는 것과 동시에 한자분류어휘집이 발달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sup>2)</sup>

조선후기 실학을 언급할 때 성호가(星湖家)는 경세치용학과의 본산으로 일컬어진다. 이익의 학문 세계는 경학 중심의 질곡을 벗어나 일생동안 학문의 자유를 실천하고 각 방면에 걸쳐 탐구한 결과 방대한 저작을 남기게 되었다. 그는 고증학이나 서학 등 새로운 학문경향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백과전서적 박학주의는 후대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익을 비롯한 근기남인 실학파에 속하는 문인들은 자신의 평소 독서 체험과 견문을 통해 집적된 지식 정보를 일정한 체계로 분류하여 유서를 창작했다. 물론 저자의 관심 사안,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서에 수록된 내용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근기남인 실학과의 비조를 유형원으로 상정할 때, 세대별 대표적인 유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심경호 선생은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민족문화연구』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7)에서 類書를 百科全書式 資料匯集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사물의 장실과 기원을 검색하는 공구서[文獻用語辭典]만 類書로 간주하고, 한자어휘집은 類書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조선후기 근기남인 실학파의 비조로 유형원(柳馨遠)을 언급할 때, 그의 저술로 『반계수록(磻溪隨錄)』을 가장 먼저 꼽는다.<sup>3)</sup> 『반계수록』은 유형원이 부안의 우반동으로 거처를 옮긴 31세에 집필을 시작하여 49세에 완성한 저작으로, 모두 26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전제(田制)부터 교육·인재 선발·관리 임명·관직 제도·녹봉과 병역에 걸친 저자의 경제적 개혁안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전제 분야의 개혁론은 다음 세대인 이익과 정약용의 토지제도 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세에 반계 유선생(柳先生)이 지은 『수록(隨錄)』 1편은 우리나라의 시무(時務)를 아는 데에 가장 좋은 책인데, 또한 감히 당시에 쓰이지 못하고 책장 속에 사장(私藏)된 채로 있다가 뒤에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국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칭찬하지 않고, 말로는 장려하면서도 일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니, 어찌 일찍이 한 발짝이라도 실천할 수 있었겠는가. …… 아, 저 한 뭉치의 『수록』은 돌 속에 박혀 있는 옥이나 모래사장에 묻혀 있는 구슬 같은 것에 불과해서, 세상의 쓰임에 보탬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이 책이 있는 것만 알고, 다시 군현(郡縣)의 제도와 여지(輿地)의 기록에 대해 진실하게 힘써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한 그 밖에 남긴 시문으로는 『반계집(磻溪集)』 6권이 있다. 몸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다룬 내용이 자세하고 광범위하니, 요컨대 서로 우익(羽翼)이 되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sup>4)</sup>

이 글은 이익이 『반계수록』의 가치에 대해 역설한 내용이다. 이익은 「반계유선생유집서(磻溪柳先生遺集序)」에서 “근세에 반계 유선생이 지은 『수록』 한 편은 우리나라의 시무(時務)를 아는 데에 가장 좋은 책인데, 또한 감히 당시에 쓰이지 못하고 책장 속에 사장(私藏)된 채로 있다가 뒤에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국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여, 『반계수록』이 당대에 빛을 보지 못하다가 100여년이 지난 영조 대

3) 반계 유형원과 『반계수록』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4) 李漢, 『星湖先生全集』 卷之五十, 「磻溪柳先生遺集序」, “近世磻溪柳先生有隨錄一編, 爲東方識務之最, 亦不敢售于時, 私藏巾笥, 後稍稍爲人識, 至有達諸國家. 然色好而心不賞, 語獎而事不錯, 何曾一步向實踐去乎. …… 嗚呼. 彼隨錄一堆紙, 不過石中之藏玉, 沙際之懷珠, 無補於世用則均也. 人只知有此錄, 不知更有郡縣之制, 輿地之記, 種種當務. 又其外收拾咳唾之餘, 有磻溪集六卷, 自治身治家, 以至於仁民愛物, 曲折周遍, 要是相與羽翼不可闕者.”(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성호전집(星湖全集)』을 따랐음)

에 이르러 저작의 가치와 인정을 받은 저간의 사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익이 평가한 바와 같이, 『반계수록』이 후대 문인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이익의 경제서인 『곽우록(藿憂錄)』과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를 비롯한 여러 저작에서 그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안정복도 자신의 저작인 『잡동산이(雜同散異)』에 『반계수록』의 내용을 자세하게 필사하여 남기는 등 그 영향 관계를 드러냈다.

유형원 이후에 근기남인 실학과의 학맥은 이익에 의해 계승된 것으로 보여진다. 퇴계학에 학문의 연원을 두는 한편 실학적 학풍을 계승한 이익은, 그의 학문과 사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성호사설(星湖僊說)』을 저술했다. 모두 30권 30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경제·역사·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학·자연과학 등의 광범한 분야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지식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성호사설』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유서로 손꼽히는 저작으로, 후대 문인들의 학문과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말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허전의 『수전록(受廬錄)』에도 『성호사설』을 인용서목으로 표기한 내용이 상당수 확인되어, 그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 (1) 사승(師承) 계열

이익과 사승 관계의 문인들은 각자의 학문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기되었다. 이 중 안정복(安鼎福)은 새로운 학문 경향인 서학을 비판하고 전통 성리학을 주장했던 문인 계열에 속한다. 이익의 학통을 계승한 안정복은 『성호사설』을 1천 3백여 개의 항목으로 축소, 정리하여 10권의 『성호사설유선(星湖僊說類選)』을 편찬하였다. 안정복의 저술인 『잡동산이』는 모두 53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제도, 유교 경전의 자구(字句), 명가(名家)의 저술, 명물(名物)·도수(度數)·여항(閭巷)·패설(稗說) 등에 관해 수록한 유서이다. 또한 2권 1책으로 구성된 『만물류취(萬物類聚)』는 안정복이 1754년부터 1771년까지 부친상으로 인해 고향에 머무르면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던 시기에 집필한 저작이다. 이 책은 천문 분야에서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급 문헌을 활용하여 잡다한 지식을 분류하고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저자의 독서 범주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익의 학통을 계승한 실학자인 정약용은 신유사옥 때 유배된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한편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수록된 시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를 주제로 삼아 집필한 『목민심서(牧民心書)』·『경세유표(經世遺表)』·『흠흠신서(欽欽新書)』·『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등의 저작은 실로 정약용의 광범위하고 박학한 학문 세계를 방증한다. 그중 『아언각비(雅言覺非)』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던 말과 글 가운데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을 골라 문헌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 참뜻과 어원을 밝히고 용례를 들어 설명한 저작이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소인(小引)과 목차(目次), 본문(本文)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휘들을 중점 대상으로 다룬 실용적 성격의 저작이다.

근기남인 실학과에서 안정복의 학통을 이은 것으로 평가되는 허전(許傳)은 조선 말기에 근기 지역과 영남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학단을 형성했던 문인이다.<sup>5)</sup> 허전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65세 때 지은 『수전록(受廬錄)』은 모두 16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정치적 현실과 사대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

과 해박한 학식이 반영되어 있고, 저자의 사회·경제제도 개혁론과 아울러 당시 새로 유입되던 서양에 관한 정보나 신문물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살펴볼 수 있다. 허전은 조선에 유입된 다수의 한역서학서를 섭렵했으며,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서양의 종교·교육제도·풍속·과학기술 등 서양 지식을 선별적으로 수용, 재배치하여 『수전록』을 완성했다.

이익을 비롯한 이전 세대의 경우 천주교로 대변되는 서양의 종교와 과학기술이 주요 사안이었다면, 허전의 경우에는 국방 강화가 새로운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당시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침략하여 식민지 쟁탈을 겨루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수전록』을 통해 허전의 서학(西學)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 허전은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에서 서양의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서기(西器)의 수용은 긍정하는 반면, 천주교로 대변되는 서양의 종교사상인 서교(西教)에 대해서는 비판, 배척하는 부정적 태도를 지녔다. 이러한 허전의 서학 인식은 이전 세대에 이익과 안정복이 서기를 긍정하고 서교를 부정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sup>6)</sup>

## (2) 가학(家學) 계열

이삼환(李森煥)은 종조부인 이익의 문하에서 수학한 문인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부친 이병휴(李秉休)의 학문을 이어받아 실학 연구에 몰두했다. 가학을 전수 받은 이삼환의 저술인 『소미산방급고경(小眉山房汲古經)』은 학부(學部)·성정수부(誠正修部)·제치평부(齊治平部)·경부(經部)·사부(史部) 등 총 5항목에 걸쳐 저자가 독서하는 과정을 통해 체득한 학문과 수양, 정치, 경전, 역사 등의 내용을 기록한 저작이다. 이삼환은 고금의 다양한 문헌을 활용하여 사실을 고증하고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학으로 전승된 실학적 학풍을 비롯하여 저자의 학문관과 독서 범주, 관심 사안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성호학의 가학을 계승한 문인으로 부친인 이용휴(李用休)가 문학으로 명성을 떨쳤던 것에 반해, 이가환(李家煥)은 서학을 비롯한 천문학, 수학 등의 방면에서 출중한 재주를 드러냈다. 이가환의 유서로는 『정헌쇄록(貞軒鎖錄)』과 『잡설(雜說)』이 전한다. 이 두 편의 유서는 저자가 오랜 시간 관심 깊은 소재나 의심나는 사안, 때로는 일시적 궁금증에 시선을 고정하고 독서 체험·견문·직접 체험 등을 통해 기록한 잡기 형식의 저작으로, 역사·풍속·시문·서화 등 학술 문화의 다양한 방면에 걸친 저자의 해박한 식견을 엿볼 수 있다.

## 3. 이학규의 두 편의 類書 창작과 그 의미

이학규는 다재다기한 근기남인 실학과 문인 가운데 문학으로 먼저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특히 외조부인 이용휴의 문학적 재능을 계승, 발전시킨 문인으로 평가되었다.<sup>7)</sup> 실제로 이학규의 문집 속에는 이용휴의 영

5) 허전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는 정경주·김철범 지음, 『성재 허전, 조선말 근기실학의 종장』, 경인문화사, 2013 참조.

6) 정은주, 「性齋 許傳의 西學 인식-『受廬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21.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문학창작의 원천으로 진정(眞情)의 표출을 강조한 것이나, 소품문의 특징을 보이는 시문이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용휴는 소품문이 본격적으로 창작되는 18세기 초부터 후반까지의 기간을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였으며, 18세기 소품작가로서 가장 선배에 해당하는 그가 후배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당시 소품 취향의 기이한 문장을 구사하여 문명(文名)을 드날렸던 이용휴의 문학세계가 이학규에게 일정 부분 전승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학규의 문학적 재능은 일찍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정조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 청년 시절 문학으로 명성을 떨친 이학규는, 1797년 규장각에 출입하면서 정조의 명에 따라 사서(史書)를 교정하여 바치는 임무를 완수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조는 이학규의 문사와 자학의 출중한 능력에 대해 감탄을 표했는데, 이는 곧 이학규가 문학적 재능으로 정조의 인정을 받았음을 방증하는 사례이다.<sup>8)</sup>

지난번 성수(醒叟)의 시를 읽어보았다. 그가 너의 시를 논평한 것은 간절하게 잘못을 지적한 것이니 너는 응당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가 지은 시는 아름답기는 하나 내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다.<sup>9)</sup>

이학규의 문학에 대해서는 정약용도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은 1808년 정약용이 그의 아들인 정학연(丁學淵)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정학연은 유배지에 있는 정약용과 이학규가 편지와 저술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약용은 이학규의 시 논평이 합당함을 말하면서 아울러 그의 시 경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약용은 편지의 뒷부분에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시가 아니라고 하여,<sup>10)</sup>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약용의 발언은 곧 이학규의 서정적이고 유미적인 시적 성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 정조는 물론 정약용에게까지 인정받았던 이학규의 비범한 문학성은, 유배 이후 현실주의적 성취까지 더해져 한층 발전된 경지로 나아갔다.

이학규는 먼저 『영남악부(嶺南樂府)』 등의 현실주의 한시를 창작한 문인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실학적 사고에 기반한 저술을 통해 근기남인 실학과 문인로서의 면모가 입증되었다. 주지하듯이 이학규는 외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수학했던 바, 그가 일생동안 문예적인 문장을 추구했던 것은 외조부인 이용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실학적 학풍을 보여주는 다수의 저술에 담긴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관심과 박학한 식견은 외숙인 이가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이학규의 실학적 면모는

7) 일찍이 이가원(李家源) 선생은 이학규를 언급하면서 성호학파에서 이용휴를 이어 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성호(星湖)의 모든 자질(子姪) 중에서 문학으로서는 혜환(惠寬) 이용휴(李用休)가 으뜸이었으니, …… 그러나 그의 문학적 전통은 낙하(洛下) 이학규(李學逵)에 이르러서 더욱 빛났으니, 낙하는 곧 혜환의 외손(外孫)으로서 재명(才名)이 일세를 경동시키던 수재(秀才)이다. …… 혜환의 재맥(才脈)은 아들 금대(錦帶)를 제외하고는 곧 외손인 낙하에게로 흘러내렸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李家源全集』 第9卷 韓國名人小傳, 정음사, 1986)

8) 「感舊紀恩 三首·並序」, 『洛下生集』 冊11 菜花居集, “予謬以文學, 受知正廟, 數被引見, 玉音諄復, 動移晷刻, 邇班爲之注目. …… 丁巳夏, 上手選三禮·馬史·漢書·朱書各若干篇, 彙爲一卷, 俾授元子宮, 亟命校讎以進, 諭以此士子, 不惟文詞優好, 其於字學, 必不生疎也.”

9) 「寄淵兒」,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 第二十一卷○文集 書, “向來醒叟之詩見之矣. 其論汝詩, 切切中病, 汝當服膺. 其所自作者雖佳, 亦非吾所好也.”

10) 「寄淵兒」,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 第二十一卷○文集 書, “不愛君憂國非詩也, 不傷時憤俗非詩也.”

11)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연구』, 보고서, 2005, 80면 참조.

유배 이전에는 인삼 재배서인 「삼서(蔘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실학적 기질이 본격적으로 발휘 되면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넘나들면서 해박한 식견을 드러낸 저술을 남겼다.

공은 박학다식하여 산천·도리·풍토·지리·천문·음률·산수·의약·초목·금수 등의 명물도수를 널리 궁구하고 환하게 깨달아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시사와 문장이 더욱 정묘하고 간결하였다. …… 저서에는 『명물고(名物考)』, 『광시칙(廣詩則)』, 『영남악부(嶺南樂府)』, 『인수만필(因樹漫筆)』, 『문의당고(文漪堂稿)』, 『낙하집(洛下集)』 등이 있다.<sup>12)</sup>

이 글은 『일사유사(逸士遺事)』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 글에서 보여지듯 장지연(張志淵)은 이학규에 대해 산천과 도리·풍토와 지리에서부터 초목과 금수에 이르기까지 명물도수에 박학다식했던 인물로 평가했다. 이학규가 지닌 실학적 성향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한 평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학규의 문집을 살펴보면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저술이 확인된다. 비록 거질(巨帙)의 저술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을 제시한 글, 자연과학인 천문과 수학에 대한 식견을 드러낸 글, 의학적 관심과 병장(兵仗)에 대한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식 체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실학적 내용의 글들은 대체로 1812년~182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는데, 유배 초기에 볼 수 없던 저술이 중반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자의 인식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곧 유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던 시기에서 점차 현실에 적응하게 되면서, 실학과 문인으로서의 기량을 발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학규의 실학적 사고는 유배지인 김해지역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실생활과 밀착된 지점에서 비롯되었다. 전황(錢荒)의 원인을 당시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에서 찾고<sup>13)</sup> 장량제법(丈量諸法)을 저술하고자 한 점이나, 반드시 꺼려야 하는 음식에 대해 저술을 남긴 점에서 볼 때, 학문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학규의 실학적 지성이 집약된 저술로, 『동사일지(東事日知)』와 『물명류해(物名類解)』를 꼽을 수 있다.<sup>14)</sup> 이 두 편의 유서는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저자의 박학한 지식과 현실에서의 실체험이 더해져 산출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학규의 유배 만년기에 지어진 『동사일지』와 『물명류해』는 근기남인 실학파의 유서 창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유배지에서의 현실 체험에 기반한 지식 정보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동사일지』는 모두 123조목에 걸쳐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문물·제도·풍속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국내외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고증하고 기록한 저작이다. 『동사일지』의 저술 방식은 각 조목마다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기술한 뒤, 작자의 비평적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

12) 張志淵, 『逸士遺事』, 「李學達」, 321~322면, “公이 博學多識호야 凡山川·道里·風土·地理·天文·星曆·律呂·筭數·醫藥·草木·禽獸等 名物度數를 無不博究通曉호고 詩詞文章이 尤精邃簡潔호야 …… 所著有 名物考·廣詩則·嶺南樂府·因樹漫筆·文漪堂稿·洛下集等書호 나라.”

13) 「錢論」, 『洛下生集』冊14 文漪堂集.

14) 『동사일지』와 『물명류해』에 대해서는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심층 연구』, 학자원, 2020 참조.

『동사일지』에는 <삼한강역(三韓疆域)>에서 <격전희(擊錢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동사일지』는 평소 저자의 관심 범위에 속하는 학문 분야와 학문 태도와 함께 실학적 사고를 살펴볼 수 있는 저작으로, 이학규의 방대한 지적 세계와 독서 체험이 투영되어 있다.

이학규는 유배 생활의 체험과 유배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동사일지』의 소재로 활용했다. 「소주(燒酒)」는 유배지와 관련된 소주도의 일화를 차용해서 소주에 대한 유래를 고증하고, 당대 사회적 문제와 연관하여 저자의 비판적 견해를 담아낸 조목이다. 소주도로 불렸던 김진(金鎭)에 관한 일화는 『고려사(高麗史)』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영남악부』의 창작 동기가 된 고사이기도 하다.<sup>15)</sup> 이와 같이 『동사일지』에는 김해와 관련된 사적과 문물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가락국의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주름 잡힌 치마웃을 지금의 철릭[天翼]과 비교하여 제도의 기원을 고증한 「철릭[天翼]」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sup>16)</sup>

마을에서 입춘일에 춘경제를 지내는데, 그 법은 본래 『예기』, 「월령」의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찍이 영남지방 김해부의 입춘일을 보니, 고을 관아에 나무로 소를 만들고 호장은 공복을 갖추어 입고 징을 울리며 앞에서 인도하여 동성문 밖으로 나아간다. 영춘장 내에서 선농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끝낸 후, 소를 밀면서 땅을 경작하는 형상을 하는 것이다. 『몽화록』을 살펴보면, “입춘 이전 5일에 함께 토우를 만들고 농부의 쟁기를 대문 밖에 갖추어 놓는다. 이날 새벽에 관원이 단을 만들어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고, 관리들이 각자 비단으로 장식한 고리를 갖춘다. 소 잡는 것을 세 번 하는데 농사를 권면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춘경의 법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sup>17)</sup>

위에 인용한 조목은 「춘경제春耕祭」이다. 춘경제는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으로 입춘일에 지낸다. 입춘은 24절기의 하나로 양력으로는 2월 4일경이고 음력으로는 정월 명절 무렵이다. 이때부터 햇빛이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이날에 농사를 권장하고 풍년을 축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이다. 춘경제는 지역에 따라 정월 대보름에 하는 곳도 있고 입춘일에 하는 곳도 있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학규는 김해에 있을 때 직접 견문했던 춘경제의 행사에 대해 기록했다. 이날에는 먼저 나무로 소의 형상을 만들고 공복을 갖추어 입은 부의 호장이 징을 울리면서 앞에서 인도하여 동성문 밖으로 나아간다. 이후 영춘장(迎春場)에서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소를 밀면서 땅을 경작하는 형상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목도했던 사실에 더하여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을 참고하여 춘경제에 하는 행사의 내용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저자가 유배지에서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던 사실이 『동사일지』의 주요한 창작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해에서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곳 민중의

15) 李學達, 『洛下生集』 冊6, 「嶺南樂府序」, “當戊辰仲夏, 余有河魚之疾, 日寢臥于因樹屋之西軒, 人有示余鄭麟趾高麗史數篇, 紙墨剝缺, 不堪便讀. 輒沿洄揣摩, 僅解辛禱二年, 合浦軍謂金鎭爲燒酒徒一段意. 犁然大樂曰, 是可以作樂府矣.”

16) 李學達,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天翼」.

17) 李學達,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春耕祭」, “州府, 立春日, 爲春耕祭, 其法本出月令迎春東郊之意. 嘗見嶺外金海府立春日, 府司造木牛, 府戶長具公服, 鑊吹前導, 出東城門外迎春場內祭先農訖, 推牛作耕地狀. 按夢華錄, 立春前五日, 並造土牛耕夫犁具於大門之外, 是日黎明, 有司爲壇以祭先農, 官吏各具綵仗環. 擊牛者三, 所以示勸耕之意. …… 春耕之法, 實昉于此.”

삶과 풍속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경험했던 실체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사일지』에는 여러 문물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영남지방에서 부르는 명칭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해놓았다. 예를 들면 공기놀이를 서울에서는 ‘공기(控棊)’라 부르고, 영남에서는 ‘자새(子簍)’라고 부른다고 하였다.<sup>18)</sup> 또한 영남지방에서는 ‘풍헌(風憲)’을 ‘집강(執綱)’으로 부른다고 하였고<sup>19)</sup>, ‘태자신(臺子神)’을 ‘공중(空中)’으로 부른다고 기록하였다.<sup>20)</sup> 유배지에서 2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초기에는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던 유배지의 문물과 풍속에 대해 깊은 조예가 생기게 되었다. 곧 이학규의 유배체험은 『동사일지』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여타의 유서와는 변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임금의 수레 앞뒤에서 복치고 피리 부는 사람을 조라치[照羅赤]라 하는데, 선전관청의 하인이다. 『고려사』 신우전에 “우리 태조가 말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니, 도성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우가 영비 및 최영과 함께 팔각전에 있었는데, 최영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취라치[吹螺赤]인 송안이 담에 올라 나팔을 불자, 군사들이 일시에 담을 무너뜨리고 뜰로 모여들었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조라(照羅)’와 ‘취라(吹螺)’의 소리가 서로 비슷하여 지금 이름이 된 것이다.<sup>21)</sup>

이 글은 <조라치(照羅赤)>이다. 조라치[照羅赤]는 선전관의 하인으로 취라(吹螺)와 군악을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저자는 조라치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 고증하면서, 『고려사』 신우전(幸禍傳)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이해를 도왔다. 저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취라치[吹螺赤]인 송안이 나팔을 불었다는 대목에 주목하여, ‘조라(照羅)’와 ‘취라(吹螺)’의 소리가 서로 비슷하여 지금 이름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조라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삼청(三廳)의 하인을 조라치[照羅赤]라 하니, 아마 고려 때의 옛 말인 듯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때는 외울(畏兀)의 말을 많이 배웠으니 조라치도 역시 몽고말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22)</sup>

그런데 조라치에 관한 내용은 이가환의 저술인 『정헌쇄록』에도 수록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오늘날 선전관청에 조라치[燭刺赤]라는 직제가 있는데, 이 또한 원나라 때의 제도이다. 『원사』 「백관지」에 “의란국의 액정이 조라치를 거느린다.”고 나와 있는데, “촉(燭)”은 곧 “조(照)”이다. 지금 우리 풍속에서 혼례에 쓰이는 ‘나촉(刺燭)’을 ‘나조(刺照)’라 하니,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다.<sup>23)</sup>

18) 李學達,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瓜子兒」, “瓜子兒, 我國京城謂之控棊, 嶺南謂之子簍. 劉侗帝京景物略, 正月, 女婦閑, 手五丸, 且擲且捨, 且承, 曰瓜子兒. 丸用象木銀礫爲之, 競以輕捷. 宛然今之控棊也.”

19) 李學達,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風憲」, “我國郡縣風憲之任, 不見如中國之社長, 皆凡民之稍知事理者爲之. …… 今嶺南諸郡縣, 謂風憲爲執綱, 以此也.”

20) 李學達,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台子神」, “台子神, 中國謂之乩仙, 亦曰箕僊, 或曰紫姑神. …… 今之台子亦於空中作人語聲, 嶺南謂之空中.”

21) <照羅赤>, 『東事日知』, 『洛下生集』 冊20, “大駕前後鼓吹手曰照羅赤, 隸宣傳官廳. 高麗史辛禍傳, 我太祖於馬前吹螺, 都人間螺聲皆喜. 禍與寧妃及崔瑩在八角殿, 瑩不肯出. 吹螺赤宋安登牆吹螺, 諸軍毀垣闖入于庭. 意者, 照羅與吹螺聲相近, 仍爲今名耳.”

2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〇別集 『熱河日記』, 「口外異聞」 <照羅赤>, “蒙古譯言必關赤者, 書生也, 八合識者, 師傅也. 我國內三廳下隸, 號照羅赤, 此當因襲高麗之舊. 麗世多習畏兀語, 照羅赤者, 必蒙語也.”

23) 李家煥, 『貞軒瑣錄』, “今宣傳官廳, 有燭刺赤, 此亦元制也. 元史百官志儀鸞局掖庭領燭刺赤, 燭即照也. 今俗呼婚禮所用刺燭, 爲刺照, 可驗.” (번역은 『민족문화사연구』 제30호(404~405면, 2006)에 실린 것을 따랐다.)

『동사일지』에서는 조라치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고증한 반면, 『정헌쇄록』에는 조라치의 제도적 측면에 대해 기록된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정헌쇄록』은 이가환의 해박한 지식과 정밀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잘 드러나는 저작으로, 역사·풍속·시문·서화 등 학술 문화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 저자의 견해를 잡기(雜記)한 형태로 써 놓은 것이다.<sup>24)</sup> 곧 저자가 오랜 기간 관심 깊은 소재나 의심나는 사안, 때로는 일시적 궁금증에 늘 시선을 고정하고, 독서체험·견문·직접체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한 후 자유롭게 기록한 저작이다.<sup>25)</sup>

『동사일지』는 『정헌쇄록』과 비교하여 그 체제와 내용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sup>26)</sup> 실제로 두 저작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명칭의 조목은 물론 유사한 내용이 수록된 조목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동사일지』에 수록된 「조라치[照羅赤]」는 『정헌쇄록』에 수록된 「조라치[燭刺赤]」와 비교할 때 명칭의 표기법은 상이하나 동일한 소재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동사일지』의 「상원답교(上元踏橋)」와 『정헌쇄록』의 「답교(踏橋)」, 「공형(公兄)」과 「삼공형(三公兄)」, 「승보시(陞補試)」와 「승보시(陞補試)」, 「가삼(家蔘)」과 「인삼(人蔘)」<sup>27)</sup> 등의 조목은 그 명칭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학규가 외숙인 이가환과 직접적인 사숙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사일지』와 『정헌쇄록』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밀접한 관계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명류해』는 사물의 이름과 성질을 나타내는 한자 어휘들을 의미상의 상관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간략한 풀이를 붙인 저작으로, 물명에 대한 한자 어휘 분류사전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물명류해』는 다른 물명서가 취하고 있는 ‘피정의항-정의항’의 기술방식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물명에 대해 역대 문헌을 활용하고 고증했다는 점에서 물명어휘집보다는 유서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천지만물에 관련된 물명을 11개의 부류(部類)로 나눈 다음 각각의 부류 아래에 해당되는 물명을 표기하고 설명을 기술한 형태로 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창출된 다수의 물명류 저작과 이학규가 편찬한 『물명류해』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점을 보인다. 예를 들면, 정약용의 『청관물명고』나 이철환의 『물보』 등은 한자 어휘 사전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청관물명고』와 『물보』가 물명 어휘를 의미별 상관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나열한 반면, 『물명류해』는 물명에 관한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고 해당 어휘에 대한 출전과 용례까지 상세하게 고증한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학규는 유배지인 김해에서 24년간 지내면서 다수의 현실주의적 한시와 실학적 성격의 글들을 저술하였

24) 정우봉, 「해제」,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25) 정은진, 「이가환의 『정헌쇄록』해제」, 『민족문화사연구』 제31호, 민족문화사학회, 2006, 463면.

26) 『정헌쇄록(貞軒瑣錄)』에 대해서는 정은진, 「근대적 일상의 탐구와 기록정신-이가환의 『정헌쇄록』해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참조.

27) 『동사일지』 「家蔘」과 『정헌쇄록』 「人蔘」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정은주, 「조선 후기 家蔘 재배와 『蔘書』」, 『한국실학연구』 24, 한국실학학회, 2012 참조.

28) 김동준 선생은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학회, 2007)에서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언어·문자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계파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소론계의 국어담론은 음운학과 문자학 분야에 집중되었고, 남인계는 언어자료 정리분야인 어휘 사용문제에 집중하였으며, 노론계는 사물의 인식방법과 관련한 언어관에 집중하여 저술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학규와 이철환, 정약용은 모두 남인계에 속하는 문인이며, 이들이 물명어휘집을 저술한 것 또한 이러한 계파별 분류에 따른 지적 바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의 저작이 창출되는 데에는 작가의 지적 역량과 더불어 현실 주변의 외적 환경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학규는 김해지역에서 서민들의 삶과 현실을 직접 목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체임에서 비롯된 감흥을 토대로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물명류해』에도 일정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명 어휘를 풀이하면서 당시 세속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고금의 문헌 자료와 아울러 세속의 풍습을 자료적 가치로 인정하고 담아낸 결과로 볼 수 있다.

#### 4. 맺음말

## 이학규의 <동사일지(東事日知)>와 유배지의 공부

김하라(연세대)

1. 서론
2. 문인(文人) 이학규(李學逵)의 정체성과 그의 가계-김해(金海) 이전을 중심으로
3. 유배지의 책 읽기와 책 쓰기
4. 『동사일지(東事日知)』가 저술되기까지

### 1. 서론

신유년(1801) 2월 15일, ‘사학(邪學) 죄인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의 생질(甥姪)로서 그와 결탁하여 호응했다’는 혐의로 의금부에 체포되어 왔을 때 이학규(李學逵, 1770~1835)는 32세였다.<sup>1)</sup> 그해 겨울, 전라도 능주(綾州: 화순)를 경유해 경상도 김해(金海)의 유배지에 도착한 이 서울 토박이 청년은 꼬박 24년을 그곳에서 보낸 후 55세의 중늙은이가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동사일지』(東事日知)는 이학규가 김해에 머문 지 19년째 되던 1819년에 저술된 일종의 학술서로, 자국의 영토, 제반 국가 제도의 유래와 연혁, 사회경제사, 민풍요속(民風謠俗) 등에 걸친 지식을 123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저마다 표제를 달아 엮은 책이다.<sup>2)</sup> 이학규는 유배객의 불우한 처지에 촉발되어 현실의식과 내면적 정서를 토로한 시인으로 조명된 바가 적지 않다.<sup>3)</sup> 그에 비해 성호(星湖) 이익(李瀾)을 계승하는 학자로서의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듯한데, 이학규의 이와 같은 학술서는 지식인으로서 그의 구체적 면모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1) “同日假都事金應瑞, 罪人李學奎拿來囚.” 『추안급국안』 1801년 2월 15일자. 원문의 ‘李學奎’는 ‘李學逵’의 잘못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원문 이미지 파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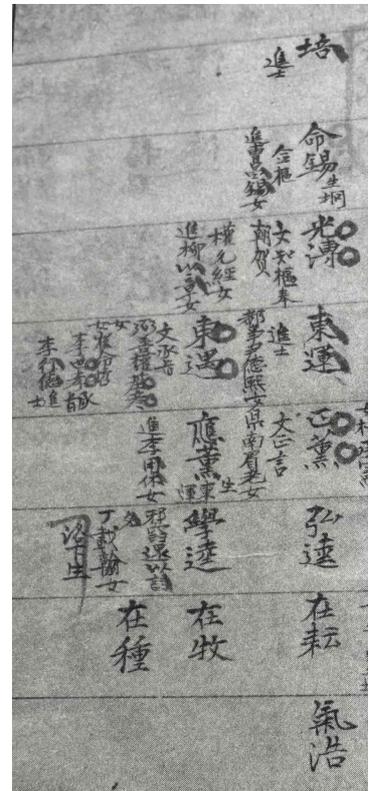
2) 『동사일지』에 대해서는 다음 선행연구가 참조된다: 정은주, 「19세기 星湖學派 문인의 문물 고증과 기록, 『東事日知』, 『한문고전연구』 31권 1호, 2015; 이학규 저, 박정희 역, 『동사일지』, 한국국학진흥원, 2016.

3) 박혜숙, 「이학규의 악부시와 김해」(『한국시가연구』 6집, 2000); 이강옥, 「김해 여성과 이학규의 시 세계」(『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2006); 정은주, 「洛下生 李學逵 文學의 變貌 樣相 研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이국진, 「李學逵 漢詩의 표현기법과 미적 특질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등 다수의 선행연구가 참조된다.

본고에서는 서울 토박이 지식인으로 30년을 살다 자기 뜻과 상관없이 김해로 내려가 20년 가까이 거주하게 된 50세의 이 기호남인(畿湖南人) 학자의 정체성이 『동사일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이 저술에 집적된 지식의 지향을 파악하고, 이 저술을 집필한 학자이자 문인인 이학규의 존재여건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이학규가 왜, 어떤 경로로 『동사일지』를 저술하였는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동사일지』를 쓰기까지, 이학규의 외적 환경과 내적 서사를 좇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2. 문인(文人) 이학규(李學逵)의 정체성과 그의 가계-김해(金海) 이전을 중심으로

이학규는 평창이씨(平昌李氏) 익평공파(翼平公派)의 구성원으로, 조선전기 호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한 문신 이계남(李季男, 1448~1512)의 11세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창이씨의 가계 내에서 이학규는 지위진 존재에 가깝다. 현재 통용되는 『평창이씨세보』에는 승지를 역임하고 승록대부지중추부사의 지위에 오른 이광보(李光溥, 1694~1773)나 승지와 예문관감열, 삼척부사를 지낸 이동우(李東遇, 1730~1789)와 같은 유력한 관료문인의 직계 자손에 해당되는 이학규가 제대로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sup>4)</sup> 이에 여타 주변자료를 검토하여 그의 가계와 생애를 재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김해 이전에 해당하는 이학규의 생애 전반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후 삶과의 연속성을 찾고 『동사일기』와 같은 저술이 이루어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다행히도 『남보』(南譜)에 이학규의 가계가 비교적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학규의 외조부인 이용휴(李用休, 1708~1782)를 비롯한 당대의 저명한 문인들이 그의 가계 구성원에 대해 소상히 증언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 1) 증조부 이광보, 조부 이동운, 숙조부 이동우

이학규의 증조부인 이광보는 권윤경(權允經)의 딸 안동권씨(安東權氏)와 혼인하여 장남 이동운(李東運, 1719~1752) 및 최명철(崔命哲, 1718~1742), 이세효(李世孝)에게 시집간 두 딸 등 1남 2녀를 두었다. 만사위 최명철은 본관이 전주(全州)로서, 뛰어난 시인 최성대(崔成大, 1691~1762)의 장남이다.<sup>5)</sup>

<도판1> 존경각 소장 『남보』에 수록된 이학규의 가계. 다만 연보 등에는 이학규의 장남이 '在種'이고 차남이 '在牧'으로 되어 있고, 장인이 '丁載萬'으로 되어 있다.

4) 平昌李氏大同譜 編纂委員會 編, 『平昌李氏大同譜』(平昌李氏大宗中, 1978) 상권 678면에는 이학규의 증조부인 이광보로부터 종형제인李明逵에 이르기까지 그가 속한 계보의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정작 이학규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학규의 부친 이용훈이나 이용훈의 양부 이동우, 종형제 이명규 등 이학규와 관련된 어떤 인물들은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동우의 어머니인 안동권씨가 사망한 후, 이광보는 유이장(柳以章, 1666~?)의 딸 진주유씨(晉州柳氏, 1703~1780)를 후처로 맞았으며 그와의 사이에 차남 이동우(李東遇, 1730~1789) 및 심경석(沈景錫, 1732~1780), 이행덕(李行德, 1741~?)에게 시집간 두 딸 등 또한 1남 2녀를 두었다.<sup>6)</sup>

이광보의 장남 이동운은 전처 안동권씨 소생으로, 자가 성회(聖會)이다. 1744년, 26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그는 그는 신광수(申光洙, 1712~1775)<sup>7)</sup>와 친밀히 교류하며 시인으로서 명성을 누렸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향년 34세로 사망했다.<sup>8)</sup> 신광수는 이동운의 시집 말미에 “한식이라 도성 서쪽 벼들가지 한 들거리는데 (...) 지난해 그대가 쓴 변새시(邊塞詩) 읽네”라는 시를 쓰기도 했고,<sup>9)</sup> 이동운이 사망한 이듬해에는 “십년 전 향교(香橋)에서 등불 켜고서 / 시 지으며 함께 노닐 땐 적선(謫仙)이었네 / 오늘은 가련히도 그대 제사 지내니 / 푸른 회화나무만 밝은 달에 의구하여라”라고 그를 회억했다.<sup>10)</sup> 첨언하자면 당시 남인 지식인 사이에서는 시문(詩文)에 능했던 이동운을 신사권(申史權, 1718~1754) 및 황명곤(黃命坤, 1710~1747)과 더불어 3걸(三傑)로 병칭한바<sup>11)</sup> 그들의 요절을 애석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듯하다.

이동운은 윤덕희(尹德熙, 1685~1776)의 딸 해남윤씨(海南尹氏, 1716~1791)와 혼인하여 이정훈(李正薰, 1740~1784)과 이응훈(李應薰, 1749~1770), 그리고 정후조(鄭厚祚, 1738~?)와 황석범(黃錫範, 1747~1775)에게 시집간 두 딸 등 2남 2녀를 두었다. 이 중 차남인 이응훈이 바로 이학규의 부친이다.

한편 이광보의 차남으로 진주유씨 소생인 이동우는 자가 천여(天與)로서, 34세 되던 계미년(1763)에 문과에 급제하고 정언과 지평, 삼척 부사 등을 지냈다.<sup>12)</sup> 1772년 연말 ‘임금이 승정전 동월대에 나아가 봉



<도판2> 윤덕희, <책 읽는 여인>, 비단에 수묵담채, 20×14.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5) 18세기 전기의 대표적인 시인 최성대에 대해서는, 황수연, 「杜機 崔成대의 民謠風 漢詩 研究」(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참조. 최성대는 소북 계열에 속하는 문인이다. 한편 이학규는 최명철의 아들이자 최성대의 손자인 崔重純(1741~1801)과 교류를 이어갔다. 최중순의 호가 ‘土木窩’인바, 이학규는 그를 ‘木翁’이라 불렀다.

6) 丁範祖, 「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李公墓誌銘」(『海左集』卷30). 이 글은 정범조가 이광보를 위해 쓴 묘지명이다.

7) 시인 신광수에 대해서는 이은주, 「申光洙 『關西樂府』의 大衆性과 繼承樣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등 참조. 「관서악부」는 어떤 지역에 대한 ‘시로 쓴 지방지’라는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후대의 작가에게 영향을 남겼다.

8) 『평창이씨대동보』에는 이동운의 자가 성회이고 호가 ‘淸漢’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숙종 ‘계해년’에 태어나 임신년 11월 13일에 사망했으며 묘가 인천 소래산 동쪽 대야동에 있다고 했는데, 생년인 ‘계해년’은 ‘기해년’의 오키이다.

9) “城西寒食柳垂垂, (...) 讀君關塞去年詩”(신광수, 「寒食日, 題李聖會詩集末」, 『석복집』 권1)

10) 香橋燈火十年前, 詞賦同遊是謫仙. 今日可憐君祭過, 綠槐明月更依然.(신광수, 「李聖會小祥夜, 步月香橋, 有感一絕」 『석복집』 권1) 1) ‘香橋’는 성균관의 정문 역할을 하는 다리로서, 제사 때 향(香)을 들여오는 통로였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綠槐’는 성균관 명륜당 앞에 있는 오래된 회화나무를 가리킨다. 1753년에 쓴 이 시에서 신광수는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시를 쓰던 벗의 1주기를 추모했다.

11) 是時李公東運以詞賦名, 申公史權以詩篇鳴, 公儀侶聞加以博識, 世稱三傑而推重於公云.(黃德吉, 「再從叔上舍公墓誌」, 『하러집』 권15) 이 글은 황덕길(1750~1827)이 황명곤을 위해 쓴 묘지명이다.

12) 이동우의 생몰년은 조남권, 이동욱 역, 『혜환 이용후 산문선집』(소명출판, 2007)을 참조했다. 『승정원일기』 정조 12년(1788) 12월 16일조의 ‘曹司五衛將 李東遇가 평소 앓고 있던 關隔症이 추운 날씨에 더욱 심해져 위독하니 우선 개차하기를 아뢰는 데 대해 윤허한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동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바, 그는 지병인 관격증이 악화되어 1789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평창이씨대동보』에는 이동우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와 관련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조하 이광보에게 선마(宣麻)하고 친히 한 구의 시(詩)를 써서 이광보의 아들 이동우에게 주었다<sup>13)</sup>는 실록의 기록을 보건대 이동우는 요절한 이동운을 대신해 가문의 영광을 계승하고 있었던 듯하다. 다만 권기연(權基彦)의 딸 안동권씨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한 그는 형의 차남 이응훈을 양자로 입적했다. 이동우가 사망한 해가 1789년이므로, 그는 이응훈의 유복자로 태어난 이학규가 20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로서 울타리가 되어 주었을 터이다.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의 면면을 보건대, 이학규의 조부인 이동운의 집안은 당시 남인 지식인의 관계망에서 중심이 되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동운의 장인 윤덕희는 윤두서(尹斗緒)의 장남이자 부친을 계승한 문인화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sup>14)</sup> 이응훈의 생모이자 이학규의 친할머니인 여성이 바로 <책 읽는 여인>의 문인화가 윤덕희의 딸이라는 점은 이들 부자를 둘러싼 문화적, 예술적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다음으로 이동운의 큰사위 정후조는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을 지은 정운경(鄭運經, 1699~1753)<sup>15)</sup>의 양자이다. 그 생부가 공조판서를 지낸 정운유(鄭運維, 1704~1772)인 정후조는 팔방미인 실학자로 유명한 정철조(鄭喆祚, 1730~1781)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정후조 자신이 역사지리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인물이거니와,<sup>16)</sup> 그는 서양의 수리과학과 천문학 수용에 특장을 보인 정철조의 학문적 지향을 이동운가의 학풍과 연관 짓는 인맥을 이룬다.<sup>17)</sup> 정후조의 존재는 이응훈의 장인인 이용휴 집안과 이동운 집안 사이를 이어 주기도 한다. 정후조의 친누이이기도 한 정운유의 차녀가 이용휴의 외아들 이가환(李家煥)과 혼인하며 이동운과 이용휴의 집안이 이중으로 결속되게 되는 것이다.<sup>18)</sup> 이에, 이동운에서 이학규로 이어지는 계보를 조명하기 위해 이용휴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sup>19)</sup>

한편 이동운의 작은사위 황석범은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의 아버지이다. 이동운의 차녀로서 황석범과 혼인해 유복자 황사영의 어머니가 된 이윤혜(李允惠)는 아들이 죽은 후 노비가 되어 거제도도로 보내졌다.<sup>20)</sup> 이응훈의 누이인 이 여성은 이학규의 친고모다. 황사영이 정약용의 큰형인 정약현의 딸(정명련)과

13) ○上御崇政殿 東月臺, 命奉朝賀李光溥宣麻, 親書一句詩, 以授光溥之子東遇.(『조선왕조실록』 영조 48년 12월 25일 조)

14) 고연희, 「尹德熙의 <책 읽는 여인>에 나타나는 젠더의 특성」, 『대동문화연구』 118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22. 73~101면.

15) 강문중, 「『耽羅聞見錄』을 통해 본 18세기 제주인들의 생활상」, 『제주도연구』 57권 1호, 제주학회, 2022. 1~17면.

16) 黃胤錫은 '요사이 서울에 西學을 주로 연구하는 이로 서명응과 그 아들 서호수, 李槩, 정후조가 있으며 각각 전문 분야가 있다'는 李德懋의 전언을 기록했다. 그에 따르면 정후조는 天下輿圖의 학문을 몰두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대청일통지』에 실린 여도가 정밀하긴 하나 『대청회전』에 실린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표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二十六日壬子(…) 李德懋言, 近日京中, 以西學數理專門者, 徐命膺及子浩修, 而又有李槩, 卽武人格之弟也, 廢舉不出, 爲人高潔, 方居紆洞, 又有鄭厚祚, 卽文官喆祚之弟也, 專意於天下輿圖之學, 嘗言: ‘大清一統志, 輿圖固精, 而猶不如大清會典』所載者.’云”(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11월 26일 조)

17) 정철조의 학적 지향에 대해서는 이기봉,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008; 구만옥, 「동아시아 지식세계와 마테오리치; 마테오 리치(利瑪竇) 이후 서양 수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10 등 참조.

18) 게다가 이동운의 어머니 진주유씨(유이장의 딸)는 이용휴의 아내 진주유씨(柳憲章의 딸)와 사촌자매간이다. 1658년생 유헌장은 1666년생 유이장의 친형이다.

19) 이용휴는 이동운과 정철조, 정후조, 이응훈과 관련된 글을 다수 남겼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20) 『왕원황씨족보』 장무공파보에는 황석범이 영조 정묘년(1747)에 태어나 신묘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을 역임했으며 을미년(1775) 3월 18일에 사망했다고 적혀 있다. 황석범의 아내 평창이씨에 대해서는 이동운의 딸이자 이광보의 손녀, 윤덕희의 외손녀라고 적었으며, 생몰년은 밝히지 않았지만 기일이 2월 5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족보의 이 기록은 『邪學懲義』의 것과는 약간 차

혼인했으므로, 이윤혜는 정약용과 이학규, 그리고 황사영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게다가 황석범은 이동운 집안과 이용휴 집안을 둘러싼 남인 문인 집단의 관계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는 인물이다. 황석범의 조부인 황준(黃峻, 1648~1722)과 세교가 있던 이용휴는 그의 아들 황재정(黃在正, 1717~1740)의 요절을 애도하며 「황대수 소전」(黃大叟小傳)을 썼다. 이후 중형제 황재중(黃在中)의 장남 황석범이 대수(大叟) 황재정의 양자로 입적되어 이동운의 차녀 이윤혜와 혼인한바, 이와 같은 일련의 인맥과 혼맥은 남인 가문 공동체의 결속 양상을 여주이씨가와 평창이씨가를 중심으로 하여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2) 백부 이정훈과 부친 이용훈

이제 이동운과 해남윤씨 부부의 두 아들인 이정훈과 이용훈의 상황을 살펴볼 차례다. 장남 이정훈(1740~1784)은 자가 원직(元直)인데, 32세 되던 신묘년(1771) 문과에 급제하고 정언(正言)과 지평(持平)을 지냈다. 1784년 윤3월 5일에 이정훈을 정언으로 삼았다고 한 것이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sup>21)</sup>

『평창이씨대동보』에서는 이정훈에 대해 “숙종 경신년(1740)에 태어나 계미년(1763)에 진사를 했고 무자년(1768) 9월에 제술에서 수석을 하자 주상(영조-인용자)이 ‘一門七科, 豈其偶然’이라는 여덟 글자를 써서 하사했다. 신묘년(1771)에 한림을 지냈고 통훈대부 행사간원정언 겸실록청편수관(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兼實錄廳編修官)에 이르렀다. 갑진년(1784) 3월 6일에 사망했으며 대야동<sup>22)</sup> 해좌에 묻혔다. 숙부인 의령남씨는 기미년(1739)에 태어나 정유년(1777) 5월 9일에 사망했고, 후처인 숙부인 성주이씨는 기묘년(1759)에 태어나 임오년(1822) 5월 7일에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승정원일기』와 족보의 기록을 종합하자면 이정훈이 사망한 날짜는 족보에서처럼 3월 6일이 아니라 그 한 달 뒤인 윤3월 6일로, 정언에 제수된 이튿날로 추정된다. 가문을 대표하여 ‘일문(一門)에서 일곱 명이나 문과에 급제했다’<sup>23)</sup>는 영조의 칭찬을 받았으며 죽기 직전까지 요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정훈은 비교적 저명한 관료문인이었다 할 수 있다.

한편 『남보』에 따르면 이정훈은 남미로(南眉老)의 딸인 의령남씨와 혼인해 아들 이명규(李明逵)를 두었다.<sup>24)</sup> 자가 백진(伯津)인 이명규는 이학규의 사촌형인데, 이학규는 그와 평생 우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창이씨세보』에는 이명규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생몰년 등 여타 사항은 전혀 부기되어 있지 않다.<sup>25)</sup>

이가 있다. 『사학정의』에서는 황사영의 어머니 이윤혜가 거제부의 노비가 되었고, 을해년(1815) 3월 27일에 物故되었다고 했다. 심재우, 「1801년 천주교 유배인의 현황과 유배지에서의 삶: 『邪學懲義』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문화』 87집, 2019) 291~293면 참조.

21) 『승정원일기』 정조 8년 윤3월 5일 “○有政. 吏批, 判書李在簡進, 參判金夏材受由在外, 參議趙鼎鎭, 右副承旨李時秀進. 以金熹爲大司諫, 李壽成爲掌令, 李正薰爲正言, 徐有成爲副應教, 李顯靖·申耆爲校理, 李東郁爲副校理, (...)” 한편 같은 날 이정훈의 재종 숙부인 이동욱(이용훈의 부친)이 부교리가 된 점도 눈에 띈다.

22) 대야동은 지금의 경기 군포시 대야동으로, 인천 소래산에 인접해 있다.

23) 이정훈의 조부 이광보와 그 재종형인 이광식, 이광직, 이광익, 그리고 이정훈의 숙부인 이동우 및 이동우의 삼종형제인 이동욱, 이동현까지 모두 7명의 평창이씨 일족이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4) 존경각 소장 『남보』에는 이명규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남보』(李王家圖書之章 표시)에는 이명규와 그의 아들 李鉉五, 李鉉三, 손자 李氣浩가 등재되어 있다.

25) 반면 차자인 李漢逵에 대해서는 이름뿐 아니라 그가 金鼎鑄(이 이름은 『안동김씨대동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의 딸인 안동

이처럼 족보에 제대로 등재되지 않은 이명규의 생애에 대해 가장 충실한 기록을 남긴 이가 바로 이학규이다. 이학규의 술회에 따르자면 이명규는 반송방 서남쪽 원교(圓嶠) 아래 살았는데, 뜰에 앵두나무가 유독 많아 봄마다 꽃을 피웠기에 자기 집에 ‘주설루’(朱雪樓)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명규는 그 집에서 쓴 자작시 원교에 ‘주설루고’(朱雪樓藁)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학규가 그 집을 찾아갈 적마다 그 시고를 보여주곤 했던 것이 10년 세월이었다. 신유년(1801) 여름 이학규는 전라도 능성으로 귀양을 떠나게 되어 이명규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그 집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는데, 그는 당시 그 집의 모습과 배웅해 주던 가족들의 모습을 어제인 것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술회했다. 그 후 갑술년(1814) 봄에 이명규는 가족을 데리고 인천의 대곡(大谷)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은 평창이씨의 선영이 있는 소래산 근처였다. 이명규는 그곳에서 또 10년간 쓴 시 180여 편을 모아 ‘대곡초’(大谷草)라는 제목을 붙인 것을 해배되어 돌아온 이학규에게 보여주었다.<sup>26)</sup> 이와 같은 이학규의 증언을 통해, 부친 이정훈이 사망한 이후 서대문 밖 원교에 거처를 얻어 20년 이상 살았고, 1814년 봄 인천 소래산의 선영 근처로 돌아가 10년 이상 살았으며, 거처가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시를 써서 두 책으로 엮었던 이명규의 생애 궤적이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 이 점은 『인수옥집』(因樹屋集)과 『해류암집』(海榴菴集) 등 이학규가 김해에서 쓴 시문 초고가 강원도 횡성의 이명규 후손가에 보관되어 전해진 사실과 상응하며<sup>27)</sup> 『평창이씨대동보』에 제대로 등재되지 못한 이 두 사람이 종형제이자 시우(詩友)로서 평생 간직한 우의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학규의 아버지 이응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자가 화국(華國), 호가 유촌(柳村)인 이응훈은<sup>28)</sup> 1749년생으로 형과는 아홉 살 터울이다. 네 살 되던 1752년에 아버지 이동운이 사망해 홀어머니 해남윤씨(1716~1791) 슬하에서 형 이동훈(1740년생)과 큰누이(1738년생 정후조의 처) 및 작은누이(이윤혜, 1747년생 황석범의 처)와 함께 자랐다. 이후 숙부 이동우(1730~1789)에게 후사가 없어 그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이용휴(1708~1782)의 넷째딸인 여주이씨와 혼인했다. 아들 이학규가 태어나기 5개월 전인 1770년 7월에 사망한 그에 대해 『평창이씨대동보』나 『남보』에서는 그가 이동우에게 출계(出系)했다는

김씨와 혼인했고 묘지가 강원도 인제군 북면 破鋼嶺에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이정훈이 사망하고 신유옥사(1801)로 가문이 큰 타격을 받은 이후의 어느 시집에 이정훈의 후손들은 강원도로 이주한 듯하다. 『평창이씨세보』에는 이학규의 아들 이수현의 묘가 嵐橋(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손자 이용호의 묘가 간성군에, 증손자 이춘식의 묘가 평창군 진부면 탑동에 있다고 밝혀져 있는바 이정훈의 아들부터 현손까지 모두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 등지에 묻혀 있다(이정훈은 인천 소래산 선영에 묻힘). 게다가 현전하는 이학규의 유고 일부가 소장되어 있던 이명규의 후손가가 강원도 횡성군이라는 점을 보건대 이학규의 백부 이정훈의 직계후손인 평창이씨 일족은 19세기 초, 중반 이후 서울을 떠나 강원도에 이주했다고 판단된다.

26) 昔者, 伯津有敝廬在盤松坊坤維圓嶠之下。地舊產含桃, 每春時花發, 香雪滿一庭。伯津置小樓其間, 日寢處, 吟哦不輟, 篇什既富, 命之曰‘朱雪樓藁’, 蓋其詩無一篇不與予倡, 亦無一字不命予鑒定可否, 十許季如一日也。辛酉夏, 予之之爾陵也, 就別伯津于是樓之下, 時先妣及室人, 皆揮涕叙別于樓門之外, 既蓐食納履, 回視樓中, 研槩昏墨, 縱橫位置, 如前日。兒女婢僕, 出入馳走, 亦如前日也。以後苟一追念, 怳狀若身在目擊也, 垂今二十餘季, 人之存者, 僅向日之童穉四五而已, 樓已再易主, 而今又析屋, 取材瓦斥賣, 莽狀丘墟而已。向所謂‘朱雪樓藁’若干編, 問托付某邨峻主家, 質買取苴履覆甌殆盡。甲戌春, 伯津竟挈家, 大歸于邵城之大谷, 谷後直蘇徠山, 予家五世塋墓在焉。所謂孤死猶首丘者非邪! 伯津於今世, 若敗蔕之離枝, 飄飄顛倒, 猶留戀故根, 無復前日之沃若可念矣。猶復遇境興思, 觸緒棼如, 作為五七言雜體一百八十餘篇, 復命之曰‘大谷草’, 客冬, 持以示予。嗟乎! 計自今又二十餘季, 伯津與予, 尙能見存否。今所寄處, 敗茅六七楹耳, 尙能不毀析斥賣否。若所謂百八十餘篇者, 不復爲邨峻所攘竊擄棄否。皆未可知者, 伯津亦當一笑任之也。(이학규, 「大谷草序」 『洛下生集』 冊15)

27) 한국고전종합DB 『낙하생집』 해제 참조.

28) 이응훈의 자가 ‘화국’이라는 점은 이용휴가 이응훈의 유고에 쓴 서문인 「李華國遺草序」를 참조했다. 한편 이응훈의 호가 ‘유촌’이라는 점은 그의 삼종제 李佐薰(1753~1770)의 시 「楡村三從兄應薰, 作夢天詩二十韻, 寄煙巖子(…)」에 보인다. 이좌훈에 대해서는 박동욱, 「李左薰 한시에 나타난 비애 의식 연구」(『한국언어문화』 35집, 2008) 참조.

것 외에 별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응훈의 장인이며, 그의 조부 이광보, 숙부이자 양부인 이동우와 세교가 있던<sup>29)</sup> 이용휴가 넷째 사위의 요절을 애석해하며 그를 위해 글을 썼음은 주목을 요한다.

시를 쓴다면 무조건 당시(唐詩)를 한다는 것이 요사이의 폐습이니, 그 격식을 본뜨고 그 말투를 배워 거의 같은 피리를 부는 듯하다. 이는 지빠귀가 종일 삐로롱거리도 제 소리는 없는 것과 같으니 나는 그것이 몹시 지겹다. 지금 이군(李君) 화국(華國)이 남긴 초고를 보니 겨우 한 권이지만 담대하고 호탕한 필치가 옛 자취를 도습하지 않고 남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아 스스로 일가를 이루려 하였다. 어찌 손에 익은 무딘 칼을 차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에 비할 바이겠는가. 또한 그 사이에 정경(情景)이 어울리고 신기(神機)가 접촉하는 것은 왕왕 돌 틈을 울리며 흐르는 시냇물 같고 나뭇가지를 휘감고 지나는 바람 같아 청신하고 의미심장하다 할 만하다. 이런 그의 시를 읽으면 열 걸음을 걸으며 아홉 번 돌아보듯 머뭇거리며 여운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sup>30)</sup>

이용휴는 이응훈을 한 사람의 특별한 시인으로 기억했다. 남의 소리를 흉내 내는 지빠귀처럼 당시풍(唐詩風)을 도습하는 허다한 문사들 사이에서 ‘남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를 쓰는 이응훈을 이용휴는 유독 눈여겨보고 귀하게 여겼다. ‘돌 틈을 울리며 흐르는 시냇물 소리’라든가 ‘나무를 휘감고 지나는 바람 소리’라는 이용휴의 아름다운 평어(評語)는 현전하지 않는 이응훈 시의 그윽한 의경(意境)을 상상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고요한 슬픔이 함축된 그 어조를 통해, 이 글을 쓴 것이 이응훈 사후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라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만약 그 재주와 공부를 끝까지 이루고, 깊고 그윽한 기운을 길러 고요한 뜨락을 노닐었다면, 그 향기롭고 맑은 물을 장차 날마다 성령(聖靈)에 바칠 수 있었겠지. 하늘이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 여기에 그쳤으니 애석하다. 긴 눈매에 우뚝한 코, 낭랑한 음성에 흰칠한 골격, 초탈하고도 의젓한 모습의 자네는 자네의 시와 같은 사람이었다. 자네가 남긴 한 아이가 훗날 자네를 보고 싶어 한다면 그 어머니에게 물을 필요 없이 바로 이 시집을 찾아가면 될 터이다.<sup>31)</sup>

이어지는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이학규의 출생을 암시하는 ‘자네가 남긴 한 아이’이다. 이에, 이응훈이 죽고 적어도 5개월이 흐른 시점에 이 글이 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응훈이 남긴 한 시집과 한 아기를 나란히 보고 있던 이용휴는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이 귀한 시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애석해하며 이제는 세상에 없는 그의 얼굴을 공들여 그렸다. ‘긴 눈매에 우뚝한 코, 낭랑한 음성에 흰칠한 골격

29) 이용휴는 이광보를 위해 「李知事光溥挽」과 「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李公墓碣銘」을 썼고, 이동우를 위해 「送李陟州之任」, 「送李大夫之任陟州序」를 썼다. 이 시문들은 이학규의 선대를 파악하는 데 긴요한 자료다.

30) 詩無不唐詩者, 近日之弊也. 效其體, 學其語, 幾乎一管之吹, 是猶百舌終日嚶嚶無自之聲, 余甚厭之. 今觀李君華國遺草, 財一卷, 而瓠膽宕筆, 不襲迹, 不借喉, 欲自霸者也, 豈與世之佩退鋒之熟劍, 以耀人者比哉? 且其間, 情與境會, 神與機觸者, 往往如水之鳴磬, 風之縈木, 幽雋賅焉. 使人讀之, 有十步九迴之思. (이용휴, 「李華國遺草序」) 번역은 이용휴 저, 조남권, 박동욱 역, 『혜환 이용휴 산문전집』(소명출판, 2007)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함. 이하 같음.

31) 若竟其才學, 養窈窕之氣, 遊靖狎之圃, 則其馨香明月, 將日薦聖靈. 天不假年而止於斯, 惜也! 君長日高準, 朗音巖骨, 灑灑落落, 人如其詩. 君之遺孤, 他日思欲見君, 不必問其母, 直尋于此卷, 可矣.(이용휴, 「李華國遺草序」)

이 그 시와 꼭 닮았다'고 한 그의 그림은 기실 외손자 이학규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시인 이응훈의 존재는 이용휴의 정성으로 유복자에게 귀하게 전해졌으며, 훗날 이학규는 아버지의 얼굴을 그가 남긴 시에서 거듭 보았을 터이다.

### 3) 이응훈의 근동(芹洞) 집과 이웃의 목만중(睦萬中)

이응훈의 이른 죽음을 슬퍼한 이는 그 장인이자 뛰어난 선배 시인인 이용휴만은 아니었다. 목만중(睦萬中, 1727~1810) 또한 이응훈의 죽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작년에 내 아들이 죽어 내 피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자네는 내 아들과 동갑인데 금년에 자네가 또 죽었다. 나는 들어가 자네 시신을 어루만지고 나와, 자네 어른과 서로 껴안고 울었다. 이런 슬픔이 어찌 남들이 자네의 죽음에 우는 데 비할 바이겠는가.

자네는 나에게 책을 끼고 와 구두(句讀)를 가르쳐 달라고 청한 적은 없지만, 나를 깊이 알고 나에게 두터이 의지했었다. 이미 자네가 어릴 적부터 자네가 나에게 기대하고 내가 자네에게 바란 것은 그저 아는 집 소년으로 장옥(場屋)의 재자(才子)인 정도에 그칠 뿐이 아니었다. 이러니 그 슬픔이 또한 어찌 남들이 자네의 죽음에 우는 데 비할 바이겠는가.

자네는 재주가 몹시 뛰어나고 기운이 아주 빼어나 드높이 떨쳐 벗어난 천마와 같았고 표표히 끈을 끊고 솟구친 매와 같았다. 만약 자네에게 시간이 허락되어 재주가 더욱 노성하고 기운이 더욱 온전해졌다면 훗날 그대의 가문을 번창하게 하고 우리 당(黨)을 널리 펼치는 데 어찌 다함이 있었겠는가.<sup>32)</sup>

이응훈을 위해 쓴 이 제문에는 이응훈이 세상을 떠난 1770년 여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동당(同黨)의 어른으로 이응훈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목만중은 어쩌면 장인 이용휴보다 더 격정적인 슬픔을 토로했는데, 당시 이응훈의 요절은 그에게 거리를 두어 객관화하기 어려운 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목만중은 그 자신이 참척을 겪은 아버지였다. 1년 전인 1769년, 목만중의 장자 목인로(睦仁老, 1749~1769)가 21세로 요절한 것이다. 아들의 동갑내기 벗인 이응훈의 죽음은 목만중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응훈의 죽은 몸을 만져보고 나와서 같은 처지의 아버지인 이동우와 껴안고 우는 그의 모습은 겹겹의 비통함을 함축하고 있는바, '이런 슬픔이 어찌 남들이 자네의 죽음에 우는 데 비할 바이겠는가'라는 반문의 의미를 이 행위에서 볼 수 있다.

목만중은 이응훈의 뛰어난 재주와 빼어난 기운을 '드높이 떨쳐 벗어난 천마'와 '표표히 끈을 끊고 솟구친 매'로 표현했다. 이 말은 이용휴가 그려낸 '긴 눈매에 우뚝한 코, 낭랑한 음성에 흰칠한 골격, 초탈하고도 의젓한 모습'과도 맥이 닿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한 '시간이 허락되어 재주가 더욱 노성하고 기운이 더욱 온전해졌다면'이라는 말은, 이응훈에게 품었던 기대와 그 기대가 좌절된 데 대한 아쉬움을 목만중과 이용휴가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다만 이용휴가 시인 이응훈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는 데 집중했다

32) 嗚呼! 去年吾兒死, 吾至今血淚未乾, 君與吾兒同年生, 而今年君又死. 吾入而拊君之屍, 出與君之尊大人相抱而哭, 此其哀豈與他人之哭君死者比也. 君於吾初未嘗挾冊請句讀, 而知之深托之厚, 已自君童卯時, 君所以待我, 吾所以望於君者, 不啻爲通家少年場屋才子而已. 此其悲豈可與他人之哭君死者比也. 君才甚雋氣甚逸, 昂昂如天馬脫, 飄飄如豪鷹掣條. 使之假以其年, 才益老氣益全, 則他日之昌君宗而張吾黨, 豈有既乎! (목만중, 『祭李生應薰文』, 『餘窩集』 卷15)

면, 목만중은 남인 문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좀 더 보편적인 견지에서 그를 애도했다. 목만중에게 이응훈은 평창이씨 가문을 번창하게 하고, 남인 공동체를 창달하게 할 만한 차세대의 인재였던바, 그의 요절은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가문과 동당의 손실로 간주되었다.

금년 여름 나는 근동(芹洞)에 집을 샀는데 그 이웃이 자네 집이었다. 자네는 몹시 기뻐하며 내게 말했다. “가을 시험을 보고 나면 제가 어르신과 함께 날마다 글을 연구하여 제 뜻을 거침없이 펼치고 싶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말했다. “나는 미처 노쇠하기도 전에 거둬 상사(喪事)를 겪어 정신이 소진되고 재주와 기운이 퇴보했다네. 기대를 두고 있는 후생은 오직 자네뿐이야.” 이로부터 우리 집에는 하루라도 자네의 자취가 이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네가 쓴 글은 한 편이라도 내 눈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특이한 곳을 만나면 나는 늘 읊조리며 아름답다고 칭상했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으면 늘 지적하고 면려했다. 자네는 그것을 혐의쩍게 여기지 않았을뿐더러 그 자리에서 자구를 고치곤 하였으니,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sup>33)</sup>

이어지는 목만중의 언급은 이응훈의 구체적인 존재와 육성을 담은 희귀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목만중이 말한 “근동”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일대로서, 과거 미나리뎡이 있었기에 그런 이름이 붙은 마을이다. 목만중은 1770년 여름 이곳에 집을 샀는데 바로 이웃에 이응훈이 살고 있었다. 이에 향후 이학규의 친가가 될 이동우의 집 위치를 근동으로 비정할 수 있다. 목만중이 비통한 심정으로 이응훈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동우와 겨안고 울었던 바로 그 집이다.



<도판3>

소의문(昭義門) 밖 근동(芹洞).

이응훈이 사망할 때까지 살던 의 집이 여기 있었다.



<도판4>

미근동.

미근빌딩과 미동초등학교 부근이다.

그 여름에 이응훈은 시험을 앞둔 거자(擧子)였다. 그는 목만중이 이웃이 된 것을 반가워하며 “가을 시험을 보고 나면 어르신과 함께 날마다 글을 연구하여 제 뜻을 거침없이 펼치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고, 참척의 슬픔에 쇠잔해 있던 목만중도 ‘기대를 두고 있는 후생은 오직 자네뿐’이라며 한 번 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웃에 사는 동안 목만중은 이응훈의 글을 빠짐없이 읽고 품평하며 그를 면려했는데, 그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아들이는 이응훈의 태도는 앞으로의 더 큰 성취를 기대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33) 吾買宅芹谷，其鄰君家也。君甚喜，謂吾曰：“俟過秋闈，吾得與公日揚摧文雅，大肆吾志也。”吾語君曰：“吾未及衰而屢經喪威，神精消才力退，所望於後生者，惟君而已。”自是吾之室未嘗一日無君之跡。君有所著作，未嘗有一篇之不經吾眼者，當其得意處，吾每諷詠嘉賞，少有不合，亦未嘗不指摘加勉，君不惟不以爲嫌，立爲之竄句易字，其不安於小成如此。(목만중, 「祭李生應薰文」, 『餘窩集』卷15)

아아, 하루는 자네가 와서 근래 지은 것을 낭송하고는, 스스로 말하길 기운이 좀 평안치 못한 것 같다 했다. 다음 날 아침 자네에게 병이 났다고 들었고, 병든 지 열흘 남짓 만에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아아, 비통하다. 자네의 어른이 겪을 마음의 슬픔을 나는 이미 알고 있으며 내 마음의 슬픔을 자네의 어른 또한 알고 있다. 알지 못할 것은, 유독 자네와 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슬픔을 슬퍼할는지이다. 책과 벼루에 남은 손때가 아직 선명하고 흙과 바위를 쌓아 만든 화단에 꽃과 나무가 아직 늙지 않았는데 빼어난 미목에 맑은 눈동자, 험걸차게 큰 키의 소년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니. 어허!<sup>34)</sup>

그러나 얼마 후 목만중을 방문해 자신의 시문을 낭송하던 이응훈은 몸이 좀 좋지 않다며 병든 기색을 보였고 발병 열흘 만에 사망했다. 목만중은 손때 묻은 책과 벼루, 화단에 심은 화초와 나무에서 이응훈의 흔적을 확인하며, 험걸차게 큰 키에다 눈이 맑고 잘생긴 이웃집 소년으로 그를 기억했다. 목만중이 기억한 이응훈의 이 모습은 그 장인 이용휴가 그려낸 것과 거의 흡사한데, 가문과 동당의 공동체가 공유한 이응훈의 상역시 이에 가까울 듯하다.

한편, 이응훈이 죽고 얼마간의 시일이 흐른 뒤에도 목만중은 그를 떠올렸다.

寥落虛堂對夕曛, 횡딩그레 빈 방에서 황혼을 마주하니  
 眼中難得李應薰. 눈에 남은 이응훈을 볼 수가 없네.  
 生平俊氣空遺草, 평생의 빼어난 기운은 유초(遺草)에만 남았나니  
 年少何人更古文? 젊음이 누가 다시 고문(古文)을 하랴.  
 海外豪鷹終不住, 바다 밖 썩썩한 매는 머무르지 않고  
 世間驚馬自爲羣. 세상의 노둔한 말은 저마끔 무리를 이루네.  
 朝來夕去巴江水, 아침에 밀려왔다 저녁에 빠지는 파강(巴江)의 물  
 極目西南有暮雲. 먼눈으로 서남쪽 보니 저녁 구름 있네.<sup>35)</sup>

이 시의 제목은 “今日乃李生應薰亡日, 獨坐書感. 李生之大人, 方住巴陵”으로, 이 시를 쓴 날이 이응훈의 1주기인 1771년 7월 모일(某日)이며, 그날 그 부친 이동우는 파릉(巴陵: 양천)에 가 있었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시에 보이는 ‘빼어난 기운이 담긴 유초(遺草)’란 바로 이용휴가 서문을 쓴 『이화국유초』(李華國遺草) 일 터인데, 목만중은 이 책에서 고문가(古文家)로서 이응훈의 성취를 보았던바, ‘여기 머물지 않고 바다 밖으로 날아가버린 썩썩한 매’로 이응훈을 그려, 그의 재능과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소멸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앞서 이응훈의 죽음에 격렬히 슬퍼했던 목만중은 1년 전 오늘 세상을 떠났으나 아직 눈에 남은 이응훈을 각별히 기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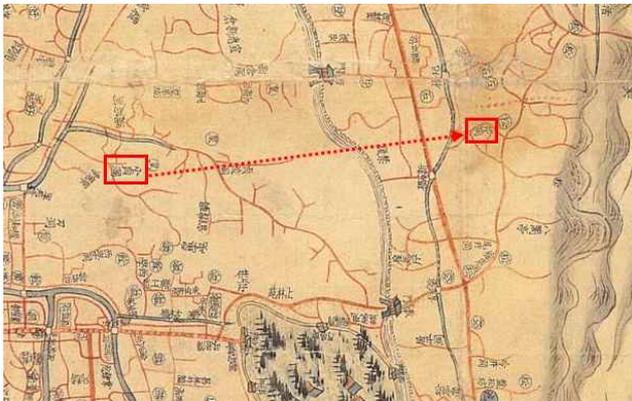
이응훈과 목만중의 인연은 이후 유복자 이학규에게로 계승된다. 이학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소정릉동의

34) 嗚呼! 一日君來誦近作, 自言氣若有不平者, 翌朝聞君病, 病十餘日遂不起. 嗚呼慳矣! 君尊大人之心之悲, 吾既知之矣. 吾之心之悲, 君尊大人亦知之矣. 所不知者, 獨君與吾兒之能悲其父之悲也否. 青編朱研, 手跡猶新, 簣土壘石, 花木未老, 而秀眉清眸, 頎然長身之少年, 已不可復見矣. 嗚呼!(목만중, 「祭李生應薰文」, 『餘窩集』 卷15)

35) 목만중, 「今日乃李生應薰亡日, 獨坐書感. 李生之大人, 方住巴陵」(『餘窩集』 권2) 이 시는 ‘採芹錄’이라는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근동(芹洞)에 거주할 때 쓴 시를 묶은 소집(小集)이다. 원문 중 ‘巴陵’은 저본에 ‘巴陵’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감안하여 수정했다.

외가가 잘 알려져 있으나, 이에 더해 서대문 밖 근동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마을은 이학규의 할아버지 이동우가 1789년까지 살던 집, 다시 말해 이동우의 양자 이응훈이 짧은 청년기를 보낸 집이 있던 곳으로 이학규 본가의 소재지다.

이학규는 사촌형 이명규에게 보낸 시 「회포를 읊어 백진께 올림」(詠襄奉寄伯津)에서 “여주이씨가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 서쪽 성곽 인근의 옛집이었네 / 혜환(惠寰) 할아버님께 글 배우는데 / 꼬불꼬불한 글자는 발음도 어려웠지 / 금대(錦帶) 어른 곁에 앉아 웃으시다 / 나를 업고 일어나 서성거리셨네 / 높다란 용마루에 서늘한 바람 일고 / 북두성은 난간에 빛났지”<sup>36)</sup>라고 읊었는데, 이 시에 그려진 ‘서쪽 성곽 인근의 용마루가 높다란 집’이 바로 이학규가 이응훈과 이가환의 보살핌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낸 소정릉동 외가이다. 외조부와 외숙의 가르침에 힘입어, 이학규는 열 살 무렵 학문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 뒤로 생각이 차츰 진보해 / 큰 물결마냥 시원하게 쏟아져내렸네 / 두 번 읽지 않아도 역사서를 암송했고 / 걸핏하면 여러 편시를 지었네”<sup>37)</sup>와 같은 술회에 그 점이 잘 나타나 있다. 근동 친가 가족들이 이런 그에 대해 놀라고 기뻐했음은 물론이다.<sup>38)</sup> 소정동과 근동이 서대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마을인 만큼, 이학규는 친가와 외가의 영향을 고루 받으며 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판5>

小貞洞(이용휴 가)에서 芹洞(이응훈 가)까지. 인근에 敦義門(서대문)과 昭義門(서소문)이 있다.



<도판6>

서대문(돈의문) 인근의 정동에서 미근동까지는 1.2km 거리이다.

한편 바로 이웃에서 이응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한 목만중이 계속 근동 집에 살며 이응훈의 유복자인 이학규에게 영향을 끼친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목만중이 근동에 이주해 온 1770년은 이학규가 출생한 해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31년 지난 1801년 2월 15일, 이학규가 의금부에서 한 진술에서 목만중의 강력한 존재감이 확인된다.

이른바 ‘사학(邪學) 죄인’과 결탁하여 호응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온 이학규는 “너의 외가는 누구며 진외가는 누구냐?”라 하여 가계를 캐는 심문에 “이가환이 외삼촌이고 양(養) 진외가는 고 필선 권기언(權基彦), 생(生) 진외가는 고 도사 윤덕희”라고 답했다. 이응훈의 양부인 이동우의 처가 권기언의 딸이고, 생부

36) 驪李我自出，古家西郭鄰。學書惠寰翁，詰屈語音難。錦公但坐笑，負我起盤桓。高薨動涼吹，北斗光闌干。(이학규, 「詠襄奉寄伯津」, 『洛下生集』 冊4)

37) 而後思稍進，快若倒洪瀾。誦史不再讀，作詩動數篇。(이학규, 「詠襄奉寄伯津」, 『洛下生集』 冊4)

38) 十歲見吾家，學家俄驚謹。(이학규, 「詠襄奉寄伯津」, 『洛下生集』 冊4)

인 이동운의 처가 윤덕희의 딸인 사실에 부합하는 답이다.

곧 “너는 조모의 승중상(承重喪)을 치르며 동기간에 부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이 낭자하다. 무슨 곡절이냐?”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답한 이학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이는 실로 천만 번 애먼<sup>39)</sup> 말입니다. 제가 실은 남과 원한 맺은 일이 있습니다. 신해년(1791) 이전에 저는 전 참판 목만중과 대문을 마주하여 살며, 그가 저의 조부 연배였기에 늘상 가서 보았습니다. 하루는 목만중이 저를 불러서 사학(邪學)을 배척하는 통문(通文)을 쓰라고 시켰는데, 배척받는 사람 중에 이가환과 이승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학을 배척하는 일이 비록 엄중하나, 어찌 생질로서 삼촌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목만중은 저에게 원한을 품고 근거 없는 말을 끝도 없이 주작(倣作)했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부고를 보내지 않으며, 발상(發喪)을 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날조하여 전파했습니다. 문을 마주하고 살면서도, 제가 상을 당하고 3년이 지나도록 조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학을 한다는 지목을 받은 것은 이로부터 나온 것이라 아됩니다.<sup>40)</sup>

이 진술로 보건대 이학규는 아버지 이응훈이 마지막까지 살던 근동의 집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 집에서 그는 어머니 여주이씨(이응훈의 4녀)를 모시고 나주정씨(丁載萬의 딸, 1784년 혼인)와 부부가 되어 살았으며, 할아버지 이동우(1789년 몰)와 할머니 안동권씨(권기언의 딸)의 손자로서 승중상을 치렀던 것이다.

또한 이 집에서 이학규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웃의 존장(尊丈)인 목만중과 인연을 이어 갔다. 그러나 이 인연은 신해년(1791) 이후 원한관계로 변질되었다. 이 해에 일어난 신해사옥(일명 珍山事件) 이후 남인이 분열되자, 이학규의 외숙인 이가환은 신서파(信西派)의 핵심 인물이었고, 목만중은 그와 대립하는 공서파(攻西派)의 주동자였다. 3대에 걸친 이웃인 목만중과 이학규가 원한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기인한다. 이 해 겨울 목만중은 이기경 및 홍낙안과 공모하여 서학 관련자를 제거하고자 했는데, 이학규의 진술 중 ‘목만중이 사학을 배척하는 통문을 쓰도록 시켰다’고 한 것이 그에 상응한다. 이학규가 쓰지 않은 이 통문은 이후 목만중이 직접 작성해 돌렸다. 『일성록』 정조 15년 신해(1791) 11월 3일조에 ‘전 도정(都正) 목만중이 지은 통문과 진사 목인규(睦仁圭)가 사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일신(權日身)을 교주로 지목하여 배척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응훈이 요절했을 때 달려가 그의 시신을 어루만지고 그의 아버지 이동우와 껴안고 울던 이웃 목만중은 이응훈의 아들 이학규에게는 악연이 되었다. 1791년 이후 왕래를 끊은 그는 이학규의 조모 안동권씨(이동우의 처)가 사망했을 때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목만중은 이학규가 발상(發喪)과 부고(訃告), 제사(祭事) 등의 장례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 소문은 이학규를 신해년에 부모의 신위를 훼손한 윤지충(尹持忠)과 같은 무리로 의심받도록 하는 효과를 냈을 것이며, 결국 그를 ‘사학 죄인’으로 지

39) 애먼: 일의 결과가 다르게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40) 此實千萬曖昧之言。矣身實有與人結怨之事。辛亥以前，矣身與前參判睦萬中對門居生，而爲矣身祖父年輩，故矣身常常往見矣。一日睦萬中招矣身使之執筆寫斥邪學通文，而李家煥、李承薰俱在斥中，故矣身曰：“邪學之斥雖嚴，豈可以甥侄而斥三寸乎？”矣身仍不書，以此之故，睦萬中含怨於矣身，做出無根之言，罔有紀極，至以不設祭不通訃不發喪之語，構捏傳播。居在對門，矣身遭故之時，竟有三年，不弔之境。矣身邪學之目，從此而出是白乎。『추안금국안』 1801년 2월 15일.

목받게 했다.

이학규는 목만중과의 사이가 것처럼 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목만중은 저의 외삼촌의 문장을 시기해서 티격<sup>41)</sup>을 두었고 사학(邪學)을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배척하고 나면 외삼촌이 사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이런 망측한 말을 지어내고 공격하고 배척한 것입니다.”<sup>42)</sup>라고 했다. 결국 이가환을 흠집 내어 배척하기 위해 그 조카인 이학규를 공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학규의 상황 판단에 따르자면 목만중의 그런 공격적 행위의 동기는 이가환에 대한 질투심이다. 이런 인식을 확장하자면, 오랜 이웃 목만중의 돌변은 어쩌면 남인 문단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욕망과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응훈 3대와 목만중 사이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고, 이학규는 아버지로부터의 오랜 거처인 서대문 밖 근동을 떠나 김해의 유배지를 향해야 했다.

### 3. 유배지의 책 읽기와 책 쓰기

#### 1) 책이 없는 고을에서

이동운, 이응훈, 이학규의 3대는 근세에 문과 급제자를 7명 이상 배출한 명문 평창이씨의 구성원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동운과 이응훈 부자는 일찍 세상을 버리긴 했으나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받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학규 역시 자신의 불행한 삶을 훌륭한 시로 승화시킨 시인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한편 이동운의 장인은 <책 읽는 여인>의 화가 윤덕희이고, 큰사위는 역사지리로 일가를 이룬 실학자 정후조이며, 작은사위는 약관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황석범이다. 그리고 이동운의 차남 이응훈은 기문이서(奇文異書)로 충만한 장서각의 주인이자 재야의 문형(文衡)으로 일컬어지는 이용휴의 사위가 되었다.

정철조의 해주정씨가, 이가환의 여주이씨가와 결속된 이동운의 평창이씨는 당대 학술과 문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하기에 충분했다. 비록 유복자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학규는 생애의 전반인 32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고급한 학술적 환경을 누리며 공부와 시문 창작에 매진했고, 그 성취로 남인 문인 집단의 주목을 받았다. 친가 평창이씨와 외가 여주이씨를 문화적 토양으로 삼아 성장한 그에게, 1801년이 될 때까지 학인이자 문인으로서 결핍감을 느낄 이유는 없었을 듯하다.

그러므로 1801년 겨울,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변방에 해당하는 김해에 도착한 서울내기 문인 이학규가 느꼈을 가장 주된 감정은 아마도 박탈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런 감정은 ‘이곳에는 책이 너무 없다’는 거듭된 호소를 통해 토로된 적이 많다. 다음은 그런 박탈감과 관련해, 이학규가 김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오늘날 시골 서당의 문장은, 위로는 수놓은 아름다움을 빛내 펼치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옛 시문의 뛰어난

41) 티격: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이러니저러니 따지고 사이가 벌어짐.

42) 睦萬中與矣身外三寸以文猜有隙, 以邪學而目之, 故斥矣身然後可以實外三寸之邪學, 故做出如許罔測之言而攻斥矣. 『추안급국안』 1801년 2월 15일.

풍채를 주지(主持)하기 부족하다. 벼슬아치와 학사(學士)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들을 만한 스승의 학설이 없고, 읽을 만한 장서가 없어서이다. 매번 작은 산골마을의 훈장 선생들을 보면 건문이 넓지 못한데 넉넉한 양식과 속수(束脩)를 받아 제 것으로 삼고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편안히 스스로를 아낀다. 어려운 글자 하나를 봤을 적에는 낙타를 보고 등에 혹이 난 말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고,<sup>43)</sup> 시문(時文) 하나를 줬게 되면 신마(神馬)의 번쩍이는 털 조각을 얻은 것처럼 여긴다. 우연히 혜시(惠施)의 오거서(五車書)를 엿보게 되거나 업후(鄴侯)의 어마어마한 장서각에서 서첩(書籤)을 뽑아 보게 될 것 같으면 마음으로 성이 나서 입으로 이렇게 욕을 한다. “저 사람 괴상한 일을 하는군. 저 사람 또 전법호신(傳法護神)하네.” 그러면서 무리지어 떠들어대고 쫓아낸 다음에야 멈춘다. 이런 습속이 널리 퍼져 마침내 오늘날 시골 서당의 당풍(黨風)이 되었다. 이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휩쓸려 그림자처럼 따르고 의탁하여 단점을 비호한다. 영특한 자들은 또한 감히 스스로 굳게 기치를 세우지 못하니, 못사람의 비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sup>44)</sup>

인용문은 김해의 학인들이 후학을 교육하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한 일종의 도서관인 ‘금관서사’(金官書社)에 대해 쓴 기문(記文)의 전반부다. 글을 쓴 연조가 계해년(1803)이고, 이어지는 단락에 ‘지난 봄 도서관을 만들기로 몇몇 사람이 발의하여 이제 금관서사를 만들었다’는 맥락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글은 이학규가 김해에 도착한 이듬해(180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즉 24년에 걸친 이학규의 김해 생활 중 거의 벽두에 해당하는 시기의 산물이다.

그런데 위의 글은, 다음 세대의 학인을 위해 도서관을 만든 지역민들의 가룩한 뜻을 격려하는 취지에는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이학규가 말한 ‘오늘날 시골 서당[今日鄉塾]에는 김해에 산재한 사설교육 기관으로서의 서당도 포함되어 있으며, ‘금관서사’를 추진한 당사자들은 그 서당에서 후학의 교육을 담당한 이들일 터이다. 그럼에도 위의 글은 그들의 준거집단이 될 수도 있는 ‘시골 서당’과 ‘산골 마을 훈장 선생’[三家邨中冬烘夫子]의 부류에 대해 경멸을 감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자의 당혹감을 자아낸다.

이학규가 보기에 현재 시골 서당에는 제대로 된 한문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들을 만한 학설을 갖춘 스승이 없고, 읽을 만한 장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학규는 그중 전자에 대한 공박에 집중했는데, 그에 따르면 산골 마을의 훈장들은 건문이 좁아 남을 가르칠 만한 역량도 없으면서 월사금이나 두둑이 챙기는 부류가 대부분이다. 이학규는 그들에게 어려운 한문을 해독할 능력은 물론 문장에 대한 감식안도 없다는 데 대해 ‘낙타를 처음 보고 등에 혹이 난 말이라 하는 것 같다’거나, ‘유행 따라 쓴 글을 신기한 보물처럼 대단하게 여긴다’고 하며 거의 조롱에 가깝게 공격한다.

이어지는 비난은 더욱 신랄한데, 이 시골 훈장의 부류는 자기가 잘 모르는 말을 하는 박학다식한 사람을 만나거나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를 접하게 되면 적개심을 보이며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문의 폭넓은

43) ‘낙타를 보고 등에 혹이 난 말이라 한다’는 것은 건문이 적어 평소에 보지 못하던 사물을 보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理惑論』에 “속담에 ‘건문이 적으면 괴이한 것이 많아서 낙타를 보고도 마중배(馬腫背)라 부른다.’는 말이 있다”(諺云, 少所見, 多所怪, 睹駝駝, 言馬腫背)라는 구절이 보인다.

44) 今日鄉塾之文, 上不足以彰施絺繡, 下不足以主持騷雅, 薦紳學士羞稱道之者. 其故有二, 曰無師說可聞, 無藏書可讀也. 每見三家邨中冬烘夫子, 見聞不博, 而豐饒肥脩, 致爲己有, 則金銀杖杜, 晏狀自掩. 見一難字, 指以橐駝腫背, 拾一時文, 視爲吉光片羽, 遇有窺惠施之車, 抽鄴侯之籤也, 則心怒而口詛之曰: “夫也行怪, 夫也又其傳法護神也.” 羣相操逐而後已. 此俗廣布, 遂爲今日鄉塾之黨風. 於是乎蒙駭者, 靡狀景從, 依托以護短, 穎銳者, 又不敢堅自樹幟, 以速羣謗也. (이학규, 「金官書社記」, 『洛下生集』 冊3)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박학다식한 학자들을 향해 ‘괴상하다’, ‘전법호신(傳法護神)을 한다’고 되레 공격하고 무리를 지어 떠들어대며 결국 그들을 추방하고 나서야 만족한다. ‘전법호신’이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아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정치적 술어임을 감안하자면<sup>45)</sup> ‘시골 훈장’의 이러한 행태는 신유옥사(辛酉獄事) 때 이학규도 익히 겪었을 서학(西學)에 대한 사상 공세와 정치적 탄압을 환기하는 바가 있다.

또한 이처럼 알량한 초보적 지식을 움켜쥐고 대규모의 장서라든가 박학다식의 학풍 같은 것을 백안시키는 고루하고 편협한 학문적 분위기를 굳이 ‘당풍(黨風)’이라 표현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말에 시골 서당 훈장 및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부정적 판단까지 함축되어 있음으로써다. ‘영특한 자들은 못 사람의 비방을 초래할까 두려워 그들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 역시 이른바 ‘시골 훈장의 무리’를 당파성이 강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이학규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학규는 지역사회의 주된 학문 담당층을 구성하는 이른바 ‘시골 훈장’에 대해, 수준이 저열할 뿐 아니라 학문적 시야가 좁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시골 훈장’을 대하는 이런 오만한 시선에는 분명 부당한 점이 있으나, 이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최상의 교육을 받은 영민한 지식인 청년이 그리 수준이 높지 못한 지방의 학인들을 처음 접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반응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시골 훈장’을 비판하는 이학규의 태도에는 서울 사람이 향유 지방의 학인을 알보는 것 이상의 과도함이 있다. 그 과도함은 이른바 ‘시골 훈장’이라는 계층을 특정한 정치 지향을 가진 집단의 주동자로 덧칠하고 경멸을 넘어 혐오의 시선으로 그려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 김해에 온 지 3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학규는 그다지 접해 본 적 없었을 ‘시골 훈장’에 대해 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일까? 그것은 우선 만족스럽고 익숙했던 학술적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여, 낯설 뿐 아니라 대체로 그가 가진 기준에는 비할 바 없이 황폐하다 여겨질 법한 김해 지역의 학계를 마주했을 때의 충격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학규의 30평생을 성장시키고 뒷받침해 주었던 학술 공동체인 ‘성호(星湖) 학파’가 서학(西學)을 둘러싼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공격으로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고, 그 과정에서 이학규가 속한 학술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자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로 평가받던 이가환이 남인 내부와 외부의 정치적 공격을 받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학규는 그러한 와해와 붕괴의 과정을 목도하고 경험한 끝에 이곳 김해에 도착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새롭게 속하게 될 학문 공동체를 직면했을 때 학문적 식견이 천박하고 박학다식 같은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이른바 ‘시골 훈장’ 같은 고루한 한학자의 부류를 보았으며, 낯설고 우호적이지 않은 그들에게서 자신과 외숙 이가환을 공격했던 특정 정치세력의 태도를 발견했다. 이학규가 그려낸 ‘혜시(惠施)의 오거서(五車書)와 업후(鄴侯)의 장서를 갖춘 박학다식한

45)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중 정조 16년(1792) 5월 12일조의 “몇십 년 동안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감히 말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 토역(討逆)하는 기회를 인하여 온 나라가 같은 소리를 하고 공거(公車)에 날로 쌓이는 것은 모두 한결같이 의리에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던 적이 차례로 발각되었고 부월(斧鉞)을 대신하는 글이 다투어 번갈아 진달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상의 묵운(默運)하는 생각으로 우선 한 번의 유음(兪音)을 아끼고 계시지만 흥역의 소굴에서 전법(傳法)하고 호신(護神)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소가 다 말하고 있으며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라든가, 순조 30년(1830) 6월 7일조의 “신의학(愼宜學)의 흉서(凶書)는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여겨서 방법을 역적 권유(權裕)에게 전하고[傳法] 정신을 이서구(李書九)가 비호하였는데[護神], 여기에서 이인부(李寅溥)의 글이 머리와 꼬리가 서로 호응하고 전후(前後)와 모전(茅殿)의 맥락(脈絡)이 서로 전해져 한 꿰미로 꿰어오면서 빠른 모양으로 서로 데리고서 금수(禽獸)와 이적(夷狄)의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까”라는 등의 구절에서 전법과 호신이 역적모의와 연관된 행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자를 향해 불온하다고 욕하는 시골 훈장'의 모습에는, 이가환의 탁월한 학문적 성취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서학 수용을 정쟁의 기화(奇貨)로 삼아 결국 그를 사학(邪學)의 수괴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관료문인들의 행태와 겹쳐지는 바가 있다. 그런 관료문인 중에는 남인이라는 동당(同黨)의 존장이자 이학규의 오랜 이웃이던 목만중 같은 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요컨대 '시골 훈장'에 대한 이학규의 온당하지 못한 평가에는 신유년의 쓰라린 경험 직후 김해에 도착한 그의 처지에 기인한 일종의 피해의식이 개입해 있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설고 황폐한 학술적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위 인용문의 뒤를 이으며 '금관서사'의 설립 과정을 약술한 「금관서사기」의 후반부에서도 이러한 심적 태도가 관철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봄에 고을 사람인 최두극 군과 김덕하 군이 나의 인수옥(因樹屋)에 들러 '고을에 장서가 없어서 간혹 서적에 마음을 둔 이가 있어도 책을 볼 수가 없다. 고을에 문장을 하는 이가 적은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라고 몇 번 말을 했다. 곧 고을 서당에서 강력하게 일을 주관하는 이들과 도모해 임우춘, 우윤권, 배상렬 세 사람과 모여 금관서사(金官書社)를 만들었다. 각출한 돈으로 먼저 6경과 여러 역사서 약간 권을 모아서 고을 자제 중 서당에 나오는 자에게 편히 가져다 보게 하였다. 이는 참으로 '광주리 가득 금을 물려주는 것이 경전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는 격이다. 이어서 낭현(娘孃)과 급총(汲冢)의 비서(祕書), 천록각이나 석고각에서 보는 것 같은 책을 여기에 모으게 된다면 제군(諸君)이 후생에게 아름다운 혜택을 미치는 바인 것이다. 그러나 책은 그저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스승의 설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시골 서당의 기풍에 오염되지 않고 뜻 의론으로 왜곡되지 않은 이를 찾는다면 잘 고른 것이 되리라. 제군은 사방에서 구하지 말고 고을 사람 가운데서 구하면 될 것이다.<sup>46)</sup>

'지난 봄'을 1802년 봄으로 본다면, 김해의 최두극과 김덕하는 이학규가 김해에 도착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문해 지역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판단된다.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 지식인 이학규는 이 지역 학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반가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직하다. 그러나 이학규가 그들의 요청에 부응해 이 사업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지는 않은 듯하다. 최두극 등이 고을 서당에서 일을 주관하는 임우춘, 우윤권, 배상렬과 힘을 모아 도서관을 만들고, 돈을 각출하여 6경과 약간의 역사서를 비치해 서당 유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했다 했으므로, 금관서사는 기실 김해 지역의 서당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교육 시설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금관서사기」의 전반부는 바로 그 서당 관계자들과 닿아 있을 것이 분명한 '시골 서당 훈장'의 당풍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업과 김해의 교육계에 대해 이학규가 두고 있던 거리감을 알게 한다. 그는 '광주리 가득 금을 물려주는 것이 경전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며 후학을 위한 최두극 등의 노력과 그 산물인 금관서사에 대해 치하하고 이 도서관이 낭현궁(娘孃宮)이나 천록각(天祿閣) 같은 규모로 성장하기를 축원하면서도, 역시 책만 있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당한 학설을

46) 客春, 有邑人崔斗極, 金德河二君者, 過余因樹屋中, 數言邑無藏書家, 間有留心載籍, 而無因搜覽. 邑之少文, 槩由此也. 乃謀諸邑塾之強力幹事者, 得林遇春, 禹允權, 裴尙烈三人, 爲金官書社, 就釀錢, 先聚六經諸史若干卷, 令邑子弟之就塾者, 取便覽焉. 是固遺金滿籩, 不如一經者也. 嗣是而娘孃汲冢之秘, 天祿石渠之玩, 聚皮于斯, 則諸君之以嘉惠後生者也. 狀書不可徒讀, 必資于師說, 求諸今之, 不污鄉塾之風, 而不爲羣議所撓者, 斯其選也. 諸君不求之四方, 而第求之鄉人可也. (이학규, 「金官書社記」, 『洛下生集』 冊3)

지니고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시골 서당 훈장’의 문제로 되 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시골 서당의 학풍에 오염되지 않은 식견 있고 공정한 교육자를 찾아야 한다는 촉구로 이 글을 맺었다. 이학규는 ‘금관서사’라는 김해의 지역자치 도서관을 위해 쓴 이 글에서, 그 도서관의 미래를 격려하기보다는 처음 접한 이 지역 학문 공동체의 수준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첫인상과 암담한 전망을 주로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금관서사는 이학규에게 낭현궁이나 천록각 같은 꿈의 도서관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김해에 온 지 8, 9년 된 무렵에도 여전히, 책을 구해 볼 수 없어 고통스러워했다. 그런데 이학규가 느낀 결핍의 고통이란, 단순히 읽을거리가 없다는 무료함과 무관한 것이었다. 당시 한 지인의 편지에 답해 쓴 다음 서한에 그런 점이 잘 드러난다.

이 고을에는 너무도 서적이 없어, 구존재(瞿存齋)의 『전등신화』를 책상 위에 높이 모셔두고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를 베갯맡에 비장(祕藏)할 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들은 그 책들을 남에게 빌려줄 뜻이 없고 나 또한 빌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sup>47)</sup>

책이 없다는 이 고을에도 소설책은 없지 않았다. 구우(瞿佑)의 『전등신화』나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같은 중국 소설을 김해 사람들은 귀하게 모셔두고 즐겨 읽었다. 명청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본 소설이 활발히 유통되던 분위기가 조선 후기 식자층에서의 일반적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는바,<sup>48)</sup> 이 점은 김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학규는 그런 책을 읽을 엄을 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김해의 소장자들이 소설책을 남에게 빌려주려 들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어지는 일화에서 ‘읽을 책이 없다’는 이학규의 호소에 내포된 결핍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된다.

작년 중춘(2월)에 우연히 나무 위 빠꾸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월령」(月令)의 ‘매가 변화하여 빠꾸기가 된다’는 구절이 연상되며, 이것이 중춘의 일인지 계춘(3월)의 일인지 헷갈리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시골 서당에 『예기』를 갖춰 둔 이가 없다는 걸 알던 터에, 문득 역서(曆書)의 달 표제 아래마다 「월령」의 내용을 베껴 붙여 두었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역서도 급하게 찾으니 역시 구하기 어렵더군요. 간신히 토교(土校: 지방 소속의 장교) 중에 날 받는 일을 업으로 삼은 자에게 주머니를 털어 주고 찾아보고는 크게 상쾌하게 여겼습니다. 이 고을의 거칠고 영성함을 이에 알 수 있지요.<sup>49)</sup>

『예기』 「월령」에는 “2월에 복사꽃이 피고 피꼬리가 울며 매가 변해 빠꾸기가 된다”[二月, 桃始華, 倉庚鳴,

47) 此鄉苦無書籍, 以瞿存齋『剪燈新話』, 爲刀上尊閣, 羅貫仲『三國演義』, 爲枕中祕藏. 彼固無意於借人, 我亦不擬借於人.(이학규, 「답」, 『洛下生集』 冊10)

48) 『삼국지연의』와 『전등신화』가 조선에서 널리 유통된 데 대해서는 민관동, 『三國志演義』의 國內 流入과 出版, 『중국문화연구』 24호, 중국문화연구학회, 2014; 민관동, 「中國古典文學의 國內 出版과 판본 분석」, 『국제중국학연구』, 한국중국학회, 2019 등 참조. 후자의 논문에서 『剪燈新話句解』가 조선 간본으로 출판되어 유통되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49) 記前季仲春, 偶聞樹上鳩鳴, 因想到「月令」‘鷹化爲鳩’, 或是仲春, 或是季春, 疑思不定. 素知邨塾無藏弄『禮記』者, 轉思曆書每月之下, 抄附「月令」, 曆書急亦難求, 僅從土校之業涓日者, 傾囊肆求, 以爲大快. 斯鄉之鹵莽, 斯可知矣. (이학규, 「답」, 『洛下生集』 冊10)

鷹化爲鳩]는 구절이 있다. 일찍이 성호 이익은 이에 대해 “창경(倉庚)은 피꼬리이다. 구(鳩)는 빠꾸기이다. 5월이 되면 빠꾸기가 매로 다시 변한다”라고 주석을 달았다.<sup>50)</sup> 봄이 깊어가는 음력 2월부터 빠꾸기의 울음이 들린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을 듯한 이 구절을, 이학규는 실제로 중춘의 빠꾸기 소리를 듣고 문득 떠올렸다.

그런데 그는 『예기』의 그 구절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지자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럼에도 당장에는 그 구절을 확인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길이 없었다. 6경에 들어가는 경서인 『예기』를 그는 갖고 있지 않았으며, 동네의 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문제에 골몰하던 중 이학규는 책력(冊曆)의 월별 기재 내용 중 절기와 관련한 정보로서 『예기』의 「월령」 구절이 첨부되어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흔한 책력조차 없었다.<sup>51)</sup> 그래서 책력을 보고 길일(吉日) 점치는 일을 부업으로 삼은 마을사람을 찾아가서야 자기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지식의 수용이 중단됨은 물론, 기본적인 경전조차 펼쳐보지 못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 처지의 이학규에게,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망각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음력 2월의 빠꾸기 울음을 계기로 발생한 이 우습고도 슬픈 소동은, 학자로서 이학규가 처한 곤경을 알려준다. 그는 소일거리로서 소설을 읽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고을 사람들이 『삼국지연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보다는, 김해의 서당에 『예기』조차 없다는 사실이 뼈아팠을 터이다.



<도관> 책력 2월치. 셋째 행의 “是月也”와 “玄鳥至” 사이에 문제의“鷹化爲鳩”가 보인다. 경주 여주이씨 옥산정사 소장본.

하물며 이 고을에는 문아(文雅)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거실대가(巨室大家)가 없습니다. 온 고을을 응시(雄視)하는 것은 오직 오직 부(府)의 아전 중 약간 영리한 자들인데, 그들은 본디 ‘帝’와 ‘帟’를 분간하지 못하고 ‘豕’와 ‘亥’를 멋대로 쓰지만 그런 것을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무엇을 돌아보고 꺼리어 조금이라도 학문에 나아가겠습니까. 8, 9년 사이 보고 들은 것이라곤 기송(起訟: 起訴)하고 문난(問難)하는 소장(訴狀)이나, 여수(慮囚: 재해 등이 있을 때 수감자의 죄를 경감하는 일)하고 의언(議讞: 죄를 의논함)하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책들이 가득 보관된 비각(祕閣)이나 완상할 책들이 꽃힌 명가(名家)의 서재를 떠올릴 때마다 하늘과 땅 사이처럼 아득하여 혼자 큰 탄식을 뱉을 뿐입니다.<sup>52)</sup>

이어지는 내용에서, 처음 김해에 도착했을 때 지역 문풍이 황폐해진 데 책임이 있는 계층으로 지목했던 ‘시골 서당 훈장’은 그에게 더 이상 학계 구성원으로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아전층이

50) 二月, 桃始華, 倉庚鳴, 鷹化爲鳩. (...) 倉庚黃鳥也. 鳩布穀也. 至五月鳩還化鷹. (李瀾, 「七十二候集釋」, 『星湖全集』 권47)

51) 조선 후기 책력의 출판과 보급에 대해서는 정성희,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지식산업사, 2005) 참조.

52) 況此鄉無巨室大家, 其主持文雅, 雄視一邑, 惟是府胥之稍黠者, 而彼固帝帟不分, 豕亥惟意, 人無能從而摘發, 則彼即何所顧憚而稍就問學耶? 八九季間, 聞見不出乎具狀起訟問難, 無過乎慮囚議讞. 時時想到秘閣充棟之藏, 名家插架之玩, 邈若天淵, 惟自浩歎而已. (이학규, 「答」, 『洛下生集』 冊10)

부각된 점이 눈에 띈다. 이학규는 이 고을에 문장의 일을 주관할 만한 규모 있는 명문가가 없어서 김해부의 아전들이 지식 담당층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아전들은 ‘豕’와 ‘亥’ 같은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제대로 구분해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시골 훈장’과 수준이 다르지 않지만, 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사람이 없을뿐더러 실무에 종사하는 이 부류가 학문에 나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학규가 그 아전들을 상대하며 바로 그 실무를 도운 정황이 포착되어 눈길을 끈다. 김해에 체류한 8, 9년 동안 견문한 것이라곤 송사(訟事)라든가 죄수의 형량과 관련된 법률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은, 그 사이 문인이자 학자로서 그의 처지가 더욱 열악해졌음을 암시한다. 그는 김해부 아전들의 의뢰를 받아 법률문서를 검토하는 일을 지속했을 것이며, 이는 그의 생계 활동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두로 점철된 법률문서를 검토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김해에 온 초기에 서당 관계자들에게 ‘금관서사’의 설립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도 지식인으로서 그의 위치가 추락했음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몇 년 전 ‘금관서사’의 설립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낭헌궁이나 천록각 같은 장서각이 되리라고 터무니없는 기원(冀願)을 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서울의 풍요로운 서재들도<sup>53)</sup>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이학규의 곤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연민한 이는 사촌형 이명규였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 소체(小體)는 곡식과 고기를 먹고 살고 대체(大體)는 서적을 먹고 산다’고 하며, 이학규가 직면한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굶주림을 거듭 측은히 여겼다.<sup>54)</sup> 이학규는 이 중 정신적 굶주림을 특히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이 자신의 글쓰기에 미친 악영향을 근심했다.

이 때문에 8, 9년간 제가 쓴 시문(詩文)은 세월을 소견(消遣)하는 것이 아니면 급한 요청에 따라 허술하게 쓴 것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고증하고 교열하고 논변하는 것 같은 거창한 문자를 지어 박아한 이들의 웃음을 사고 스스로 망녕되고 경솔한 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받은 질문 및 30여 조목은 만약 그 일이 3례와 3전 및 21사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비록 한 글자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어도 외려 감히 글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만, 사무(事務)와 무관하고 의리에 해롭지 않은 것은 기억나는 바에 따라 숨기지 않고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설문옥편』 및 동월의 『조선부』, 고염무의 『일지록』 등 여러 책에서 한 번 자세히 상고한 연후에 제 견해를 따를지 결정하길 바랍니다.<sup>55)</sup>

그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8, 9년간 지속된 결과 보람 있는 글쓰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솔회했

53) 이학규가 이용한 장서각 중에는 『규장전운』의 일과 관련하여 이용한 규장각이나, 기문이서(奇文異書)로 충만한 것으로 유명한 이용휴의 서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54) 客秋□□有寄伯津書云：“人生有二糧，小體食梁肉，大體食書籍。□□兩匱重爲之惻狀。”此眞知吾苦境者耳。(이학규, 「答」, 『洛下生集』 冊10)

55) 是以八九季間，僕之所著詩若文，有非消遣時日，則潦草副急者耳。何敢作攷校論辨等許大文字，以取笑乎博雅，自歸於妄學耶？昨承問及三十餘條，若其事出三禮三傳及二十一史者，縱有記念一字一句，猶不敢著之紙墨，其有無關於事務，無害於義理者，隨所記憶，悉陳無隱。此亦不可定其必是，望於『說文玉篇』及董越『朝鮮賦』、顧炎武『日知錄』等諸書，詳考一番狀後決意聽用也。(이학규, 「答」, 『洛下生集』 冊10)

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문을 자아내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그리 쓸모 있는 일이 못 되었다. 또한 남의 급한 사정을 돕기 위한 글은 쓸모가 없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쓴 것이 아니라서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고증하고 교열하고 논변하는’ 학술적 글쓰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지식만으로는 그런 ‘거창한 문자’를 쓸 자신이 없었다. 기억에만 의지해 그런 글을 시도했다가는 예전에 동료였던 수준 높은 지식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라는 불안감이 컸다.

이런 처지에서 이학규는 학술적인 질문을 받은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편지를 보낸 이는 이학규에게 30여 조목의 질문을 했다. 그것들은 대체로 3례(三禮: 『周禮』, 『儀禮』, 『禮記』)와 춘추3전(春秋三傳) 및 21사(二十一史) 등 경전과 사서(史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앞서 『예기』 「월령」의 일화에서 밝혔듯, 이학규에게는 예전에 익히 보았던 이 책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기억에 의지해 최선을 다해 답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앞서의 일화에서 충분히 나타난 바이지만, 그는 스스로의 기억을 확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편지의 수신인에게 『설문옥편』이나, 『조선부』, 『일지록』 등을 더 참조해 자신이 쓴 답이 맞는지 검토해 보기를 권유했다.

편지 말미의 이러한 해명에서는 모종의 착종된 구구함이 감지된다. 3례와 21사 같은 책이라면 이전에 충분히 학습했기에 지금 펼쳐보지 않아도 기억에 따라 답을 쓸 수 있는 정도라는 자신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쓴 답변이지만 분명히 오류가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내면에 뒤얽혀 그런 복잡미묘한 해명의 어조를 자아낸 것이다. 최상의 학술적 환경에서 30년간 치밀하게 구축된 이학규의 학자적 자아가, 기본적 학술서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8년의 세월을 겪은 끝에 괴로운 도전을 받아 균열되는 순간을 이 편지의 결말부는 잘 보여 준다.

## 2) 유배지에서 만난 『고려사』(高麗史)와 『영남악부』(嶺南樂府)

김해에 온 지 8년쯤 된 이학규는 특히 서적에 굶주려 있었다. 그의 굶주림은 그저 읽을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학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학술서를 접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학규가 『고려사』(高麗史)를 읽게 된 것은 학문적인 고립감과 위기감이 극도에 달했던 이 무렵의 일로 추정된다. 이 책을 읽는 일이 그에게 펍 절실했으리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다음 척독에서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어제는 감사히도 찾아오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문밖에 신 끄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몇 번이나 허둥거렸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비가 더욱 내려 크게 진창이 지고 미끄러우니 그저 베개 베고 낮잠이나 자야겠습니다. 『고려사』 제4책과 5책을 돌려드립니다. 6, 7책도 이어서 빌려줄 수 있으신지요.<sup>56)</sup>

이 척독에서는 방문하기로 약속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학규의 상황이 보인다. 내내 문밖의 발소리에 귀

56) 昨日因有惠狀之約，但聞戶外有履齒聲，不知幾番顛倒我也。今日雨益大泥益滑，惟有搗枕晝眠耳。『高麗史』，第四五冊奉還，六七冊嗣此借示否。(이학규, 「與」, 『洛下生集』 冊10)

기울이며 허둥거리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배어난다. 날씨가 궂으니 기다림을 포기하고 잠이나 청하겠다는 말에서 오히려 다음날까지 남은 마음이 읽힌다.

그런데 척독의 말미를 보자면 이학규가 기다린 것은 인근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그 누군가라기보다는 그가 소장한 『고려사』가 아니었나 한다. 가까운 과거에 그 지인은 『고려사』의 1, 2, 3책을 빌려 준 적이 있고, 지금 이학규는 이어서 빌린 4, 5책을 다 읽은 상태이며, 약속한 날 지인은 6, 7책을 가지고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었을 터이다.

김중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등이 세종의 교지를 받아 편찬을 시작해 문종 1년에 완성된 『고려사』는 전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성종 초 을해자본 『고려사』가 반포된 이래 이 역사서는 경연(經筵)의 자료로 채택되거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데 활용되면서 관료와 지식인 사회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광해군 때 목판본 『고려사』가 간행된 후로 민간에도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던바, 17세기 이후 지식인 사회에서는 『고려사』를 연구하고 자신의 저작에 활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sup>57)</sup> 이학규의 선배 학자인 안정복(安鼎福, 1719~1791) 또한 뛰어난 『고려사』 연구자 중 한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수택본 『고려사』에 대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삼아 1760년에 『동사강목』(東史綱目)의 초고를 완성한 일은 유명하다.<sup>58)</sup> 이학규의 또 다른 선배이자 인척인 정약용은 1802년경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고려사』 공부를 어서 시작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sup>59)</sup> 이러한 『고려사』를 이학규는 어느 장마철에 바야흐로 몰두하여 읽고 있었다.

이학규가 빌려 읽은 『고려사』는 당시 그가 접할 수 있었던 제대로 된 학술서의 전부에 가까웠던 듯하며, 이것이 그의 척독에 내포된 간절한 기다림의 이유였을 것이다. 당시 그가 『고려사』를 읽은 상황은 다음 인용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보인다.

지금 임금 무진년(1808) 7월, 나는 배탈이 나서 인수옥(因樹屋)의 서헌(西軒)에 날마다 누워 있었다. 그때 어떤 이가 나에게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 몇 편을 보여주었는데, 종이가 닳고 글씨가 이지러져 편하게 읽을 수가 없었기에 번번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문맥을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려보았더랬다. 『고려사』 우왕 2년조 신우(辛禰) 2년에 합포(合浦)의 군사들이 김진(金鎭)을 ‘소주도’(燒酒徒)라 불렀다는 단락을 간신히 이해하고는 마음이 확 풀려 크게 기뻐져서 ‘이것으로 악부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서 자질구레한 소문들을 찾아 살피고 곁에서 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sup>60)</sup>

위 인용문은 이학규가 자신의 영사시집(詠史詩集) 『영남악부』(嶺南樂府)에 쓴 자서(自序)의 서두(序頭)

57) 김광철, 「『고려사』의 간행 유통과 동시대 소장 『고려사』 판본의 특징」, 『석당논총』 54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1~33면.

58) 박종기, 『안정복, 『고려사』를 공부하다』, 고즈윈, 2006. 한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안정복의 장서인이 찍힌 『고려사』 50책이 소장되어 있다.

59) 『麗史』之工, 尙不下手耶? 孺子無長慮達觀, 可歎. 汝書中凡有疑晦者, 無處質問爲恨, 如果此心眞的, 疑之不堪, 思之不耐, 則何不條列錄, 因便寄來耶? 父子而師弟, 不亦樂乎?(정약용, 「答二兒」, 『茶山詩文集』 권21) 정약용은 이 편지에서 『고려사』 공부를 아직도 착수하지 않은 아들들을 책려하며 이 책을 공부하는 일이 원대한 사려와 통달한 식견을 키워 줄 것이라고 했다.

60) 當宁戊辰仲夏, 余有河魚之疾, 日寢卧于因樹屋之西軒. 人有示余鄭麟趾『高麗史』數篇, 紙墨剝缺, 不堪便讀, 輒沿河揣摩. 僅解辛禰二年, 合浦軍謂金鎭爲燒酒徒一段意, 犁然大樂曰: “是可以作樂府矣.” 繼爲尋繹諷聞, 質之傍觀. (이학규, 「嶺南樂府序」, 『洛下生集』 冊6) 번역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영남악부』(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를 참조하여 고침. 이하 같음.

이다. 앞서 척독에 언급된 장마철이 1808년 7월이며, 그가 당시 김해의 인수옥(因樹屋)에서 배탈이 나 칩거하던 중 이웃의 『고려사』를 빌려 읽었음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장마철의 고통은 날씨와 아픈 몸, 닳고 이지러져 판독이 어려운 책의 상태 등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려사』 독서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듯하다.

그는 판독이 어려워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거듭 다시 읽으며 문맥을 추론하는 식의 적극적인 독서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후 그의 시 「소주도」(燒酒徒)의 전고가 될 역사적 사건<sup>61)</sup>을 정확히 파악한 그는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지적(知的) 희열을 느꼈으며, 더 나아가 독서 경험을 악부시 창작이라는 의미 있는 글쓰기로 환골탈태할 가능성을 보았다. 또한 ‘소주도’의 배경이 된 곳이 김해에서 멀지 않은 함포라는 점을 감안해, 민간의 전승 등 그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에도 눈을 돌렸다.

1808년 『고려사』 독서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영남악부』의 창작으로 일단락되었다. 다만 『고려사』의 독서를 『영남악부』의 창작으로 이끌어가는 저술의 과정에서도, 학자로서 이학규의 불안감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증할 수 있을 만큼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 몹시 드물었다. 이 때문에 상주처럼 땅이 넓은 곳의 사건이나 안동처럼 명유석학(名儒碩學)을 많이 배출한 곳의 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빼놓고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조(本朝)와 관계된 일은 이미 사문(事文)을 찾아 상고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일일 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근신하며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연대가 어긋난 것이나 사실관계에서 거짓과 오류가 있는 것, 사람들이 길에서 보고 들어 자세하지 않은 것은 모두 빼버렸다. 간혹 세상을 비난하고 도에 대해 답론한 것은 비록 그것이 싫어할 만한 일임을 알지만 우선 기록해 두었으니, 통달한 이와 운치 있는 선비가 이 책의 허물을 보고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잘못을 알면서도 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따름이다.<sup>62)</sup>

그는 자신이 그 모든 사실을 고증할 수 있을 만큼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려사』에 기록된 영남의 사적 가운데서도 상주나 안동처럼 더 폭넓은 고증이 필요한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악부시의 소재로 삼지 않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후대에 영향을 끼쳐 조선사에 계승되거나 하는 사안 역시 조심스러워하며 저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당히 근신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특정 사안을 배제하여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없애고, 또 연대와 사실관계의 오류를 줄이려 했다.

내용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그의 원칙에서는 학술적 엄정함을 추구하는 저술 태도, 그리고 자료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저술을 하는 학자로서의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우려까지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세상을 비난하고 도에 대해 답론한’ 대목이 독자의 거부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기록해 두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스스로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시킨 자신

61) 이학규가 읽은 것은 『고려사』의 다음 대목이다: “先是金纒爲慶尙道元帥, 大集一道名妓與麾下士, 晝夜酣飲. 纒嗜燒酒, 軍中號曰燒酒徒. 卒伍偏裨, 少忤其意, 輒鞭辱, 衆忿怨. 及倭焚掠合浦營, 衆曰: “可使燒酒徒擊賊, 我輩焉能戰!” 却立不進, 纒單騎遁走, 遂大敗. 於是廢纒爲民流昌寧縣, 尋徙嘉德島, 斬合浦都千戶李東樽, 金元穀.” (『高麗史』 권113 열전 제26 「崔瑩」)

62) 然記誦所及, 考證甚鮮, 是以地廣如尙州, 名碩如安東, 而並闕而無傳. 若其事係本朝, 則既不能探考事文, 又烏知其不妄誕耶? 謹慎之至, 一不及焉. 至如年代之舛差, 事實之僞謬, 或塗人聽見, 而談之未詳而做捨之. 或非世談道, 而知其可厭而姑傳之, 是在乎通人韻士, 觀過而恕情, 識繆而賞音耳. (이학규, 「嶺南樂府序」, 『洛下生集』 冊6)

의 저술이 그렇게 받아들여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순된 심정이 개입해 있다.

『영남악부』에 수록된 시 중에는 그것이 비록 고려 이전의 과거사임에도, 당대 조선의 문제적 현실을 환기하게 하는 작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들은 19세기 벽두 조선 사회의 폐단과 모순을 극단적으로 경험한 끝에 김해에 도달해 척박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그의 내면적 문제의식이 투영된 결과물이 아닐 리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선 기록해 둔다고 하며, 『영남악부』의 독자를 향해서는 그저 허물을 너그러이 보아 주고 본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일견 미봉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관용을 구했다.

예전에 소상(苜上: 소내) 정탁옹(丁籜翁: 정약용)이 호남에 유우(流寓)한 지 6, 7년 되었을 때 『탐진악부』(耽津樂府) 수십 장을 지은 것이 서울에 흘러가 전해졌다. 벼슬아치 중에는 간혹 그것을 비방하여 “이는 참으로 기이한 재주다. 기이한 재주를 지녔기에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입에 올리기에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이 『탐진악부』의 뒤를 이어 내가 또 몇 편의 시를 지었으니 훗날 서울에 흘러들게 되면 벼슬아치들이 무어라 할까? 아아, 말하는 자는 죄가 없으나 듣는 자는 그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니, 이른바 만물은 사람에 따라 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sup>63)</sup>

윗글 중 『탐진악부』가 언급된 대목은 『『영남악부』 서문』 중 가장 널리 회자되는 구절로서, 정약용이 강진에서 쓴 악부시가 당시 서울의 벼슬아치들에게 ‘불길할 정도로 기이한 재주’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등의 괄목할 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구절은 정약용을 조명하기 위한 자료로써 단장취의하여 활용된 면이 없지 않다. 즉 정약용의 성취와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이학규 자신이 “『탐진악부』의 뒤를 이어 내가 또 몇 편의 시를 지었다”(嗣是而余又作爲若干篇)고 한 것이 맞물리면서 해당 구절은 맥락에서 좀 이탈하게 되지 않았나 한다. 이에 이학규의 시세계를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에서도 『영남악부』가 『탐진악부』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고, 이학규 스스로가 주요한 창작동기로서 정약용의 『탐진악부』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가 별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정약용의 『탐진악부』가 「탐진농가」(耽津農歌), 「탐진촌요」(耽津村謠) 등 기속시인 반면 『영남악부』가 영사시로서 서로 달라 두 작품집 사이의 계승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자 영사시인 『탐진악부』가 별도로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문제제기조차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 이학규는 1808년 여름에 『고려사』를 밀도 있게 읽으며 악부시라는 의미 있는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영남악부』라는 독창적인 저술을 완성했다.<sup>64)</sup> 이 책에 실린 「소주도」는 그의 빼어난 성취를 보여주는 여러 예 중 하나인데, 이 시가 『고려사』 「최영 열전」 중의 기사(紀事)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앞서의 언급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대는 소주 먹는 무리 / 나는 매 맞는 노예”(君爲燒酒徒, 我爲籬下奴)로 시작해 “어서 흥측한 대갈통을 가져다 / 그 대갈통 짜개 술그릇 만들어 / 원수와 함께 따르고 마

63) 向見苜上 丁籜翁流寓湖南六七年, 作爲『耽津樂府』數十章, 流傳京輦, 薦紳家或訾之曰: “是誠有異才. 有異才, 所以爲不詳, 不當泚之牙頰也.” 嗣是而余又作爲若干篇, 使異時流入京輦, 則薦紳家又將以爲如何? 嗟乎言之者無罪, 而聽之者有好惡, 所謂物由人貴賤者也.(이학규, 「嶺南樂府序」, 『洛下生集』 冊6)

64) 『영남악부』의 성취에 대해서는 손혜리, 「낙하생 이학규의 『영남악부』 재론」(『영남학』 24권, 2013) 참조.

실 일이지 / 어찌서 우리들을 앞세워 달려나가게 하는가”(急取凶醜顛, 剗其顛以爲飲器. 與元帥載馘載輿, 何必用我輩爲先驅)라고 끝나는 이 시는 폭정에 항거하는 피지배층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sup>65)</sup> 이 시의 어조는 「탐진농가」 이하 정약용의 시와는 분명히 결을 달리 한다.

그렇다면 이학규는 어찌서 “『탐진악부』의 뒤를 이어” 운운 하는 표현을 한 것인가. 글의 맥락으로 보자면 말 그대로 『탐진악부』를 후속하여 『영남악부』를 서울의 지식인 사회에 제출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우리는 바로 앞 단락에서 『고려사』를 기본 자료로 삼아 『영남악부』를 완성한 이학규가, 오류는 없을지, 창작 의도가 독자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세상을 비난하고 도에 대해 담론한’ 내용을 독자가 싫어하지는 않을지 등 책을 내놓기에 앞서 걱정근심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어지는 『탐진악부』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서 이학규가 방점을 둔 대목은 아마도 ‘참으로 기이한 재주다’가 아니라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입에 올리기에 마땅치 않다’가 아니었을까 한다. 자신에게 닥쳐올 독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근심하는 것이다.

‘훗날 서울에 흘러들게 되면 벼슬아치들이 무어라 할까?’, ‘듣는 자는 그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만물은 사람에 따라 귀하게도 되고 천하게도 된다’는 말은 이 단락의 맥락이 『영남악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의식하는 취지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독자의 반응에 대한 이처럼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문인이자 학자로서 당시 이학규가 느끼고 있던 고립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서울의 지식인 사회로부터 응답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들과 연결되기를 갈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가 대상이 된 자 특유의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였다.<sup>66)</sup>

그러나 이학규는 이 글을 맺으며 독자의 반응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작업의 본질이 “본디 있었던 일을 서술하여 진정(眞情)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sup>67)</sup> 이 말은 이학규의 문학 세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명제로서, 온갖 근심걱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으로 자신의 공부와 글쓰기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 4. 『동사일지』(東事日知)가 저술되기까지

65) 이 시의 특별함은 같은 소재로 비슷한 시기에 쓴 윤기(尹檣)의 다음 시와 비교했을 때 더욱 잘 드러난다. “김진이 왜적 막을 때 취해 호령만 했으니 / 조정의 장수 선발 훌륭한 계모가 있었던가 / 군영의 병사들 도리어 무슨 필요가 있을까 / 적을 치는 데 응당 소주도를 시킬 것이니”(金鎭禦倭但醉呼, 朝廷擇將有良謨. 屯營戰士還何用, 擊賊應須燒酒徒)

66) 이학규는 『영남악부』를 통해 서울의 지식인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듯하다. 이하의 편지는 어느 지인에게 『영남악부』를 보내며 쓴 것이다. 독자의 반응과 평가를 걱정하는 어조가 「『영남악부』 서문」과 유사하다: “8, 9년간 견문이 이와 같으니 매번 예전에 여러 군자들이 했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장탄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영남악부』 1책을 올립니다. 간혹 시골 서당에서 흘러온 옛이야기를 가까이 취한 것도 있어, 되레 그대와 같이 안목을 갖춘 이의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까 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대동유사』(大東遺事)와 『여지승람』(輿地勝覽) 등 여러 책과 한 번 대조하여 고찰하시어, 제가 혹 시라도 크게 허술하고 거친 데 이르지 않는지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此呈『嶺南樂府』一冊, 或有近取於邨塾中流來舊說者, 顧不爲如足下具眼者所指笑乎. 望於金富軾『三國史』及『大東遺事』、『輿地勝覽』諸書, 一番攷校, 可知僕或不至於大鹵莽也. 이학규, 「與」, 『洛下生集』 冊10)

67) 向見蒼上 丁籛翁流寓湖南六七年, 作爲『耽津樂府』數十章, 流傳京輦, 薦紳家或訾之曰: “是誠有異才. 有異才, 所以爲不詳, 不當泚之牙頰也.” 嗣是而余又作爲若干篇, 使異時流入京輦, 則薦紳家又將以爲如何? 嗟乎言之者無罪, 而聽之者有好惡, 所謂物由人貴賤者也. 余之作此, 蓋不擇乎體裁之正, 聲律之嚴, 只以叙其本事, 達其眞情, 如香山石湖之爲則庶矣. 又有望其叶之笙鏞之節, 齒之絺繡之文, 以規媚于薦紳諸君子之列乎也耶!(이학규, 「嶺南樂府序」, 『洛下生集』 冊6)

1770년 7월, 이학규의 아버지 이응훈이 사망했다. 그는 '돌 틈을 울리며 흐르는 시냇물 같고, 나뭇가지를 휘감고 지나는 바람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쓰던 청년으로, 남인 문단의 촉망을 받던 문인이었다. 이응훈의 아버지이자 이학규의 할아버지인 이동운 또한 시인으로 명망이 있었던바, 남인 지식인 사이에서 3걸(三傑)의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였다. 이학규는 비록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뵈는 적이 없지만, 그의 3대는 시인으로서의 뚜렷한 계보를 보여준다.

이학규의 친가인 근동(芹洞)의 평창이씨가와 외가인 소정릉동(小貞陵洞)의 여주이씨가는 서울의 서대문 근방에 인접해 살며 많은 것을 공유했다. 이 두 가문은 친, 인척의 관계로 겹겹이 결속되어 있었고, 학문과 예술의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보였던 그 구성원들은 특유한 문화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학규는 이 두 가문을 토양으로 삼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남인 지식인 청년으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학자는 그의 외삼촌인 이가환이었다.

1801년 11월, 그가 몸담고 살던 풍요로운 학문적 공동체와 단절되어 홀로 김해에 도착한 이후로 이학규는 거의 씬 없이 시를 썼다. 그것은 거의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그에게 시를 쓰는 일은 숨 쉬는 것과 같아, 책을 보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것과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32세까지 성호 학파의 계승자로 살아온 이학규에게 삶의 보람은 현실과 이어진 공부였겠으나, 책과 동료에게 배우지 않으며 할 수 있는 공부는 없었다. 이학규는 책도 벗도 없는 상태로 마흔을 앞둔 시점에 『고려사』를 만났으며, 이 책을 간신히 읽으며 공부와 저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1808년 7월, 39세의 이학규는 유배지에서 『고려사』를 읽고 『영남악부』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이제 이학규는 책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을 구비전승이나 유적 등을 통해 보완하여 제대로 된 역사 이해로 다가갈 것이었다. 『고려사』는 학술서에 굶주린 이학규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책이었을 뿐만이 아니다. 낱아서 판독이 어려운 대목이 많고 대조와 보완을 할 만한 자료 없이 홀로 검토해야 한다는 악조건은 그로 하여금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의 공부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이 낱은 책을 귀하게 읽으며 자신이 8년째 살고 있는 김해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1819년, 50세의 이학규가 저술한 『동사일지』는 그의 이러한 작업을 계승한 성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려사』 연구, 지역 연구, 성호 학파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 학술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 둔다. ☞

## <참고문헌>

이학규, 『낙하생전집』(상, 중, 하), 아세아문화사, 1985.

- 이학규, 『낙하생집』(한국문집총간DB)
- 이용휴, 『탄만집』(한국문집총간DB)
- 목만중, 『여와집』(한국문집총간DB)
- 정범조, 『해좌집』(한국문집총간DB)
- 신광수, 『석복집』(한국문집총간DB)
- 황덕길, 『하려집』(한국문집총간DB)
- 황윤석, 『이재난고』(장서각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 이학규 저, 정우봉 편역, 『아침은 언제 오는가』, 태학사, 2006.
- 이학규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영남악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 이학규 저, 박정희 역, 『동사일지』, 한국국학진흥원, 2016.
- 이용휴 저, 조남권, 박동욱 역, 『혜환 이용휴 산문전집』(상, 하), 소명출판, 2007.
- 이용휴 저, 조남권, 박동욱 역, 『혜환 이용휴 시전집』, 소명출판, 2002.
- 이용휴, 이가환 저, 안대회 편역, 『나를 돌려다오』, 태학사, 2003.
-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역, 『추안급국안』(73~79), 흐름, 2014.
- 平昌李氏大同譜 編纂委員會 編, 『平昌李氏大同譜』, 平昌李氏大宗中, 1978.
- 대동문화연구원 편, 『南譜』(1~3), 학자원, 2016.
- 강문중, 「『耽羅聞見錄』을 통해 본 18세기 제주인들의 생활상」, 『제주도연구』 57권 1호, 제주학회, 2022.
- 고연희, 「尹德熙의 <책 읽는 여인>에 나타나는 젠더의 특성」, 『대동문화연구』 118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22.
- 구만옥, 「동아시아 지식세계와 마테오리치; 마테오 리치(利瑪竇) 이후 서양 수학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10.
- 김광철, 「『고려사』의 간행 유통과 동아대 소장 『고려사』 판본의 특징」, 『석당논총』 54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 김하라, 「낙하생 이학규 서간문의 자기서사적(自己敘事的) 특성」, 『민족문학사연구』 27권, 2005.
- 민관동, 「『三国志演義』의 國內 流入과 出版」, 『중국문화연구』 24호, 중국문화연구학회, 2014
- 민관동, 「中國古典文學의 국내 出版과 판본 분석」, 『국제중국학연구』, 한국중국학회, 2019.
- 박동욱, 「李左薰 한시에 나타난 비애 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35집, 2008.
- 박종기, 『안정복, 『고려사』를 공부하다』, 고즈윈, 2006.
- 박혜숙, 「이학규의 악부시와 김해」, 『한국시가연구』 6집, 2000.
- 손혜리, 「낙하생 이학규의 『영남악부』 재론」, 『영남학』 24권, 2013.
- 심재우, 「1801년 천주교 유배인의 현황과 유배지에서의 삶: 『邪學懲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7집, 2019.
- 이강욱, 「김해 여성과 이학규의 시 세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2006.

- 이국진, 「李學逵 漢詩의 표현기법과 미적 특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기봉,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008.
- 이은주, 「申光洙 「關西樂府」의 大衆性和 繼承樣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성희,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5.
- 정은주, 「19세기 星湖學派 문인의 문물 고증과 기록」, 『東事日知』, 『한문고전연구』 31권 1호, 2015.
- 정은주, 「실학과 지식인의 물명에 대한 관심과 『物名類解』」, 『한국실학연구』 17호, 2009.
- 정은주, 「洛下生 李學逵 文學의 變貌 樣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정은주, 「조선 후기 家蓼 재배와 『蓼書』」, 『한국실학연구』 24호, 2012.
- 황수연, 「杜機 崔成大的 民謠風 漢詩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main.do>)
- 『추안급국안』(<https://kyudb.snu.ac.kr/pf01/renderImg.do>)
-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이학규 작품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여성

김보경(인제대)

1. 서언
2. 김해 주변부와 여성
3. 하민 속 여성과 대상화된 여성
4. 여성(삶)의 초점화, 해원과 격상
5. 결론: 여성과 주변부 양식

### 1. 서언

19세기 초, 서울 사람 李學達(1770-1835)는 남쪽 끝, 바다에 접해 있는 김해에서 24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다. 지형학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의 낙후성이라는 점에서, 김해는 서울/중심에 대하여 지역 그리고 영락없는 ‘주변부’의 위치에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이란 말도 쓰겠지만 이 ‘주변부’를 핵심 용어로 사용하려고 한다. ‘주변부’는 중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력과 부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부차화된 집단의 지위(고병권)를 선명히 드러내 주는데, 이는 이학규의 유배기 삶과 작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유배기간 동안 이학규의 가문은 몰락하고 경제적 상황은 극한에 처했다. 그는 가족들(자식, 어머니, 아내)을 차례로 잃고 신체와 심리적 건강까지도 상실했다. 그 자신이 중앙 지식인에서 밀려나서 철저히 주변부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학규는 김해 지역민, 하민과 뒤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풍속, 노동, 사건들을 작품으로 대거 수용했다. 이학규 문학의 의미 있고 특징적인 성과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것은 이런 작품들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작품들 가운데 여성을 소재·주제로 한 작품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주변부라는 개념에서 보면, 김해에서 만나거나 작품화한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로컬 중에 로컬, 주변부의 주변부(the periphery of the periphery)이다. 이 주변부 여성들의 발견, 주변부 여성들의 작품화는 이학규

문학의 알짚이고 이에 대한 파악이야말로 그의 문학과 미의식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 여성 관련 작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서는, 의외이다 싶게 여성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학규의 부인과 후실의 제문, 민요 수용 한시, 악부시와 관련하여 여성 주제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들이 산견되는 정도이다. 여성 주제를 단독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이강옥(2006)의 논문이 유일한 듯하다.<sup>1)</sup> 중심/주변의 관점에서는 악부시가 주변부에 불과했던 지방이나 민간세계에 관심과 새로운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종래의 중심/주변의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중심/주변의 관계로 나아가려는 당대의 역사적 추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논급한 박혜숙(2000)<sup>2)</sup>의 연구가 주목된다.

주변부는 분열성과 함께 역동성, 생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간이다. 이런 점은 이학규 작품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그 성격과 의의를 구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본고는 이학규의 시문에 나타난 여성들을 고찰하되 이를 주변부(삶)라는 문제 속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과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 그것이 갖는 미학적 의미, 문학사적 함의를 탐색하는 데까지 나아가 볼 생각이다.

## 2. 김해 주변부와 여성

### 2.1. 주변부 의식

‘주변부’는 상대성을 가지며 중심/주변은 수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sup>3)</sup> ‘서울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학규의 거주지는 서울의 노른자는 아니었다. 집안의 세거지는 인천이었고, 그 자신은 서울 황화방(정동) 외가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조부 때부터 살았던 반송방(서소문 밖) 본가로 돌아왔다. 반송방은 西郊에 있었는데, 서교 등 도성 밖 사방 교외는 도성 내 거주민의 생활을 지지하는 보장지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sup>4)</sup>

우리 집안의 자식들과 조카들은 태어나서 조상들의 벼슬한 자취를 보지 못하였고, 외진 마을에서 성장하였으니,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견문은 얼마 안 되는 녹봉을 구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의론은 과거 시험에 붙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결국에는 이러한 몰락한 양반이 될 뿐이겠지요.<sup>5)</sup>

1) 백원철은 이학규의 생애와 작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민요 수용시의 문학세계에서 여성의 문제(여류정서의 수용, 남녀애정세계의 긍정)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 연구』, 보고사, 2005. 이강옥(2006)은 두 부인과 옥섬섬, 풍속과 노동 속의 여성을 살피고, 청각적 상상력을 여성의 정조와 관련지어 논했다. 이강옥, 『김해 여성과 이학규의 시세계』, 『한국고전문학』 12, 한국고전문학회, 2006.

2) 박혜숙, 『이학규의 악부시와 김해』, 『한국시가연구』 6, 한국시가학회, 2000, 170면.

3)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행, 2006, 22면.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는 세계체제, 지역적 세계체제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일국적 상황에서도 재연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도 서울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고, 서울-부산-김해의 관계를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에 대비할 수 있다.

4) 이왕무, 「<한성원망도>에 묘사된 19세기 후반 한양 도성 서교의 풍경」,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06면.

5) 『낙하생집』 10책, 因樹屋集, <與>. “吾家子侄輩, 渠生而不及見祖先仕宦之迹, 成長窳閭, 既貧且賤. 見聞不踰乎升斗乞貧, 議論不出乎黍稷科第, 其終爲此輩寒賤而已矣.”

이학규의 집안은 조출한 정원과 천여 권 장서, 영서 지방에 약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청빈한 수준이라 할 수는 있어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 스스로 주변부 의식을 끼고 있었다. 고백에 따르면, 선조들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그 집안의 자손들은 ‘窮閭’에서 성장한 ‘貧賤’한 처지였다. 견문과 의론도 변변찮은 녹봉을 구하거나 과거 시험에 붙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결국 ‘寒賤’한 처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다 급기야 그는 남쪽 끝 김해에 유배되어 완벽한 주변부의 삶을 살게 되었다. ‘窮鄉寒賤’<sup>6)</sup>이란 말에 그때의 처지가 집약되어 있다.

아아! 남쪽으로 유배를 와서 지낸 지 20년이 되는 동안 혹독한 형벌이 남보다 심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이곳은 바닷가의 외진 곳이어서 문인과 장서가라곤 아예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시골 훈장이 물려받은 자질구레한 책들과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보잘것없는 책들일 뿐입니다.<sup>7)</sup>

유배지에서 20년을 보낸 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혹독한 형벌이 남보다 심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하늘에 원망을 퍼부었다.<sup>8)</sup> 바닷가 외진 곳[海曠]이어서 문인과 장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초상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만시를 구하러 왔고 있는 집은 제문까지 청했다. 그는 이 조그만 고을에 글자깨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탄식했다.

지역적으로 중심부에서 바다 끝으로 추방, 가문의 철저한 몰락, 가족과 인간관계의 단절, 가난과 이질적 환경, 문화적 낙후성은 주변부 삶의 표지들이다. 특히 문화적 낙후성은 같은 시기 호남에서 유배를 살고 있던 다산도 겪지 못했던 고난이었다. 스스로 탈출구가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중심 세계로부터 완벽한 추방자, 철저한 주변부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아아! 우리들은 곤궁하고 비천한 사람들일 뿐이지요. 하루 걸러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할까 걱정하는 형편인데, 어찌 보리밥을 꺼리고 막걸리를 마다할까요?<sup>9)</sup>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시문에는 여름이면 더위, 겨울에는 추위, 빈대, 비린내, 뱀, 가난과 질병 등으로 시달리고 술·담배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제약된 삶에 대한 괴로운 심정이 표백되어 있다. <譬解八則>에 나열된 불행한 사람들의 목록은 바로 자신의 변형된 모습들이었다.<sup>10)</sup> 그가 주변부 삶을 작품화한 것은 풍속 관찰 목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이 막걸리, 보리밥도 감지덕지하며 사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배 짜는 여인, 농부, 도공, 점쟁이, 무당, 의원(<火賦>)<sup>11)</sup>이고, 짚신 삼는 사람, 길쌈

6) 『낙하생집』 10책, 因樹屋集, <與>. “窮鄉寒賤家, 喜聞朝廷大官權位升沈.”

7) 『낙하생집』 15책, 文漪堂集, <俞丁參議若鏞書>. “嗟乎! 居南二十季間, 酷罰偏苦, 無復人理. ... 海曠絕無文士及貯書家, 縱有之, 不過冬烘夫子領受鱒魚, 羹教授免園冊者耳.”

8) 위의 글. “有貽罹其親如某者乎! 重勞其親如某者乎! 遺疾病飢寒于其親如某者乎!”

9) 『낙하생집』 10책, 因樹屋集, <答>. “嗟乎! 吾輩窮且賤者耳. 俛日一粥, 猶患不給, 況何忌乎麥, 何厭乎濁者乎?”

10) 『낙하생집』 4책, 因樹屋集, <譬解八則>. 寒時·熱時·飢時·渴時·愁時·悶時·憂時·病時.

11) 『낙하생집』 4책, 因樹屋集, <火賦>.

하는 사람, 부서진 쟁기와 따비 들과 솥돌에 가는 사람, 술내기 마둑 두는 사람, 도롱이 깔고 삿갓 뒤집어 쓴 채 자는 사람, 짐 내려놓고 부채 부치면서 고향의 풍속과 속담, 농사, 고기잡이, 염전 등을 화제로 삼는 사람들이다.(〈觀風亭記〉)<sup>12)</sup>

저는 궁벽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魚·魯를 겨우 구분하고 帝·扁를 헛갈려 합니다. ...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했지요. 배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낡은 옷을 입고도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지요. ... 저는 태어나서 얼굴도 못 생기고 체구도 작습니다.<sup>13)</sup>

위 글의 주인공인 권자상은 김해의 아전이다. 사는 곳의 궁벽함, 魚·魯를 겨우 구분하는 무식함, 가난함, 거기에 ‘저열한 외모’까지, 토박이 주변인의 자기 고백서이다. 이학규는 주변부의 삶을 보고 들은 대로 작품으로 썼다.<sup>14)</sup> 그리고 이들을 가까이하면서 점차 그들에게 공감하고 자신에게 베푸는 그들의 인정에 감사해 하기도 했다.<sup>15)</sup>

■ 유배지에서 생활은 이학규의 문학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지역, 일반 백성, 풍속 같은 것이 소재, 제재가 되고, 양식 선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중심주의적 사유에서 주변부에 대한 관심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의 삶과 김해 주변부 삶이 부딪히고 섞이면서 주변부 문학이 만들어지고 그의 문학관<sup>16)</sup>과 미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 2.2. 여성 인식의 기저

■ 이학규 작품 속의 여성은 크게 가족 여성과 역사·전설 속의 여성, 그리고 김해에서 만난 여성들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전설 속의 여성들은 기생, 하민 같은 낮은 신분도 있지만 궁중의 여성, 상류층 여성들도 많다.<sup>17)</sup> 반면 유배기에 직간접으로 접한 여성들은 하민들이 대부분이다. 뒤에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런 하층 여성들에 대한 기본 정조는 연민과 공감이다.

그런데 유배시절에 하층 여성을 많이 접하고 관심과 공감이 증폭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들이 이미 가까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 아내, 누이와 같은 가족 여성들이다.

이학규는 아내가 죽은 지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문을 지었다. 이해 추석이 되자 마을의 온갖 사람들이 저마다 음식을 싸들고 산소를 찾아가 차례를 지냈다. 부자도 있지만, 아전, 군졸, 수의사, 말구종, 떡장수, 주모 같은 그저 그런 동네 사람들이 그의 이웃이었다. 그 틈에 끼어 자신도 아내를 위해 술 한 잔 올리노라

12) 『낙하생집』 19책, 卻是齋集, 〈觀風亭記〉.

13) 『낙하생집』 12책, 菜花居集, 〈錦雞巢記〉.

14) 『낙하생집』 5책, 因樹屋集, 「菴亭紀事詩并序」. “一事一物, 亦不外乎聽見於菴亭.”

15) 『낙하생집』 12책, 菜花居集, 〈中夜苦熱, 走尋沿街酒壚, 計口占三十八韻, 遂不次第〉. “感茲邨俗淳, 歎曲見未曾. 久坐稍噫欠, 劇醉但摩膺. 引我起納履, 掖我越溝塍. 歸來睡一覺, 城上鼓鑿鑿.”

16) 문학관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 참조. 정우봉, 「이학규의 문학론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참조.

17) 선덕여왕, 김유신 누이, 낙화암 궁녀 등. 역사 속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에 진행할 계획이다.

했다.<sup>18)</sup>

이 제문은 이학규가 썼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말’을 실음으로써 어머니와 아내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같은 효과를 만들었다. (말하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나는 또한 몸이 허약해 병에 잘 걸렸는데 잠이 깊이 들면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 비록 내가 어리석어 장성하여 처자식을 두어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곤 했다오. ... (아내)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되면 부모와 헤어진답디다. 하물며 모실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형제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더 말해 무엇하겠나요?”<sup>19)</sup>

어머니는 李用休(1708-1782)의 딸이다. 남편이 22세의 나이로 죽은 뒤 혼자 몸이 되어 이학규를 키웠다. 유복자 이학규도 측은하지만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처지도 가련한 것이었다. 유배시절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신 사람이 아내였다. 이학규는 지난 에피소드를 들어 아내를 회상하면서 그리움, 슬픔, 미안한 마음을 절절히 토로했다. 아내는 나주 정씨(정약용 가문)였다. 그런데 가난하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제자매도 없는 외로운 처지였다. 그는 가난하지만 아내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서로 보지 못하는 사이에 생사를 달리하게 된 상황을 깊이 슬퍼했다.

아내가 죽은 뒤 이학규는 동네 노파의 중매로 김해 하층 여성인 강씨와 다시 혼인했다. 후실은 김해 토박이로 전형적인 주변부 여성이었다. 어려서 매 맞고 자랐고 형제 부모도 없으며 글도 모르는 하민이었다. 이 강씨와의 만남은 주변부 삶, 주변부 여성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sup>20)</sup>

거슬러 올라가면 유배 전에 그는 누이를 위한 제문을 쓴 적이 있었다(1790년). 누이는 이용휴의 친소녀이다. 이학규가 어려서 지켜본 누이는 영리했고 시집 간 뒤에도 용모와 덕행으로 칭송받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지 열흘도 안 되어 죽고 아들도 돌이 지나 죽었다. 공교롭게도 김해에서 만난 후실도 출산한 지 열흘이 못 돼 세상을 떠났다.

■ 어머니, 아내, 후실, 딸, 그리고 누이는 가족의 이름으로 이학규와 이어진 여성들이다. 이들의 삶은 신분을 초월하여 조선의 소외된 여성 연대기처럼 보인다.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고독한 처지였고(어머니, 아내, 후실), 여성이기에 겪어야 하는 출산의 고통, 그로 출산 후유증으로 인한 죽음(누이, 후실)을 겪었다. 이런 가족 여성과 함께하면서 그는 여성의 삶,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소원(아내-우리 부모님 산소를 보살펴 주세요)과 여성들의 공포(후실-킴킴한 밤이 무서워요)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학규의 여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정서는 누이, 어머니와 아내, 후실 같은 가족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두 아내와 누이에 대해 제문(추도문)을 지어 그 일생을 정리하고

18) 『낙하생집』 14책, 文漪堂集, <擬祭丁孺人文>. “洛下生之居南二十季庚辰, 其亡婦孺人丁氏, 就窀穸後六季也, 其仲秋十五日戊戌, 凡邑之上戶·掾胥·軍校·暨牛醫·馬廝·餅師·酒媪之倫, 俱得具魚蔬酒果, 男負女荷, 登山澆墳墓, 祭弔亡魂, 生有隱恫至哀, 不能自抑, 迺爲文, 擬酌其亡婦窀穸之所.”

19) 위의 글.

20) 이웃노파의 중매. “형제도 없고 친부모도 없는 몸.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해 남들 괘시를 막으세요.”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것은 이들 여성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인정의 최대한의 표현 방식이었을 것이다.

아아! 몸이 한 번 꺾어져 멀고 거친 땅에 귀양오자, 날로 떡장수 술집노파와도 ‘너 나’ 하는 사이가 되었다.<sup>21)</sup>

이학규는 떡장수와 술집 노파(이 둘은 주변부 인물의 대명사로 시문에 자주 등장한다)와 ‘너나들이’를 할 사이가 되었다. 이학규가 유배시절 만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대부분 무명씨들이다.<sup>22)</sup> 그의 작품에는 평범하고 비천한 이름 없는 여성들이 논, 산, 바다, 염전, 빨래터, 길거리, 주막, 시장 등 지역의 구석구석 장소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출현한다.

■ 본고에서는 이학규 작품의 여성 문제를 ‘주변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는 주변부, 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정과 공감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주변부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부정적·비판적 입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주변부라는 공간 자체의 특성(분열과 역동성), ‘19세기 초, 김해’라는 시기적·지역적 특성, 그리고 이학규의 여성 인식의 다층적 성격 내지 경향성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작자가 여성(삶)을 시선의 초점 바깥에 두는가 안에 두는가를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서, 그 양상과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다.

### 3. 하민 속 여성과 대상화된 여성

#### 3.1. 하민/여성 그리기와 사회적 고발

■ 먼저 하민 속에서 여성이 그려지고 있는 경우들을 살펴본다. 이때 여성은 남성과 특별히 분리되지 않은 채 하민의 일원으로서 계급적 속성을 내재한다. 하민으로서 삶의 평범성을 드러내는 작품에서 이런 양상이 흔히 드러난다. 주제의 강렬함이나 성과면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고통받는 하민으로서 계급적 속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작품들이다.

<기경기사시>는 다산의 <전간기사>를 읽고 경상도의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받는 하민들을 읊은 기사시이다.<sup>23)</sup>

금주한다고 향아리는 깨지 말고  
술마셨다고 함부로 때리지 마오.  
장정은 군대에 집어 넣고  
부녀는 기생으로 끌고 가네.

21) 『낙하생집』 11책, 茶花居集, <感舊紀恩三首並序>. “嗟乎! 身名一敗, 竄伏荒徼, 惟日與餅師酒媪爲余汝之交.”

22) 유일환 예외는 덕혜라는 여종이다. 이학규는 그에 대해 전기를 지었다. 『낙하생집』 3책, 因樹屋集, <德慧小傳>.

23) 擊鼓·龜山·毒龍·朝霧·虎狼·役夫·夜寒·采蒿·江水·破甑·糶米·槁苗·賑粥·北風·力作.

禁酒莫破甌 飲酒莫浪咎  
 丁男充伍伯 婦女妓帽綉<sup>24)</sup> - <破甌>

「기경기사시」 중 ‘破甌’이다. 이 시의 서문에 의하면 큰 흉년을 만나 조정에서 금주령을 내렸는데 수령 자신은 그 영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만 엄한 법으로 하민들만 확대하여 해친다[虐害下民]고 했다. 이 시는 ‘愚頑’한 하민들의 입을 통해 스스로 고통을 하소연하게 했다. 당에 앉아 거드름 피는 수령과 당 아래의 우완한 하민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이를 樂/悲, 辛苦/甘飴로 감정적 대립 구도로 형상화했다.<sup>25)</sup> 이런 류의 작품에서 남성과 여성은 다같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권력에 의해 수탈당하고 고통받는 하민으로서 묘사된다.

아내나 자식간의 인정이 있기에  
 죽든 살든 서로 힘껏 따를 뿐이지  
 한 몸을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여  
 가다 앉자 또 다시 갈림길에 다다랐네.  
 아내에게 머릿속 이를 잡게 하노라니  
 두 줄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  
 惟有婦子情 生死力相隨  
 一身去無托 行坐且臨歧  
 教婦捻頭蝨 汪狀雙涕垂<sup>26)</sup> - <飢民十四章章十句> 제9장

<기민>은 땅을 잃고 집을 떠나 유랑하는 하민들의 처지를 묘사하고 그들의 절규를 읊은 시이다.<sup>27)</sup> 이 시의 화자는 남편이다. 죽든 살든 처자식과 함께하려 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마침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갈림길에서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다[汪狀雙涕垂]. 권력의 횡포 앞에 하민들의 무력한 모습을 표현한 이 말은 <催租行>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sup>28)</sup>

우리 모두 하늘의 백성인데  
 내 생애는 어찌 이리 되었는가!  
 同是天之民 予生胡爲乎 - <飢民十四章章十句> 제14장

■ <기민>의 마지막 14장은 이런 절규로 마무리되었다. 이 시는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결국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희생이나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압적 행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sup>29)</sup> 이 작품이 남성 화자로 설정되어 있고 여성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부

24) 위의 시, <破甌>.

25) 위의 시. “府主一何樂, 愚頑一何悲! 愚頑長辛苦, 府主長甘飴.”

26) 『낙하생집』 7책 因樹屋集. <飢民十四章章十句> 제9수.

27) 이 시의 부분적 번역과 해석은 이강욱, 「낙하생 이학규의 문학과 조선후기 김해」, 『지역문학연구』 10, 경남부산지역문화학회, 2004, 162-165면 참조.

28) 『낙하생집』 5책, 因樹屋集, 「菴亭紀事詩」, <催租行>. “一身去無托, 汪狀雙涕垂.”

29) 선행연구에서는 시선이 남자 쪽에 고정되어 있어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보여 주지만 그 아내와 아이의 말로를 살피지 않는다며 시적 화자와 여인 사이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강욱(2006), 118면.

차화되고 그 고통도 간접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는 남성/여성의 문제 이전에 지배체제의 압도적인 횡포에 신음하는 하민들을 문제 삼은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경기사시」 <采蒿>는 불타는 듯한 가뭄 속에서 쭉 캐는 여인의 고난을 읊은 시이다. 이 시에는 앞과는 반대로 여성 화자가 내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남성/여성의 문제는 아니다. 가뭄에 영·호남의 구분이 없듯이 이런 고통은 모든 하민들에게 공통된 것이다.<sup>30)</sup> 더 취약한 존재를 통해 하민의 고통을 부각해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생각한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성 삶을 초점화, 직시하는 작품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뭄, 흉년 같은 재난,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 수탈, 세금에 고통받는 하민들의 고난은 일반 하민들에게 모두 닥치는 재난이다. 그중에서 세금<sup>31)</sup>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민들을 가장 억압하는 제도이다. 「해동악부」의 <職稅令>은 고려시대 영남 땅 효녀가 아버 주검을 안고 죽은 일을 읊어서 조세 제도의 폭력과 하민들의 원통함을 고발한 작품이다.<sup>32)</sup>

양수척이여!

너 또한 사람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남아로 태어나면 사내종이 되고

여아로 태어나면 계집종이 되느냐

楊水尺!

汝亦人之子 胡爲乎生男爲人奴 生女爲人婢?<sup>33)</sup> - 「해동악부」 <楊水尺>

아무리 천한 양수척 같은 “사람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들”도 다 같이 “하늘이 낸 백성이며 사람의 자식이다[天之民人之子].”<sup>34)</sup> 이것은 ‘인간 선언’이다. 근대적 평등 관념은 아니지만 인간 존중의 근본 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이런 작품들에서 여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성과 거의 분리되지 않은 채 하민이 일원으로서 그려진다. 사회적 위치상 여성이 받는 핍박의 강도가 더 크고 여성이 더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여성은 남성과 함께 ‘虐害下民’-사회 계급적 모순 관계 속에서 핍박받는 피지배층의 존재이다. 이런 작품들은 諫·譏와 같은 대사회적 비판과 계급적 모순의 고발 형식을 띤다.

### 3.2. 여성의 대상화와 풍속적 비판

30) 『낙하생집』 8책, 因樹屋集, 「己庚紀事詩」, <采蒿>. “采蒿, 閔荒也. 按籜翁采蒿詩序曰, 未秋而飢, 野無青草. 婦人采蒿, 以當食焉. 蓋己巳之旱, 湖嶺大同, 而湖爲尤甚云.”

31) 『낙하생집』 5책, 因樹屋集, 「菴亭紀事詩」, <催租行>. “夙昔賦見官, 見官卽箠笞. 婦女遭囚絏, 何以任調飢?”

32) 『낙하생집』 17책, 秋樹根齋集, 「海東樂府」, <職稅令>. “妻孥自不保, 山澤悉遭難. 君不聞嶠南孝女抱父屍, 禿頭痛哭歸黃泉.”

33) 위의 시, <楊水尺>.

34) 위의 시, <楊水尺>. “楊水尺! 苟亦天之民人之子, 中藏怨毒固其理.”

■ 이번에는 여성을 원경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작품들을 살펴본다. 위의 하민/여성과 사회적 고발을 보여 준 작품과는 여성에 대한 태도가 대척적 위치에 있지만, 여성이 작자의 초점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런 작품들에는 19세기 초, 김해 지역의 변모한 시대적 분위기, 변질된 풍속을 바라보는 이학규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김해 주변부 삶과 여성의 또 다른 측면, 그에 대한 이학규의 시선을 이런 작품들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길쌈 안 하는 아낙네와 짐바리 안 싣는 소  
 옛 고장 김해로 낙원 찾아 몰려왔다.  
 女不織紵牛不馱 都來樂國古金州<sup>35)</sup> - 「금관기속시」 제52수

「금관기속시」의 한 편이다. 이학규는 自註에서 김해에 속칭 한가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장날에 놀고 먹는 날일꾼, 길쌈 안 하는 아낙, 그리고 짐바리 안 싣는 소이다.<sup>36)</sup> 여기에서 ‘한가함’이란 달리 말하면 직무유기이다. 이 시는 기속시이기에 작자의 비평적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 시만 보면 낙천적이고 각박하지 않은 민중들의 마음씀을 해학 속에 잔잔하게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sup>37)</sup>

그런데 산문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노골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이학규는 아무개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해에 좋은 곳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시작하며 품수자, 남자, 그리고 여자를 차례로 비판했는데, 비판의 요점은 각 직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up>38)</sup> 남자들 중에는 과거에 응시할 만한 자가 없고 모여서 서로 속이고 빗놀이를 하는 따위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酒食을 의논하지 않고 베짜기를 돌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김해에 좋은 베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음 시에서는 비판 수준을 넘어서 여성 비하적 인식과 표현이 나타난다.

좁은 폭 삼베치마 속옷도 못 가리나  
 땅아서 묶은 머리 맵시는 있다네.  
 타고난 모습이나 앵두 같은 입술인데  
 어쩌다 스치면 마늘 냄새 풍긴다네.  
 窄幅麻裙不掩褲 絀來髻髻態猶存  
 生來自是櫻脣女 一陳風前蒜臭歎<sup>39)</sup> - 「금관기속시」 제22수

이학규는 이 시의 自註에서 치마 길이가 허벅지를 가리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덧머리를 하지 않으며 파나 마늘을 즐겨 먹어서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수준의 여성 비하

35) 『낙하생집』 13책, 海榴菴集, 「金官紀俗詩」 제52수.

36) 위의 시, 自註. “俗稱邑有三閑, 謂女不織紵, 牛不馱載, 市日傭雇休暇, 不耕不樵, 惟事醉飽也.”

37) 백원철(2005), 175면.

38) 『낙하생집』 10책, 因樹屋集, <答>. “金官有何好處! ... 其爲女子者, 不議乎酒食, 不恤乎織紵. 所以此鄉無佳齋美醬及絨線紬布. 惟鳩食甚, 惟雉求牡, 從相摘發, 恬不爲恥, 朝夕惟噉蔥蒜, 臭不可近. ... 女子不辮髮館髻, 以飛蓬鬢髻爲姣好, 買牛不以負載, 以楨肩擔荷爲勤儉. 閨女而麻褌, 則謂與僧姪, 躡芒屨則任之.”

39) 『낙하생집』 13책, 海榴菴集, 「金官紀俗詩」 제22수.

적 발언이다.<sup>40)</sup>

■ 여성에 대한 역할 규정과 직분 유기에 대한 비판을 보면 이학규의 여성 인식을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 대상화, 여성 비하적 발언은 위협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주의되는 것은 이런 작품은 대체로 기속시류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변부의 여성들, 특히 19세기 초 변질된 농촌 공동체, 변화한 세대 속에서 ‘타락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풍속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기속시들은 보여 주기에 더 주력하는데 몇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정 용어를 사용해 비평하는 예들이 보인다. 특히 그가 비판적으로 본 여성들은 주막집의 여성들이다. 주막집은 주변부 사람들의 풍속을 집약해서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생활 범위에 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물들인 담뱃대는 울금빛이 번쩍이고

작은 찻지 대통에 태극무늬 담배함

**부끄럽다** 저 주막집 여인네들

한발 되는 긴 담뱃대 물고 있다네.

染成煙竹鬱金光 小袋烏銅太極匣

媿爾當墟三五女 也須啣著丈來長<sup>41)</sup> - 금관기속시 제20수

주막집에 앉아 보란 듯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여성들을 묘사한 시이다. 김해의 울금빛 꽃무늬 담뱃대는 영남 밖까지 이름이 났던 모양이다.<sup>42)</sup> 그런데 이 시의 관심사는 담뱃대가 아니라 그 사치스러운 담뱃대를 물고 주막집에 나왔은 여성들이다. 그는 이 여인들에 대해 ‘부끄럽다[媿]’라고 했다. 사치스러운 풍속, 변질된 세태에 대한 시인의 비평일 텐데 이것이 풍속 전반이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작자는 치마가 짧은 여성이나 담뱃대를 물고 나왔은 주막집 여성에게서 유교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발랄한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하지는 않다.

또 다른 시에서는 아전도 아니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주막집 계집과 놀아나는 마을 사람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주막집 계집은 남성들의 풍류의 대상, 타락한 풍속의 일부로서 취급된다.<sup>43)</sup> 이런 작품들은 일종의 풍속 비판, 현상에 대한 비판, 특히 풍속 속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고 있다. 풍속이 변질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상화된 여성의 또 한 부류는 기생이다.

동당 동당 동당

호남 기생 해서 창녀

한 불당에서 어찌 내 사당 네 사당 다투느냐.

사람 많은 곁에 처해 있으면

40) 위의 시, 自註. “女子之裙, 長不踰脛, 闊不掩髀, 恒居不用假髻, 尤喜食蔥蒜, 臭不可近.”

41) 『낙하생집』 13책, 海榴菴集, 「金官紀俗詩」 제20수.

42) 위의 시, 自註. 府內染鬱金花斑竹, 名於嶺外, 他郡多效之, 皆不能及.

43) 위의 시, 제31수. “何限風流墟上女, 打餅壓酒過三冬.”

물래 손을 넣어 치마를 더듬으니  
 너는 한 푼에도 허락하는 계집이요  
 나는 온 세상을 떠오는 한량이지.  
 簪鐙簪鐙 湖南退妓海西娼  
 一佛堂何爭我社堂汝社堂  
 箇處人海人山傍 暗地入手探裙裳  
 汝是一錢首冑之女娘 我又八路不闌之閑良<sup>44)</sup> - <乞士行>

<걸사행>이란 작품이다. 사당 무리인 걸사들이 거느리고 다니는 여성들을 읊은 시이다.<sup>45)</sup>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교만한 상청의 기생, 거들먹거리는 관청의 서리배”<sup>46)</sup>처럼 공감의 대상이 아닌 부정적 시선,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 그의 작품에는 기생을 읊은 시가 제법 있다. 감정 개입 없이 풍경처럼 묘사한 것도 있고 노골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개입해 묘사한 경우도 있다. 잔치 자리에 화장하고 들러리 선 기생들, 가악하는 기생들이 소품처럼 자주 등장한다.<sup>47)</sup>

#### 4. 여성(삶)의 초점화, 해원과 격상

##### 4.1. 직시를 통한 공감과 역동성 생성

앞에 살펴본 두 경우는 여성에 대한 공감 인식과 태도에서는 상반되지만 여성을 초점 바깥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제 살펴볼 것은 여성(삶) 자체를 초점화하여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작품화한 예들이다. 이 작품들의 여성들도 물론 하민의 일원이되 이들을 초점화함으로써 그 존재가 선명하고 강력하게 부각된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생활체험 속의 여성을 초점화하면서 연민과 공감을 표하는 경우이다.

이학규는 김해에서 접한 여성들의 삶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작품화했다. 예컨대, 자기가 거주하던 고정 주변 하민들의 모습을 읊은 「고정기사시」에는 여성의 구체적인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 범위는 여성들의 빨래, 산유화, 나물 캐기, 염전 노동, 친정 음식 보내기(送饌詞), 모내기, 실켜기(縑絲行), 더듬이질(擣衣詞), 디딜방아질(躡碓詞), 실갠기(紡車詞)와 같이 가사, 노동, 시집살이 등 여성의 생활체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44) 『낙하생집』 18책, 拾遺, <乞士行>.

45) 머리를 깎지 않고 중 행세를 하는 이들 걸사들에게는 또 아내가 있어 거느리고 다녔는데 곧 그들을 사당이라 불렀다 한다.

46) 『낙하생집』 8책, 因樹屋集, 「己庚紀事詩」, <破甌>. “驕恣上廳妓, 豪逸府胥兒.”

47) 『낙하생집』 9책, 因樹屋集, <霖雨鹵齋十五首>. “妓筵胡粉氣, 朋酒菊花朝.”; 같은 곳, <草梁倭館詞>. “倭呼女娘, 爲鴛鴦鬼. …, 不愁鑪臚輸歌妓, 新覓東洋水雉來.”

분주 성 밖엔 강물 드넓은데  
 분주 성 안에선 피고리가 우네.  
 분주의 여인들 빨래하러 가는데  
 이고 지고 온 성읍이 들썩이네. (중략)  
 물 뚝뚝 떨어지는 손 햇볕에 말리는데  
 풀빛 치마 이리저리 펼터이다.  
 내일 아침 비 내리면 새 일거리 생기지  
 모내기 한 강둑 눈에 햇살이 내리는데  
 농삿일 시작되는 흙투성이 옷  
 차가운 물에 팔뚝 시릴 것 수심에 차누나.  
 湓州城外江水平 湓州城裏粟留鳴  
 湓州女子浣澣行 或荷或戴紛傾城 ...  
 淋漓一手去曬地 幫腰草綠紛縱橫  
 明朝雨落還事生 江隄插秧臨新晴  
 劇憐農興澣泥滓 便愁水冽手腕禰<sup>48)</sup> - <浣澣行>

하민/여성을 다룬 작품에서는 시인과 대상 사이에 얼마간 거리가 개재되어 있다. 반면 여성 삶을 초점화하여 직시한 작품들에서는 이 거리가 좁혀지고, 여성의 상황이나 정서가 더 세분화되어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여성에 대한 동정은 먼저 그들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체적 조건으로 향하며 그런 연약한 몸으로 노동을 하는 현실에 대해 연민의 눈길을 보낸다.<sup>49)</sup>

이런 생활체험의 내용은 보편적인 것인데 이학규는 이를 장소와 관련지어 지역의 현실, 여성 삶의 애환의 구체성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위 시에서는 ‘분주’(김해)를 앞 세 구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리듬감과 함께 지역의 정서를 증폭시켰다. 묘사에서는 시·청·축을 활용하여 김해 여성들이 빨래터로 몰려드는 장면, 빨래하는 모습을 선명한 입체적 화질로 그려냈다. “물 뚝뚝 떨어지는 손 햇볕에 말리는데, 풀빛 치마 이리저리 펼터이다.”와 같은 묘사는 빨래터의 여성들의 모습을 생생한 실감으로 재현해 준다. 그리고 시인은 내일 아침 비 내리면 다시 새 빨래거리가 생길 것을 걱정한다. 묘사는 섬세하고 아름답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생활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수심을 깊이 이해하고 쓴 시이다.

여성의 구체적인 생활체험은 아니지만 여성이라는 존재, 여성이 처한 사회(인식)적 상황으로 인한 불행한 처지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산유화>가 있다. ‘산유화’는 탄식과 슬픔을 공통으로 하지만 지역과 노랫말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sup>50)</sup> 이학규의 <산유화>는 흔히 열녀의 서사로 향유되는 향량 이야기를 시집으로부터 버림받아 물에 몸을 던지는 한 가련한 여성의 이야기로 구성해서 독자에게 들려준다.<sup>51)</sup>

이런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과 관련된 주된 정서는 슬픔, 수심, 원망, 그리움과 같은 것이다.(<전하산가>,

48) 『낙하생집』 5책, 因樹屋集, 「菴亭紀事詩」, <浣澣行>.

49) 위의 시, <盆山採菜詞>. “盆山好兒女, 力弱坐路歧.”; 같은 시, <種秧詞>. “小妹強扱幫, 力弱懷自時.”

50) 최재남, 「조선 후기 민요의 실상과 한시의 민풍 수용」, 『장르 교섭과 고전시가』, 월민, 1999, 109면.

51) 백원철(2005), 203면. 평등의식은 아니라 해도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보려는 자세라고 해석했다.

“悲哀怨慕”) 이학규는 이런 여성의 현실과 그 현실에 기인한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을 보냈다.<sup>52)</sup>

■ 다음은 여성에 초점을 맞추되 연민과 공감을 뛰어넘어 그 건강성과 민중적 역동성을 발휘하는 작품들을 살펴본다. 김해의 지역적 특성 상 하민들의 노동이 바닷가나 바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때 여성들은 바다 노동의 주체로서 그려진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어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은 물론이고,<sup>53)</sup> 김해의 지역경제가 가장 크게 의지하고 있는 염전에서서는 鹽戶나 攪沙를 모두 여성이 담당하고 짐을 지고 나르는 것도 여성의 몫이었다.<sup>54)</sup> 바다에서 노동하는 여성의 외모는 “맨발에 누런 수건[赤腳黃頭]”(금관기속시 제 49수), “붉은 머리털[紅髮女]”(鸞鹽詞)<sup>55)</sup>로 표현되고, 다음 시에서는 “하얀 살갓에 붉은 머리칼 도깨비 모습[霜膚赤髮髮 何異魑與魍]”으로 묘사된다.

여인은 돌아보며 웃고서는, 기쁜 듯이 태연하게 웃을 벗네.  
 칼을 들어 팔뚝에 메달고, 끈을 당겨서는 몸을 묶어 맨다네.  
 먼저 끈을 잡고 물속에 들어가면, 큰 바가지는 뚱뚱 물에 뜬다네.  
 마침내는 몸이 따라 들어가, 잠깐 사이 강 속의 오리처럼 보이네.  
 점점 머리 모습 드러나니, 고통스런 얼굴에 물기 흐르네.  
 휘익 하고 길게 한 번 내뿜으니, 이제야 고기 신세 면한 줄 알겠구나.  
 모래톱에 숯불을 피워 놓으니, 이마에 땀 솟으며 생기가 돈다네.  
 조용히 치마끈 정돈하고서, 다음엔 어린아이 젖 물린다네.

女乃顧之笑 怡狀脫裙襦  
 持刀縮手腕 牽繩約身軀  
 先將繩抵水 拍浮三石觚  
 終乃以身隨 瞥若江中鳧  
 稍稍頭容露 慘慘顏色沮  
 驕狀乃一喙 而今知免魚  
 罍中置炭火 顛泚方始蘇  
 從容整裙帶 次第提乳雛<sup>56)</sup> - <採鰈女>

40운의 장편고시이다. 이 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서두는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하여 바다에서 전복 캐는 노동의 위험과 고달픔을 말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해녀가 물속에 뛰어들어 전복을 캐 가지고 나와 아기에게 젖 물리는 내용, 마지막은 남편이 짚 팔아 돌아오는데 해녀들이 애써 캔 전복(살림밀천)을 고을 아전들이 서울 관에 실어 보낸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단락은 앞서 살펴본 하민/여성에서 살펴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발의식이 강하게 표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의 두 번째 단락에 주목할 때 작품과 여성에 대한 해석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다.

52) 위의 시, <泚泚行>. “南城客舍心緒振, 布裘百結何由更. 江洲鷓鴣不須驚, 時來江上還濯纓.”

53) 『낙하생집』 13책, 海榴菴集, 「金官紀俗詩」 제49수. “赤腳黃頭竹島娘, 撥沙撈蛤當餵糧. 鯉風十里罍罍盡, 一路踉蹌趁市忙.”

54) 『낙하생집』 18책, 卻是齋再集, <前浦行十四首>. 自註. “鹽戶攪沙, 皆用女, 女擔荷.”

55) 『낙하생집』 5책, 因樹屋集, 「苾亭紀事詩」, <鸞鹽詞>. “羨伊紅髮女, 持杷耕鱈田.”

56) 『낙하생집』 7책, 因樹屋集, <採鰈女>.

시인은 해녀가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 격이라고 했다. 이런 탄식과 염려와 달리, 해녀는 “돌아보며 웃고서는 태연하게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든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닷물 위로 둥둥 뜬 바가지, 오리 같은 모습일 뿐이다. 잠시 후 물 밖으로 물기에 젖은 해녀의 고통스러운 얼굴[慘慘顔色沮]이 솟아오른다. 해녀는 휘파람(숨비소리) 한 번 불고는 태연히 옷을 정돈하고 아기 젖을 물린다. 죽음 같은 고난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건강한 생명력은 아기 젖을 물리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착취대상으로서의 고통받는 나약하고 불쌍한 하민이 아니다. 제힘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蘇生하는 장면,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순간이다.

■ 이 시는 수탈당하는 하민/여성을 위한 사회적 고발 르뽀이지만, 생산활동의 주체, 소생하는 생명의 원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누런 수건, 붉은 머리칼, 도깨비 같은 모습은 바다 노동의 고단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지만, 이것은 연민의 대상이라기보다 강건한 노동자로서의 표지로 읽힌다.

도끼를 빼앗아 가는 부사를 막아서서 항변하는 여성을 읊은 <석신막지부행>은 이런 지배층에 대한 대결에서 여성이 저항의 주체로 묘사된다. 다음 절에서 이어 논하기로 한다.

#### 4.2. 여성 주체화 장치로서 스스로 말하기

■ 남성 발화도 자주 보이지만 여성 스스로 말하게 하기는 이학규 작품의 돋보이는 특징이다. 그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성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화자로 등장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시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활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아내들 제문이다.

이학규가 아내를 잃고 형편없이 살고 있을 때 마을 노파가 동네 혼자 사는 여인을 중매해 주었다. 이때 중매 장면도 노파의 말로 처리되었다.<sup>57)</sup> 이학규는 모친상을 당하고 위로하며 몸을 돌보라는 후실의 말에 “그대의 말은 맞는 말이고 그 마음은 나를 슬프게 했다오.[言或有理 情亦可哀]”라며 그 말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한다.

언젠가 당신이 내게 말했소. “한 살도 되기 전에  
병에 걸려 젖도 못 먹고 매도 많이 맞았었지요.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애와 같아서  
킴킴한 밤은 더욱 무서워하니,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어쩌다 내가 밤에 출타하여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등불을 켜고 기다렸는데 그 모습이 가여웠다고.  
저승 세계는 그을음처럼 칠흑일 터이니  
비처 줄 등불도 없고 같이 있을 사람도 없겠지요.<sup>58)</sup>

57) 위의 글. “이웃 마을에 여인 혼자 살고 있는데 어려서 가난하여 자수성이 이루었고 형제도 없고 친부모도 없는 몸으로 음험한 자들을 힘껏 물리쳤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해 남들 괘시를 막으십시오. 한 번 말을 건네 보시면 필시 들어줄 거요.”

58) 『낙하생집』 16책, 秋樹根齋集, <哭允母文>.

언젠가 후실은 학대를 받으며 어린시절을 보냈고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애처럼 킁킁한 밤을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귀담아 들었던 이학규는 이제 킁킁한 저승길을 홀로 가는 후실을 가여워한다. 여성으로 하여금 직접 자기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것은 아내 추도문에서도 동일하다.<sup>59)</sup> 두 아내에 대해 이학규는 모두 제문의 형식을 통해서 일생을 서술하면서 아내의 입을 빌려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에서 여성의 말하기는 시 안에서 발화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의 노래 자체를 시화함으로써 시 자체가 여성 말하기 형태로 구현된 것도 있다. 유배지에서 무료하고 자질구레한 일상에서 동네 사람들의 노랫가락은 들리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들리는 노래들을 한시화하거나 작품 안에 끌어들이었다.<sup>60)</sup> <답월사>,<sup>61)</sup> <야문 산유화>, 「고정기사시」의 <종양사><sup>62)</sup>·<답월사><sup>63)</sup>·<분산채채사> 등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쓰여졌다.

■ 민요시들은 주변부 여성들의 현실과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 말·노래는 상호 소통의 방식이며 그들과 주변 지역민들과의 유대의 방식이며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울려 퍼지게 하는 확장 장치이다. 이것은 문자문화(남성)에 대해 구술문화(여성)의 성격을 갖는다. 술집 노파와의 ‘너나 들이’, 시에 나타난 독백과 대화, 시에 수용된 지명, 장소 이름, 방언 등, 이학규는 주변부 언어에 넓은 관심을 가졌다. 주변부 언어는 공식언어의 뒤뜰기이며 그 자체로 리얼리티를 내포한다.<sup>64)</sup> 그리고 특별히 구술적 언어는 문자 밖에 존재하는 여성들(예컨대 가족 여성에서 후실<sup>65)</sup>)을 위한 것이다.

말하기는 여성의 목소리를 최대한 원소스에 가깝게 전달하려는 문학적 장치이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 첫째는 解冤이다. 그의 작품에는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여성은 ‘나’라는 1인칭으로 등장한다. <양가>의 본가 5장은 모내기 현장에서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나의 슬픔[儂悲]’, ‘나의 뜻[儂意]’과 같이 자기의 슬픔과 생각을 지칭하면서 여자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하고 님에 대한 원망과 투정을 보낸다.<sup>66)</sup>

기실 한과 원통함은 하민들의 갖고 있는 계급적 감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드러낸 사람이 이학규이다. 특히 하민 중에서도 여성은 n주변부로서 한과 원통함이 여러 겹으로 가중된다. 그 한과 원통함, 감정적 억압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여성 스스로 말하기-여성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 스스로 말하기는 해원의 문학적 장치이다.

59) 『낙하생집』 14책, 文漪堂集, <擬祭丁孺人文>.

60) 『낙하생집』 10책, 因樹屋集, <答>. “過午則爲夕陽所逼, 奔避屋後數處古樹陰下. 聽鄰人唱時世下山歌.”

61) 『낙하생집』 5책, 因樹屋集, 「菴亭紀事詩」, <蹋月詞>. “聞里兒聯聲互唱, 念其詞旨微婉, 有可採者, 遂演其意, 作此附于紀事之尾云.”

62) 『낙하생집』 5책, 因樹屋集, 「菴亭紀事詩」, <種秧詞>. “江城新雨過, 江沚聞女歌.”

63) 위의 시, <蹋月詞> 序. “本金官小吏裴姓, 失其名妻作. 月夕, 聞里兒聯聲互唱, 念其詞旨微婉, 有可採者, 遂演其意, 作此附于紀事之尾云.”

64) 하상일, 『제도적 현실비판과 주변부적 삶의 리얼리티-김중광 소설의 성과와 한계』, 『실천문학』 66, 실천문화사, 2002, 474면.

65) 이학규는 후실이 낳은 아이 이름을 ‘윤이’라고 지었다. “당신이 바로 윤이 엄마라오. 당신은 글자를 모르니 글로 쓰지 않고 ‘윤이 엄마’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오.” 『낙하생집』 16책, 秋樹根齋集, <哭允母文>.

66) 위의 시, 제1장. “哀哀乎父母! 生儂太不奇. 當日不生儂, 今日無儂悲.”; 제5장. “請將馬州秤, 秤汝憐儂意. 請將海倉斛, 量儂之恩義.”

메나리는 윗녘 강언덕에 피었고  
 지주비는 아랫녘 강가에 서있네.  
 수심에 찬 나무 하는 여인네  
 길게 탄식하며 누굴 향해 말하는가.  
 山有花上江陽 砥柱碑下江渚  
 愁愁愔愔采薪女 長傷嗟向誰語<sup>67)</sup> - 「영남악부」, <山有花>

흔히 정절의 서사로 향유되는 향랑 전설을 이학규는 원통함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해원의 서사로 만들었다.

■ 두 번째는 여성의 자기 존재 천명이다. 여성은 자기 언어로 발언함으로써 해원을 넘어 세상을 향해 자기 존재를 천명한다.

말을 걸어 부사에게 이르노니 “부사는 왜 그리 보기가 어렵소?  
 기뻐하신 일도 우리에게겐 혜택이 안 되고, 노한 일은 우리 살에서 피를 짜냈소.  
 집에서는 불 때는 일이 끊어졌는데, 우리들에게 다시 굶주리게 했대요.  
 오늘은 길이 이별하게 되었으니, 물건대 도끼는 가져가 무얼 했소!  
 보습을 만들었다면 만 개에 가깝고, 호미를 만들었어도 만 개가 될 터.  
 보습으로 금 나오는 독을 갈아 파고, 호미로는 은덩이를 캐낸 거요?  
 부사는 이제 어찌 생각하오!”  
 舉言謂府使 府使見何遲  
 喜亦不我惠 怒亦血我肌  
 當家絕樵爨 令我復調飢  
 今日將永別 問將斧底爲  
 爲犁近万枋 爲鋤應万枝  
 犁以穴金埒 鋤以出銀泥  
 府使復何思<sup>68)</sup> - <析薪莫持斧行> 8해

정조 연간에 부사가 도끼를 빼앗아 다 서울로 실어 보냈는데 그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부녀자 5, 6 명이 행차를 가로막고 도끼를 다 어디로 보냈냐며 따져 물으니 부사가 변명을 늘어놓다가 낭패를 보고 떠난 사건이 있었다. 김해부 사람들이 지금껏 이 사건을 전하며 말하고 있었는데 이학규가 이를 장편 악부체로 시화했다. 이학규는 시를 지어 ‘好事’를 전하고 이 지역의 風謠에 붙인다고 밝혔다.<sup>69)</sup>

■ 위 인용 부분은 이 시의 하이라이트-부사 행차를 가로막고 휘장을 들추며 따져 묻는 대목인데, 온전히 여성들의 말로써 구성되어 있다. 여성들은 1인칭[我] 화자이다. 조목조목 따져지며 부사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논리에 빈틈이 없고 기세가 거칠 것 없다. 이 여성들은 당 뒤에 늘어선 ‘妖姬’<sup>70)</sup>들과 대립 구도를 이룬

67) 『낙하생집』 6책, 「嶺南樂府」, <山有花>.

68) 『낙하생집』 7책, 因樹屋集, <析薪莫持斧行> 八解.

69) 위의 시, 서문. “府人至今言之不置. 於是, 賦析薪莫持斧行, 傳之好事. 以竊附於此方風謠之末.”

70) 위의 시. “堂堦吹大角, 堂後列妖姬.”

다. 요희들은 부사나 아전들과 같은 편으로 취급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상화된 여성의 부류로, 마치 배경처럼 처리되어 존재가 불명료하다.

■ 말하기는 여성 주체화 장치이다. 여성 스스로 말하기는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문학적 리얼리티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하소연과 해원을 넘어 항거로 행동화한다. 이때 여성들은 더 이상 주변부의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주변적인 것의 격상<sup>71)</sup>이다.

## 5. 결론: 여성과 주변부 양식

주변부 여성의 발견.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한 문학. 주변부 주체를 호명하는 양식. 공감과 진정성의 문학.

주변부 여성들의 삶에 공감하면서 여성 삶의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이름 없는 여성들이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주변적인 것을 격상시킨 것은 이학규 작품의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 대상화의 문제, 고발에 머물고 체제나 제도에 대한 근본적 비판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중심/주변부의 이항대립적 인식과 여전히 잔재한 중심 지향적 의식은 한계로 생각된다.

71) 구모룡(2006), 73면.

2023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낙하생 이학규, 학문과 문학의 재조명”

종합토론

토론문

# 정용건 선생님, 「이학규의 지역 학풍을 향한 시선과 그 振作 의지」에 대한 토론문

김종민(성균관대)

정용건 선생님의 이 발표문은 이학규의 시가 아닌 산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이학규 문학의 전모를 파악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토론의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이학규의 문학에 대해서는 그의 『영남악부』를 강독하였던 경험 외에는 잘 알고 있지 못하여 정 선생님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학규 연구 관련 여러 선생님들의 논저를 관심 있게 읽어온 소양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박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상한 관심 위에서, 그곳의 학문-풍속 진작과 교화를 목적으로 지은 작품군의 존재’에 주목한 데서 시작된 연구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의 사회현실을 체감하고 난 뒤 이학규가 기록한 글들은 사실 선행 연구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거론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김해의 사회현실에 대한 암울한 사회로부터 나온 비판적인 시각을 재조명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너머로 향한 이학규의 의식 변화의 양상을 포착하신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배인’에서 ‘김해인’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던 이학규의 내면의식과 행동양식을 선명하게 부각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낙후된 문화적 환경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이 이 지역의 학풍을 진작시키려는 자세로 나아갔음을 ‘(1) 학문 면려와 인재 육성, 2) 지역 인사의 발굴과 현양’이라는 두 지점으로 대별하고, 이 중 2)을 ‘(1) 소외된 지역 문사에 대한 시선, (2)전기류 작품 창작을 통한 孝義의 면려’로 나누어 기술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이 논문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1)과 (2)의 문구가 조금은 서로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듯해서 이 항들의 문구를 동일한 층위로 읽히도록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20여 년 가까이 김해에서 유배인으로 생활하는 동안 이학규가 느낀 열악한 문화적 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비판과 폄시, 부정적 시선’이 ‘관심과 애정’의 국면으로 점차 전환되어 나타난 행동으로 이 논문의 결론에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선 ‘폼시’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판’에서 ‘애정’으로 점차 바뀌어간 궤적을 혹시 연도를 특정해가며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발표문 3페이지 주석 11번의 원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李學達, 『洛下生集』, 「答」, “(진략) 其爲男子者, 有以才名噪一邑, 而考其實, 則無能爲應舉家, 無病詩文者, 惟會撒謊與賴債耳. (하략)”

“이 고을 남자에 대해 말하자면, 재주와 명성이 온 고을에 떠들썩한 자가 있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면 과거에 응시할 만한 사람이 없으며, 시문을 짓는 자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빚을 때먹기만을 알 뿐입니다.”(발표문에 제시한 번역문)

이것을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에서는 “(진략) 其爲男子者。有以才名噪一邑。而考其實則無能爲應舉家無病。詩文者。惟會撒謊與賴債耳. (하략)”로 구두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其爲男子者, 有以才名噪一邑, 而考其實, 則無能爲, 應舉家無病詩文者, 惟會撒謊與賴債耳.”로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 詩文을 병통으로 여길 줄 아는 이는 없고, 허황된 것을 떠벌리거나 빚을 때먹는 것만 알 뿐입니다.” 정도로 거칠게 옮겨 보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세 가지입니다. 유익한 글을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 이국진 선생님, 「이학규의 「感事三十四章」에 담긴 내용과 문학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김효정(단국대)

이국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학규의 시 「感事三十四章」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따른 문학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규는 24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시를 창작한 근기 남인계열 문인으로 정약용과 함께 19세기를 대표하는 문인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학규의 시세계는 다양한 시 양식과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그의 시문학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사삼십사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막바지에 창작된 「감사삼십사장」은 19세기 서울과 김해지역의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학규의 작품에는 세세하게 自註를 달아 놓은 경우가 매우 많은데 「감사삼십사장」에서도 이와 같은 창작 경향이 잘 나타나 있어 그의 박학적이고 고증적인 탐구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을 몇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2장에서 「감사삼십사장」의 내용을 6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를 제시하고 분석하셨습니다. 2장에서 인용한 시는 모두 24개로 전체 시의 약 70%의 시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시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를 표로 작성하여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항목화하여 서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내용별로 분류하는 것이 나머지 시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삼십사장」의 시들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장 4절의 부귀하고 이국적인 생활상이나 5절의 화려하고 이색적인 생활상을 묘사한 작품이 양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의 내용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두 개의 절로 구분해야 할지 하나의 절로 묶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학규가 「감사삼십사장」을 창작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창작 빈도수를 통해 유추할 수도 있지만 내용 면이나 깊이 면에서 이학규가 가장 집중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의 문학적 의미를 이학규의 실학적인 학문 자세와 현실주의적인 시창작 정신이 난숙한 경지에서 결합된 작품이라고 보셨는데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 작품의 문학적 의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은주 선생님, 「근기남인 실학파의 지식 계보와 이학규의 유서(類書) 창작」에 대한 토론문

오보라(퇴계학연구원)

정은주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이학규의 저술을 꾸준히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간 연구해 오신 내용을 토대로, 오늘 발표에서는 근기 남인 실학파의 계보 내에서 이학규의 유서(類書) 창작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18~19세기 유서 및 물명서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에 대해 몇 가지 궁금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1. 家學의 영향에 대하여

본 발표에서 이학규의 『동사일지』와 이가환의 『정헌쇄록』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가환이 물명서를 따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가환 역시 물명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정헌쇄록』이나 『잡설』에 물명 고증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학규의 『물명유해』에서도 이가환에게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되는데, 이러한 추측을 방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이학규의 실학적 저술과 『물명유해』의 관련성

이학규는 유배시기에 물명 고증과 관련된 시문을 다수 창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규가 詩에서 다룬 물명 고증(시의 내용 혹은 시의 自註에 내용 등)이 혹시 『물명유해』에 반영된 사례는 없는지요?

이학규의 『물명유해』와 마찬가지로 유서에 가까운 성격을 띤 물명서로는 유희의 『물명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희의 경우, 시문에 담긴 물명 고증 내용을 『물명고』에 그대로 채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학규의 경우에도, 그의 시문 창작과 『물명유해』 저술이 긴밀하게 연결된 지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물명유해』의 분류 방식과 관련하여

저는 『물명유해』의 분류 방식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명유해』는 천도부, 지도부, 금석부, 수부, 금부, 비충주충부, 어부, 인사부, 기용부, 고려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보면, ‘天·地·人·物’이라는 전통적인 유서의 카테고리 가운데 ‘物’의 영역에 해당하는 물명(人事·器用·書畫·飲食 등)이 『물명유해』에 특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사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 시기 물명서 중에 ‘物’의 영역이 확장된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학규의 『물명유해』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지요?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점은 이학규의 창작 환경입니다.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학규는 유배지에서

김해 지역의 풍토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명유해』에서 특히 ‘物’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학규의 개인적인 유배체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요?

『물명유해』에 보이는 분류 방식도 이학규의 지적 토대·지적 관심사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 4. 근기 남인 유서 창작의 맥락에서

본 발표문의 서론에서 유서 창작을 통해 근기 남인 지식인들의 지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학규의 유서 저술 창작은 근기 남인 지식인의 계보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 김하라 선생님, 「이학규(李學逵)의 『동사일지』(東事日知)와 유배지의 공부」에 대한 질의서

이현일(성균관대)

1.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저어되지만, 저는 토론자로 섭외되기 전까지 『동사일지』를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쭙어 볼 수 있는 문제도 이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하라 교수님의 발표문의 중심은 제2장 “문인(文人) 이학규(李學逵)의 정체성과 그의 가계-김해(金海) 이전을 중심으로”와 제3장 “유배지의 책 읽기와 책 쓰기”입니다. 제2장이 일종의 ‘예비적 고찰’이라면 제3장이 제목에 걸맞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사 전공자로서 개인적으로 제2장을 훨씬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18세기 후반 한양의 남인 詩壇의 한 단면을 족보와 관련 시문 및 『추안 급 국안』 등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재구해 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학규에 대해서 더 규모가 큰 주제를 연구 중이 아니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2. 員嶠는 우리말 ‘등그재’를 한문식 지명으로 옮긴 것이며, 漢芹洞과 貞洞은 ‘義州路(統一路)’를 사이에 두고 갈려 있지만, 걸어서 5분 거리의 이웃 마을입니다. 민선 시장들과 건설사의 활약으로 ‘桑田碧海’가 이루어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이곳저곳 들어서서 오백년 넘은 마을들이 하루아침에 일산·분당처럼 변했지만, 대략 25년 전만 해도 예전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문과 같은 연구들이 진작 이루어지고 널리 공유되었다라면, 도심 난개발을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판 3>보다 조금 북쪽, 이 부근의 19세기 적 모습을 제일 정밀하고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京畿監營圖>(리움 소장)입니다.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작품인 용산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이 달 30일까지 열리는 <조선, 병풍의 나라 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년 동안 세 번 정도 세상에 모습을 비춘 것 같습니다.

3. 『東史日知』라는 저작의 제목은 顧炎武의 『日知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첫 기사인 ‘三韓疆域’에 나오는 “按大明天啓初, 失遼陽以後, 章奏之文, 遂有謂遼人馬三韓者外之也. 清人顧炎武譏遼人之自稱三韓以自外也.”는 『日知錄』 卷29, 「外國」의 기사에 근거한 듯도 합니다. 자세한 경위는 더 추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開泰中, 聖宗(인용자-遼 聖宗)伐高麗, 俘三國之遺人置縣. 據此, 乃俘三國之人置縣於內地, 而取三韓之名耳. 今人乃謂遼東爲三韓, 是以內地而目之外國也. 原其故, 本於天啓初失遼陽, 以後章奏之文遂有謂遼人爲三韓者, 外之也. 今遼人乃以之自稱, 夫亦自外也已.”(顧炎武 著, 黃汝成 集釋, 樂保羣, 呂宗力 校點, 『日知錄集釋』, 上海古籍出版社, 2006, 1669~1670면)

4. 7면: ‘돌 틈을 울리며 흐르는 시냇물 소리’라든가 ‘나무를 휘감고 지나는 바람 소리’라는 이용휴의 아름다운 평어(評語)는 현전하지 않는 이응훈 시의 그윽한 의경(意境)을 상상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 이런 종류의 品評은 시 작품이 일정 수량 이상 전해져서 직접 읽어 보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가령 이용휴의 학식 및 문학적 경험과 이현일의 학식 및 문학적 경험 사이에는 넘기 힘든 큰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세상 사람들 기호처럼 唐詩를 숭상하는 시인들의 시가 그나마 이해하기 쉽고 논문 쓰기 쉽습니다. 박지원의 「菱洋詩集序」와 朴宗善의 『菱洋詩集』의 경우.

5. 11~12면: ‘曖昧’와 ‘有隙’을 ‘애먼’과 ‘티격을 두다’로 번역하고 각각 각주 39), 각주 41)을 붙였습니다. 한문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한 문장의 한국어에 ‘自註’를 달아 설명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다만 ‘티격태격’의 ‘티격’이 어엿한 명사인 줄 권이 다 되도록 몰랐습니다.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12면에 인용된 『추안 급 급안』에 나오는 이학규의 증언-목만중이 이용휴의 문학적 재능을 시기하여 모함했다-은 솔직히 100% 신뢰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역사를 보는 시각이 정약용, 이가환, 이학규와 같은 信西派는 善人이고, 睦萬中, 姜浚欽, 李基慶 같은 攻西派는 惡人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은 후세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睦萬中과 丁若鏞의 경우 및 李家煥과 姜浚欽의 경우.

개인적으로 남인 시단에서 18세기에 활약한 시인들 중에 이용휴, 신광수 다음으로 중요한 시인이 목만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전공한 분들이 가해자에게도 일종의 ‘연구사적 解禁’을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7. 20면 『高麗史』의 보급 문제. 19세기 전반기에 경화세족들 사이에서도 『고려사』를 구하기 힘들니, 지방의 방백들이 이 책을 복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朱彝尊 같은 清代 문인이 『고려사』를 높이 평가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는데, 洪奭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고려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부정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현일, 「자하(紫霞) 신위(申緯)와의 대화-신석우(申錫愚), 『자하연담(紫霞軟譚)』-」, 『문헌과 해석』 23, 문헌과해석사, 123~144면 참조.)

# 김보경 선생님, 「이학규 작품에 나타난 주변부 삶과 여성」에 대한 토론문

손혜리(한국학중앙연구원)

김보경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학규가 24년 동안 경상도 김해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문 중 ‘중심/주변’의 구도 하에 ‘김해 지역의 여성’을 ‘주변의 주변(부)’으로 인식하고 논의한 글입니다. 이 글의 구도와 논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논고의 완성성과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거칠게 읽고 오독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의 적절성

머리말과 결언을 정리해 보면, 선생님의 관심사는 주변부 여성의 발견과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한 문학이며, 2~4장의 서술도 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부 삶은 이를 서술하기 위한 기본 배경이 되는 셈이니, 여성을 보다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어떠신지요?

## 2. 논의/논지의 예각화

머리말에서, 이 글은 이학규의 시문에 나타난 여성들을 고찰하되 이를 주변부(삶)라는 문제 속에서 접근하고, 나아가 여성과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 그것이 갖는 미학적 의미, 문학사적 함의를 탐색하는 데까지 나아가갈 생각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은, 예를 들면 8면에서 ‘여성에 대한 역할 규정과 직분 유기에 대한 비판을 보면 이학규의 여성 인식을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 대상화, 여성 비하적 발언은 위협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주의되는 것은 이런 작품은 대체로 기속시류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와 12면에서 ‘민요시들은 주변부 여성들의 현실과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라는 선에서 서술이 그치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층위야 다양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통해 미학적 의미와 문학사적 함의를 탐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3. 시선의 초점, 안과 밖

선생님께서서는 이학규가 여성(삶)을 시선의 초점 바깥에 두는가 안에 두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시선의 초점 바깥은 무엇이고 안은 무엇인지요? 3장의 2절, 여성을

대상화하되 작가의 초점에서 비껴나 있는 경우와 4장 여성(삶)의 초점화, 해원과 격상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초점의 안과 밖을 대등하게 서술한 것인지 초점의 안을 강조하기 위해 밖을 서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경기사시」의 ‘破甌’와 「기민」 등에서 남성의 시선을 초점의 밖이라는 구도 하에 서술한 것은 오히려 논지를 집약적으로 전개하는데 방해가 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 4. 중심주의적 사유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학규는 서울에서도 노른자에 살지 않았고 유복자로 태어나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으며, 그 선조들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집안 자손들은 ‘龜閭’에서 성장한 ‘貧賤’한 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스스로 주변부 의식을 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배를 통해 중심주의적 사유에서 주변부에 대한 관심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학규의 중심주의적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요? 이에 연동되는 질문입니다. 주변부는 분열성과 함께 역동성, 생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분열성’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실학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실학학회 실학박물관 공동 학술대회 “낙하생 이학규, 학문과 문학의 재조명”

발행처 \_ 한국실학학회

발행일 \_ 2023년 4월 8일

홈페이지 \_ <http://www.silhak.or.kr>

전자우편 \_ [kosilhak@naver.com](mailto:kosilhak@naver.com)